

보도참고자료
국정감사 종합평가
2026.1. 5.(294장)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화.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우) (우.0850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12 코오롱에스텐 10층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1. 양심과 표현의 자유보장(민주) // 인권최우선 평등한 법치(공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국정감사는, 6.25전쟁과 독재를 극복하면서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내고 세계5위의 선진대국이 되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서둘러 선진국처럼 365일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하되 국정감사의 참기능을 회복하지 않으면 부패공화국을 면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감금논란으로 시작해

김현지 부속실장 국정농단논란으로 종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22대국회 2차년도), 최악 F학점 국리민복상(위원장 2명, 위원 73명) 선정

■ 2025년도 국정감사를 최악의 F학점 국정감사로 평가하는 이유

1. 최악의 삼권 분립 위기 초래
2. 국정감사 준비 부족
3.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한대립
4. 반발만 초래한 '조희대' 국감
5. 무기력한 '김현지 카더라' 국감
6. 정책승부가 아닌 파행만 초래
7. 최악의 저질 행태와 유튜브 쇼츠용 장면 연출
8. 국익과 민생사안은 등한 내지 미흡
9. 국회의 최고 권한 행사, 스스로 포기 <22쪽>

■ 2025년도 국정감사(제22대 국회 2차년도)의 특징

1. 무소불위 상임위원장(?) - 교섭단체 간사없는 국정감사로 법사위원회 매일 파행
2. 국감 사상 초유로 국정감사기간 중 상임위원장 자녀의 결혼식과 낫뜨거운 국정감사장에서의 진실공방
3. 짧은 국감기간(2024년도 143일→2025년도 139일로 4일 줄어) 중 역대 최다의 피감기관(813개 기관, 2024년 802개 기관보다도 많아)
4. 여당의 중진의원 7명이 장관(피감기관장)으로 활동
5. 김현지는 누구(만사현통 vs. 일잘하는 1급공무원)
6. 위원장의 감사위원 발언권 제한, 퇴장명령 남발
7. 국정감사장에 증인 참고인 불러 대질신문장으로 변질
8. 캄보디아 사태로 인한 현장 국정감사와 감사위원의 감사 중 캄보디아 방문
9. 국방위 중국 서해구조물, 교육위 공자학원 등 중국(인)관련 질의 다수 <26쪽>

▲ 국정감사의 기능 왜곡과 기능 마비 심각

- 위원장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권 박탈, 헌법기관의 기능 정지(?)
- 국회의원이 아닌 수사관이 되어 감사가 아닌 대질수사로 전락
- 위원장 원인(감사 중 딸결혼식, 기자추방) 등으로 파행까지 초래(과방위)

▲ 여전히 많은 일반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 2025년 일반증인 517명, 참고인 250명, 동행명령 발부 10건
- ▲ 국민들에게 국감활약을 알리는 데 소홀
 - 의원 홈페이지 **국감자료 게시 저조**. 홈페이지 국감자료 게시율은 평균 48.82%에 불과하고 행안위의 경우 30.82%로 최저
- ▲ 감시의 눈에서 멀어지면 감사 소홀
 - 지방과 해외감사 및 비공개 정보 등에서는 2시간 미만 초미니 감사가 총 15회
- ▲ 동시수감 기관이 10개 이상인 **상임위원회는 12개**
과방위는 하루에 53개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10.24)
 - 동시수감 기관이 10개 이상인 경우 28일
 - **기후노동위는** 기상청 등 **17개 피감기관에 대해 1시간 47분** 동안 감사(10.17)
 - **기재위는** 대전국세청 등 **10개 피감기관에 대해 3시간 31분** 동안 감사(10.23)
- ▲ 11일간 국감에 11일 파행 / 매일 파행(법사위)
 - 위원장과 야당의 충돌 등 **파행 원인도 가지가지**
 - **과방위는 위원장 사퇴 촉구** 등 파행 / 반쪽 시찰도
- ▲ 언필칭 ‘내란’ 국감: 전상임위에서 1,243회 거론(12.24.까지 올라온 회의록)
 가장 많이 언급 김병주 국방위원 등 118명의 감사위원《민주당 의원의 경우 166인 중 50.8% 사용》이 ‘내란’ 용어를 사용
- ▲ ‘김현지’ 카더라 국감 : 국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감(107회 거명)
 법사위 법무부 국감(117회 거명) 등 27곳 국정감사장에서 429회 거명
 - 가장 많이 거명한 운영위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 등 54명이 거명
- ▲ **마이크 중단횟수 전체 질의건수 대비 약 61.01%**
 질의횟수는 4,125회, 마이크중단 횟수는 2,503회(75개 국감장만 분석)
- ▲ 양원제 국가의 상원격인 법사위는 첫날 ‘조희대’ 부터 파행시작 마지막 종합감사까지도 ‘네탓공방’ 파행
 《소란 속 ‘조용히(하세요)’ 만 늘어(지난해 대법원 국감 7회→ 올해 110회)》

1. **[평가개요]** 지난 27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평가해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은 2025년 제22대 국회(22-2) 국정감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전방위로 모니터링하여 국감을 정밀 종합평가한다.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은 평가를 마치면서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Lord Acton)”며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우리 NGO모니터단도 국회가 이러한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국가기관 구성을 이루는 핵심인데, 이 한 표의 신성한 행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6.3 지방선거 대비 부작용 우려있는 사전투표·개표방식은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국감성적]** 국감NGO모니터단은 제22대 국회 2년차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 1988년 부활된 지 38년째 국정감사, 여야 정권교체 후의 여대야소 첫번째 국감인 금년도(22-2) 국정감사를 **“F학점” 국감**으로 평가한다.

(1) 집권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잔재’ 없애기 위한 사법개혁(?)

국정감사를 전개하였고, 전 상임위원회에서 '내란 청산'국감을 표방하였으며, R&D 예산 삭감 논란, 관저 이전 의혹, 체코 원전, 대왕고래(에너지 개발) 의혹 등이 거론되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추가적으로 밝혀내는 데는 약했다.

또, 당대표(정청래 의원)까지 출석하여 매번 질의를 하였지만, 소속 전체의원의 질의횟수는 2,945회로 지난해보다 **722회**나 줄었고, 질의시간은 329시간 23분 23초로 지난해의 402시간 34분 19초보다 **73시간 10분 56초** 줄었다. 국무총리와 장관 겸임 의원 등 실제 활동 의원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집권여당이 되면서 국감에 대한 열의가 떨어졌다고 보았다.(국민의힘은 겨우 3시간 줄어드는 데 그침)

<<교섭단체의 2025년도와 2024년도 국정감사 질의응답시간 및 질의횟수 비교>>

정당	2025년도		2024년도	
	총질의응답횟수	총질의응답시간	총질의응답횟수	총질의응답시간
더불어민주당	2945	329:23:23	3667	402:34:19
국민의힘	1978	216:38:03	2050	219:27:20

(2)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감직전 및 도중 불거져 나온 국정자원 화재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미흡, 특검 중 양평공무원 사망사건, 캄보디아 사태, 국감 중 공분을 산 10.15 부동산대책, 지연된 한미관세협상 등 이재명 새정부의 정책을 질타할 호재가 많았음에도, 제대로 부각하는 데에는 미흡했다. 또한 선명한 야당의 모습도 발휘하지 못한 채 국감장 고성, 항의 등 밖에 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다만 야당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국정감사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태도는 지난해보다 나아졌다고 보았다.

(3) 비교섭 단체의 경우에는 국감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친여성향 비교섭의 경우에는 여당의 노선과 별다름이 없었고, 기타 비교섭도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참고>> 제20대 국회 첫째 국정감사는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F'학점**을 받았고,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기승전 **조국' 국감으로 'D'학점**이었고, 21대 국회 1차년도는 **코로나(COVID-19) 첫 국정감사로 'D'학점**이었고, 2차년도는 **'대장동' 국감으로 'C-'학점**이었으며, 3차년도 국감 역시 **팬덤국감으로 'D'학점**이었으며 4차년도 "R&D", "문정부 통계 조작", "이재명 수사" 국감 "**C학점**"이었으며, 제22대 국회 1차년도는 D-국정감사였음.

3. [국감특색 등]

(1) 내용적 특색 : 전 현정부에 대한 여야당 공수의 교차와 6.3 지방선거 대비 국감

- 1) **이재명 새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지적** : 전국민 민생지원금의 실효성, 한미관세협상 과정의 불투명성과 지연 및 그 협상내용, 국정자원 화재와 대통령의 예능 출연, 특검수사중 공무원 자살, 캄보디아 사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논란, 10.15 부동산대책 등 불거져 나온 이슈들이 많이 대두되었다.
- 2)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및 12.3 계엄에 대한 비판적 점검** : 용산관저 이전, 대통령부인 관련 이슈에 대한 조명,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평가, R&D 예산삭감, 방송장악 의혹, 대왕고래, 원전 수출 등에 대한 평가 등이 조명되었다.
- 3)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등 검찰과 법원의 수사, 재판과정 실체규명** : 거대 집권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내세워 증인채택 등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말끔한 정리보다는 '재판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거나, 당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을 한 법제처장의 '무죄'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야기되었다.
- 4) **6.3지방선거를 겨냥한 현 지방자치단체장 흠집내기(저평가)** : 명태균 관련 의혹, 12.3 계엄 관련 의혹 등 지방선거에 휘발성 있는 의혹 위주로 감사가 진행되었다.

(2) 형식적 특징 : 위원장 이슈와, 상임위원장과 야당의 갈등

1) 상임위원장의 퇴장명령, 발언권 제한 등 월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중에 나온 의원의 질의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퇴장 명령, 다수결 밀어붙이기, 야당 간사 안건도 상정 안 시키기, 마이크 독점, 대법원장 감금에 해당하는 이석 불허, 기자 추방, 모욕주기식 증인·참고인 퇴장 명령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했다(박수민 의원, 국회운영위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2025.11.5).

2) 국감기간 중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과 사퇴 촉구 등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선 박정훈 의원은 위원장을 의원이라고 부르면서 18가지 잘못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국정감사기간 중 위원장 이슈가 논란이 되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퇴 촉구를 하면서 퇴장하는 퍼포먼스 등 파행했다.

3) 국정감사의 고질적인 병폐도 여전

첫째, 지난해와 같이 특정안건에 대해 말꼬리 잡기와 끼워들기, 의원간 고성은 여전하였다. **운영위(3개 국감장 모두, 20회), 법사위(17회) 등 7개 상임위의 13개 국감장에서 49회 소란이** 벌어졌다. (12. 24.까지 올라온 회의록 분석)

둘째, 감사준비, 자료준비를 이유로 휴감하면서 두 세 차례 나눠서 해야 할 것을 하루에 몰아 국감을 하고 현장 시찰까지 계속하였다.

셋째, 국정감사는 정부의 예산낭비, 부정비리, 국정운영의 제도적 미비 등 국정전반을 점검해서 차년도 예산심사와 입법에 반영하는 헌법상의 막중한 권한·책무임에도 예산낭비, 부정비리 지적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듯이 대질신문하는 정쟁국감**이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국정감사의 종합판으로 모든 현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11.6)는 김현지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다가 파행을 하였으며 정회 중에는 야당 의원이 야당 원내대표에게 배치기하여 논란이 벌어졌다.

4) 상임위원장의 질의횟수 및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원평균질의시간보다 마이크사용 늘어 3배 이상만 13곳(106개 영상회의록 분석)

«의원 평균질의응답시간보다 위원장이 3배 이상 마이크를 점유했던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의원평균질의 응답시간(A)	위원장 시간(B)	비율(B/A)
법제사법	2025-10-24	법제처	0:06:55	0:31:43	4.5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0-14	방송미디어통신위	0:21:17	1:29:36	4.21
국토교통	2025-10-21	한국철도공사	0:09:37	0:37:54	3.94
법제사법	2025-10-17	군사법원	0:10:52	0:42:21	3.90
법제사법	2025-10-27	대검찰청	0:19:00	1:13:31	3.8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5-10-20	한국석유공사	0:14:15	0:54:53	3.85
법제사법	2025-10-30	법무부	0:18:57	1:11:37	3.78
법제사법	2025-10-17	헌법재판소	0:06:42	0:24:44	3.69
국토교통	2025-10-29	국토교통부	0:15:07	0:51:04	3.3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0-23	한국방송공사	0:19:06	1:03:09	3.31
법제사법	2025-10-23	서울고등검찰청	0:19:01	0:59:43	3.14
법제사법	2025-10-13	대법원	0:17:58	0:54:10	3.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0-30	방송미디어통신위	0:22:59	1:08:54	3.00

4. [의원평가] 제22대 국회의 두번째 국정감사에서 정책국감을 전개했다고 평가된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원 수는 이번 국정감사가 최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서도 **포지티브** 운동을 하는 본 모니터단의 성격과 노선에 비추어, 지난해에 비해 약간 줄어든 수준으로, 6선의 조정식 의원, 5선의 김기현, 윤상현 의원 등 다선 중진위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원의 25%를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 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평균질의횟수와 질의응답시간(본질의+보충질의+추가질의 시간과 횟수의 평균), 질의내용 전체를 종합수집하였다. 내용면에서는 예산집행관련 문제점 지적, 부정비리 지적, 정책관련 문제점 지적,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내역 점검여부를 5단계(아주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아주못함과 해당사항없음 1점)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또한, 평균질의 횟수 이상 질의, 대안 또는 법과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은 가점하고, 중복질의(발전 없이 같은 내용을 중복 질의한 경우) 질의 매너(막말, 소리 지르기, 질의시간 안지키기, 상대방 의원 비난) 감사매너(끼워들기, 잡담, 딴짓) 국정감사 방해(파행유발,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국감방해) 등은 감점하였고, 추천 및 지적의 경우에는 ① 적시성(필요성), ② 실효성(논리성), ③ 충실성, ④ 국익/공익성, ⑤ 공정성 등의 기준에 따랐다.
- 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의 경우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잘한 의원들을 1차 선발(50%)한 후 선발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 교차하여 평가하였고(예: 한 상임위원회에서 A, B, C, D의원들이 추천된 경우 AB, AC, AD, BC, BD, CD의 질의를 비교하여 평가함),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모니터단에서 모니터·분석·확보한 자료와 맞는지 내용을 비교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국감선정 원칙대로 국감기간 중 국감과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하고, 국감불참 2일 이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국감우수의원(국리민복상)은 각 상임위별 상위 25%내에서 선정하였다. 겸임 상임위의 경우에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의원 중에서 선정하였다.
- 다. 이번 평가에서 모범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이었던 점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
- 라. 이번 우수 상임위원장 평가에서는 위원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비중있게 평가하였고, 날카로운 정책질의와 모니터단 협조 등 국감 공개원칙도 실질적으로 지킨 3선의 성일중 국방위원장(국힘)과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을 선정하였다.
- 마. 국리민복상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탄핵과 정권교체 등 이번 국감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국감이 원래 야당의 시간'이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반복(?) 수준이었고, 국정감사 직전 및 국감 중 터진 새정부 이슈에 대해 소극적, 방어적 태도를 취해 상대적으로 야당의원들이 돋보인 것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되었다.

5. [국감개선] 제22대국회 3차년도 국감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돼야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12.11. 본 모니터단의 제안과 유사한 개선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봄>> 27년 동안 지적하였지만, 제22대 국회 1차년도에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고질적인 병폐인데, 제22대 국회 3차년도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가.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질의한 의원이 그 내용이 시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하고, 복합적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시정조치팀'가동, 국회내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시정조치 사항 이행을 '실효적으로 평가하는 조직 구성' 등 국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국감지적사항을 묵살해온 국정감사의 적폐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한다.
- 나.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회 전 30일), 못 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3.21.>"라고 하고 있는 바, '정기 집회일 이전에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원칙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면 국회부터 원칙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할 조항이면 원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다.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제22대 국회에서도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인 2020년도 화상국정감사를 실시해 아주 효율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잘 보장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이어 2022년에도 코로나 19 팬데믹 중에 해외 현지 국감을 실시했다. 2023년도에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며, 2024년도와 2025년도에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캄보디아 사태처럼 **문제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제22대 국회의 제3차 국감이라도 해외현지 국정감사가 아닌 화상 국정감사를 통해 지금껏 문제가 되고 있는 **외유형 국정감사라는 비난과 비용 낭비, 국감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한 것은 문제이다. 매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에 거부나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료요구의 한도와 범위를 제대로 하여 정말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는 막아야 한다.

마.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감 종식해야

감사일정이 139일(2024년도 142일, 2023년도 138일)로 촉박한 가운데 813개(2024년도 802개, 2023년도 791개, 2022년도 783개, 2021년도 745개, 2020년 705개, 2019년 788개)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졌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제22대 국회 3차년도 부터라도 피감기관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저인망식 피감기관 선정보다는 문제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종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을 선정해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6. 대학생모니터들이 본 2025년도 국정감사

(1) 국정감사 이래서 실망

- 김○○(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미국 비판 중심의 감정적 질의로 균형성 부족. 외교 현실 고려 없이 비판 위주로 진행되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졌다. / 신○○(서울대) 다른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깨어들거나 질의 과정에서 피감기관장을 범죄인 취급하듯 고압적인 어투로 수사하는 듯하였다. / 강○○(연세대) 질의주제가 중복되어 타 의원의 질의 내용을 녹음해서 하는 듯 실효성 없는 감사로 국민의 시간을 허비했다. / 김○○(서울대) 철저한 준비로 피감기관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언성을 높여서 공격형 발언을 일삼았고, 정밀한 수치로 따지기 보다는 감정적인 언사로 피감기관을 압박했다. / 장○○(성균관대) 의혹이나 예산 특혜 등 기관의 근본적인 부정비리 문제에 대한 접근이 미흡했고, 질의의 범위가 지역 사업에 국한되어 전반적인 감사 실효성이 낮았다. / 전○○(서강대) 내년 선거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지역 현안에 치중된 질의면서, 시청각 자료나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없었다. / 홍○○(카이스트) 질의를 가속도를 붙여 하면서 증인 및 참고인의 답변을 듣지 않은 채 자극적인 언사로 과학기술현안이 동떨어진 질의를 많이 하였다. / 김○○(연세대) 다른 의원의 질의 중에는 자리를 뜨면서 감사진행을 방해하였다. / 기타로 두 번의 질의 시간 동안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입장을 표명하고 다른 정당에 대한 공격적 발언이 주를 이뤘다. 매너 또한 지키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한 질문의 요지가

없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 되풀이 하는 모습, 지검장 증인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함은 이해하지만, 과도하게 욕박지르고, 답변 기회조차 안 주거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 장관의 특정 종교 축사와 같이 정책적인 질의보다 정치적인 질의를 하며, 방사청과 방첩사 간의 불법 정보 공유 및 감시에 관하여 예민한 사항은 맞으나 질의를 빙자하여 방사청장의 비리사실을 단정지어 말하는 것 같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2) 그럼에도 이런 점은 희망

- 김○○(연세대) 그저 준비한 자료를 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숙지가 잘 된 상태에서 질의하여, 청자로 하여금 질의 내용 이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 강○○(서울대) 중립성을 어느 정도 지키며 정쟁에 관한 사안이라도 특정 정당을 폄하하지 않고 감사 기관에 대해 지적할 부분을 지적했다. / 윤○○(고려대)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중국인 투표권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면서 선거관리주체인 선관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신뢰성있는 정책질의를 하였다. / 백○○(한양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면서, 정권교체 기라더라도 전문성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피감기관을 압도하였다. 이○○(서울대)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관리를 하면서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 하○○(동국대)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겠다”는 발언처럼, 정치적 공방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하였다. 한강버스의 효율성, 노후 하수 문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요점 위주로 짚어내며 서울시정의 실질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양○○(한국외대) 주택 정책 현안에 대해서 정곡을 치르는 질의를 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법한 내용을 질의하였다. / 김○○(경희대) 실거래가 표본과 호가 표본을 주간 통계와 월간 통계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제안을 하고, 이를 영국과 관련한 예시를 들어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 양○○(서울대) 공수처 탄생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성과없는 모습을 지적하고, 공수처의 권력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주문하는 모습이 좋았다. / 엄○한(고려대) 응급의료취약지의 현황에 대해 시군구로 지정된다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며 요구한 점이 인상 깊었다.

7. 모니터 보고와 통계로 보는 2025년도 국정감사

«2025년도 '김현지' 거명(5회 이상) 감사위원 현황»

의원명	위원회	거명 횟수
주진우	운영/법제사법	66
곽규택	운영/법제사법	42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7
박충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4
김승수	문화체육관광	24
나경원	법제사법	19
박준태	법제사법	19
강명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6
유상범	운영/기획재정	13
전용기	운영/국토교통	12
서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1
서지영	운영/교육	10
신동욱	법제사법	9
송석준	법제사법	9
김은혜	운영/국토교통	8

의원명	위원회	거명 횟수
박지원	법제사법	8
전진숙	운영/보건복지	7
서범수	행정안전	6
박수민	운영/행정안전	5
전현희	법제사법	5
박정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5

※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 10개 위원회 27곳 국감장에서 429회 거명, 54명의 국회의원이'거명'- 주진우 의원이 최다
 <<2025.12.24.까지 올라온 회의록 기준>>

<<'내란' 용어가 거론된 2025년도 국정감사장 현황>>

(2025년 12월 24일까지 등재된 회의록 기준)

위원회	'내란'이 나온 국정감사장	사용횟수	조사회의록수
국방	6	394	6
법제사법	5	369	5
국회운영	3	143	3
행정안전	8	67	8
보건복지	7	66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4	55	4
정무	4	43	5
기획재정	7	28	7
교육	4	17	4
기후에너지환경노동	3	16	5
외교통일	3	14	3
문화체육관광	3	11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6	9	6
국토교통	2	7	7
외교통일(미주반)	2	2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	1	4
성평등가족	1	1	1
외교통일(아주반)	0	0	2
외교통일(구주반)	0	0	1
국토교통(지방1반)	0	0	1
국토교통(지방2반)	0	0	1
계	69	1243	89

<<'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한 국회의원 현황>>

의원명	위원회	'내란'용어 사용횟수
김병주	국방	127
박지원	법제사법	65
서미화	보건복지/운영	50
추미애	법제사법	47
박선원	국방	44
황명선	국방	41
정청래	국방	40
성일중	국방	37

의원명	위원회	'내란'용어 사용횟수
전현희	법제사법	35
김우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33
최혁진	법제사법	32
나경원	법제사법	31
이수진	보건복지	28
김용민	법제사법	24

«'내란'용어를 사용한 국회의원의 정당별 현황»

정당	의원수
더불어민주당	84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6
기타/무소속	6

※ 연필창 '내란' 국감 : '내란'용어 16개 위원회에서 1,243회, 118명의 국회의원 '내란'용어 사용 - 김병주 의원이 최다, 더불어민주당 166명 중 50.6%인 84명 '내란'용어 사용

«2025년도 국정감사 출석요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수 현황»

(2025년도 상임위 전체회의록 기준)

위원회	증인	참고인	고발	동행명령 발부
법제사법	95	52	11	3
정무	32	10	0	0
기획재정	6	6	0	0
교육	5	5	0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26	56	0	0
외교통일	0	2	0	0
국방	5	1	0	0
행정안전	93	22	1	1
문화체육관광	42	20	0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39	30	0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7	12	0	0
보건복지	13	40	0	0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7	10	0	0
국토교통	27	10	0	0
국회운영	0	0	0	0
성평등가족	0	4	0	0
계	517	280	12	10

«2025년도 국회에 등재된 개인 홈페이지에 국정감사자료 게시한 현황»

(조사일 : 2025.11.1 조사, 국회홈페이지 의원 안내)

위원회	의원수	국정감사자료 게시 의원수	게시율(%)
법제사법	18	7	38.89%
정무	24	14	58.33%
기획재정	26	14	53.85%
교육	16	10	62.5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6	30.00%

위원회	위원수	국정감사자료 게시 의원수	게시율(%)
외교통일	21	9	42.86%
국방	15	8	53.33%
행정안전	22	7	31.82%
문화체육관광	16	10	62.5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7	36.8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0	19	63.33%
보건복지	24	14	58.33%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6	7	43.75%
국토교통	30	13	43.33%
계	297	145	48.82%

«감사시간이 2시간 미만인 2025년도 국정감사 현황(짧은 순)»

(일자별 국회공보 기준)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장소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정보	11/05	사이버작전사령부	국회	16:18:00	17:22:00	1:04:00
행정안전(지방1반)	10/28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14:20:00	15:26:00	1:06:00
행정안전(지방1반)	10/27	충청남도경찰청	충남경찰청	16:11:00	17:31:00	1:20:00
행정안전(지방1반)	10/20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15:32:00	16:58:00	1:26:00
행정안전(지방2반)	10/24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14:02:00	15:31:00	1:29:00
행정안전(지방2반)	10/28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14:33:00	16:05:00	1:32:00
행정안전(지방2반)	10/20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	14:31:00	16:03:00	1:32:00
교육(지방1반)	10/23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10:02:00	11:40:00	1:38:00
행정안전(지방1반)	10/24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15:20:00	17:01:00	1:41:00
교육(지방1반)	10/23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대학교	13:02:00	14:45:00	1:43:00
행정안전(지방2반)	10/27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14:42:00	16:28:00	1:46:00
외교통일(구주반)	10/22	주모르코대사관	주모르코대사관	10:00:00	11:46:00	1:46: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17	기상청	국회	10:04:00	11:51:00	1:47:00
정보	11/05	국군방첩사령부	국회	14:20:00	16:07:00	1:47:00
교육(지방2반)	10/23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교육청	10:16:00	12:10:00	1:54:00

«2025년도 국정감사 10개 이상 동시수감 기관의 감사현황(많은순)»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수감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2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3	10:02:00	20:04:00	10:02: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2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31	10:07:00	18:54:00	8:47:00
국방	10/13	국방부	29	10:07:00	22:08:00	12:01:00
정무	10/13	국무조정실	27	10:12:00	23:24:00	13:12: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23	한국에너지공단	21	10:07:00	18:18:00	8:11:00
법제사법	10/21	대전고등법원	20	10:04:00	21:51:00	11:47:00
문화체육관광	10/22	국립중앙박물관	20	10:03:00	18:09:00	8:06: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17	기상청	17	10:04:00	11:51:00	1:47:00
법제사법	10/20	서울고등법원	17	10:17:00	20:24:00	10:07:00
보건복지	10/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	10:09:00	20:06:00	9:57:00
교육	10/16	한국고전번역원	14	10:09:00	20:29:00	10:20:00
보건복지	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14	10:14:00	21:07:00	10:53:00
문화체육관광	10/23	한국콘텐츠진흥원	14	10:04:00	18:12:00	8:08:00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 수감	감사 시작	감사 종료	감사 시간
법제사법	10/21	대전고등검찰청	13	15:34:00	20:58:00	5:2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	10:05:00	18:44:00	8:39: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21	근로복지공단	12	14:00:00	18:19:00	4:19:00
기획재정(감사1반)	10/23	부산지방국세청	12	14:34:00	17:58:00	3:24: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2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2	10:06:00	19:26:00	9:2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10:00:00	19:30:00	9:30:00
문화체육관광	10/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	10:02:00	21:46:00	11:44:00
법제사법	10/23	서울고등검찰청	11	11:16:00	22:34:00	11:18: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10:07:00	19:22:00	9:15:00
국방	10/24	육군본부	11	10:04:00	13:40:00	3:3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0/2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1	10:04:00	18:38:00	8:34:00
국방	10/14	합동참모본부	10	10:01:00	18:01:00	8:00:00
행정안전	10/14	행정안전부	10	10:03:00	24:29:00	14:26: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20	한국석유공사	10	11:01:00	23:00:00	11:59:00
기획재정(감사2반)	10/23	대전지방국세청	10	14:30:00	18:01:00	3:31:00

«2025년도 국정감사 파행 등 현황(모니터 보고)»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 수감	파행의 원인
법제사법	10/13	대법원	7	대법원장 이석불허 논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장관과 이춘석의원 가짜만남 AI 영상 상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13	산업통상자원부	1	매국계약 증인채택 논란
법제사법	10/14	법무부	4	증인채택 논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	육설문자메시지공개와육설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14	기후에너지환경부	1	조직개편업무보고논란
법제사법	10/15	대법원	7	검증 관련 반쪽 국감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0/15	고용노동부	1	간접 활동에 연루된 민주노총 간부 증인 채택 문제
법제사법	10/16	감사원	1	대법원 현장점검과 관련해 야당 주장을 문제 삼자 국민의힘 반발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 야당 발언권 제한으로 인한 설전(舌戰)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간 충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16	원자력안전위원회	8	회의비공개/ 의원간 대립 격화
법제사법	10/17	군사법원	1	국회의원발언 순서변경 및 제한논란
행정안전(지방1반)	10/20	인천광역시	1	12/3 계엄 관련 유정복 시장 간 고성
법제사법	10/21	대전고등법원	20	판사 동행명령장 관련
법제사법	10/21	대전고등검찰청	13	의원간 고성논쟁
법제사법	10/23	서울고등검찰청	11	위원장과국민의힘 고성 논쟁
법제사법	10/24	법제처	1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간 고성논란
법제사법	10/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위원장과 국민의힘 총돌 / 신동욱 의원 발언권 놓고 파행 .
행정안전(지방1반)	10/27	충청남도	1	김태흠 해외출장·답변태도 놓고 고성..행안위 국감 파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	최민희 위원장 사퇴촉구
국토교통	10/29	국토교통부	3	야당의원(김도읍 의원)과 김윤덕 국토부장관간 언쟁으로 파행
법제사법	10/30	법무부	6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파행 / 7분여 동안의 마무리 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은 물러나라'며 항의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수감	파행의 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3	반쪽국감 진행 /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불참
행정안전	10/30	행정안전부	7	동행명량장 발부
국회운영	11/06	대통령비서실	3	주진우 의원 '이해충돌' 의사진행발언 소란 /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내용 때문에 파행
국회운영	11/05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감 내내 상대 당 의원의 질의 도중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신경전/ 정회하며 파행

«2025년도 모니터위원의 보고에 의한 질의 중 '낙하산' 거론 의원 현황»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사용한 의원
10/13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정일영
10/30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정일영
10/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한국방송광고공사	이훈기, 노종면, 부현일(참고인)
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해민
10/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
10/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	이훈기, 노종면
10/13	국방	군인공제회	유용원
10/14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김승수, 이기현
10/22	문화체육관광	한국문학번역원	조계원
10/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부	윤준병
10/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지혜
10/27	국토교통	인천국제공항공사	황운하
10/29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신영대, 염태영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알박기' 용어 2회 이상 사용현황»

의원명	위원회	'알박기'용어 사용횟수
박수현	문화체육관광	7
정일영	기획재정	5
임오경	문화체육관광	5
이강일	정무	3
김문수	교육	2
조정훈	교육	2

※ 낙하산 인사 논란은 7개 위원회의 13곳 국감장에서 32회 대신 정권교체로 인한 '알박기' 인사논란은 8개 위원회에서 11곳 국정감사장장에서 39회 거론

붙임 : 국정감사(22-2) 종합평가와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1부. 끝.

※이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oodlaw.org)에 게시된 보도자료 참조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02-523-8760~6

2025년도 국정감사(22-2)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27년 전통의--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위원장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국)	여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
------------------	----------------------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 원 회	선정 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존칭 생략, 가나다순》 정당표시 : 더불어민주당(민), 국민의힘(국)
국 회 운 영	2	유상범(국) 이훈기(민)
법 제 사 법	5	곽규택(국) 김용민(민) 박균택(민) 신동욱(국) 주진우(국)
정 무	5	강민국(국) 김용만(민) 유동수(민) 유명하(국) 추경호(국)
기 획 재 정	6	박대출(국) 박성훈(국) 오기형(민) 조승래(민) 진성준(민) 최은석(국)
교 육	4	김민전(국) 박성준(민) 서지영(국) 정을호(민)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5	박충권(국) 이정현(민) 최수진(국) 최형두(국) 황정아(민)
외 교 통 일	4	김건(국) 김기현(국) 조정식(민) 한정애(민)
국 방	3	강선영(국) 부승찬(민) 임종득(국)
행 정 안 전	5	고동진(국) 모경종(민) 박수민(국) 이성권(국) 한병도(민)
문 화 체 육 관 광	4	김승수(국) 민형배(민) 박수현(민) 조은희(국)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5	김선교(국) 서천호(국) 윤준병(민) 이만희(국) 이원택(민)
사 업 통 상 자 중 소 벤 처 기 업	6	강승규(국) 곽상언(민) 구자근(국) 김성원(국) 김원이(민) 박지혜(민)
보 건 복 지	6	김남희(민) 김미애(국) 김윤(민) 남인순(민) 안상훈(국) 최보윤(국)
환 경 노 동	4	박홍배(민) 윤상현(국) 이용우(민) 조지연(국)
국 토 교 통	7	김은혜(국) 김정재(국) 김희정(국) 배준영(국) 손명수(민) 송기현(민) 윤종균(민)
여 성 가 족	2	김한규(민) 이달희(국)

2025년도 국정감사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모니터링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정함.

1. 기본 자료 조사

－ 국정감사에 참가하는 모든 국회의원(감사위원)들의 각 상임위원회 피감기관별 질의내용 중 다음의 사항을 전수 조사함.

- (1) 피감기관별 질의횟수(주질의, 보충, 추가질의 합산횟수)
- (2) 피감기관별 질의시간 합산
- (3) 피감기관별 질의내용 정리

*의사진행, 자료제출발언은 포함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조사 및 평가

- (1) 질의내용 분류 및 평가

－ 질의내용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아주 못함이나 해당사항 없음 1점’으로 평가함.

- ① 부정비리지적(피감기관이나 그 직원이 잘못된 사항 지적)
- ② 대안, 법제도 개선(피감기관의 법제도, 정책미흡 개선방안 제시)
- ③ 자금집행(재정)문제점(피감기관이나 그 구성원이 예산을 잘못 사용한 사례 지적)
- ④ 시정조치점검(과거국감 지적에 대해 시정이 되었는지 점검)
- ⑤ 정책관련 잘못 지적(피감기관의 정책 문제점 조명, 사례제시)

- (2) 중복질의유무(다른 의원의 질의에 발전 없이 같은 내용을 중복질의)

- (3) 감점요인 평가

－ 질의 중 다음과 같은 언행이 있는 경우 확인하여 감점함.

- ① 질의매너(막말, 소리 지르기, 시간 안 지키기, 상대의원 비난)
- ② 감사매너(끼워들기, 잡담, 딴 짓)
- ③ 국감방해 원인제공(파행유발, 의사진행 국감방해)

3. 국정감사모니터 위원 평가 및 우수(못한)의원 추천 기준

－ 국정감사 내용 평가의 경우, 아래 다섯 가지 준거(원칙)에 의해 5 단위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못함, 아주 못함) 척도로 평가하여 우수의원과 못한 의원을 추천함.

- ① 적시성: 감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기(적시)에 이루어 졌는가?
- ② 실효성: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 효과를 낼 수 있는가?
- ③ 충실성: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정당하며 논리적이고, 정보는 충실한가?
- ④ 국익/공익성: 국가발전과 더 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가?
- ⑤ 공정성: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이 없이 공정한가?

- (1) 교차평가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잘한 의원들을 1차 선발 (50%)한 후 선발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 교차하여 평가함.

예) 한 상임위원회에서 A, B, C, D의원들이 추천된 경우 AB, AC, AD, BC, BD, CD의 질의를 비교하여 평가함.

- (2)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의 평가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본 모니터단이 입수한 자료와 비교,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함. 잘한 의원이 많거나, 평가가 비슷한 경우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함.

4.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발표

전체 국정감사 평가대상 국회의원 중 위원회별로 25%를 우수의원으로 평가하여 국민민복상 수상자로 선정함.

①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의” 법적근거와, ②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③ 헌정대상 등 의정감시의 “7종 국익(國益)기능”

① 국감현장모니터링은 국민주권원리, 헌법(제50조)국회법(제75조)국감조법(제12조)에 근거한 의사공개원칙에 따른 권리다
② 대학생단체 등 270개 NGO연대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6년된 국감모니터 전문단체이며, 그 주관 단체인 ③ 법률소비자연맹은 34년된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NGO/NPO로서, **국회사무처(당시 유인태)가 방해 하여도**, 이미 지난 십수년 동안 ‘온라인 모니터만으로’ 시행해온 의정종합평가(대한민국 헌정대상)가 국내외적으로 정착<미국/일본/영국 등의 NGO/국회의원/교수/변호사들의 롤 모델이 됨>되었듯이, **현장 모니터 방해에도 모니터/평가는 할 수 있다**. 다만 모니터 방해는 7종 국익기능을 저해시키는 반국익/반민주 행태다.

1. 국회(의원)의 민주성 상징 --대한민국 국회엔 26년<주관단체는 34년>동안 “단 한번의 공정성 시비없이” <혹간 폄훼/비방보도는 법적/윤리적 근거없는 가짜뉴스로 즉시 드러나곤 함> 국회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모니터/평가 해온 헌정대상(의정종합)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 즉 시민의 권력 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된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랑(공지)이며 당당한 민주성 상징이 된다.

2. 국회(의원)의 존재감 회복 --국민들은 TV등 언론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이 싸질하는 것만 보다가, 우수한 스펙을 가지고, 국리민복을 위하여 국정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대학생이나 시민(대표)들이 비로소 국회의원의 노고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와 국가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형성되게 된다.

3. 국감위원의 긴장감 조성 --감사현장에 NGO대표가 불참한 2020~23년도 국감은, 텅빈 감사위원석, 짧은 국감일정-형식적 소화, 국가존망과 민생외면, 부정부패를 비호/감싼다는 의혹속에 여/야간 막말과 난장판이 연출되었는바, NGO의 현장모니터는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속에 충실감사를 하도록 압박하는 기능이 매우 크다.

4. 피감기관의 긴장감 조성 --피감기관이 국감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모르쇠’ 답변이나 ‘불성실하게 버티기’ 답변을 하기도 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때 감사현장에서 시민단체(NGO모니터단)가 피감기관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감기관을 긴장케 하여 겸손하고 정직하게 수감하게 만든다.

5. 법치주의를 지키는 기능 --권력은 부패하는 속성이 있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Sir. Acton> 권력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예방/척결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시민단체들이 모니터/평가/공개하는 것은 법치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권리요 책무다.

6. NGO 정책과 국정 협치 --시민사회단체(NGO)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확인되는 국정상황을 이해하여, 국가사회의 거버넌스(Governance)적 정책개발과 건전한 비판과 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 UN이 정부(GO)의 주장만이 아닌, 비정부 민간기구(NGO)를 제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공동발전을 위한 협동원리이며 거버넌스(협치)인 것이다.

7. 시민 대학생들 정치학습 --청년/대학생 및 시민들이 국감현장을 직접 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학습하게 된다. 정해진 룰(rule)에 따라 국정현안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들으며, 나라사랑/나라걱정을 하게 되는 등 민주정치 체험학습을 하게 된다.

감사위원들께서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참석하고 자리를 지켜야(坐定) 할 5가지 필요성

《 국정을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감사장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다. 》

1. 수감기관(대개 20~40명)을 압도하는 숙연한 감사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감사위원(국회의원) 전원이 감사위원석에 좌정(坐定)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정감사가 수감기관에 대해서 기관단위로, 즉 국회(상임위 감사반)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석이 텅빈 채 질의하는 감사위원 한 사람만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옳은지? 효율적인지? 그렇다면 전체 감사위원석(16~30석)을 상설하기보다는 한사람씩 올라가서 질의하는 감사위원 좌석을 (감사장 전면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비교해 보시기 바람.

2.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등의 “심상치 않은 여러 상황(소위 변론의 전 취지)등”을 파악·대처하기 위해서도 ‘자리지킴’이 필요하다고 봄.

설사 감사장 밖 의원실 등에서 TV 화면으로 타 의원의 질의내용을 시청한다고 하더라도, TV 카메라만으로는 감사장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나 민감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그나마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충실한 감사의 결실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봄.

3. 피감기관의 교묘한 회피성 답변에 대한 승복을 받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교묘한 회피성 답변으로 “질의와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피감기관”이 적지 아니한데, 그런 상황을 지켜 보면서 수감기관의 승복을 받아 내려면 회피성 답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타 의원과 수감기관의 질의응답을 꼼꼼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봄

4. 중복·반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많은 상임위에서 중복·반복질의로써 연중 21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바, 수감기관에게 ‘실상을 모르는 허술한 감사’로 얽보이지 않고, “다른 의원이 방금 전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다시 질의하는” 중복질의만이라도 피하자면 감사위원의 ‘자리지킴’은 필요하다고 봄.

5. 국감직후에 있는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감사위원으로서의 ‘질의준비’ 또는 ‘국감 외의 다른 업무처리’를 ‘이석’의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감사당일에는 타의원의 질의내용이나 피감기관의 답변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감직후에 있을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에 긴요한 자료를 수집·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장을 꼭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그러나, 본 NGO모니터단의 출석·이석체크는 국민복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틀이상 결석 시에는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것이며, 둘째, 이석 상황은 정성평가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등한 우수의원 후보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가·감정평가를 하여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2025년도 국정감사(22-2)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통계

당적 등 2025. 11. 6. 국정감사 종료시점 기준

① 교섭단체별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선정의원(명)	34	41	0
전체의원(명)	166	107	24
선정비율(%)	20.48%	38.32%	0%

※ 국회의장 제외.

② 당선횟수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이상
선정의원(명)	36	21	12	3	3
전체의원(명)	131	79	46	24	17
선정비율(%)	27.48%	26.58%	26.09%	12.50%	17.65%

※ 우원식 국회의장(5선) 불포함

③ 의원 성별

구분	전체의원(명)	우수의원(명)	선정비율(%)
여성의원(명)	62	17	27.42%
남성의원(명)	235	58	24.68%

※ 감사위원 297명 중 여성감사위원의 비율은 20.88%임

④ 지역구 / 비례대표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선정의원(명)	11	64
전체의원(명)	46	251
선정비율(%)	23.91%	25.50%

※ 지역구 현역의원 254명 중 국회의장님 제외

⑤ 지역구 의원의 광역시도별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7	11	23.40%	강원도	8	2	25.00%
부산광역시	18	7	38.89%	충청북도	8	0	0.00%
대구광역시	12	4	33.33%	충청남도	10	4	40.00%
인천광역시	13	6	46.15%	전라북도	10	3	30.00%
광주광역시	8	2	25.00%	전라남도	10	1	10.00%
대전광역시	7	2	28.57%	경상북도	13	5	38.46%
울산광역시	6	1	16.67%	경상남도	16	4	25.00%
세종시	2	0	0.00%	제주도	3	1	33.33%
경기도	60	11	18.33%	계	251	64	25.50%

※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서울은 48명 중 국회의장 지역구인 서울 1명 제외

한국의 국정감사는, 그나마 6.25전쟁과 독재를 극복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세계10위의 선진대국이 되는 나라의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서둘러** 선진국처럼 365일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으면 **부패공화국**을 면할 수 없다

2025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선정

—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 27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국감평가 주요 목차 ■

■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모범·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13
■ 2025년도 국정감사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14
■ 국정감사 현황-모니터링의 법적근거와 모니터단의 국회의정감시 7종 국익(國益)기능 15	
■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주요통계(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포함)	17

I.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총괄 22

◆ 2025년도 국정감사 총평 22

1. 2025년 국정감사 총평 : 역대 최악의 낙제점(F학점), 저질국감 22
2. 2025년도 국정감사(제22대 국회 2차년도)의 특징 26
3. 상임위별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단평 : 최고는 없고 최악만<일자별 상황은 IV. 참조> ... 34
4.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구태는 여전 39
5. 2025년도 국정감사 질의 횟수 및 질의응답 시간 분석 43
 - 가. 총괄 : 질의횟수 총 5,401회 질의응답시간은 597시간 57분 49초(영상회의록기준)
 - 나. 정당별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 다. 위원회별 평균 질의응답시간 및 의원의 최다/최소 질의시간
 - 다. 질의횟수 최고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라. 평균 질의응답시간 최고는 법제사법위원회
 - 마.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등 검임 상임위의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
6. 제22대국회 3차년도 국감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돼야 49
 - 가.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 나.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회 전 30일), 못 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 다.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 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 마.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수박 겉핥기'식 국감 종식

◆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총괄 51

1.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 51
 - 가. 선정근거와 연혁2
 - 나. 선정결과와 선정사유 및 활약상을 약술함 (가나다 순)
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 53
 - 가. 평가기준 및 방법 53
 - 나. 선정결과 및 사유, 활동을 약술함(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53

1) 성일중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3선)	54
2)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55
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명단 별첨함)	57

II. 2025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58

1. 위원장 이슈로 인한 파행성 정회가 많아져	58
2. 2025년도 10개 이상 수감기관 동시감사 28회, 부실국감	63
3. 밤 23시를 넘긴 심야국감은 22번(2024년도 28번, 23년도 19번)	66
4. 감사시간이 전체 2시간 이하 15곳(2024년도 16곳, 2023년도 10곳)	70
5. 조기 종료 국감은 27곳 (지난해 28곳)	73
6.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계속	77
7. 국회의장 외교동행, 외교출장의원 등 국정감사 불참현황	79
8. 주요 핵심 당직자 등의 국정감사활동은 여전히 저조	86
9. 새내기 국회의원의 첫 국정감사 : 이주희 의원등 4명	93
10. 장관 겸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94
11. 2025년도 국정감사도 질의시간 안 지켜 소리없는 국정감사 여전	96
가. 위원회별 국정감사 첫날 주질의 시간 미준수 62.42%	
나. 감사위원 질의횟수 대비 마이크 중단 비율 61.01%	
12.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실시간 제공	102
SNS시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캄캄	
가. 개요 : 국감직후인 11월 1일 297명 전수 조사	
나.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활동게시율 : 전체 의원의 48.82%	
다. 국회 홈페이지의 국회의원 소개란에 개인 홈페이지·SNS 소개 : 74.07%	
(297명 중 220명)	

III. 2025년도 국정감사의 화제성(話題性) 자료 105

1. '김현지'없는 '김현지'국감 : 10개 위원회 27곳 국감장에서 429회 거명 54명의 국회의원이'거명'- 주진우 의원이 최다	105
2. '내란'국감 : '내란' 용어 16개 위원회에서 1243회 118명의 국회의원'내란'용어 사용 - 김병주 의원이 최다 더불어민주당 166명 중 50.6%인 84명'내란'용어 사용	107
3. 19개 부처 장관 국정감사 : 국회의원 겸임 7개 부처 장관	111
4. 2025년도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국감소품 일부사례 : 관봉권 등	117
5. 2025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참고인 사례	120
가. 일반증인 및 참고인 개요 : 증인 512명과 참고인 280명 출석요구	
나. 언론 등에 조명된 출석 증인 및 참고인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	
6. 2025년도 국정감사장 앞 시위(언론보도) : 대한약사회 등 국감참고인 시위 많아	142
7. 2025년도 국정감사장의 '웃음소리'분석 : 14개 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79회	150
(12.20.까지 게시된 75개 회의록만 분석)	
8.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곤욕을 치른 2025년도 감사위원 :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151
9. 거취공방이나 모욕을 당한 피감기관 내지 기관장 : 조희대 대법원장 등	156
10. 낙하산 인사 논란은 7개 위원회의 13곳 국감장에서 32회 대신 정권교체로 인한 '알박기' 인사논란은 8개 위원회에서 11곳 국정감사장에서 39회 거론	161

IV.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위원회별, 일자별 상황 정리166

1. 2025년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별 활동요약 : 법사위, 과방위만 조명됨 166

- 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간사 김용민) : 조희대 국감부터 시작해 위원장과 야당의 '네티트' 공방 반복
- 나. 정부위원회(위원장 윤한홍, 간사 강준현, 강민국) : 주요 증인 불참 속 개인정보 문제 등 조명
- 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간사 정태호, 박수영) : 한미관세협상과 부동산 세제개편 등 새정부 정책 점검
- 라.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간사 고민정, 조정훈) : 김건희 여사 이슈 계속 논란, 새정부 교육정책 점검
- 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간사 김현, 최형두) : 위원장 딸 결혼식과 감사위원의 카톡 공개와 욕설논란
- 바.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 간사 김영배, 김건) : 캄보디아사태, 한미관세협상, 평화적 2국가론
- 사.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 간사 부승찬, 강대식) : 내란 종식 주장 여와 내란 용어 논란, 전작권 전환, 중국의 서해구조물, 핵잠 건조 이슈
- 아.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간사 윤건영, 서범수) : 이진숙 체포논란, 국정자원화재, 6.3 지방선거 대비 지자체 국감
- 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홍, 간사 임오경, 박정하) : 체육계 비리, 왕의 의자에 앉은 김건희 여사 조명
- 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간사 윤준병, 김선교) : 조용한 정책 국감, 중국의 서해 구조물, 해경 사망사건, 김현지 논란도
- 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간사 김원이, 박성민) : 원전수출, 한미관세협상 충돌 속 중소기업인 보호 대책 점검
- 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간사 이수진, 김미애) : 웃음 속 국정감사, 건보, 연금재정, 마약 대책 등 가지가지 정책 점검
- 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간사 김주영, 김형동) : 시험범위 모르고 시험, 4대강, 쿠팡 수사, 산업재해문제 등 조명
- 거.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간사 복기왕, 권영진) : 10·15 부동산 대책
- 너.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기, 간사 문진석, 유상범) : 김현지 논란 속 파행과 여당 의원의 야당 대표 배치기
- 더.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간사 김한규·조은희) : 성평등 구조적 문제
- 러. 정보위원회(위원장 신성범, 간사 박선원·이성권) : 비공개

2. 2025년도 국정감사 일자별 활동요약 : 매일매일 전대미문의 국감 199

'감금'논란으로 시작해 '배치기'로 끝나

- 가. 10. 13.(월) :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 조희대 감금 놓고 여야 충돌
- 나. 10. 14.(화) : 고성과 욕설 파행, 교육부 국감 첫 동행명령장 발부
- 다. 10. 15.(수) : 대법원 점령 논란, 간첩 증인 채택 논란 파행
- 라. 10. 16.(목) : 고발로 비화된 김현지 논란, 과방위, 법사위는 파행 지속
- 마. 10. 17.(금) : 증인의 선서거부, 재판소원, 이진숙 체포논란 등 부각, 김현지 출석 놓고 여야당 논쟁
- 바. 10. 20.(월) : 김대웅 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
- 사. 10. 21.(화) :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안 토론,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등

여야 대립 법사위 또 파행

- 아. 10. 22.(수) : 외통위(아주반) 캄보디아 현지 국감 마이크 고장
- 자. 10. 23.(목) : 김현지 증인 채택 불발, 명태균 서울시 국감 출석
- 차. 10. 24.(금) :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무죄발언, 공수처 고발사건
은폐의혹, 국토1차관 야간 사퇴
- 카. 10. 27.(월) : "이 대통령도 화재 때 먹방" 김태흠 답변에 고성
- 타. 10. 28.(화) : 여당의 무정쟁 주간 선언, 정동영 통일부장관 평화적 2국가론 정정
- 하. 10. 29.(수) : 트럼프 미대통령 김해국제공항 도착, 김현지 국감증인 불발
- 거. 10. 30.(목) : 중국 시진핑 주석 한국도착, 미중 정상회담 보도 속 법사위 파행
- 너. 11. 4.(화) :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시정연설은 반쪽, 성가워 국감은 정상
- 더. 11. 5.(수) : 인권없는 인권위, 국회사무처의 야당 사찰 의혹
- 러. 11. 6.(목) : 2회 파행과 배치기, 김현지(107회 거명) 출석 논란

V. 제22대 국회 제2차년도(2025년도)국정감사 이모저모 227

- 1. 2025년도 국정감사의 실시시기 조정 등 227
- 2. 2025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 : 최다선인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297명 229
- 3. 2025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813개 230
(2024년도 802개(2023년도 791개, 2022년도 783개))
- 4. 5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국감 57회 (2024년도 59회, 2023년도 56회) 234
- 5.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 및 인터넷(유튜브) 생중계 238
- 6. 2025년도 국정감사 감사진행 시간은 1231시간 3분(국회공보 기준 통계) 240
- 7. 지방자치단체 국감 : 6.3 지방선거 겨냥 단체장 흠집내기(?) 244
(8일간 2개월 10개 시·도 대상)
 - 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 명태훈 대질 국감, 한강버스 곤혹, 10.15부동산 비판
 - 나.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 공흥지구 의혹, 김현지 논란,
10.15 부동산정책은 선제적인 조치
 - 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 12·3 계엄날 청사 폐쇄 명령
 - 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 세종보 재가동
 - 마.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 202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 바.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 행정복합타운, 레고랜드 사태, 명태균 의혹
 - 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 명태균 의혹
 - 아.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 : 출장논란,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 자.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 12·3 계엄관련 행보, 대전 0시축제
 - 차. 대구광역시(시장권한대행 김정기) : 홍준표없는 홍준표 국감(?)
- 8. 국정감사 중 감사의원 등의 회자된 말 : 김현지 여성입니다 252
- 9. 국정감사중(시작전 포함)위원회 전체회의 51회, 부결안건 3건
(2024년도 62회, 2023년도 전체회의 32회, 2022년도 45회, 2021년도 32회) 279

[부록]

- ◆ 27년간 국정감사 총 감사일수와 대상기관수 현황 282
- ◆ 202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정감사 주요 통계 283
- ◆ 2025년도 국정감사장 위원장 마이크 점유시간 조사 현황 290

2025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선정

—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 27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I.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총괄

■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외)은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 27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활동을 모니터링을 하여, 국정감사 위원인 국회의원의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날날이 모니터링 하였고,

297명 감사위원 전원을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27년 간 공개하고 있는 정밀·공정한 평가기준과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평가기준(계량화한)에 의거하여 선정된 제22대 국회 제2차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을 선정, 공개하며,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인 점을 감안해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와 시상식 개최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 2025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1. 2025년 국정감사 총평 : 역대 최악의 낙제점(F학점), 저질국감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전 정부와 이재명 새 정부의 정책을 상호 비교

하면서 잘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음에도,

가. 최악의 삼권 분립 위기 초래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핵심원리가 권력 분립(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인데, 국정감사 기간(10.15.) 중 국정감사 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이유로 대법원 대법정의 법대를 점령하고 기념촬영을 하였고, 법을 해석하는 정부기관인 법제처장은 국정감사장(10.24.)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판결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5개 범죄가 모두 무죄라고 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의 존립근거까지 훼손해 충격을 주었다.

나. 국정감사 준비 부족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필리버스터 등으로 극한 대립을 하였고, 국정감사 직전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국정감사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법 처리로 인해 소관기관이 바뀌어 '시험범위도 모르는 채 시험을 보는 격'(기후노동위 김형동 간사의 표현)인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한대립

9월 정기회 전에 국정감사 실시 안건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정기회 중(9.25.)에 이러한 안건(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을 채택하였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국민의 힘에 대해 상호 존중이나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없어져야 할 위헌정당, 내란잔당, 범죄자 옹호당이라고 지칭하면서,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간사까지 선출하지 않은 채 국감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극한의 대립과 갈등을 국정감사 도중에도 여러 국감장에서 고성과 막말 등으로 표출되었다.

라. 반발만 초래한 ‘조희대’ 국감

정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내란잔당 청산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예비후보시절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규명을 한다는 명목’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불러 두면서 답변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파행이 야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 삼권분립 위배의 우려를 초래**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이 파기환송심의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었고, 이러한 정쟁으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안의 진정성도 희석**되었다. ‘15억은 서민아파트’(국토위의 복기왕 간사)발언과 새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내로남불 행태로 10.15. 부동산정책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증폭시켰다.

마. 무기력한 ‘김현지 카더라’ 국감

야당(국민의힘)은 양원제국가의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섭단체 간사 선출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6개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 대한 ‘카더라’ 공격과 증인채택 추진을 하였으나, 결국 한 곳도 채택하지 못하였고, 근조 리본을 달고 시작했던 양평 공무원 사건과 불거져 나온 주식의혹 문제를 조명하려고 민중기특검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야당으로서 투쟁력 상실과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위원장석 점거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사위 정상화를 위한 검은 리본을 달고, 위원장 주위에 서서 항의·고함·집단퇴장)

바. 정책승부가 아닌 파행만 초래

지난해와 같이 131명의 초선 의원의 국감스타급 활약은커녕, 몇몇 의원은 좌충우돌로 오히려 파행을 초래하였다. 대표적으로 김우영 의원(과방위)은 10월 14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동료의원의 욕설 메시지를 공개하여 파행을 초래하였고, 정혜경 의원(기후노동위)은 10월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발언 중에 끼어들기를 하여 파행을 야기했으며, 최혁진 의원(법사위)은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모욕 사진을 손팻말로 들어 소란케 하였고, 마이크를 들고 동료의원(곽규택 의원)의 발언권 제한을 제안하고, 동료 의원(주진우 의원) 질의 중에 발언 방해로 퇴장조치 되는 등 파행을 초래하였다.

사. 최악의 저질 행태와 유튜브 쇼츠 장면 연출

더욱 국정감사 중 불거져 나온 국정감사장에서의 피감기관 모욕 사진, '똥' 발언 등 부적절한 언어, 욕설 메시지 문자 파문, 국정감사 기간 중 위원장 자녀 결혼식 논란 등 국정감사의 맥을 잃게 하는 저질 행태가 특히 많았으며, 정책 점검보다는 유튜브 '쇼츠용 장면' 연출에 치중했다.

아. 국익과 민생사안은 등한 내지 미흡

결국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한미관세협상과정과 대책, 치솟는 아파트값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 청년들을 외국취업사기 범죄에 빠지게 하는 청년실업사태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대책, 거세지는 미국·중국의 압력 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 혁신과 기업구조 개선, 다양한 국제적 해킹 시도와 국감직전 벌어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국가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미래의 위협하는 건보재정, 연금재정 고갈 사태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였다.

자. 국회의 최고 권한 행사, 스스로 포기

국회는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30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18일간을 국감기간으로 정하였고, 그것도 상임위별로 현장시찰 감사준비로 감사기간이 실제로는 7-8일에 불과해 스스로 국정감사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또한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권리) 증인을 겁박하는(10.24. 법사위-법제처) 등 막장행태를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감사도중 감사위원인 국회의원들과 동반하여 출장을 나가는 것도 여전하였다.

2. 2025년도 국정감사(제22대 국회 2차년도)의 특징

가. 무소불위 상임위원장(?) - 교섭단체 간사없는 국정감사로 법사위원회 매일 파행

- 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필요적 법정기관(국회법 제50조)인 교섭단체 선출 안건을 미루다가 부결시킨 뒤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과 개회시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감사를 진행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상대팀의 주장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결로 비토(veto)권을 행사하여 주장 없이 경기를 하도록 하고, 상대팀 출신의 심판이 선수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계속한다며 옐로우카드, 레드카드를 남발하고, 일방적인 시합진행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연출되었다. 기본적으로 공정절차가 담보되지 않으면 공정성은 지켜질 수 없다.

- ※ 교섭단체 간사는 위원회 중심주의의 필요적 법정기관(국회법 제50조 제1항,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 ※ 사전 간사협의 준수규정(국회법 제49조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15대 국회말부터 모니터링해 본 바, 간사 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된 경우는 단 2건이었다. 하나는 2001년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새천년민주당 간사였던 유삼남 의원이 사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되어서 하루 공백이 있었는데, 다음날 배기선 의원이 보임해 곧바로 간사 선임되어 활동한 바 있다.(2001. 9. 11,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
- 다른 하나는 2003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으로, 국정감사직전 정당의 분당이 있었고, 국민참여통합신당주비위원회(열린우리당으로 개명) 추천이 없어 제3당으로 전락한 당시 여당간사없이 민주당만 간사가 선임되어 진행된 사례.(2003.9.22) -- 당시 송훈석 위원장이 열린우리당이어서 간사가 없어도 3당 협회가 되었음.(다른 위원회는 9.22. 분당된 두 당의 간사를 모두 선출함)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도 간사가 사임하자 10.14.최우선적으로 간사선임이 이루어짐

- ② 10월 13일 인사말을 하러 온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락하지 않아 90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게 하였으며(야당으로부터 감금이란 항의를 받음), 말 한마디로 대법원장을 참고인화하여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였다.
- ③ 10월 15일 돌격대처럼 현장 검증을 빌미로 대법원 법대에 올라 기념촬영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였으며, 감사계획서를 변경하여 2일차 대법원 국정감사를 반쪽 국정감사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 ④ 감사위원의 발언권 제한(10.16. 감사원)과 하루에 두 번 퇴장명령(10.23. 서울고검 등) 등 헌법 어디에도 없는 '퇴장하세요'가 일상화되었다.

- ⑤ 지난해(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법사위는 정시 감사개시를 정착하였는데, 올해에는 정시 감사 실시는커녕 국정감사 도중 속개일시를 정하지 않는 채 파행하여 언제 속개되는지 모른 채 기다리도록 하였다.
- ⑥ 감사위원의 평균질의시간보다 위원장 발언·질의시간이 3배 이상 많은 경우가 **7번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10.15. 반쪽 대법원 국정감사와 10.21. 대전고등법원 등 감사는 영상회의록이 올라와 있지 않아 제외하였음)
- ⑦ 10월 30일 종합감사에서 위원장과 야당은 '네티트' 공방으로 고성인 오가는 추태를 보였으며 파행하였다.

나. 국감 사상 초유로 국정감사기간 중 상임위원장 자녀의 결혼식과 낯뜨거운 국정감사장에서의 진실공방

- ① 지난해(2024)에도 국회의원의 발언권 제안 소동으로 파행을 빚었던 최민희 과방 위원장은 올해에도 감사위원 퇴장명령 소동으로 파행을 빚었으며, 기자 추방과 비공개 업무보고 중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로 인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② 더욱 국정감사 2주차에는 국정감사 기간 중인 10월 18일에 있었던 최민희 위원장 자녀 결혼식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하였다.
- ③ 10월 20일, 박정훈 의원이 결혼식 사진을 공개하며 축의금 문제를 지적하였고, 최민희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녀가 주도적으로 하였을 뿐, 본인은 양자 역학 공부 때문에 결혼식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였다.
- ④ 10월 21일에는 최민희 위원장이 청접장을 돌리지 않았다는 해명도 나왔다. 10월 23일, 박정훈 의원이 국회사랑재를 최민희 위원장의 ID로 예약했다는 것을 공개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자녀가 자신의 ID를 가지고 예약했다"고 하였으나, 당일 김장겸 의원이 위원장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화환요청을 한 사실(이진숙 전 위원장 제보)을 공개하였다.
- ⑤ 10월 24일 박정훈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당일 11:01경 김장겸 의원이 위원장실의 화환요청과 축의금 집행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국회의원 이름을 자기집 개부르듯이 하는데 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기도 하였다.

- ⑥ 언론에는 100만원 등 고액 축의금을 반환하는 문자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 ⑦ 10월 29일에는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의 잘못 18가지가 지적되었고, 국민의 힘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 ⑧ 10월 30일 과방위의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끝 무렵에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다. 짧은 국감기간(2024년도 143일→2025년도 139일로 4일 줄어) 중 역대 최다의 피감기관(813개 기관, 2024년 802개 기관보다도 많아)

10월 22일까지 진행된 14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474개 피감기관 중 37.97%인 180개 기관은 질의를 받지 못했고, 이는 지난해 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기관증인 중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수» (통계기간 : 2025.10.13.~10.22)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받지 못한 기관	비율
법제사법위원회	72	31	43.06%
정무위원회	42	17	40.48%
기획재정위원회	10	1	10.00%
교육위원회	25	3	12.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9	14	48.28%
외교통일위원회	10	3	30.00%
국방위원회	46	31	67.39%
행정안전위원회	20	7	35.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9	7	17.9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32	9	28.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1	7	22.58%
보건복지위원회	37	12	32.4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2	32	51.61%
국토교통위원회	19	6	31.58%
계/백분율	474	180	37.97%

※ 법사위는 1차, 2차 대법원 피감기관은 동일하나, 각각 7개 기관으로 합산한 것임.

가장 많은 피감기관이 하루에 당일치기로 감사를 받는 과방위의 국가과학기술 연구회(10.24.) 국정감사를 합친다면 더 많은 기관이 질의 한 번 받지 못한 채 감

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 직전 국회법 개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뀐 기관의 경우에는 질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조직개편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뀐 가운데 10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에너지공단 등 21개 대상기관 중 9개 기관은 질문을 받지 못했다. <이후 국감의 경우에는 종합국감이 많아서 통계하지 않음>

라. 여당의 중진의원 7명이 장관(피감기관장)으로 활동

국방위는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었으나, 올해에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새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창이 아닌 방패의 역할을 하게되었다. 일부 장관은 시차적응(?)을 하지 못해 피감기관장의 자세보다는 국회의원으로 서 감사위원과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국무총리인 김민석 의원(국방위)과 함께 8명이 자리를 비워(청가) 겸임 장관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감사위원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였다.

- ① **안규백 국방부장관**(5선, 기재위)은 성일중 국방위원장과 '내란' 논쟁으로 언론에 조명을 받았다.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어 특검의 행위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여부에 대해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 ② **정동영 통일부장관**(5선, 과방위)은 외통위의 2일차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2국가론'발언으로 이슈가 되었다. 10월 28일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확정된 안은 아니라면서 정정했다.
- ③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5선, 복지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대통령 연예프로그램 참여' 등에서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위원의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어 반론을 하는 등 피감기관장이 아닌 여전히 감사위원의 태도를 보였다. 10월 30일에는 '온나라시스템' 해킹에 대한 늑장 발표에 대해 질타를 받았는데 '추가 해킹 대책을 먼저 세우느라'고 라고 답변을 하였

다.

- ④ **정성호 법무부장관**(5선, 기재위)은 검찰청 폐지와 백해룡 경정의 동부지검 파견과 관련하여 곤혹적인 상황이었다. 치아가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언론의 추측성 기사도 나왔다. 관봉권 분실 수사 등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3선, 문체위)은 아파트 값 상승과 관련해서 질타를 받았는데 부동산정책 관련 규제강화, 결국 토허제 확대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10.15와 관련해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 ⑥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3선, 산업위)은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이전 문제가 조명되었다. 첫날부터 부산시장 출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 ⑦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3선, 산업위)은 국정감사 직전 조직개편으로 업무보고도 안된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되어 파행이 초래되기도 하였는데, 10월 16일 별도의 상임위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였다.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의 퀴즈를 풀지 못해 회자되었다.

마. 증인 출석요구, 채택 없는 ‘카더라’ 증인 논란(최대 화제) : 김현지는 누구

(만사현통 vs. 일잘하는 1급공무원)

2025년도 국정감사 시작 직전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운영위에서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논란이 벌어진 이후였다. 운영위에서 지금까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 실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거론되어 누구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 ① 10월 14일(농해수위) 산림청장 천거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
- ② 10월 14일(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의원이 대북송금 이화영 변호인의 교체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화영 증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 ③ 10월 15일(행안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재산증식 논란과 관련해서 김현

지 부속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신고 내역 자료제출 요구로 논란이 되었다.

- ④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신동욱 의원이 “대선자금 관리와 관련하여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공개하였다.
- ⑤ 10월 23일(법사위)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4선 중진 의원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 유언비어를 영상에 올리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대통령의 내연녀, 김정일의 딸 등’이 여과 없이 생중계 되었다. 당일 김현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범여권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 ⑥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도지사 시절 근무와 관련해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 ⑦ 농해수위에서는 천거의 당사자로 의혹을 받은 산림청장 때문에 아무런 주목도 없었던 산림청이 화제가 되었다.
- ⑧ 10월 21일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휴대폰 삭제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성윤, 김동아 의원 등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러가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 ⑨ 산업위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 ⑩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었음에도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고, 11. 6. 국감 마지막 말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 내내 김현지 이슈가 거론되어 107번 거명되었다.

바. 위원장의 감사위원 발언권 제한, 퇴장명령 남발

지난해(2024) 과방위에서는 위원장의 발언권 제한(최수진 의원의 국정감사질의 중)이 1회 있었는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발언권 제한·퇴장 논란이 수차례 벌어졌다.

- ① 10월 14일 과방위(위원장 최민희)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 ② 10월 16일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광규택 의원의 발언권을 제안했다(파행).
- ③ 10월 17일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야간에 추미애 위원장이 광규택 의원의 질의순서를 임의로 조정하고, 발언권 제한을 말하여 파행했다.
- ④ 10월 21일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대전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의원의 질의시에 최혁진 의원이 쳐다보아서 고성인 오간 가운데 둘 다 퇴장명령을 받았다.
- ⑤ 10월 23일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의원 등에게 퇴장을 명하여 밤중에 연거푸 파행했다.
- ⑥ 10월 24일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신동욱 의원의 발언권 제한으로 질의순서를 건너뛰자 신동욱 의원이 항의를 하였고, 여야 소동이 벌어져 파행하였다.
- ⑦ 10월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신상발언권 부여에 대한 불공정 시비로 항의가 있었으며 퇴장 조문 낭독 등이 있은 후 파행했다.
- ⑧ 10월 30일 종합감사에서는 법사위의 파행에 대한 책임 논란이 빚어져서 '네 탓' 공방으로 고성인 오가는 추태가 빚어졌다.

사. 국정감사장에 증인 참고인 불러 대질신문장으로 변질

- ① 10월 15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증인과 박상용(검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
- ② 10월 23일 법사위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증인과 박상용 검사의 대질(대북송금사건 연어회유 사건에서 페트병 술병 반입 여부)이 있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지시로 술이 담긴 페트병이 검사실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 ③ 엄희준 지청장과 문지석 부장검사(쿠팡 사건 처리 외압·회유 논란)

엄희준 당시 지청장은 "담당검사 뜻에 따라 불기소했을 뿐, 불기소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청장의 지시였던 말을 두 번이나 들었다"며 "너무 억울해 피를 토하고 싶다"고 맞섰다

- ④ 10월 23일 행안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오세훈 사법리스크 논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올해 국정감사는 '오세훈-명태균 공방전'이었다. 명태균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비공개 여론조사를 오 시장 측에 제공하고 후원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의 인물인데, 증언대에선 "오 시장이 울며 부탁했다"거나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다"는 등 주장을 하였고, 오 시장은 명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서 답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 ⑤ 10월 27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2차 대질신문이 벌어졌다.

- ⑥ 10월 28일 행안위 지방2반의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는 명태균 증인이 나와서 박완수 경남도지사 의혹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아. 캄보디아 사태로 인한 현장 국정감사와 감사위원의 감사 중 캄보디아 방문

- ① 10월 22일 외통위는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②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의원은 국정감사에 불참하면서 캄보디아에 가서 인질구출하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결국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 중국의 서해구조물, 교육위의 공자학원 등 중국(인) 관련 질의 다수

- ① 정부의 실용외교 문제 지적 (외교위-10.13. 외교부)
- ② 공자학원 난립문제(교육위-국립대학교)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했다"며, "강원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 퇴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 중국인 무비자 입국문제(보건복지위까지 논란이 됨)

국민의힘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방역 문제를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결핵 환자 중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 환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을 강조하며, 무비자 입국 단계부터 결핵 검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이에 상응하는 방역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④ 건보 부정수급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말이 있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1,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6.8%가 늘었다.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된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로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고 질타했다.

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중국에서 설치한 서해 구조물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었다.

3. 상임위별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단평 : 최고는 없고 최악만《일자별 자세한 상황은 IV. 참조》

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간사 김용민)

국정감사 파행 기록을 매일매일 갱신하면서 고성과 삿대질의 연속이었다. 국감사상 최초로 교섭단체(야당) 간사 없는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불출석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다.

지난해의 85명 일반증인보다 많은 88명의 증인을 채택하였고, 범여권 주도로 국정감사 도중 증인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였으나, 야당(국민의힘)이 제안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민중기 특검에 대한 추가 신청은 부결처리되었다.

지난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시 국감개시 원칙을 정착시켰는데, 올해에 정시 개시는 없었다. 10월 16일, 피감기관 증인이 감사위원(박지원 의원)에게 막말을 하고, 10월 24일 일반 증인(전 법제처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기도 하여 10월 27일 다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또 거부를 하였다.

나.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 간사 강준현, 강민국)

비교적 조용히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지난해와 같이 부산금융센터에 대한 현장시찰이 있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촉구 등이 이슈화되어 조명되었고, 한미관세협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장의 다주택이 문제가 되어 내로남불 논란이 있었다.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는 갭 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라.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간사 정태호, 박수영)

어려워진 민생 문제 때문인지 정책국감이 이루어졌다. 조직개편으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었으며, 조세제도 개편 문제, 한미관세협상 문제 등이 조명되었다. 새로 명칭이 바뀌어서 승격된 국가데이터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한국은행 감사에서는 한미간 통화스와프 논의가 없었다는 발언도 나와 충격을 주었으며, 수사 중 관봉띠 분실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현금관봉띠(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가 공개되었다.

마.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간사 고민정, 조정훈)

국정감사 전 위원회 회의에서 김영호 위원장은 여야 타협에 의해 국정감사 증인

이 채택되었다고 자긍심을 표했으나, 김건희 여사 관련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는 국민의힘이 거부한 가운데 처리되었다.

서울시교육청 등 국정감사는 자정을 넘겨 감사가 진행되었다. 최초로 지방국립대학교 국정감사 현장이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중계되어, 공자학당 실태와 학교에서 북한노래가 지도되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간사 김현, 최형두)

저질 국정감사 모습을 한꺼번에 보인 감사현장이었다. 우선 위원장의 편파진행논란이 있었다. 국정감사 도중 의원 간 욕설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어 파행되었고, 욕설 논란으로 징계 및 고발이 이루어졌다.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을 쫓아내고,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었다. 업무보고 시에 피감기관 본부장에 대한 퇴장명령 논란이 있었다. 국정감사상 초유로 국정감사기간 중 위원장 자녀의 국회 내 결혼식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되기도 하였다. 해명과 거짓말 논란이 벌어졌다.

사.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 간사 김영배, 김건)

한미관세협정 진행 상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국회방송이 첫날 생중계를 하였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평화적 2국가론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재외공관 현지감사는 강행했고,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현지 공관에서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10월 28일 종합감사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최종 점검 및 준비 등으로 외교부 피감기관이 불출석 및 일부 이석 등이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아.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 간사 부승찬, 강대식)

국방부, 합참, 저작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5선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재판중인데 ‘내란’

이란 용어를 단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3일 연속 지적하면서 여야가 충돌하기도 하였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내란 해석 답변이 조명되기도 하였다. 국정감사 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여야 의원간의 입장차도 있었다.

자.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간사 윤건영, 서범수)

국정감사 전에 터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 원장의 사과가 있었다. 이 기관은 기관증인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었다. 국가전산망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기관증인이 되지 않은 채 감사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화재 책임으로 사퇴촉구까지 받았으나 국정감사장에서는 위원 질의에 대해 끼어들기 답변도 하였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논란이 전개되었으며, 검찰청 폐지와 관련하여 수사권 문제가 조명되었고, 특검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공무원 사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도 점검했다. 마스크를 쓴 피감기관 직원에 대한 모욕죄 고발 의결도 있었다.

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 간사 김교흥, 박정하)

지난해에 이어 일주일에 2일 감사하고 하루 시찰하는 감사를 하였는데, 정작 논란이 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경회루·근정전 방문이 이슈화되었다. 체육계 성비위 등 비리도 조명되었다.

하루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벼락치기로 감사하였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홀대와 '겉핥기'식 국정감사라는 비판이 여전했다.

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간사 윤준병, 김선교)

지난해에는 양곡관리법 때문에 여야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올해에는 증인채택논란

이 있기는 하였지만 지난해와 같은 모습은 없었다.

산림청 국정감사가 조명되었는데, 산림문제가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채택 때문이었다.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의 이전이 초미의 관심사였고, 해양경찰청 국정감사는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관련 총체적 부실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간사 김원이, 박성민)

첫날 한·체코원전사업과 관련해서 막말과 매국논란으로 파행을 하였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감사일정이 바뀌기기도 하였다.

정선 강원랜드에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23시까지 감사가 진행되었다. 정선에서 현장시찰이 이루어졌다.

산업위는 10월 24일 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까지 완료하였다. 10월 28일에는 제주시찰을 하였으며, 10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였다.

하.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간사 이수진, 김미애)

조용한 위원회 중의 하나였다. 국정감사도 이전의 국회보다 매우 일찍 종료되었다. 건보재정, 국민연금 개혁 논란 등 파행성 이슈가 많음에도 조명이 되지 않았다. 건보재정과 관련하여 최보윤 의원이 부정수급의 70%이상이 중국인이라는 것이 보도되어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국립병원 연구비 부정, 의약품 남용 등 보건 분야 전반 점검과 취약아동 보호,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 체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촉구도 거냈다.

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간사 김주영, 김형동)

첫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감사 전 업무보고 없는 국정감사 진행으로 인해 파행을 초래하였다. 이튿날에는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증인 채택으로 파행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관리 문제

가 크게 조명되었다.

쿠팡사태와 산업재해 문제가 크게 조명되었다.

너.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간사 복기왕, 권영진)

지난해의 양평사태와 같은 대립은 없었지만, 관련 질의는 있었다. 부동산 대책이 이슈화되었다. 내년 지방선거에 즈음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도 조명이 되었으나, 경기도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논란도 있었고, 철도공사 사고가 이슈화 되었으며,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더. 국토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기, 간사 문진석, 유상범)

2일 동안 감사장 연속 파행을 하였다. 피감기관 퇴장논란이 시작부터 있었으며, 대통령 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 제척과 관련해서 논란이 빚어졌고, 파행을 한 후에는 여당 조선의원의 야당 원내대표 배치기 논란으로 또 시끌했다. 위원장에 대한 개인SNS 평가가 논란이 되었고, 50명 비서관 중 1명이라고 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러.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 간사 김한규, 조은희)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반쪽 파행이었지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상 진행되었다. 조직확대와 성평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조명되었다.

4.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구태는 여전

가.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과 동행의원의 국감 불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감사 첫날 국정감사장을 돌면서 감사활동 격려를 했는데,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무려 8박 10일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을 공식 방문했고, 순방 일정에 박정, 허영, 박상혁 의원이 동행했다. 박정, 허영, 박상혁 의원은 일부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나. 시간 제약으로 인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의 질의·답변

⇒ 국민의 충분한 알권리 차단

상임위원장은 감사시작할 때 질의시간을 7분, 5분, 3분으로 지정하면서 꼭 질의시간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질의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양해를 구해서 1분 정도 더 질의를 한다. 대부분 질의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중단되어 소리 없는 국정감사를 하므로, 이를 시청하던 국민들은 피감기관의 답변을 통해 질의내용을 유추하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현상은 여전하였다. 제한 시간이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질의를 하여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무슨 질의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기도 하였다.

다. 국정감사 기간 중 현장시찰 여전

813개 기관 증인에 대한 질의와 위원회 별로 신청된 일반증인과 참고인 신문에도 턱없이 부족한 국정감사 시간인데, 17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중 현장시찰(점검)을 모두 22회나 하였다. 원래 21회였으나, 10월 22일 복지위(위원장 박주만)가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하여,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후, 장애인 시설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기로 하였다.

<<2025년도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고발 및 동행명령장 발부 현황>>

(상임위 회의록이 올라온 경우를 분석한 것임.)

위원회	증인	참고인	고발	동행명령
법제사법위원회	95	52	11	3
정무위원회	32	10	0	0

위원회	증인	참고인	고발	동행명령
기획재정위원회	6	6	0	0
교육위원회	5	5	0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6	56	0	0
외교통일위원회	0	2	0	0
국방위원회	5	1	0	0
행정안전위원회	93	22	1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2	20	0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9	30	0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	12	0	0
보건복지위원회	13	40	0	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7	10	0	0
국토교통위원회	27	10	0	0
국회운영위원회	0	0	0	0
성평등가족위원회	0	4	0	0
계	517	280	12	10

라. 국정감사 중 증인채택 등 상임위원회 회의 총 51회

모니터대상 제외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분석해보면, 51회 회의를 하였다. 회의중 안건은 거의 모두 가결처리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3건이 부결되었다.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건이었다.

주로 증인변경 및 추가 채택에 관한 것이었고,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가 2회 있었다.(법사위-대전고법 등, 교육위-교육부)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은 3건(외통위 1건, 산업위1건, 복지위 1건)이었다.

예전에는 국회 공보를 통해서 어떤 증인이 추가 채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안건만 표시하고 누가 언제 왜 증인으로 출석요구되는지는 회의록을 통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회의록이 늦게 올라온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었으나, 철회된 증인보다 추가 출석요구된 경우가 많았다

마. 막말, 고성, 저질 행태로 국정감사 품격 상실

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을 꺼내 국정감사장을 난장판화했다.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의원 언니' 발언으로 가짜 뉴스 퍼나르기 비난이 일었다.

- ②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10월 1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비난성 문자메시지를 전화번호도 가리지 않은 채 공개해 논란이 있었다.
- ③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3일 산업위의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사논 똥' 발언으로 파행을 조장하였다.
- ④ 10월 23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신동욱 의원이 큰 소리로 말하여 감사진행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기도 하였는데, 이번 국정감사장 소음도 측정을 하였으면 최고의 데시벨(dB)이 되었을 것이다.
- ⑤ 국정감사 기간 중 '조용히'라는 말이 늘었다.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7번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10번이 나왔다.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는 60회 등 모두 326회 나왔다.

사. 유명연예인 참고인 출석 이목끌기 여전

- ① '대통령 직속 K컬처 위원장' 박진영, 29일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된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자 창의성 총괄 책임자(CCO) 박진영이 2025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문체위원회는 22일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명단(안)'에 올렸다. 박 공동위원장의 참고인 채택은 박정하, 정연욱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29일 국감장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현안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불출석했다.
- ② 과방위 썬양 참고인 출석
먹방 유튜버 썬양(본명 박정원)이 10월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

로 참석한 썬양은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했다. 수년간 협박과 돈 요구를 받았지만, 여성으로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③ 양치승 헬스트레이너 참고인 출석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출석하여 전세사기 관련 증언을 하였다.

④ 남경주 뮤지컬 배우 참고인 출석

10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뮤지컬산업진흥법이 꼭 통과돼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해주면 뮤지컬계가 문화 브랜드로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2025년도 국정감사 질의 횟수 및 질의응답 시간 분석

**가. 총괄 : 질의횟수 총 5,401회 질의응답시간은 597시간 57분 49초
(2024년도 6193회, 질의응답시간 671시간 40분 32초)**

개별 국회의원의 질의응답 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감사 진행도중 국회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요구 발언, 그리고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외한 감사위원이 실제 국정감사를 한 질의응답(증인신문 포함)시간을 조사해본 결과,(법사위의 대전고법국감, 대법원 현장 국감 제외, 외교위의 재외국감, 교육위의 지방교육청 및 국립대학교 국감 일부, 기재위의 지방국감, 행안위의 지방감사반 국감 중 일부, 과방위의 연구단체 국감, 국방위의 영상회의록 비공개 국감 등은 제외)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총 5,401회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질의응답시간은 597시간 57분 49초였다.

조사된 영상회의록 기준으로 가장 질의응답시간이 많았던 경우는 51시간 47분 54초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였다. 과방위는 시간제한이 있었으나 마이크 작동시간은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원의 평균질의응답시간이 가장 많았던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

애)로 2시간 37분 50초였다.

《2025년도 국정감사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 현황》

위원회	위원장	질의횟수	전체질의시간	평균질의시간(위원장 질의시간 포함)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414	47:21:07	2:37:50
정무위원회	윤한홍	348	41:30:02	1:43:45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430	46:57:30	1:48:22
교육위원회	김영호	279	30:18:27	1:53:3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433	51:47:54	2:35:24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218	22:47:49	1:05:08
국방위원회	성일종	222	24:35:51	1:38:23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444	44:41:52	2:01:5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332	39:23:42	2:27:4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기구	464	46:52:53	2:28: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380	44:59:15	1:29:58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477	50:41:50	2:06:4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368	40:28:30	2:31:47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420	47:06:37	1:34:13
국회운영위원회	김병기	128	13:34:35	0:29:06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선	44	4:49:55	0:17:03

참고로 제22대 국회 1차년도인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총 6193회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질의응답시간은 671시간 40분 32초였다.

제21대 국회 4차년도인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질의응답횟수는 **6099회**이며, 질의응답시간은 모두 **653시간 6분 9초**로 나왔다.

《2024년도 국정감사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 현황》

위원회	위원수	질의횟수	질의응답시간	의원당평균질의 횟수	의원당평균질의 응답시간
법제사법	18	412	43:04:02	22.89	2:23:33
정무	24	522	53:52:54	21.75	2:14:42
기획재정	26	657	63:13:15	25.27	2:25:54
교육	16	249	36:52:39	15.56	2:18:17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20	541	59:03:33	27.05	2:57:11
외교통일	21	226	19:57:51	10.76	0:57:02

위원회	위원수	질의횟수	질의응답시간	의원당평균질의 횟수	의원당평균질의 응답시간
국방	17	178	19:17:27	10.47	1:08:05
행정안전	22	517	53:06:09	23.50	2:24:50
문화체육관광	16	344	49:18:48	21.50	3:04:55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9	502	50:49:31	26.42	2:40:3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30	468	53:22:48	15.60	1:46:46
보건복지	24	570	56:56:48	23.75	2:22:22
환경노동	16	422	45:27:14	26.38	2:50:27
국토교통	30	398	47:12:22	13.27	1:34:25
국회운영	28	142	15:39:38	5.07	0:33:34
여성가족	17	45	4:25:33	2.65	0:15:37
계	344	6193	671:40:32		
통계의 제한/ 주의사항	1. 외교위는 국내에서 진행된 것만 통계함 2. 국방위는 합참, 육군본부 국정감사 등 영상회의록 없는 경우 제외 3. 기재위, 행안위, 교육위의 일부 지방국감은 제외된 수치임				

나. 정당별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 : 더불어민주당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더불어민주당(329시간 23분 23초) ≫ 국민의힘(216시간 38분03초)

감사위원수와 위원회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동일 조건하에서의 통계 가능한 범위로 수치화를 시도해 본 결과,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총 질의횟수가 **1,978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216시간 38분 03초**였다. 2024년도 보다 총질의시간이 3시간 정도 밖에 줄어 들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총 질의횟수가 **2945회**(2024년도 3,667회)였고, 총질의응답시간은 **329시간 23분 23초**(2024년도 402시간 34분 19초)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시간이나 질의 횟수가 많았으나, 지난해보다 질의횟수와 질의시간이 많이 줄어 들었다.

이유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겸임 의원이 많았던 것이 작용했고, 아울러 집권 여당이 되어 지난해와 같이 악착스럽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5년도 정당별 질의응답시간 및 질의응답횟수》

정당	총질의응답횟수	총질의응답시간
더불어민주당	2945	329:23:23
국민의힘	1978	216:38:03
조국혁신당	237	25:36:14
무소속/기타 정당	241	26:20:09
계	5401회	597시간 57분 49초

《2024년도 정당별 질의응답시간 및 질의응답횟수》

정당	총질의응답시간	총질의응답횟수
더불어민주당	402:34:19	3667
국민의힘	219:27:20	2050
조국혁신당	27:27:03	263
진보당	7:49:25	75
사회민주당	2:47:57	24
개혁신당	7:09:55	76
기본소득당	2:30:10	22
무소속	1:54:23	16
총계	671:40:32	6193

다. 위원회별 평균 질의응답시간 및 의원의 최다/최소 질의시간

위원회별 평균질의시간과 최다질의응답시간 및 위원장을 제외한 최소질의응답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결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원들보다 질의응답시간이 저조하였다. 질의횟수에 비해 질의시간이 많은 경우는 질의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이거나 질의시간에 다른 의원들이 끼어들기가 심했던 경우였다.

《2025년도 위원회별 평균 및 최다/최소 질의응답시간》

위원회	평균질의시간 (위원장 질의시간 포함)	의원의 질의응답시간	
		최다	최소
법제사법위원회	2:37:50	4:00:55	1:31:35
정무위원회	1:43:45	2:04:50	1:08:43
기획재정위원회	1:48:22	2:17:08	1:33:53

위원회	평균질의시간 (위원장 질의시간 포함)	의원의 질의응답시간	
		최다	최소
교육위원회	1:53:39	2:13:26	1:43:3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35:24	3:58:52	1:32:14
외교통일위원회	1:05:08	1:34:05	0:31:05
국방위원회	1:38:23	2:31:50	0:56:20
행정안전위원회	2:01:54	2:27:19	1:04:0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7:44	3:10:49	2:12: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8:03	2:50:32	1:55:3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9:58	1:59:50	1:15:15
보건복지위원회	2:06:45	3:20:41	1:29:3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31:47	3:29:53	2:05:47
국토교통위원회	1:34:13	1:58:17	0:55:42
국회운영위원회	0:29:06	0:42:58	0:12:55
성평등가족위원회	0:17:03	0:23:40	0:08:02

다. 질의횟수 최고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위원당 평균질의횟수가 가장 많았던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24.42회였고, 그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각각 23회였다. 지난해에 1위였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의원당 21.65회로 줄었다.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5년도 감사위원당 평균 질의횟수가 많았던 상위 상임위원회》

위원회	평균질의횟수	평균질의시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4.42	2:28:03
법제사법위원회	23.00	2:37:5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3.00	2:31:4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1.65	2:35: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75	2:27:44

《참고, 2024년도 감사위원당 평균 질의횟수가 많았던 상위 상임위원회》

위원회	감사위원수	질의횟수	질의응답시간	의원당평균질의 횟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	541	59:03:33	27.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502	50:49:31	26.42
환경노동위원회	16	422	45:27:14	26.38
기획재정위원회	26	657	63:13:15	25.27
보건복지위원회	24	570	56:56:48	23.75

라. 평균 질의응답시간 최고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감사위원)의 평균 질의응답시간의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평균 2시간 37분 50초**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2시간 35분 24초였다. 의원수가 적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시간 31분 47초(현장 국감제외)였다.

《2025년도 감사위원당 평균 질의응답시간이 길었던 상위 상임위원회》

위원회	평균질의횟수	평균질의시간
법제사법위원회	23.00	2:37:5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1.65	2:35: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3.00	2:31:4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4.42	2:28:0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75	2:27:44

마.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의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기)를 살펴 보면, 전체 의원의 질의횟수는 평균 4.57회(2024년도 5.07회, 2023년도 4.3회, 2022년도 5.9회, 2021년도 4회, 2020년도 4.3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평균 29분 6초(2024년도 33분 34초, 2023년도 26분 1초, 2022년도 34분 39초, 2021년도 26분 03초, 2020년도 26분 11초)였다. 지난해보다 질의횟수와 질의응답시간 모두 줄었다.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일 위원당 평균질의횟수는 2.59회(2024년도

2.65회, 2023년도 3.4회, 2022년도 3회, 2021년도 2.5회, 2020년도 3.1회), 평균 질의응답시간은 17시간 3분(2025년도 15분 37초, 2023년도 18분 5초, 2022년도 18분 46초, 2021년도 18분 14초, 2020년도 19분 26초)였다.

6. 제22대국회 3차년도 국감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돼야

27년 동안 지적하였지만, 제22대 국회 2차년도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고질적인 병폐인데, 제22대 국회 3차년도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질의한 의원이 그 내용이 시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하고, 복합적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시정조치팀’가동, 국회내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시정조치 사항 이행을 ‘실효적으로 평가하는 조직 구성’등 국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국감지적사항을 묵살해온 국정감사의 적폐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한다.

나.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회 전 30일), 못 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3.21.>”라고 하고 있는 바, ‘정기 집회일 이전에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원칙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면 국회부터 원칙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할 조항이면 원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제22대 국회에서도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인 2020년도 화상국정감사를 실시해 아주 효율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잘 보장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캄보디아 대사관 국정감사처럼 **문제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내년 제22대 국회의 제3차 국감이라도 해외현지 국정감사가 아닌 화상 국정감사를 통해 지금껏 문제가 되고 있는 외유형 국정감사라는 비난과 비용 낭비, 국감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한 것은 문제이다.

매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에 거부나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 제61조 제1항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들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요구를 제대로 관철하지 않은 것과 증언·참고인을 제대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자료요구의 한도와 범위를 제대로 하여 정말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는 막아야 한다.

마.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핥기’ 식 국감 종식

감사일정이 139일(2024년도 142일, 2023년도 138일)로 촉박한 가운데 813개 기관(2024년도 802개, 2023년도 791, 2022년도 783개, 2021년도 745개, 2020년 705개, 2019년 788개)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감사일정은 줄이고, 감사대상기관을 늘렸고, 국회법 개정으로 소관 상임위까지 변동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졌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제22대 국회 3차년도부터라도 피감기관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저인망식 피감기관 선정보다는 문제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종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을 선정해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2025년도 국정감사위원 활동평가

1.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

가. 선정근거와 연혁

지난 제15대 국회 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병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기능, 재정통제기능 등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대부분 불참(不參)하거나 매우 소홀하였으나,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구체적인 의정감시와 강직·엄정한 의정평가의 신인도가 높아져 영향력(총선 후보의 공천기준 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관행이 점차 감소하였다. 제17대 국회이후로는 국감을 등한시하는 관행이 불식되도록, 매년 국회직, 주요당직, 다선의원 등을 대상으로, 모범의원상을 신설하고, 매년 선정·시상한 바, 교섭단체 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었다.

제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당직자, 다선의원들의 국감참여도가 여타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서, 특히 국감NGO모니터단에서는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국감우수의원과 다름없는 예우로써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다만, 제20대 국회 1차년도(2016년)에는 국감 보이콧 등 F학점 국정감사로 선정을 하지 않았으나 2, 3, 4차년도에는 선정하였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다선 중진 의원 중 정쟁적 요소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조명을 하고, 모범적인 성실성을 보여 준 변재일 5선 의원(과방위), 현장감있는 정책국감을 전개했다고 평가된 서병수 의원(기획재정위), 국정감사 기간 중 상임위원장으로 매 피감기관마다 정책질의를 하여 국정감사 활성화에 기여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매 국정감사마다 정책질의를 하여 타의모범이 되었던 행정안전위 이명수 의원을 선정하였다.

제21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다선 중진의원들의 맹활약이 있었는데, 다선 중진 의원 중 정쟁적 요소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조명을 하고, 모범적인 성실성을 보여 준 최다선(6선)의원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정쟁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책국감을 전개한 변재일 의원(5선, 과방위), 조경태 의원(5선, 교육위)을 선정하였다.

제21대 국회 4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다선 중진위원들이 초선 못지 않게 많은 활동을 한 해이다. 다선중진 위원 중 모범적인 정책질의를 보여진 최다선(6선) 박병석 전 국회의장,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초선과 같은 열정으로 4차 질의가 한 김영주 국회부의장(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이지만 오송 참사와 관련해 야당처럼

따끔한 질책도 아까지 않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국)을 선정해 **국리민복(國利民福)**의 표본으로 삼고자 하였다.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제22대 국회 4명의 6선 의원을 비롯한 다선의원들과 교섭단체 당대표, 원내대표 등 핵심당직자, 국회당직자 중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민)과 주호영 국회부의장(국)을 선정해 국리민복(國利民福)의 표본으로 삼고자 하였다.

제22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최악이었던 감사라 모범의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나. 선정결과와 선정사유 및 활약상을 약술함 (가나다 순)

선정하지 않음

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

가. 평가기준 및 방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1) 먼저 **내용적 측면으로** ① 우리 모니터단이 예년과 같이 사용해 온 국민의 의혹사항에 대하여 규명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주요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사례가 잘 지적되었는지 여부, ④ 피감기관의 불법·부당한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많았는지 여부, ⑤ 잘못된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는지 여부, ⑥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많았는지 여부, ⑦ 국정을 감사함에 있어서 국가적·사회적 이슈를 탁월하게 발굴·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 **절차적 측면으로**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특히 모니터단의 모

니터여건 협조)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감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파행을 예방·조기 수습한 점) ③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④ 무리없이 국정감사 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⑤ 불필요한 정회 등이 많았는지 여부(감점) ⑥ 국정감사 일수가 적정했는지와,

3)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의 리더십도 국정감사 성패의 주요 관건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나. 선정결과 및 사유, 활동을 약술함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1)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3선)

성일종(成一鍾) 국방위원회 위원장(3선, 충남 서산시태안)은 여야를 초월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방부장관과의 ‘내란’ 용어 논쟁으로 첫날부터 좌초위기를 겪은 국방위의 2025년도 국정감사를 살려내 정책감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위원장 질의도중 여당 의원들의 끼어들기에도 다른 위원회처럼 퇴장명령을 내리지 않고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으며, 더욱 상임위원회에 포진된 여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의원들의 질의시간에 대해 과공비례(過恭非禮)라는 소리들을 정도로 적극 배려를 하였다.

3선의 중량감과 여야 없는 균형감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추진의 난맥상 점검, 이슈화되었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한미 협정 개정 필요성, 군 내 비전투 인력 아웃소싱 계획 점과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군무원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호평을 받았다.

일정별로 정리해 보면, 10월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 데이터 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군서버 관리 철저를 주문하였고, 간첩 등 해킹 보안 문제도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에 맞설 수 있는 조직과 기능 강화를 주문하면서 KIDA

인력 충원 계획을 장관이 직접 챙기도록 점검하였다.

아이티 콜리션(IT Coalition) 부분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과감하게 정책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사이버사령부 강화문제도 점검했다.

10월 14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MCM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조명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방위비 증액 문제 등에 대해 점검하면서 국가와 민족이 안보 분야에서 정말로 영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10월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산과 관련되는 중추적인 컨트롤타워임을 확인하면서 방추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했다.

10월 23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SOFA와 특검의 오산 기지 압수수색 문제 등에 대해 조명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의 항의를 받으면서도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점검했다.

10월 23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서 중국의 서해 내해화 추진과의 연관성과 안보에의 위험성을 점검했다. 특히 군사기지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고 UN 해양법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10월24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내내 강조해온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군사보안과 창끝부대의 전투력 향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했다.

ROTC 학군장교의 복무기간 적정성 문제와 개선대책을 주문했고, 군무원 처우 개선 특히 관사와 주택수당 문제, 군인연금 미포함 문제 등을 지적했다.

10월 30일 종합감사에서는 대비태세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절차에 의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정확히 하라고 주문했고, 관세협상과 관련한 난맥상을 점검하면서 핵잠 건조와 관련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해 주목을 받았다.

나형윤 중사의 군복무중 부상과 장애 문제에 대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개선을 주문했다.

2)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어기구(魚基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3선,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김현지 출석 논란에도 비교적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이끌었으며**, 이번 국정 감사기간 중 **13회에 걸쳐 1시간 35분 정도 정책질의**를 하였다.

특히 여당이면서도 피감기관에 대해 ‘잠깐만요. 장관님,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위원님 질의를 듣고 계세요. 자꾸 이렇게 충돌하지 마시고’라며 경고하면서, 피감기관의 **회피성 답변에 대해서는 엄중히 하여 수감질서를 바로 잡았다**.

농림분야 국정감사에서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감축에 따른 농가 부담 문제와 전환 농민의 판로 확보 문제, 트랙터 등 농기계 용자지원과 연계한 연구개발(R&D) 강화 필요성, 과도한 국내 농산물 유통비용 구조 개선 등을 제기하며,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을 위한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분야 국감에서는 항만 보안사고 예방과 보안 근로자 처우 개선문제 등을 조명하였고, 선원들의 불공정한 비과세 시정 및 고수온 관련대책과 모방수산물품 대책을 주문했다.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업 및 어촌이 당면한 기후위기, 인구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 등 복합 위기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했다. 더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원활한 추진,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고려사항과 대책 마련, 수산업과 해운·항만 경쟁력 증진, 어촌·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강화, 어촌·섬을 포함한 해양관광 활성화 등 거시적·제도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로부터 청년어업인 지원 및 어선 감척사업, 항만 어선원 안전, 해양쓰레기 수거·관리, 수산물 소비량과 수출 및 유통 기반, UN과 미국 등의 법 규제, 섬 지역 기본소득, 중소 조선소 위기, 재해 복구시스템 보완 및 사이버해킹 침해, 내수면 어업·산업, 고수온 피해와 재해보험, 수협 경영실적 악화 및 연체율 증가 등 세부적·현실적 사안들에 관련하여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과 관련해서는 해양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 해양경찰 역량 강화, 국제 마약거래 단속, 해경 조직 내 기강 해이 및 비위 근절, 수중드론 등 기술

개발 및 활용 확대, 서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한중 협력 등에 대해 지적과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는 농촌이 당면한 복합 위기와 식량 안보와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수급 조달 정책 및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농협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도 친환경 농업, 스마트 농업, 디지털 전환과 같은 농업 혁신이 필수적이며 농업기술 R&D 강화 등 정책대안 제시를 하는데도 기여하였고, 빈집 활용 촉진 등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농촌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였다.

산림청과 관련해서는 산불 대응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 우리 산림을 지혜롭게 가꾸고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조명을 하는데 기여하였고, 농협과 수협의 난맥상에 대한 질타와 제도적 개선방안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명단 별첨함)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에 반영하고,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평가하는 기본원칙은 1) 국정감사 기간 및 그 직전직후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2) 국정감사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과 형식상 출석했으나, 사실상의 질의가 없었던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는 국회본청 외부 국정감사는 현장모니터링을 한 현장모

니터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19로 인해서 비대면 화상모니터링을 하면서 계량화된 세부적인 정량·정성평가기준을 정하여 2025년도에도 시행하였다.

<앞의 2025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Ⅱ. 2025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1. 위원장 이슈로 인한 파행성 정회가 많아져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2024년도와 달리 위원장 이슈로 파행이 빚어졌다. 첫날 양원제 국가의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에서 대법원장의 이석 불허로 인한 감금논란과 첫 국정감사를 한 무소속 의원의 대법원장 모욕 막말로 인해 파행을 하였다. 이어 계속된 고성과 항의로 인해 대법원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도 국정감사가 11일간 매일 매일 고성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에는 첫날 AI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외교통일위에서 활동)과 피감기관장의 가짜 만남 AI가 상영되어 한때 파행을 시작하여 2일차인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욕설문자 공개 파문으로 여야간의 극한 대립을 하였고, 이어서는 계속 위원장 딸의 국회내 결혼식으로 인해 가다 서다 퇴장 등의 반쪽국감 까지 ‘꼴불견’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에서는 원전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매국계약 논란이 빚어져 파행했으며 ‘똥’ 논란이 빚어졌다.

위원회별로 다양한 파행이 나왔으며, 2025년도 마지막 국회운영위원회의의 대통

령 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의 '이해 충돌'논란으로 장터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정회하였고, 정회 당시 여당 의원의 야당 원내대표 배치기 논란으로 한 때 소란스러웠으며,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 '위원장 평가' 관련 정회되기도 하였다.

《2025년도 국정감사 파행 등 현황(모니터 보고)》

(모니터 보고내용만 정리함)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수감	파행의 원인
법제사법	2025-10-13	대법원	7	대법원장 이석불허 논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0-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장관과 이춘석의원 가짜만남 AI 영상 상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5-10-13	산업통상자원부	1	매국계약 증인채택 논란
법제사법	2025-10-14	법무부	4	증인채택 논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0-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	욕설 문자메시지 공개와 욕설
기후에너지환경노동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부	1	조직개편업무보고논란
법제사법	2025-10-15	대법원	7	검증 관련 반쪽 국감
기후에너지환경노동	2025-10-15	고용노동부	1	간접 활동에 연루된 민주노총 간부 증인 채택 문제
법제사법	2025-10-16	감사원	1	대법원 현장점검과 관련해 야당 주장을 문제 삼자 국민의힘 반발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 야당 발언권 제한으로 인한 설전(舌戰)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간 충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0-16	원자력안전위원회	8	회의비공개/ 의원간 대립 격화
법제사법	2025-10-17	군사법원	1	국회의원발언 순서변경 및 제한논란
행정안전(지방1반)	2025-10-20	인천광역시	1	12/3 계엄 관련 유정복 시장 간 고성
법제사법	2025-10-21	대전고등법원	20	판사 동행명령장 관련
법제사법	2025-10-21	대전고등검찰청	13	의원간 고성논쟁
법제사법	2025-10-23	서울고등검	11	위원장과 국민의힘 고성 논쟁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 수감	파행의 원인
		찰청		
법제사법	2025-10-24	법제처	1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간 고성논란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4	고 위 공 직 자 범죄수사처	1	위원장과 국민의힘 총돌 / 신동욱 의원 발 언권 놓고 파행
행 정 안 전 (지방1반)	2025-10-27	충청남도	1	김태흠 해외출장·답변태도 놓고 고성...행안위 국감 파행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2025-10-29	과 학 기 술 정 보통신부	73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
국토교통	2025-10-29	국토교통부	3	야당의원(김도읍 의원)과 김윤덕 국토부장관 간 언쟁으로 파행
법제사법	2025-10-30	법무부	6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파행 / 7분여 동안의 마무리 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 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은 물러나라" 며 항의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2025-10-30	방 송 미 디 어 통신위원회	13	반쪽국감 진행 /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불참
행정안전	2025-10-30	행정안전부	7	동행명랑장 발부
국회운영	2025-11-06	대 통 령 비 서 실	3	주진우 의원 '이해충돌' 의사진행발언 소란 파행/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내용 때문에 파 행
국회운영	2025-11-05	국 가 인 권 위 원회	1	국감 내내 상대 당 의원의 질의 도중 고성으 로 항의하는 등 신경전/ 정회하며 파행

참고로 2024년도 국정감사 중 가장 꿀불건이었던 파행은 10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와 11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찬대)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였다. 위 2개 위원회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고성, 막말, 삿대질 등으로 소란스러웠다.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등은 감사원 회의록, 국정감사 도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동행명령장 발부로 인해서 정회 및 소란과 퇴장사태가 빚어졌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의 경우에는 진화위 국정감사와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때문에 일시 파행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파감기관의 과거 발언 때문에 하루종일 파행을 하다가 피감기관장의 증인출석요구 철회 의결로 기관장 없는 감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는 야당 국회의

원의 집단퇴장으로 인해서 잠시 국정감사가 중단되기 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의 경우에는 여야간 막말과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일시정회를 하기도 하였다.

«2024년도 국정감사 파행 등 현황(모니터 보고)»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장소	파행사유 등
10.7	행정안전위	행정안전부 등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는데, 여당이 반발해 퇴장했음
10.7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회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녹취를 재생하여 파행을 함
10.8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정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한 민주당 이연주 의원의 질의에 반발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태도에 대해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이 "악을 썼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이철규 위원장이 "정 의원님, 품격에 맞는 어휘를 구사해 달라"고 하자 정 의원이 "왜 내 이름을 거명하며 말하나"라고 반박했고, 언성이 높아지며 여야 의원들간 고성으로 정회
10.8	환경노동	환경부	국회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앞에 놓인 노트북에 '기후파괴범 윤석열'이라 적힌 종이를 붙였는데, 이 문구를 본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환경부 국감은 30여분 만에 중단
10.8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져 40분만에 파행.
10.10	행정안전위	중앙선관위 등	국회	국감을 중단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2시까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행안위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항의
10.1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회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충돌해 오전/오후 내내 파행
10.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등	국회	야당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후원한 업체가 코트라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파행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장소	파행사유 등
10.15	행정안전위	서울시	서울시청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향해 '간죽댄다'는 표현을 쓰자 여야는 정면충돌했고, 오세훈 시장은 "의원님 표현이 과하시다"며 "제가 지금 간죽됐다.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해서 감사중단
10.15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위원장이 하니의 출석 현장 모습을 촬영한 데 이어 따로 하니를 만나고 오자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로부터 '최 위원장이 국감 진행 도중에 회의장을 비우고 하니를 만나고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최 위원장이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회의가 중단
10.18	법제사법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	국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결정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가 오갔는데, 야당은 검찰에 김 여사 여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충돌
10.21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2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특정 증인에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
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	국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0.7 방통위 국감에서 최 위원장 발언이 전체 질의 시간의 20%를 차지했다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분석을 들며 "모니터단도 '상임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고 지적했다"고 최 위원장은 "위원장을 흔들고 시작하는 건 안 참겠다"며 최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여
10.24	교육위	교육부 종합감사	국회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 파행
10.2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특혜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고성을 질렀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석으로 가서 "국회법을 망가뜨린다. 법을 읽어보시라"고 항의해 파행
11.1	국회운영	대통령비서실 등	국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 등 7명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국민의힘이 항의하면서 반발

2. 2025년도 10개 이상 수감기관 동시감사 28회, 부실국감

10개 이상 기관을 하루에 한꺼번에 감사를 한 경우는 28회였다. 가장 많은 경우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로 5회였고,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로 4회였다.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회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회씩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는 모두 1번 이상씩 10개 이상 피감기관을 동시감사하였다. 전체 피감기관이 다 출석하는 종합감사를 제외한 수치이다.

《2025년도 국정감사 10개 이상 동시수감 기관의 감사현황(많은순)》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수감 기관수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0-24	국 가 과 학 기 술연구회	53	10:02:00	20:04:00	10:02: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0	중 앙 환 경 분 쟁 조 정 피 해 구제위원회	31	10:07:00	18:54:00	8:47:00
국방위원회	2025-10-13	국방부	29	10:07:00	22:08:00	12:01:00
정무위원회	2025-10-13	국무조정실	27	10:12:00	23:24:00	13:12: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3	한 국 에 너 지 공단	21	10:07:00	18:18:00	8:11:00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1	대 전 고 등 법 원	20	10:04:00	21:51:00	11:47: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22	국 립 중 앙 박 물관	20	10:03:00	18:09:00	8:06: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17	기상청	17	10:04:00	11:51:00	1:47:00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0	서 울 고 등 법 원	17	10:17:00	20:24:00	10:07:00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2	한 국 보 건 산 업진흥원	17	10:09:00	20:06:00	9:57:00
교육위원회	2025-10-16	한 국 고 전 번 역원	14	10:09:00	20:29:00	10:20:00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1	식 품 의 약 품 안전처	14	10:14:00	21:07:00	10:53: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23	한 국 콘 텐 츠 진흥원	14	10:04:00	18:12:00	8:08:00

법제사법	2025-10-21	대 전 고 등 검 찰청	13	15:34:00	20:58:00	5:24: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2025-10-16	대 한 무 역 투 자진흥공사	12	10:05:00	18:44:00	8:39:00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2025-10-21	근 로 복 지 공 단	12	14:00:00	18:19:00	4:19:00
기 획 재 정 (감사1반)	2025-10-23	부 산 지 방 국 세청	12	14:34:00	17:58:00	3:24:00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2025-10-27	경 제 사 회 노 동위원회	12	10:06:00	19:26:00	9:20:00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2025-10-13	과 학 기 술 정 보통신부	11	10:00:00	19:30:00	9:30:00
문화체육관 광위원회	2025-10-20	사 행 산 업 통 합 감 독 위 원 회	11	10:02:00	21:46:00	11:44:00
법제사법위 원회	2025-10-23	서 울 고 등 검 찰청	11	11:16:00	22:34:00	11:18: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2025-10-23	중 소 벤 처 기 업진흥공단	11	10:07:00	19:22:00	9:15:00
국방	2025-10-24	육군본부	11	10:04:00	13:40:00	3:36:00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2025-10-27	수 산 업 협 동 조합중앙회	11	10:04:00	18:38:00	8:34:00
국방	2025-10-14	합 동 참 모 본 부	10	10:01:00	18:01:00	8:00:00
행정안전	2025-10-14	행정안전부	10	10:03:00	24:29:00	14:26: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2025-10-20	한 국 석 유 공 사	10	11:01:00	23:00:00	11:59:00
기 획 재 정 (감사2반)	2025-10-23	대 전 지 방 국 세청	10	14:30:00	18:01:00	3:31:00

참고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별 하루에 감사하는 피감기관수는 전
체 감사일수 142일 대비 전체감사대상기관(802개)을 나누면 하루 평균 5.65개
(2023년도 5.73개)보다는 조금 줄고 2022년도(5.14개) 2021년도(5.1개)보다 늘었다.

국회공보와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국정감사를 제외하고도 하루 10개 이상 피감기관
에 대한 동시감사가 이루어진 일수는 무려 **29일**(2023년 **27일** 2022년 **26일**, 2021
년도 25일, 2020년도 **21일**, 2019년도 30일)이나 되었다.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감사 일수를 살펴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가 각 3일 순이었고,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가 각 2일,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각 1일이었다.

《2024년도 국정감사 10개 이상 동시수감 기관의 감사현황》

위원회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대상기관	대상기관수	질의받지 못한기관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0-17	10:02	19:26	9:24:00	과학기술정보연구회	53	24
국방위원회	2024-10-08	10:04	22:00	11:56:00	국방부(용산)	29	20
정무위원회	2024-10-07	10:08	23:11	13:03:00	국무조정실	27	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18	10:03	16:34	6:31:00	국립중앙박물관	21	4
환경노동위원회	2024-10-14	10:00	12:12	2:12: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	10
환경노동위원회	2024-10-11	10:35	12:26	1:51:00	기상청	17	16
법제사법위원회	2024-10-22	9:59	19:09	9:10:00	서울고등법원	17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14	10:35	20:01	9:26	한국전력공사	16	10
보건복지위원회	2024-10-17	10:08	18:53	8:45: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0-08	10:01	19:42	9:4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10
보건복지위원회	2024-10-10	10:05	19:42	9:37	식품의약품안전처	14	11
교육위원회	2024-10-11	10:03	19:49	9:46	한국고전번역원	14	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17	10:03	19:56	9:53:00	한국콘텐츠진흥원	14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11	10:04	20:43	10:3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4
환경노동위원회	2024-10-15	10:06	22:14	12:08: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2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17	10:07	19:10	9:03:00	한국석유공사	12	2
환경노동위원회	2024-10-22	10:07	19:52	9:45:00	근로복지공단	12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15	10:10	23:15	13:05:00	사행산업통	11	3

위원회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대상기관	대상기관수	질의받지 못한기관수
광위원회				0	합감독위원회		
국방위원회	2024-10-17	10:01	15:20	5:19:00	육군본부	11	4
환경노동위원회	2024-10-17	10:25	19:08	8:43:00	한국수자원공사	11	5
법제사법위원회	2024-10-18	10:00	23:16	13:16:00	서울고등검찰청	11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0-21	10:03	15:16	5:13:00	해양경찰청	11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22	10:06	19:12	9:06: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1
행정안전위원회	2024-10-07	10:24	25:56:00	15:32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10	3
국방위원회	2024-10-10	10:04	18:46	8:42	합동참모본부	10	5
교육위원회	2024-10-15	10:04	20:07	10:03:00	서울대학교	10	0
법제사법위원회(지방1반)	2024-10-17	10:30	12:18	1:48:00	대전고등법원	10	3
법제사법위원회(지방2반)	2024-10-17	10:36	12:19	1:43:00	대구고등법원	10	1
법제사법위원회(지방2반)	2024-10-17	14:34	17:44	3:10:00	대구고등검찰청	10	0

3. 밤 23시를 넘긴 심야국감은 22번(2024년도 28번, 23년도 19번)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밤 23시를 넘긴 횟수는 22번이었다. 자정(24시)을 넘긴 경우는 7번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늦게까지 한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위원회 등 8개 기관 국정감사로 자정을 넘겨 0시 52분에 감사종료했다.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심야국감을 가장 많이 한 곳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로 4번 심야 국정감사를 하였다. 대부분 주간에 파행성 정회를 하고 밤늦게 감사를 진행한 때문이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으로 3번 심야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감

사 첫날(10.14) 국정자원 화재 등 이슈가 많았고 파행도 했기 때문이었고 종합감사 역시 늦게 까지 진행했다. 다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는 서울시 국정감사가 지연되어 늦게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와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와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기)는 심야 국정감사를 각 2회씩 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이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정부위원회(위원장 윤한홍)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각 1번씩 심야국정감사를 하였다.

검임을 제외하고 심야국정감사가 없었던 곳은 국방위(위원장 성일종)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어기구)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이었다.

《밤 11시를 넘긴 2025년도 심야 국정감사 현황》

감사종료가 늦은 순서 순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수 감기관 수	장소	감사시 작	감사종 료	감사시 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2025-10-16	원자력안전 위원회	8	국회	10:13:00	24:52:00	14:39:0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2025-10-14	방 송 미 디 어 통신위원회	4	국회	10:07:00	24:30:00	14:23:00
행정안전	2025-10-14	행정안전부	10	국회	10:03:00	24:29:00	14:26:00
교육	2025-10-20	서울특별시 교육청	3	국회	10:02:00	24:12:00	14:10:00
국토교통	2025-10-13	국토교통부	3	국회	10:05:00	24:11:00	14:06:0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2025-10-13	산 업 통 상 자 원부	1	국회	10:46:00	24:03:00	13:17:00
국회운영	2025-11-06	대 통 령 비 서 실	3	국회	10:05:00	24:01:00	13:56:00
교육	2025-10-14	교육부	8	국회	10:06:00	23:55:00	13:49:00
외교통일	2025-10-14	통일부	4	국회	10:05:00	23:51:00	13:46:00
기획재정	2025-10-30	기획재정부	1	국회	10:34:00	23:51:00	13:17:0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2025-10-20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	0	국회	15:31:00	23:41:00	8:10:00

		관 련 (YTN,TBS,연 합뉴스 TV)					
국토교통	2025-10-29	국토교통부	3	국회	10:12:00	23:34:00	13:22:0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2025-10-30	방 송 미 디 어 통신위원회	13	국회	10:06:00	23:34:00	13:28:00
보건복지	2025-10-30	보건복지부	44	국회	10:10:00	23:32:00	13:22:00
행정안전	2025-10-23	서울경찰청	1	서울경 찰청	20:34:00	23:28:00	2:54:00
법제사법	2025-10-13	대법원	7	국회	10:13:00	23:24:00	13:11:00
정무	2025-10-13	국무조정실	27	국회	10:12:00	23:24:00	13:12:00
외교통일	2025-10-13	외교통일부	6	국회	10:12:00	23:24:00	13:12:00
국회운영	2025-11-05	국회사무처	5	국회	18:37:00	23:24:00	4:47:00
행정안전	2025-10-30	행정안전부	7	국회	10:12:00	23:10:00	12:58:00
기후에너지환 경노동	2025-10-15	고용노동부	1	국회	10:04:00	23:06:00	13:02:0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2025-10-20	한 국 석 유 공 사	10	강원랜 드(강원 정선)	11:01:00	23:00:00	11:59:00

참고로, 2024년도 국정감사 중 밤 11시를 넘어선 국정감사는 모두 28곳으로 대부분 현안 이슈가 있는 곳이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의 경우에는 5차례 심야 국정감사를 하였고, 그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이 4차례 심야국정감사를 하였다.

김건희 여사 수사, 이재명 대표 재판을 주로 다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3차례 심야 국정감사를 하였고, ‘기생집’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의 경우에도 3번 심야 국정감사를 하였다.

그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도 각 2회씩 심야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24년도 국정감사 가장 늦게까지 한 경우는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찬대)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로 11월 1일 10시 4분 시작해서 11월 2일 오전 2시 43분에 감사종료하였다.

그 다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국정감사로 10월 8일 오전 10시 6분에 시작해서 10월 9일 오전 2시 17분이었다.

두 상임위원회 모두 시작시부터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문제로 파행성 정회를 하였다.

«밤 11시를 넘긴 2024년도 심야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실제감사시간	대상기관	기관수	장소
국회운영위원회	2024-11-01	10:04	26:43:00	16:39:00	12:03:29	대통령비서실	3	국회
교육위원회	2024-10-08	10:06	26:17:00	16:11:00	11:50:43	교육부	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4-10-07	10:24	25:56:00	15:32:00	9:43:08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1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24	10:07	25:39:00	15:32:00	10:57:28	문화체육관광부	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0-21	10:02	25:25:00	15:23:00	10:30: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0-24	10:02	25:16:00	15:14:00	8:18:50	방송통신위원회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4-10-10	10:13	25:14:00	15:01:00	7:05:03	고용노동부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4-10-24	10:06	24:55:00	14:49:00	9:47:32	국토교통부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10-23	10:05	24:43:00	14:38:00	9:51:30	종합감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4-10-24	10:31	24:46:00	14:15:00	8:41:41	외교부	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07	10:05	24:05:00	14:00:00	9:18:34	산업통상자원부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0-07	10:04	23:59:00	13:55:00	10:27:35	방송통신위원회	4	국회
교육위원회	2024-10-24	10:16	24:04:00	13:48:00	9:04:08	교육부	7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22	10:05	23:44:00	13:39:00	9:58:21	대한체육회	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4-10-07	10:11	23:48:00	13:37:00	10:30:32	국토교통부	3	정부세종청사(세종)
법제사법	2024-10-15	10:00	23:35:00	13:35:00	7:46:48	감사원	1	국회

위원회	감사일	감사 시작	감사종 료	감사시 간	실제감 사시간	대상기관	기관수	장소
위원회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2024-10-24	10:05	23:38:00	13:33:00	9:08:53	산업통상 자원부	25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2024-10-08	10:00	23:25:00	13:25:00	6:34:22	법무부	5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 회	2024-10-15	10:10	23:35:00	13:25:00	9:02:58	방송통신 위원회	1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2024-10-18	10:00	23:16:00	13:16:00	7:11:07	서울고등 검찰청	11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2024-10-28	10:04	23:14:00	13:10:00	8:13:02	기획재정 부	5	국회
문화체육 관광위원 회	2024-10-15	10:10	23:15:00	13:05:00	9:23:15	사행산업 통합감독 위원회	11	국회
정무위원 회	2024-10-07	10:08	23:11:00	13:03:00	7:40:10	국무조정 실	27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2024-10-07	10:08	23:10:00	13:02:00	8:25:53	보건복지 부, 질병관리 청	2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2024-10-25	10:07	23:02:00	12:55:00	8:47:44	행정안전 부	6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2024-10-10	10:19	23:04:00	12:45:00	8:28:41	중앙선거 관리위원 회	4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 회	2024-10-14	14:31	25:39:00	11:08:00	9:14:33	한국방송 공사	3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2024-10-15	21:10	25:13:00	4:03:00		서울경찰 청	1	서울경 찰청

4. 감사시간이 2시간미만 15곳(2024년도 16곳, 2023년도 10곳)

2025년도 2시간 미만으로 감사를 한 곳은 모두 15곳이었다.

정보위원회(위원장 신성범)의 사이버 작전사령부 국감이 1시간 4분으로 가장 짧았다.

행정안전위의 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대부분으로 이번 지방분반하여 실시한 8곳 모두 조기종료했다. 행정안전위의 지방1반(반장 신정훈)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가 1시간 6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행정안전위 지방2반(반장 서범수)의 대구경찰

청 국정감사가 1시간 46분으로 가장 길었다.

지난해와 같이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기상청 국정감사는 17개 기관을 동시 감사하였는데, 감사시간은 1시간 47분에 불과했다.

《감사시간이 2시간 미만인 2025년도 국정감사 현황(짧은 순)》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장소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정보	2025-11-05	사이버작전 사령부	국회	16:18:00	17:22:00	1:04:00
행정안전(지방 1반)	2025-10-28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14:20:00	15:26:00	1:06:00
행정안전(지방 1반)	2025-10-27	충청남도경 찰청	충남경찰청	16:11:00	17:31:00	1:20:00
행정안전(지방 1반)	2025-10-20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15:32:00	16:58:00	1:26:00
행정안전(지방 2반)	2025-10-24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14:02:00	15:31:00	1:29:00
행정안(지방2 반)	2025-10-28	경상남도경 찰청	경상남도경 찰청	14:33:00	16:05:00	1:32:00
행정안전(지방 2반)	2025-10-20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	14:31:00	16:03:00	1:32:00
교육(지방1반)	2025-10-23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10:02:00	11:40:00	1:38:00
행정안전(지방 1반)	2025-10-24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15:20:00	17:01:00	1:41:00
교육(지방1반)	2025-10-23	충청북도교 육청	충북대학교	13:02:00	14:45:00	1:43:00
행정안전(지방 2반)	2025-10-27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14:42:00	16:28:00	1:46:00
외교통일(구주 반)	2025-10-22	주모르코대 사관	주모르코대 사관	10:00:00	11:46:00	1:46:00
기후에너지환 경노동	2025-10-17	기상청	국회	10:04:00	11:51:00	1:47:00
정보	2025-11-05	국군방첩사 령부	국회	14:20:00	16:07:00	1:47:00
교육(지방2반)	2025-10-23	경상국립대 학교	경상남도교 육청	10:16:00	12:10:00	1:54:00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시간이 모두 합해 2시간이 이하인 곳은 모두 16곳이었다. 이번 비상계엄사태의 주요기관 중의 한 곳인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도 1시간 55분에 불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대부분 2시간 안에 끝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법원 등 국정감사에도 2시간 안에 마무리되었다.

비공개인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는 3곳이 2시간 이하였고, 국립대학교 국정감사를 하는 교육위원회에도 2시간이 안되었다.

«감사시간이 2시간 미만인 2024년도 국정감사 현황(짧은 순)»

위원회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대상기관	기관수	장소
정보위원회	2024-10-30	16:44	18:00	1:16:00	사이버작전사령부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지방 2반)	2024-10-17	14:10	15:29	1:19:00	경상북도경찰청	1	경 상 북 도 경 찰 청
행정안전위원회(지방 2반)	2024-10-22	15:00	16:20	1:20:00	부산경찰청	1	부 산 경 찰청
행정안전위원회(지방 2반)	2024-10-21	15:02	16:23	1:21:00	울산경찰청	1	울 산 경 찰청
행정안전위원회(지방 1반)	2024-10-22	14:44	16:06	1:22:00	광주경찰청	1	광 주 경 찰 청 (광 주)
행정안전위원회(지방 1반)	2024-10-21	14:33	16:04	1:31:00	전라남도경찰청	1	전 라 남 도 경 찰 청
행정안전위원회(지방 1반)	2024-10-17	16:03	17:37	1:34:00	충청북도경찰청	1	충 청 북 도 경 찰 청
법제사법위원회(지방 2반)	2024-10-17	10:36	12:19	1:43:00	대구고등법원	10	대 구 고 등법원
법제사법위원회(지방 1반)	2024-10-17	10:30	12:18	1:48:00	대전고등법원	10	대 전 고 등법원
환경노동위원회	2024-10-11	10:35	12:26	1:51:00	기상청	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4-10-23	15:30	17:21	1:51:00	제주경찰청	1	제 주 경 찰청
정보위원회	2024-10-30	14:32	16:27	1:55:00	국군방첩사령부	1	국회
교육위원회(지방2반)	2024-10-17	14:35	16:31	1:56:00	경북대학교	6	경 북 대 학교
교육위원회(지방2반)	2024-10-18	14:29	16:28	1:59:00	경상국립대학교	5	부 산 대 학교
정보위원회	2024-10-31	10:06	12:05	1:59:00	경찰청	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아주 반)	2024-10-14	9:58	11:58	2:00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1	주우즈 베키스 탄대사 관

5. 조기 종료 국감은 27곳(지난해 28곳)

2025년도 오후 6시 이전에 끝난 국정감사를 살펴보면(오전 오후로 나눠서 국정감사를 실시한 곳 중에서 뒤에 실시한 국정감사의 종료시간이 오후 6시 이전 경우를 포함함,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제외) 27곳이었다. 정보위원회를 제외하면 25곳이었다. 국방위(위원장 성일종)가 4곳, 행정안전 지방1반(반장 신정훈)과 지방2반(반장 서범수)가 각 4곳,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어기구)와 교육위 지방1반(반장 김영호)와 지방 2반(반장 조정훈)이 각 2회씩이었다. 국토교통위(위원장 맹성규), 국토위 지방 1반(반장 맹성규)와 지방2반(반장 권영진), 기획재정위 감사1반(반장 임이자), 보건복지위(위원장 박주민), 행정안전위(위원장 신정훈),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이 각 1곳씩이었다. 비공개였던 정보위(위원장 신성범)는 2곳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의 경우에는 오전에 국정감사를 한 후 오후에 시찰을 한 경우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어기구)의 경우에도 국감 후 시찰이 있기는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의 지방국정감사반의 경우에는 오전에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고, 뒤에 지방경찰청을 감사하는데, 지방경찰청 감사종료시간이 6시 이전인 경우가 많았다. 반별 4차례씩 모두 8번 조기종료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의 경우에는 인천에서 열린 국제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감사를 나눠서 하였는데, 모두 일찍 종료하였다.

가장 많이 조기종료한 위원회는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로 모두 4차례 조기종료하였다. 감사위원의 수가 적은 데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가로 불출석하여 상대적으로 위원수가 적은 경우였다.

종료된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주로 현지 국정감사가 많았으며, 국회에서 한 경우는 2차례였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현지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조기종료하였고,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방 국정감사도 조기종료하였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에도 지방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기종료 하였다.

《2025년도 오후 6시 이전 종료된 감사현장(감사일순)》

위원회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대상기관	수감기관수	감사장소	출석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17	10:02:00	15:54:00	5:52:00	농촌진흥청	7	농촌진흥청	1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17	10:04:00	11:51:00	1:47:00	기상청	17	국회	16
국방위원회	2025-10-20	10:08:00	16:32:00	6:24:00	병무청	2	국회	13
행정안전위원회(지방1반)	2025-10-20	15:32:00	16:58:00	1:26:00	인천경찰청	1	인천경찰청	10
행정안전위원회(지방2반)	2025-10-20	14:31:00	16:03:00	1:32:00	세종경찰청	1	세종경찰청	11
국토교통위원회(지방1반)	2025-10-20	10:03:00	16:15:00	6:12:00	경기도	1	경기도청	14
국토교통위원회(지방2반)	2025-10-20	10:09:00	17:16:00	7:07:00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청	15
국방위원회	2025-10-21	10:00:00	12:26:00	2:26:00	육군지상적전사령부	1	지상작전사령부	12
행정안전위원회	2025-10-21	10:06:00	17:56:00	7:50:00	경기도	1	경기도청	21
교육위원회(지방1반)	2025-10-22	14:33:00	17:55:00	3:22:00	전라북도교육청	4	전북대학교	9
교육위원회(지방2반)	2025-10-22	10:02:00	12:20:00	2:18:00	경북대학교	6	대구광역시교육청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22	10:08:00	17:57:00	7:49:00	해양경찰청	7	해양경찰청	19
기획재정위원회(감사1반)	2025-10-23	14:34:00	17:58:00	3:24:00	부산지방국세청	12	부산지방국세청	12
교육위원회(지방1반)	2025-10-23	13:02:00	14:45:00	1:43:00	충청북도교육청	4	충북대학교	8
교육위원회(지방2반)	2025-10-23	13:02:00	15:19:00	2:17:00	경상남도교육청	3	경상남도교육청	8
국방위원회	2025-10-23	15:01:00	17:26:00	2:25:00	해군본부	7	해군본부	13
국방위원회	2025-10-24	10:04:00	13:40:00	3:36:00	육군본부	11	계룡대육군본부	12
행정안전위원회(지방1반)	2025-10-24	15:20:00	17:01:00	1:41:00	대전경찰청	1	대전경찰청	11

위원회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대상기관	수감기관수	감사장소	출석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	2025-10-24	14:02:00	15:31:00	1:29:00	강원경찰청	1	강원경찰청	10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4	10:00:00	16:09:00	6:09:00	국민연금공단	1	국민연금공단	21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	2025-10-27	16:11:00	17:31:00	1:20:00	충청남도경찰청	1	충남경찰청	11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	2025-10-27	14:42:00	16:28:00	1:46:00	대구경찰청	1	대구경찰청	11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7	10:02:00	17:39:00	7:37:00	인천국제공항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30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	2025-10-28	14:20:00	15:26:00	1:06:00	전북경찰청	1	전북경찰청	11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	2025-10-28	14:33:00	16:05:00	1:32:00	경상남도경찰청	1	경상남도경찰청	11
정보위원회	2025-11-5	16:18:00	17:22:00	1:04:00	사이버사령부	1	국회	7
정보위원회	2025-11-6	10:03:00	12:06:00	2:03:00	경찰청	1	국회	10

참고로, 2024년도 오후 6시 이전에 끝난 국정감사를 살펴보면(오전 오후로 나눠서 국정감사를 실시한 곳 중에서 뒤에 실시한 국정감사의 종료시간이 오후6시 이전 경우를 포함함,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제외)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오전에 국정감사를 한 후 오후에 시찰을 한 경우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경우에도 국감 후 시찰이 있기는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국정감사반의 경우에는 오전에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고, 뒤에 지방경찰청을 감사하는데, 지방경찰청 감사종료시간이 6시 이전인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감사를 나눠서 하였는데, 모두 일찍 종료하였다.

종료된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주로 현지 국정감사가 많았다.

《2024년 6시 이전 종료된 감사현장(종료시간이 이른 순)》

위원회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대상기관	기관수	장소
환경노동위원회	2024-10-14	10:00	12:12	2:12: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	전북지방환경청(전북 전주)
환경노동위원회	2024-10-11	10:35	12:26	1:51:00	기상청	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지방2반)	2024-10-14	10:06	12:28	2:22:00	전북특별자치도	1	전북특별자치도청
국방위원회	2024-10-11	10:02	12:54	2:52	병무청	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0-10	10:01	12:55	2:54: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지방1반)	2024-10-14	10:00	13:11	3:11:00	부산광역시	1	부산광역시청
국방위원회	2024-10-22	11:00	13:20	2:20:00	육군제2작전사령부	1	육군 제2작전사령부(대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0-21	10:03	15:16	5:13:00	해양경찰청	11	해양경찰교육원(여수)
국방위원회	2024-10-17	10:01	15:20	5:19:00	육군본부	11	육군본부
행정안전위원회(지방2반)	2024-10-17	14:10	15:29	1:19:00	경상북도경찰청	1	경상북도경찰청
행정안전위원회(지방1반)	2024-10-21	14:33	16:04	1:31:00	전라남도경찰청	1	전라남도경찰청
행정안전위원회(지방1반)	2024-10-22	14:44	16:06	1:22:00	광주경찰청	1	광주경찰청(광주)
행정안전위원회(지방2반)	2024-10-22	15:00	16:20	1:20:00	부산경찰청	1	부산경찰청
행정안전위원회(지방2반)	2024-10-21	15:02	16:23	1:21:00	울산경찰청	1	울산경찰청
교육위원회(지방2반)	2024-10-18	14:29	16:28	1:59:00	경상국립대학교	5	부산대학교
교육위원회(지방2반)	2024-10-17	14:35	16:31	1:56:00	경북대학교	6	경북대학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18	10:03	16:34	6:31:00	국립중앙박물관	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4-10-22	10:07	16:49	6:42:00	인천국제공항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의실(인천)
법제사법위원회(지방1반)	2024-10-17	14:29	16:51	2:22:00	대전고등검찰청	7	대전고등검찰청
행정안전위원회	2024-10-23	15:30	17:21	1:51:00	제주경찰청	1	제주경찰청
국토교통위원회	2024-10-11	10:04	17:27	7:23:00	한국철도공사	8	한국철도공사(대전)
교육위원회(지방1반)	2024-10-17	14:58	17:30	2:32:00	전북대학교	6	광주광역시교육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0-16	10:05	17:34	7:29:00	산림청	7	정부대전청사
행정안전위원회(지방1반)	2024-10-17	16:03	17:37	1:34:00	충청북도경찰청	1	충청북도경찰청

위원회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대상기관	기관수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지방2반)	2024-10-17	14:34	17:44	3:10:00	대구고등검찰청	10	대구고등검찰청
기획재정위원회(지방2반)	2024-10-23	15:42	17:48	2:06:00	대전지방국세청	5	한국은행 전북본부(전주)
여성가족위원회	2024-10-30	10:06	17:48	7:42:00	여성가족부	7	국회
국방위원회	2024-10-18	15:28	17:58	2:30:00	공군본부	5	공군본부

6.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재외공관 국감 여전히 계속진행

2025년도 외교통일위원회는 12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0월 16일 아주반의 주필리핀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4일 미주반의 주벤쿠버영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로 끝났다.

아주반, 미주반, 구주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해서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감사시간은 국회공보 기준으로 **35시간 08분**(2024년도 35시간 37분)에 불과했다. <<참고로 국내반 3일동안 39시간 21분이었음>>

<<2025년도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 시간현황(감사일 순)>>

감사반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대상기관	기관수(포함)	장소	출석위원
아주반	2025-10-16	9:59:00	12:32:00	2:33:00	주필리핀대사관	1	주필리핀대사관	6
아주반	2025-10-18	9:59:00	13:16:00	3:17:00	주일본대사관	1	주일본대사관	7
미주반	2025-10-17	10:02:00	15:19:00	5:17:00	주미국대사관	4	주유엔대표부	6
구주반	2025-10-17	10:00:00	12:51:00	2:51:00	주네덜란드대사관	6	헤이그 메리어트 호텔 회의장	6
아주반	2025-10-20	9:59:00	13:01:00	3:02:00	주중국대사관	2	주상하이총영사관	6

미주반	2025-10-20	10:04:00	12:44:00	2:40:00	주브라질 대사관	4	주칠레대사 관	6
구주반	2025-10-20	10:00:00	12:08:00	2:08:00	주제네바 유엔및국 제기구대 표부	2	제네바유엔 및 국제기구 대표부	6
아주반	2025-10-22	9:58:00	14:25:00	4:27:00	주캄보디 아대사관	4	주캄보디아 대사관	7
미주반	2025-10-22	10:04:00	12:44:00	2:40:00	주로스앤 젤레스총 영사관	2	주로스앤젤 리스영사관	6
구주반	2025-10-22	10:00:00	11:46:00	1:46:00	주모르코 대사관	2	주모르코대 사관	5
미주반	2025-10-24	10:02	12:17	2:15:00	주벤쿠버 총영사관	2	팬 퍼시픽 호텔 벤크버	5
구주반	2025-10-24	10:01	12:13	2:12:00	주튀르키 예대사관	3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6

참고로, .2024년도 외교통일위원회는 13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0월 11일 미주반의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월 19일(토) 미국로스 앤젤레스총영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로 끝났다.

아주반, 미주반, 구주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해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감사시간은 국회공보 기준으로 **35시간 37분**에 불과했다. <<참고로 국내반 3일동안 35시간 32분이었음>>

《2024년도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 시간현황(감사순)》

감사반	감사일자	감사 시작	감사 종료	감사 시간	대상기관	기관 수	장소
미주반	2024-10-11	10:00	13:27	3:27:00	주미대사관	1	주미대사관
구주반	2024-10-11	10:01	12:30	2:29:00	주OECD대표부	4	주오이시디대 표부
아주반	2024-10-11	10:05	12:27	2:22:00	주인도대사관	1	주인도대사관
미주반	2024-10-12	10:04	13:04	3:00:00	주유엔대표부	2	주미국대사관
미주반	2024-10-14	10:00	12:31	2:31:00	주멕시코대사관	1	주멕시코대사 관
구주반	2024-10-14	10:03	12:13	2:10:00	주스페인대사관	3	주스페인대사 관
아주반	2024-10-14	9:58	11:58	2:00:00	주우즈베키스탄	1	주우즈베키스

					대사관		탄대사관
구주반	2024-10-16	10:03	12:23	2:20:00	주알제리대사관	2	주알제리대사관
아주반	2024-10-16	10:00	13:51	3:51:00	주중국대사관	1	주중국대사관
미주반	2024-10-16	10:00	13:05	3:05:00	주과테말라대사관	3	인터콘티넨탈 호텔 회의장
구주반	2024-10-18	10:02	12:26	2:24:00	주이집트대사관	2	주이집트대사관
아주반	2024-10-18	10:03	13:15	3:12:00	주일본대사관	1	주일본대사관
미주반	2024-10-19	9:59	12:45	2:46:00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2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7. 국회의장 동행, 외교출장의원 등 국감불참 : 연인원134명불참

지난해(2024년도)와 같이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출장 동행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불참이 있었고, 출장사유로 불참한 경우가 24회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8박 10일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는 순방 외교를 하였는데, 이때 허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 박정 의원이 동행했다.

출장으로 가장 많이 국정감사에 불참한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방위)으로 5회 불참했다. 다음으로 박상혁 의원(정무위)과 채현일 의원(행정안전위)이 4회씩 불참했고, 허영 의원(정무위), 윤재옥 의원(국토교통위)과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이 3회 불참했으며, 박정 의원이 2회 불참했다.<오전/오후 구분해서 통계한 것임>

김민석 국무총리(국방위)와 장관 겸임 국회의원 7명은 청가를 하여 국정감사에 불참하였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기획재정위)와 정동영 통일부장관(과방위), 정성호 법무부장관(기획재정위)가 9회 청가로 불참했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위)는 8회, 김성환 해양수산부장관(산업위)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문화체육관광위)는 7회 청가로 불참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일 2회와 김병주 의원(국방위)이 2회 청가 불참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호선 의원과 박준태 의원은 각 1회씩 청가했다.

무단 결석한 경우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산업위)가 대표적이었고, 장동혁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박준태 의원(법제사법위)도 결석이 있었고, 황명선 의원(국방위)과 주호영 국회부의장(행정안전위)도 있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구속기소로 인해 국정감사를 하지 못했다.

《2025년도 국정감사 불참 의원 현황》

외교위의 해외국감 및 정보위 국감 제외
자료 : 국회 공보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 수감	장소	출석위 원	불참 의원	불참의원 (청:청가, 출:출장)
기획재정	2025-10-13	기 획 재 정 부	1	국회	24	2	안규백(청)정성호(청)
과학기술정보통신	2025-10-13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11	세종정 부청사	19	1	정동영(청)
국방	2025-10-13	국방부	29	국방부(용산)	14	1	김민석(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5-10-13	산 업 통 상 자원부	1	국회	28	2	김성환(탄)전재수(청)
기획재정	2025-10-14	기 획 재 정 부(조세정 책)	1	국회	24	2	안규백(청)정성호(청)
과학기술정보통신	2025-10-14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회	4	국회	19	1	정동영(청)
국방	2025-10-14	합 동 참 모 본부	10	합동참 모본부	14	1	김민석(청)
문화체육관광	2025-10-14	문 화 체 육 관광부	1	국회	15	1	김윤덕(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5-10-14	중 소 벤 처 기업부	8	국회	27	3	김성환(청)전재수(청) 장동혁(결)
보건복지	2025-10-14	보 건 복 지 부	2	국회	22	2	윤호중(탄) 권성동(결)
법제사법	2025-10-15	대법원	7	대법원	17	1	박준태(결)
보건복지	2025-10-15	보 건 복 지 부	2	국회	22	2	윤호중(청) 권성동(결)
법제사법	2025-10-16	감사원	1	국회	17	1	박준태(결)
정무위원	2025-10-16	국 가 보 훈 부	5	정부세 종청사	22	2	박상혁(출),허영(출)
기획재정	2025-10-16	국세청	4	정부세 종청사	24	2	안규백(청)정성호(청)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 수감	장소	출석위 원	불참 의원	불참의원 (청:청가, 출:출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0-16	원자력안전위원회	8	국회	19	1	정동영(청)
문화체육관광	2025-10-16	국가유산청	7	국회	15	1	김윤덕(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5-10-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	국회	27	3	김성환(청)/전재수(청) 장동혁(결)
법제사법	2025-10-17	헌법재판소	2	헌법재판소	17	1	박준태(결)
법제사법	2025-10-17	군사법원	1	국회	17	1	박준태(결)
국방	2025-10-17	방위사업청	4	국회	12	3	김민석(청)/김병주(청) 황명선(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025-10-17	농촌진흥청	7	농촌진흥청	18	1	임호선(청)
보건복지	2025-10-17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회	22	2	윤호중(청) 권성동(결)
정무	2025-10-20	금융위원회	3	국회	22	2	허영(출) 박상혁(출)
기획재정	2025-10-20	한국은행	1	한국은행본부	24	2	정성호(청)안규백(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0-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YTN,TBS,연합뉴스TV)	0	국회	19	1	정동영(청)
국방	2025-10-20	국회	2	국회	13	2	김민석(청) 황희(출)
행정안전 (지방1반)	2025-10-20	인천광역시	1	인천시청	10	1	채현일(출)
행정안전 (지방1반)	2025-10-20	인천경찰청	1	인천경찰청	10	1	채현일(출)
문화체육관광	2025-10-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	국회	15	1	김윤덕(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5-10-20	한국석유공사	10	강원랜드(강원정선)	27	3	김성환(청)/전재수(청) 장동혁(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2025-10-20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31	국회	15	1	박정(출)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 수감	장소	출석위 원	불참 의원	불참의원 (청:청가, 출:출장)
		위원회					
국 토 교 통 (지방2반)	2025-10-20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청	15	1	윤재옥(출)
정무	2025-10-21	금융감독원	3	국회	22	2	박상혁(출)허영(출)
기획재정	2025-10-21	국가데이터처	3	국회	24	2	안규백(청)정성호(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0-2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국회	19	1	정동영(청)
국방	2025-10-21	육군지상작전사령부	1	지상작전사령부	12	3	김민석(청) 김병주(청) 황희(출)
행정안전	2025-10-21	경기도	1	경기도청	21	1	채현일(출)
행정안전	2025-10-21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2	경기남부경찰청	20	2	주호영(결) 채현일(출)
보건복지	2025-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14	국회	21	3	윤호중(청) 권성동(결) 김선민(출)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2025-10-21	근로복지공단	12	근로복지공단	15	1	박정(출)
국토교통	2025-10-21	한국철도공사	8	철도공사대회의실	29	1	윤재옥(출)
문화체육관광	2025-10-22	국립중앙박물관	20	국회	15	1	김윤덕(청)
보건복지	2025-10-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	국회	21	3	윤호중(청) 권성동(결) 김선민(출)
정무위원회	2025-10-23	한국자산관리공사	3	부산금융센터	23	1	박상혁(출)
기획재정 (감사1반)	2025-10-23	부산지방국세청	12	부산지방국세청	12	1	안규백(청)
기획재정 (감사2반)	2025-10-23	대전지방국세청	10	대전지방국세청	12	1	정성호(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0-23	한국방송공사	4	국회	19	1	정동영(청)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 수감	장소	출석위 원	불참 의원	불참의원 (청:청가, 출:출장)
국방	2025-10-23	공군본부	5	공군본 부	13	2	김민석(청) 황희(출)
국방	2025-10-23	해군본부	7	해군본 부	13	2	김민석 황희(출)
문화체육관광	2025-10-23	한 국 콘 텐 츠진흥원	14	국회	15	1	김윤덕(청)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2025-10-23	중 소 벤 처 기 업 진 흥 공단	11	국회	27	2	김성환(청)전재수(청) 장동혁(결)
국토교통	2025-10-23	한 국 부 동 산원	9	국회	29	1	윤재옥(출)
법제사법	2025-10-24	법제처	1	국회	17	1	박준태(청)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2025-10-24	국 가 과 학 기 술 연 구 회	53	한국전 자통신 연구원	19	1	정동영(청)
국방	2025-10-24	육군본부	11	계룡대 육군본 부	12	3	김민석(청)김병기(청) 황희(출)
쟁 정 인 전 (지방2반)	2025-10-24	강 원 특 별 자치도	1	강원도 청	10	1	주호영(청)
행 정 안 전 (지방2반)	2025-10-24	강 원 경 찰 청	1	강원경 찰청	10	1	주호영(청)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2025-10-24	산 업 통 상 자원부	22	국회	27	3	김성환(청)/전재수(청) 장동혁(결)
보건복지	2025-10-24	국 민 연 금 공단	1	국민연 금공단	21	3	윤호중(청) 권성동(결) 김선민(출)
기획재정	2025-10-27	한 국 수 출 입은행	6	국회	24	2	안규백(청)/정성호(청)
문화체육관광	2025-10-27	대 한 체 육 회	7	국회	15	1	김윤덕(청)
보건복지	2025-10-28	한 국 노 인 인 력 개 발 원	8	국회	22	2	윤호중(청),권성동(결)
기획재정	2025-10-29	국 가 데 이 터처	11	국회	24	2	안규백(청)/정성호(청)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2025-10-29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73	국회	19	1	정동영(청)
문화체육관광	2025-10-29	문 화 체 육 관광부	60	국회	15	1	김윤덕(청)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2025-10-29	중 소 벤 처 기업부	22	국회	27	3	김성환(청)/전재수(청) 장동혁(결)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 수감	장소	출석위 원	불참 의원	불참의원 (청:청가, 출:출장)
기획재정	2025-10-30	기 획 재 정 부	1	국회	24	2	안규백(청) 정성호(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0-30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회	13	국회	19	1	정동영(청)
국방	2025-10-30	국방부	68	국회	14	1	김민석(청)
보건복지	2025-10-30	보 건 복 지 부	44	국회	22	2	윤호중(청) 권성동 (결)
국회운영	2025-11-05	국 가 인 권 위원회	1	국회	27	1	송언석(결)

참고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장의 외교 동행 등 출장으로 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의원은 송옥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6박 9일간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였고, 제2차 한-중앙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국제회의 관계로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국정감사에 불참하였다.

두 의원은 10월 13일(일)부터 17(목)일까지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9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하였다. '과학, 기술 및 혁신(STI)을 통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의제로 논의하였다.

또, 김병기 의원(정무위원회)이 제45차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국정감사에서 불참했다. 10월 18일(금)부터 22일(화)까지 5일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국회 주최로「제45차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가 열렸다.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는 아세안(ASEAN) 회원국 의회 간 교류를 확대해 아세안 국가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 대한민국 국회는 옵서버국 자격으로 참가했다.

청가를 가장 많이 낸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청가를 하였다. 참고로 해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외교통일위원회 구주반에 편성되어 있으나, 한번도 출석체크는 되어 있지 않았다.

국정감사 불참을 하였더라도 오전/오후로 나눠서 한 경우에는 오전/오후 한번만 나왔으면 그 날 결석으로 표시는 되지 않는다.

《2024년도 국정감사 불참 의원 현황》

외교위의 해외국감 및 정보위 국감 제외
자료 : 모니터보고와 국회 공보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출석위원	불참의원
외교통일위원회	2024-10-08	통일부	20	이재명(청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0-08	국회	18	송옥주(출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08	중소벤처기업부	29	김정호(출장)
법제사법위원회	2024-10-11	군사법원	17	장동혁
국방위원회	2024-10-11	병무청	16	조국(청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0-11	농촌진흥청	18	송옥주(출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9	김정호(출장)
정무위원회	2024-10-14	예금보험공사	23	이인영(출장)
행정안전위원회	2024-10-14	경기남부경찰청	21	배준영
교육위원회	2024-10-15	서울대학교	15	진선미(출장)
행정안전위원회	2024-10-15	서울경찰청	21	배준영
보건복지위원회	2024-10-16	국민건강보험공단	23	추경호
법제사법위원회(지방1반)	2024-10-17	대전고등법원	9	김용민(청가)
교육위원회(지방1반)	2024-10-1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7	진선미(출장)
교육위원회(지방1반)	2024-10-17	전북대학교	7	진선미
행정안전위원회(지방2반)	2024-10-17	경상북도경찰청	10	이해식(청가)
보건복지위원회	2024-10-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3	추경호(청가)
국방위원회	2024-10-18	해군본부	15	김민석(청가), 조국(청가)
국방위원회	2024-10-18	공군본부	15	김민석(청가), 조국(청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18	국립중앙박물관	15	박정하(청가)
교육위원회(지방1반)	2024-10-18	충청북도교육청	7	진선미(출장)
교육위원회(지방1반)	2024-10-18	충북대학교	7	진선미(출장)
정무위원회	2024-10-21	공정거래위원회	23	김병기(출장)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출석위원	불참의원
정무위원회	2024-10-22	국가보훈부	23	김병기(출장)
국방위원회	2024-10-22	육군제2작전사령부	14	조국(청가), 안규백(출장), 박찬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0-23	제주경찰청	19	이해식(청가), 배준영, 이성권
법제사법위원회	2024-10-25	법무부	17	장동혁
기획재정위원회	2024-10-28	기획재정부	25	송언석
국회운영위원회	2024-10-31	국가인권위원회	27	추경호(청가)
국회운영위원회	2024-10-31	국회사무처	27	추경호(청가)

8. 주요 핵심 당직자 등의 국감활동은 여전히 저조 : 장동혁 대표 표는 질의 안함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원내교섭단체의 핵심당직자인 대표와 원내대표의 활동은 저조하였지만 지난해 보다는 약간 나아졌다.

특이 사항으로 여당의 두 핵심당직자가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정청래 당대표**의 경우에는 결석없이 출석하여 질의를 하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법사위원장시절 군사법원 국정감사시에 있었던 평양 무인기 관련 질의를 첫질의로 하였으며, 종합국정감사에 한 한미관세협정 타결에 대한 평가는 언론에 조명되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어려차례 질의를 하였고,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현지 국정감사도 참석하였으며, 실태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표출하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계룡대 국정감사에서 청가를 하기도 하였으나 방첩사 개혁 등의 정책질의를 하였다. 다만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파행을 막지는 못했다.

《2025년도 국정감사 교섭단체 핵심당직자의 국감활동》

의원명	위원회	당직	국감 불참	질의 횟수	질의응답 시간	특색
정청래	국 방	더불어민주당 대표	0	8	0:57:46	평양 무인기 외환죄 해당
김병기	국 방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	6	0:56:20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향
	국 회 운 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0	1	0:05:01	김현지 의혹 답 변기회 부여
장동혁	산 자 중 기	국민의힘 당대표	6	0	0	격려방문
송언석	외 교 통 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0	7	0:52:21	두국가론 비판
	국 회 운 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0	3	0:18:34	김현지 불출, 두국가론 비판
● 국방위의 경우에는 영상회의록의 부족으로 계룡대 국감은 통계를 하지 못하였고, 외교통일 위원회의 해외국감 역시 한계가 있었음. (불참횟수는 재외공관, 현장시찰 제외임)						

2024년도 10명이상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핵심당직자인 대표 및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의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여전히 국정감사 활동이 저조했다.

확인가능한 범위에서 살펴보면, 먼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원로위원회라고 불리는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감사활동을 했다. 국내반 3번 감사장에서 참석하였고, 10월 24일 종합감사에서 1회 독도문제 등 한일관계 관련 9분 43초 질의를 하였다. 참고로 국내 3일간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 감사위원들의 평균질의횟수(위원장 포함)는 10.76회였고, 질의시간은 57분 2초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질의를 하였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도 3회 질의를 하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할 권한은 없으나, 격려차원차 국정감사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국방위의 10월 24일 종합감사에 왔다가 참고인의 답변도중이라서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활동하였는데, 두 번째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비롯해 5개 국정감사장에서 1회씩 5회 질의를 하였고 질의시간은 40분 47초였다.

같은 조건하의 보건복지위원회의 감사위원(질의를 많이 한 박주민 위원장 포함) 평균질의횟수와 시간은 23.75회였고, 감사시간은 2시간 22분 22초였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1회 8분 37초 질의를 하였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는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부산 등 보궐선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성일종 위원장의 배려 하에 첫 번째로 질의를 하기도 하였다. 간부 등 복지 문제를 질의 하였다.

참고로 통계 가능한 같은 조건의 국방위원회 위원(질을 열심히 한 성일종 위원장 포함)의 평균질의횟수는 10.5회였고, 질의시간은 1시간 8분 5초였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박찬대 위원장을 포함해서 질의횟수는 평균 5.07회였고, 질의시간은 33분 34초였다.

《참고, 2024년도 국정감사 교섭단체 핵심당직자의 국감활동》

의원명	위원회	당직	국감 참석 일수	질의 횟수	질의응답 시간	특색질의
이재명	외 교 통 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2	1	0:09:43	독도문제 등 한 일관계
박찬대	국 방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	3	0:17:46	후쿠시마 오염 수 방사능탐지
	국 회 운 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	3	0:09:54	족식(경제문제)
추경호	보 건 복 지	국민의힘 원내대표	5	5	0:40:47	보건정책, 연금 문제 등 거시적으로 질의
	국 회 운 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1	1	0:08:37	관저. 문전대통령 USB문제
조국	국 방	조국혁신당 대표	4	4	0:35:01	초급간부 복지
● 국방위의 경우에는 영상회의록의 부족으로 합참 등 국감은 통계를 하지못함(고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질의횟수와 질의시간은 더 많아짐)						

2023년도 교섭단체 여야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국정감사활동을 살펴 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서울시 국정감사와 행정안전위의 지방1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질의가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재판 때문(재판에도 결석)에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다가 국정감사 후반 해군본부 국정감사와 국방위 종합감사

에 참석하여 질의를 하였다.

국방위에서의 질의내용을 보면, 10월 24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강조한 다음 '홍범도함' 명칭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순직 해병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 사건 수사대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한 지 점검했다.

10월 27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도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열여덟번째 장관급 인사라면서 장관의 임명전 표현의 문제에 대해 조명하고, 적절한 표현이었는지 점검하면서 정신교육과 관련해서 육사'홍범도 동상'문제를 점검했다. 3축체계 강화와 관련해 정부의'말따로 행동따로'에 대해 점검하였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위협이나, 군사적 충돌이 줄어드는지와, 북한에 비해 압도적 군사비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제압, 억압'쪽으로 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권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는 국방위원회 소속이라 활동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여 질의를 하였고, 영상이 올라와 있지 않지만 합참 등에 출석하여 질의를 하였다. 10월 11일 합참 국정감사에서는 1순위 질의자로서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보와 방어태세에 시사할 점에 대해 점검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과 관련해서 대북전단을 비롯해서 대북확성기 이런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10월 24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수사와 관련해 현안을 점검하고, 서북5도 군사훈련에 대해 조명했다.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북한의 지난 2021년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확보를 국방력 발전 핵심 5대 과제로 포함한 것에 대해 점검했다.

10월 27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군 자살사고를 조명하면서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점검했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태양광 사업의 예산낭비와 실효성 없음에 대해 지적하였고, 미국의 베리수정법 관련해 우리나라도 한국산 구매의

무화, 내지 피복류의 국산 원사 및 원단 사용에 대해 점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다가 국감 직전 소속 평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국회공보상 출석율 100%였으며, 영상 회의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체 일정에서 감사위원으로 본질의와 추가질의까지 하였다.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블랙리스트와 문화계 갈라치기와 관련해서 용어의 사용하나 하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문화운동가'라는 말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주로 소관분야의 R&D 예산 축소, 독서·출판 사업 그리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이뤄가는 중요 사업에 대한 축소에 대해 정책점검을 하였다. 콘텐츠 R&D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용이하게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10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문화정보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의 승인없이 해외출장을 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언론진흥재단 본부장의 행태를 질타하고 1번으로 증인 신문을 하였다.

10월 18일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인바운드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대비 한 50%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으며 인바운드 관광객 회복이 더딘 것도 문제지만 관광객의 서울 부산 제주 지역편중 문제도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명장들의 작품들을 인천공항 등 전시한 적이 있는데 사라졌다고, 면세점, KTX 서울역, 부산역 등에서 전시해 놓고 전자 거래나 온라인 상품과 연계해서 판매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해서는 석박사 과정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디지털 아트 관련해서도 조명했는데 한예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확충, 확대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0월 24일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조명했다. 시니어올림픽 관련해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전국체전 이후에 장애인체육대회 그다음에 별도로 시니어올림픽 같은 게 있지 않느냐면서 시범 종목에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 시범 종목으로 할 수 있지 않는지 점검했다.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종합감사에서는 정권현 본부장의 해외출

장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김효재 신임진흥재단 이사장과의 인연에 대해 살펴보면
서 징계 처리를 다시 주문했고, 경영전략추진회의를 월 1회 하는데 그 회의를 일
방적으로 취소시킨 사례도 지적했다.

《참고, 2023년도 국정감사 교섭단체 핵심당직자의 국감활동》

의원명	위원회	당직	국감 참석 일수	질의 횟수	질의응답 시간	특색질의
김기현	행 정 안 전	국민의힘 대표	2	0	-	출석은 했으나 질의는 없었음
이재명	국 방	더불어민주당 대표	2	2	0:20:08	홍범도함 명명 유지, 9·19군 사합의
윤재옥	국 방	국민의힘 원내대표	4	4	0:26:45	안보상황과 대 비태세
	국 회 운 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	-	-	질의없음
홍익표	문 화 체 육 관 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표	7(모두)	10	1:12:59	산하기관 모럴 해저드, 공직윤 리 등
	국 회 운 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표	2	2	0:14:47	대통령경호문제
● 국방위의 경우에는 영상회의록의 부족으로 합참 등 국감은 통계를 하지못함 (고로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질의횟수와 질의시간은 더 많아짐)						

2022년도 교섭단체 중요 당직자를 살펴보면, 외교통일위에서 박홍근 더불어 민
주당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활동하였는데, 정진석 비상대
책위원장의 경우 재외공관은 결석을 하였고, 국내 반에서는 종합국정감사에서 결
석을 하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반으로 편성되지
않아 결석 표시는 없고, 국내에서 진행된 3번 모두 출석하여 질의를 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전체
일정 중 하루 결석으로 국회공보에 표시되어 있고, 2회 질의를 하였다. 6·1 재보
궐선거로 입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감
사일정 중 5일 불참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0월 4일부터 3회 연속 출석을 하
여 질의를 하였다. 이후에는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주식관련 이해충돌 논란이 빚
어진 후였다.

《참고, 2022년도 국정감사 교섭단체 핵심당직자의 국감활동》

의원명	위원회	당직	국감 불참 일수	질의 횟수	질의응답 시간	특색질의
정진석	외 교 통 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원장	5	3	19분 27초	대통령의 정상외 교 관련
이재명	국 방	더불어민주당 대표	5	3	25분 53초	한미일연합훈련 관련 질의
주호영	기 획 재 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1	2	16분 18초	대통령실 이전 관 련 문제/지난정 부 채무증가폭문 제 등
	국 회 운 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0	4	15분 40초	이태원 사고 및 장애인탈시설 조 명
박홍근	외 교 통 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표	0	4	38분 12초	대통령 첫순방관 련 질의
	국 회 운 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표	0	5	35분 55초	용산 참사 관련 조명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교섭단체 중요당직자를 살펴보면, 외교통일위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활동은 알 수 없지만 결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국회공보를 통해 확인되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무위원회로 사·보임했다가 다시 복귀하기도 하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감사일정 중 3번 불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2021년도 국정감사 교섭단체 핵심당직자의 국감활동》

의원명	위원회	당직	국감불참 횟수	질의 횟수	비고
송영길	외 교 통 일 위 원 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0	2	10월 18일과 10월 20일 두 번 질의를 함 (개성공단 복원, 북한의 SLBM 발사 관련)
윤호중	국 방 위 원 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표	3	4	방사연 등 4군데에 서 1번씩 질의
	국 회 운 영 위 원 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표	0	1	국회사무처 국정감 사에서 1분 질의
김기현	외 교 통 일 위 원 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0	0	재외공관반은 확인 못함(국내반에서는 질의없음)
	국 회 운 영 위 원 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0	2	대통령비서실 등 국 감에서 2회 질의(공

의원명	위원회	당직	국감불참 횟수	질의 횟수	비고
					정선거관리 촉구, 교황방북논의, 김오 수 감사위원 제청청 탁 관련)

8. 새내기 국회의원의 첫 국정감사 : 이주희 의원 등 4명

가. 백선희 조국혁신당(2024.12.13 승계) 국방위원회

지난해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승계였으나, 2024년도 국정감사가 끝난 12월이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가 첫 국정감사였다.

백선희 국방위원회 위원은 2025년 10월 13일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12.3 계엄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계획을 질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나. 손솔 진보당(2025.6.9 승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진보당 의원은 2025년 10월 14일 문체위의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내란을 청산하는 국감이라면서 검열과 알박기 인사 문제 점검으로 시작했다.

다. 최혁진 무소속(2025.06.09 승계)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은 원래 기본소득당으로 의원직 승계를 하였으나, 기본소득당에서 거부해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2025년 10월 13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첫 번째 질의자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정신을 거스른 두 가지 행위, 바로 친일사법과 사법내란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서 대법원장 희화 사진을 들어 파행을 초래했다.

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2025.07.23 승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장 늦게 국회의원이 된 이주희 의원은 2025년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파탄의 상징, 국민 입을 틀어막고 국가혁신역량 R&D 생태계를 망가뜨린 R&D 예산 삭감의 진실 꼭 밝혀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R&D 예산 삭감 문제를 거론하고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첫 국정감사 4인의 국정감사 질의응답 현황》

위원회	의원명	정당	질의시간	질의횟수	위원회평균 질의시간
국방	백선희	조국혁신당	2:14:36	23	1:38:23
문화체육관광	손술	진보당	2:25:26	21	2:27:44
법제사법	최혁진	무소속	2:39:04	24	2:37:5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3:23:27	30	2:35:24

9. 장관 겸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 겸임 김민석 의원(국방위원회)과 장관 겸임 7명의 의원이 활동하였다.

《2025년도 감사위원 겸임 장관 현황》

의원명	직책	상임위	특징
안규백	국방부장관	기획재정	내란용어논란
정성호	법무부장관	기획재정	검찰개혁
정동영	통일부장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평화적 2국가론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체육관광	10.15 부동산대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	조직개편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해수부 이전

의원명	직책	상임위	특징
		기업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위	국정자원화재

2024년도 국정감사의 특징은 장관 겸임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겸임 국회의원 결석은 없었다.

참고로 장관 겸임위원으로 불출석한 의원은 2023년도에는 3명이었다. 추경호 장관과 박진 장관 그리고 신원식 장관이었다. 특이사항으로는 10월 10일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장관은 참석했으나, 국방부 장관으로서 참석해 감사위원으로서는 청가서를 냈다.

《참고, 2023년도 국정감사에 불참한 장관겸임 국회의원 현황》

의원명	직책	상임위	비고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위원회	
박진	외교부장관	기획재정위원회	
신원식	국방부장관	국방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도 3명의 국무위원 겸임 국회의원이 전체 국정감사 일정에 불참했다.

《참고, 2022년도 국정감사에 불참한 장관겸임 국회의원 현황》

의원명	직책	상임위	비고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박진	외교부장관	기획재정	
권영세	통일부장관	국토교통	

2021년에는 장관겸임 의원 6명과 대선후보 경선에 나간 의원 3명(1명은 전체 일정 불참), 일신상의 이유로 국정감사를 하지 못한 의원 3명, 출장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에서 참여하지 못한 의원 등이 다수 있었다.

《참고, 2021년도 국정감사에 불참한 장관겸임 국회의원 현황》

의원명	직책	상임위	비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환경노동위	

이인영	통일부장관	기획재정위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위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희	문화체육부장관	국토교통위	
한정애	환경부장관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 사보임(10. 18)

10. 2025년도 국감도 질의시간 안 지켜 소리없는 국정감사 여전

가. 위원회별 국정감사 첫날 주질의 시간 미준수 62.42%

“발언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상임위원장은 감사시작할 때 질의시간을 7분, 5분, 3분 지정하면서(정무위원회
의 경우에는 5분, 7분, 3분 순) 꼭 질의시간을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말을 하나,
대부분 의원들은 질의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양해를 구해서 1분 정도 더 질의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질의시간을 넘기면 마이크가 중단되어 소리없는 국정감사
를 하다가, 피감기관의 답변으로 질의내용을 알게 되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11. 4)

먼저 2025년도 국정감사 중 각 위원회의 첫날(10.13 또는 10.14, 성가위 11.4, 운영위
는 11.6) 국정감사 중 주질의 시간에 마이크 중단된 의원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314명이 질의를 하였고 그중에서 196명이 마이크 중단 이후에 질의를 계속하였
다. 마이크중단 비율은 62.42%였다. 상임위원장도 주질의를 하였으나 시간 체크가
되지 않았다.

주질의 의원수가 감사위원수보다 적은 이유는 당일 결석을 하였거나, 주질의가
없었던 경우 때문이었다. 예컨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주질의를
하지 않고 보충질의부터 하였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윤건영 간사가 주질의가
없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조계원 의원이 오후 증인신문을 주질의시간으

로 하여 주질의가 없었다. 나머지의 경우는 장관이나 당대표로 결석하였거나 출석을 하였으나 질의를 하지 않은 경우였다.

가장 마이크 중단이 심했던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20명 질의 중에 17명이 마이크 중단이 되어 85.0%였다. 다음으로 기재위원회는 23명 질의 중 18명이 마이크 중단 중 계속 질의를 하였다. 78.26%였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조사했는데 27명 질의에 20명이마이크 중단이후에도 질의를 하였다.

《2025년도 국정감사 첫날 주질의중 마이크 중단 현황》

위원회	감사일자	피감기관	위원장제외 질의의원	마이크 중단의원 수	주질의중 마이크중단 비율
법제사법위원회	2025-10-13	대법원등	17	9	52.94%
정무위원회	2025-10-13	국무조정실	23	13	56.52%
기획재정위원회	2025-10-13	기획재정부	23	18	78.26%
교육위원회	2025-10-14	교육부 등	15	11	73.3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0-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5	27.78%
외교통일위원회	2025-10-13	외교부	19	11	57.89%
국방위원회	2025-10-13	국방부등	13	7	53.85%
행정안전위원회	2025-10-14	행정안전부	20	17	85.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14	문화체육관광부	14	6	46.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14	농림축산식품부	18	13	72.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13	산업자원통상자원부	26	18	69.23%
보건복지위원회	2025-10-14	보건복지부	21	13	65.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부	15	10	66.67%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3	국토교통부	29	16	59.26%
국회운영위원회	2025-11-06	대통령비서실	27	20	74.07%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11-04	성평등가족부	16	9	56.25%

나. 감사위원 질의횟수 대비 마이크 중단 비율 61.01%

2025년도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가 커진 상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본 횃수를 동영상 회의록과 문자회의록을 비교하여 75개 국정감사장을 분석해 본 결과, 질의횃수 대비 평균 마이크 중단비율은 **61.01%**였다.<참고로 2024년도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가 커진 상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본 횃수를 동영상과 회의록을 비교하여 52개 국정감사장을 분석해 본 결과, 질의횃수 대비 평균 마이크 중단비율은 **48.44%**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의 10월 20일 한국석유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57회 질의가 있었으나, 마이크 중단 횃수가 52회로 92.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이자)의 10월 3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횃수가 57회였으나, 마이크 중단횃수가 52회로 91.23%를 차지했다.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시간제한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의 10월 14일 법무부 국정감사 역시 질의횃수 50회 였는데, 마이크 중단횃수가 44회로 88%이상이었다.

마이크 중단비율이 60% 이상인 곳은 75개 국정감사장 중 46곳이나 되었다.

첫 주질의 시간에 마이크 중단횃수가 많았고, 끝날 무렵 추가질의시간에도 상대적으로 중단횃수가 많았다. (통계상 주의, 자료요구 등 의사진행발언의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통계에서는 질의응답횃수만을 기준으로 마이크 중단비율을 구함)

《질의횃수 대비 마이크중단횃수 비율이 60%이상이었던 2025년도 국정감사장》

위원회	감사일자	피감기관	수감기관수	마이크중 중단횃수	의원의 질의횃수	질의횃수 대비 마이크 중단비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20	한국석유공사	10	53	57	92.98%
기획재정위원회	2025-10-30	기획재정부	1	52	57	91.23%
법제사법위원회	2025-10-14	법무부	4	44	50	88.00%
기획재정위원회	2025-10-21	국가데이터처	3	45	54	83.33%
교육위원회	2025-10-30	교육부	4	42	51	82.35%
법제사법위원회	2025-10-13	대법원	7	31	38	81.58%
국회운영위원회	2025-11-05	국회사무처	5	24	30	80.00%

위원회	감사일자	피감기관	수감기관수	마이크중중단횟수	의원의질의횟수	질의횟수 대비 마이크 중단비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14	중소벤처기업부	8	51	64	79.69%
법제사법위원회	2025-10-16	감사원	1	28	36	77.78%
국회운영위원회	2025-11-05	국가인권위원회	1	35	45	77.7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13	산업통상자원부	1	39	51	76.47%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1	한국철도공사	8	38	50	76.00%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3	한국부동산원	9	40	53	75.47%
국회운영위원회	2025-11-06	대통령비서실	3	40	53	75.47%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7	대검찰청	1	39	52	75.00%
기획재정위원회	2025-10-29	국가데이터처	11	42	56	75.00%
교육위원회	2025-10-20	서울특별시교육청	3	46	62	74.19%
기획재정위원회	2025-10-13	기획재정부	1	48	65	73.85%
행정안전위원회	2025-10-17	경찰청	2	45	61	73.77%
정무위원회	2025-10-27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	9	45	61	73.77%
국방위원회	2025-10-14	합동참모본부	10	27	38	71.05%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4	한국토지주택공사	4	41	58	70.69%
기획재정위원회	2025-10-14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	45	64	70.31%
교육위원회	2025-10-14	교육부	8	45	64	70.31%
교육위원회	2025-10-16	한국고전번역원	14	35	51	68.6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	35	51	68.6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29	중소벤처기업부	22	35	51	68.6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22	국립중앙박물관	20	26	38	68.4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14	농림축산식품부	7	38	56	67.86%

위원회	감사일자	피감기관	수감 기관수	마이크중 중단횟수	의원의 질의횟수	질의횟수 대비 마이크 중단비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24	산업통상자원부	22	37	55	67.27%
정무위원회	2025-10-14	공정거래위원회	4	42	63	66.67%
정무위원회	2025-10-28	국가보훈부	36	36	55	65.45%
행정안전위원회	2025-10-21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2	15	23	65.22%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7	인천국제공항공사	4	39	60	65.00%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3	국토교통부	3	47	73	64.38%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9	국토교통부	3	45	70	64.29%
행정안전위원회	2025-10-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42	66	63.64%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11-04	성평등가족부	7	28	44	63.64%
행정안전위원회	2025-10-30	행정안전부	7	43	68	63.24%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	36	57	63.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27	대한체육회	7	29	46	63.0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부	1	39	62	62.9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23	한국콘텐츠진흥원	14	25	40	62.50%
기획재정위원회	2025-10-16	국세청	4	27	44	61.36%
보건복지위원회	2025-10-30	보건복지부	44	46	75	61.33%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14	35	58	60.34%

《참고, 질의횟수 대비 마이크중단횟수 비율이 60%이상이었던 2024년도 국감장》

(11/18까지 회의록 분석)

위원회	대상기관	감사일자	질의응답 횟수	마이크중단 횟수	질의횟수대비 마이크 중단비율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4.10.07.	62	51	82.2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2024.10.07.	69	56	81.16%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	2024.10.10	55	44	80.00%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4.10.31.	40	29	72.50%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2024.11.01.	71	51	71.83%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	2024.10.07.	55	38	69.09%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	2024.10.31.	31	20	64.52%
교육위원회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2024.10.24.	56	36	64.29%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승강기안	2024.10.07.	69	44	63.77%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2024.10.10.	48	30	62.5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24.10.07.	68	42	61.76%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2024.10.25	70	43	61.4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24.10.24	75	46	61.33%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	2024.10.25	46	28	60.8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10.08	60	36	60.00%

감사위원의 경우 질의시간 미준수는 국정감사 평가에서 **감점요인**이다. 다만 마이크가 중단되었더라도 추가로 시간을 할애 받아 진행된 경우에는 감점을 하지 않았다.

11.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실시간 제공

-- SNS시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캄캄

가. 개요 : 국감직후인 11월 1일 297명 전수 조사

개선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는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서는 국정감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국회의원 보도자료와 국회도서관에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개인홈페이지 내지 개별 국회의원들의 SNS(국회의원이 공개한 개인홈페이지)에서는 지난해(2024년도)와 같이 국정감사의 내용을 여전히 찾기 어려웠다.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끝난 2025년 11월 1일 하루동안 일제히 조사를 해 본 결과, 쇼츠 촬영 등 유튜브를 활용해서 인지 개인홈페이지 국정감사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나.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활동 게시율 : 전체 의원의 48.82%

297명중 145명만 게시

2025년 11월 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원회별로 조사한 결과, 전체 297명의 감사위원 중 145명이 국정감사 자료(보도자료나 국정감사 중 활동내역)를 개인 홈페이지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려 놓아 국정감사 자료 게시율은 **48.82%**(2024년도 39.46%, 2023년도 52.35%, 2022년도 54.39%)로 지난해 보다 조금 높았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00%로 가장 저조하였고, 그다음 행정안전위원회가 31.8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6.84%로 안보관련 자료 공개가 제한된 국방위원회의 53.33%

보다 국정감사자료 게시율이 낮았다.

가장 높은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63.33%였다. 그 다음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각 62.50%로 동률이었다.

《2025년도 국회에 등재된 개인 홈페이지에 국정감사자료 게시한 현황》

상임위원회	위원수	국정감사 자료 게시의원수	게시율(%)
법제사법위원회	18	7	38.89%
정무위원회	24	14	58.33%
기획재정위원회	26	14	53.85%
교육위원회	16	10	62.5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	6	30.00%
외교통일위원회	21	9	42.86%
국방위원회	15	8	53.33%
행정안전위원회	22	7	31.8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	10	62.5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7	36.8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	19	63.33%
보건복지위원회	24	14	58.3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6	7	43.75%
국토교통위원회	30	13	43.33%
계	297	145	48.82%

참고로 2024년 10월 15일(화)부터 10월 16일(수)까지와 겸임 상임위원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2일(토)부터 1월 3일(일)까지 위원회별로 조사한 결과, 2024년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25%로 가장 저조하였고, 그다음 법제사법위원회가 27.78%, 외교통일위원회가 28.57%로 안보관련 자료 공개가 제한된 국방위원회의 29.41%보다 게시율이 낮았다.

가장 높은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56.67%였다. 그다음 국토교통위원회가 46.67%였고 그다음이 기획재정위원회로 46.15%였다.

《2024년도 국회에 등재된 개인 홈페이지에 국정감사자료 게시한 현황》

상임위원회	위원수	국정감사 자료 게시의원수	게시율(%)
법제사법위원회	18	5	27.78%
정무위원회	24	8	33.33%
기획재정위원회	26	12	46.15%
교육위원회	16	7	43.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	8	40.00%
외교통일위원회	21	6	28.57%
국방위원회	17	5	29.41%
행정안전위원회	22	9	40.9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	5	31.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7	36.8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	17	56.67%
보건복지위원회	24	11	45.83%
환경노동위원회	16	4	25.00%
국토교통위원회	30	14	46.67%
계	299	118	39.46%

다. 국회 홈페이지의 국회의원 소개란에 개인 홈페이지·SNS 소개 : 74.07% (297명 중 220명)

국회홈페이지의 국회의원 소개란에 의원홈페이지나 SNS가 소개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감사위원 297명 중 220명만이 홈페이지나 SNS가 소개 되어 있었다. 개인SNS의 경우에는 네이버가 가장 많았고, 간혹 페이스북이나 개인홈페이지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고, 국회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인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2025년도 감사위원 홈페이지 및 개인SNS 소개 현황(높은 순)》

위원회	위원수	개인SNS공개	공개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	25	83.33%
교육위원회	16	13	81.25%
국방위원회	15	12	80.00%
정무위원회	24	19	79.17%
기획재정위원회	26	20	76.92%
외교통일위원회	21	16	76.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	12	75.00%
보건복지위원회	24	18	75.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6	12	75.00%
법제사법위원회	18	13	72.22%
국토교통위원회	30	21	7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13	68.4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	13	65.00%
행정안전위원회	22	13	59.09%
계	297	220	74.07%

《참고, 2024년도 감사위원 홈페이지 및 개인SNS 소개 현황》

위원회	위원수	개인SNS공개	공개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0	22	73.33%
국토교통위원회	30	22	73.33%
기획재정위원회	26	19	73.08%
보건복지위원회	24	18	75.00%
교육위원회	16	12	75.00%
행정안전위원회	22	12	54.5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2	6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11	57.89%
정무위원회	24	19	79.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	13	81.25%
국방위원회	17	11	64.71%
외교통일위원회	21	16	76.19%
법제사법위원회	18	13	72.22%
환경노동위원회	16	12	75.00%
계	299	212	70.90%

Ⅲ. 2025년도 국정감사의 화제성(話題性) 자료*1)

1.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 10개 위원회 27곳 국감장에서 429회 거명

54명의 국회의원이 ‘거명’ - 주진우 의원이 최다

제22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회의록을 조사 분석해 본 결과(2025. 12. 24.까

* 현장감과 팩트확인을 위해 신문·방송의 보도내용을 일부 그대로 원용하였음을 밝힘 (이하 같음)

지 올라온 회의록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3곳(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을 비롯해 모두 10개 상임위원회의 27곳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정감사 도중 1번 이상 거명되었다.

‘김현지’가 거명되지 않은 위원회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이었다.

《 ‘김현지’ 성명이 거명된 2025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 현황 》

위원회	‘김현지’거명된 국정감사장수	조사한 회의록수
법제사법위원회	4	5
기획재정위원회	2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	4
외교통일위원회	1	3
행정안전위원회	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6
국토교통위원회	1	9
국회운영위원회	3	3

27곳 회의록을 모두 조사해 본 결과, ‘김현지’를 거명한 의원은 모두 54명이었다. 의원이 ‘김현지’ 거명한 횟수는 모두 **429회**였다.

거명횟수가 가장 많은 경우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117번 거명되었고,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모두 107회 거명되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된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의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10회(이만희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거명)였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 국정감사에서도 10회 거명되었는데, 고동진 의원, 양부남 의원, 채현일 의원, 서범수 의원 등이 거명하였다.

가장 많이 거명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주진우 의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같은 상임위원회의 박규택 의원이었다.

많이 거명한 의원은 주로 국민의힘 의원으로 세 번째부터 이만희 의원(농수식위), 과방위의 박충권 의원(운영위 겸임), 김승수 의원(문화체육관광위), 나경원 의

원(법사위), 박준태 의원(법사위), 유상범 의원(운영, 기재위) 등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전용기 의원(운영), 전진숙 의원(운영) 등이었다.

피감기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김현지'를 거명하였고, 일반 증인 중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박상용 검사가 거명하였다.

《2025년도 김현지 거명(5회이상) 감사위원 현황》

12.24.까지 올라온 회의록의 거명횟수

위원명	위원회	'김현지' 거명횟수
주진우	운영/법제사법	66
곽규택	운영/법제사법	42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7
박충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4
김승수	문화체육관광	24
나경원	법제사법	19
박준태	법제사법	19
강명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6
유상범	운영/기획재정	13
전용기	운영/국토교통	12
서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1
서지영	운영/교육	10
신동욱	법제사법	9
송석준	법제사법	9
김은혜	운영/국토교통	8
박지원	법제사법	8
전진숙	운영/보건복지	7
서범수	행정안전	6
박수민	운영/행정안전	5
전현희	법제사법	5
박정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5

2. '내란' 국감 : '내란' 용어 16개 위원회에서 1,243회

118명의 국회의원 '내란' 용어 사용 - 김병주 의원이 최다
더불어민주당 166명 중 50.6%인 84명 '내란' 용어 사용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특징적으로 많이 나온 용어는 '내란'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자회의록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2025.12.24.기준, 수시로 올라온 회의록을 정리한 것임», 16개 상임위원회(비공개 정보위 제외한)의 89개 회의록 중에 '내란'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곳은 20곳에 불과했다. **16개 상임위원회의 69개 국정감사장에서 '내란'이란 용어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

가장 많이 나온 곳은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으로 모두 394회 나왔으며, 조사한 6개 국정감사장에서 모두 '내란'용어가 사용되었다.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2차례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경우에는 조사한 5개 회의록 중 5개에서 모두 나왔으면 369회 거론되었다. (조사당시, 회의록이 절반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음)

이번 국정감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모두 143회 '내란'용어가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거명하는 의원이 적었으나 꾸준히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미화 의원, 이수진 의원이 많이 사용했다.

'내란'이란 용어를 사용한 피감기관을 살펴 보면, 국방위원회 피감기관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가장 많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순이었다. 그리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 중에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었다.

《 '내란' 용어가 거론된 2025년도 국정감사장 현황 》

(2025년 12월 24일까지 등재된 회의록 기준)

위원회	'내란'용어나온 국정감사장	'내란'용어 사용횟수	조사회의록수
국방위원회	6	394	6
법제사법위원회	5	369	5
국회운영위원회	3	143	3
행정안전위원회	8	67	8
보건복지위원회	7	66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	55	4
정무위원회	4	43	5
기획재정위원회	7	28	7
교육위원회	4	17	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	16	5

위원회	'내란'용어'나온 국정감사장	'내란'용어 사용횟수	조사회의록수
외교통일위원회	3	14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11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	9	6
국토교통위원회	2	7	7
외교통일위원회(미주반)	2	2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1	4
성평등가족위원회	1	1	1
외교통일위원회(아주반)	0	0	2
외교통일위원회(구주반)	0	0	1
국토교통위원회(지방1반)	0	0	1
국토교통위원회(지방2반)	0	0	1
계	69	1243	89

회의록을 다운 로드 받아 의원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2025.12.24까지 올라온 회의록 기준임) 가장 많이 '내란'용어를 사용한 의원은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로 127회 사용했다. 그다음으로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65회, 보건복지위와 운영위원회의 서미화 의원은 50회 사용하였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47회 사용하였다. 국방위원회의 박선원 의원은 44회 사용하였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0회 사용하였다.

국민의힘 의원중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가장 많은 37회를 사용하였고,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31회 사용하였다. (주의 : 아직 전체 회의록이 모두 올라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수와 사용횟수는 달라 질 수 있음)

《국정감사 중 '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한 국회의원 현황》

의원명	위원회	'내란'용어 사용횟수
김병주	국방위원회	127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65
서미화	보건복지/운영	50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47
박선원	국방위원회	44
황명선	국방위원회	41
정청래	국방위원회	40
성일종	국방위원회	37
전현희	법제사법위원회	35
김우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3

의원명	위원회	'내란'용어 사용횟수
최혁진	법제사법위원회	32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31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28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24

'내란'용어를 사용한 의원수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8명의 의원중 17명이 사용하였다. 조사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내란'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 유일하였다.

국방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실제로 감사에 참여한 위원 14명 중 2명의 의원만 제외하고 모두 '내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식 의원과 유용원 의원은 '내란'으로 검색되지 않았다.

《 '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한 국회의원의 위원회별 현황 》

위원회	내란 용어 사용 의원수
법제사법위원회	17
정무위원회	9
기획재정위원회	8
교육위원회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
외교통일위원회	7
국방위원회	12
행정안전위원회	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보건복지위원회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
국토교통위원회	4

'내란'이란 용어를 사용한 국회의원을 정당별로 살펴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2명, 조국혁신당 6명과 기타당과 무소속 6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166명의 의원 중 84명으로 50.6%였다.

《 '내란' 용어를 사용한 국회의원의 정당별 현황 》

정당	의원수
----	-----

더불어민주당	84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6
기타/무소속	6

3. 19개 부처 장관 국정감사 : 국회의원 검임 7개 부처 장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모두 19개 부처의 장관이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중 5명은 감사위원(국회의원)를 검임한 장관이었다.

2025년도 정부부처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한미관세협상과 이에 대한 대응이었고, 또다른 축은 12.3 계엄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정권 교체에 따른 인사문제 점검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차관이 대행을 한 곳이 2곳이 있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19개 부처 모두 새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 국정감사를 수감하였다.

《19개 부처 장관의 2025년도 국정감사 현황》

(정부조직법 순)

성명	직책	특징	이슈	인사말중에서	한마디 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직개편	한미관세/부동산대책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대비한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간 MOU가 정식 체결된 이후 근본 합의의 세부 사항을 다시 보고하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장관 AI상영	R&D 예산/AI대책	AI 기본법 제정, 부총리 승격 등 AI와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와 말씀 드린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청문회	고교학점제	저출산 시대에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중단하지 않겠다
조현	외교부장관	캄보디아	한미관세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북한의 대화·협상 복

성명	직책	특징	이슈	인사말중에서	한마디 말
		아사태 / un 대사임명	협상/감보 디아사태	합법적인 해양 권익 수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며, 민감 사안이 향후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	귀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사과	평화적 2 국가론	국민주권정부의 통일부는 국민 참여, 국론 통합의 대북 통일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께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정성호	법무부장관	대질신문 / 김현지 논란	검찰청 폐지 / 각종 수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4개월간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성남시장, 당대표를 할 때 보좌진으로서 매우 유능하고 청렴하게 일한 것으로 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내란용어	12.3계엄/특검압수수색/잠수함건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갖춰 났다. 연료 부분의 협조를 받으면서 완전체를 이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협오시위근절	국정자원화재/감보디아사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강윤진차관사과	보훈정책/독립기념관장거취	국가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분들에게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보답으로 답하겠다는 원칙 아래 보훈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운영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재정비하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티켓거래	k-컬처/차담회	K-컬처의 토대인 예술에 있어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창작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조치를 실시해 이들이 제대로 된 행정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격	관세협상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토대로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농업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	미국산 쌀 수입할 수 있는 확대는 불가능하며, 추가 개방을 허용할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

성명	직책	특징	이슈	인사말중에서	한마디 말
				고 농촌을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매 국 계 약 논란	원전/한미 관세 협상/ 대왕고래	우리 수출 구조는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 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핵심 광물 독점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책무 의식을 갖도록 현장에서 임하고 있고 우리 국익과 국민의 삶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약국	건보재정/한약사 문제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조직 개편 파행	탈원전, 발전 통폐합 전력확충,	올해 진전의 원칙, 헌법에 명시된 국민 환경권,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접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발전사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간접 증인 채택 논란	중대 재해 법/노란봉투법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는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AI 등 기술 변화에 맞춰 AI 이해, 활용, 개발까지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초기업 교섭 및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역차별	성평등 가족부의 확대 개편/아이돌 보미사업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원하는 누구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전국 159개 새일센터를 통한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는 등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차별이라는 용어 보다는 다른 성별이 불이익으로 느끼는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성평등부가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차관 사퇴	10.15 부동산 대책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 주거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여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10·15 대책 이후 전세의 월세화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북극 항로	해수부 부산 이전, 청년 어업인 지원	저를 비롯한 해수부 직원 모두가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북극 항로 시범운항을 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	'김어준'	지역 상품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관련된 부

성명	직책	특징	이슈	인사말중에서	한마디 말
	업부장관	처남' 2차 관내정설	권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분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참고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모두 19개 부처의 장관이 국정감사를 받았다.

정부조직법 제26조 행정각부의 순서에 따라 간략한 수감내용을 살펴보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단한 준비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는 평가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무난한 감사를 받았으나, AI 교과서 문제, 의대정원 문제로 도마에 오르기도 하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0월 25일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되었다. 김승원 간사가 질의 중에 한 것것이다. 답변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의 충돌이 잦았다.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동생 유상범 의원과 이름이 혼동되기도 하였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문제 등에 집중되었으며 무난한 국정감사를 받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외교 문제 등 외교노선의 방향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받았으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지 문제와 남북관계 경색 문제에 대한 답변요구가 많았다.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 공직사회의 모시기 관행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를 받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값 안정대책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참고, 19개 부처 장관의 2024년도 국정감사 현황》

성명	직책	특징	이슈	인사말중에서	한마디 말
최상목	부총리 겸	노벨상	세수부족/	또한 가계부채, 부동산,	세수 평가가 발생한

성명	직책	특징	이슈	인사말중에서	한마디 말
	기획재정부 장관	금 비 과 세	경기침체/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 건 희 여 사 의 논 표 문 절 의 혹	의대정원 AI교과서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의 과제로 설정하여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동 생 유 상 범 의 원 과 혼 이 동	R&D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대들보입니다. 특히 글로벌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지금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국가 경쟁력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우려가 없도록, 대형 과제부터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업 무 보 고 배 포 문제	주 한 미 군 방위비 분담금협상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일체 호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한편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불법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파병) 결국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태 영 호 민 주 평 통 사 무 총 장 아 들 논 란	오 물 풍 선, 대 북 전 단 지문제 두국가론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 러북 군사적밀착 등 전례 없는 통일환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는 휴전선에서 멈춰선 안 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 건 희 여 사 재 수 사 지 시 빈 페이크	이재명 재판 김건희 여사 수사	지난 2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법무부 공직자들과 함께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작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면 제가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 병 신 ’ 발 언 ‘abc’ 발 언	북한의 러 시아 파병 장 병 처 우 개선	우리 50만 장병들, 특히 초급간부·중견간부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 확보도 중요하고 우방국과의 군사협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사기입니다.	계엄령, 사법을 적용한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반국가세력과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명	직책	특징	이슈	인사말중에서	한마디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방첩사방문논란	관저공사 전기차 화재 경찰국 폐지	한 해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못한 건 사실이지만, 업체 계약에 문제는 없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살펴보겠다.	김여사 황제관람/문다혜책디자인값/체육계비리	먼저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김 여사가 공연장에 늦게 왔다고 당일 밤에야 전화를 받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배추	쌀값	올 한 해 디지털·세대·공간의 3대 농정 전환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촌소멸 위기극복 등 핵심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쌀값 20만 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LOI(투자 의향서)영어원문	대왕고래 원전수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취득, 금융 및 일감 지원으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회복시켰고, 체코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유럽 등으로 원전 수출 모멘텀을 확보하였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에 금융지원 약속 없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사과	이대표 헬기이송 의료대란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의 성공과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	(댐) 책임지고 사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댐추진 탄소중립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왜 퇴을 야하냐	없음	인사말 못함 /우리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생각이 다를바가 없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장관차당근매물	양평특혜 관저 디딤돌대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예산통계	후쿠시마 방류수 수산물안전	어선검사증서 9종을 모두 디지털로 전환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확대하고 어촌복지버스시범사업을 통해 섬과 어촌 지역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두고 외교적으로,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배우자의 도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경감과 경영위기 극복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진흥

성명	직책	특징	이슈	인사말중에서	한마디 말
		움 은 절 대 없었다	배달앱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 했습니다	하는 중기부의 역할을 결코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어공' (어쩌다 공무원)	국 내 민 족 독 립 운 동 기념관 독 립 기 념 관장 선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국가보훈기본 법제2조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정책 역 량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 적 보훈으로 나아가기 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독립운 동기념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4. 2025년도 감사장에 나타난 국감소품 일부사례 : 관봉권 등 (언론보도 및 회의록 분석)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소품 관련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 가장 크게 보
도된 것은 10월 20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
감사에서 천하람(개혁신당)이 가지고 나온 천원짜리 관봉권이었다.

그리고 정혜경(진보당) 의원이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쌀이 든 숟’을 가지고 나
온 것이다. 그러나 10.15 간첩 증인 채택 논란으로 파행이 빚어져서 관심을 끌지
는 못했다.

국정감사 회의록(지난해와 같이 12. 23.까지 올라온)에 나온 소품을 정리해보면 37건
정도였다. 이외에도 교육위원회에서 김대식 의원이 사용한 번역책 등 책자도 조금
있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참고인이 소품을 들고 나와 설명도 하였다.

가장 많이 나온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약품을 중심으로 10건 정도였고,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8건, 다음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5건, 문
화체육관광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각각 4건씩이었다.

《2025년도 국정감사에 나타난 소품》

의원명	위원회	날짜	사용소품
천하람	기획재정위원회	2025-10-20	관봉권
정일영	기획재정위원회	2025-10-29	비비탄총

이정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0-29	해저 케이블
김준형	외교통일위원회	2025-10-28	여권
정춘생	행정안전위원회	2025-10-14	일회용 멸균 의료기기
배현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14	키보드
진종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14	탄피
박수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16	도자기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22	까치호랑이 미니어쳐
이병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14	버섯배지
문금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14	가루쌀로 만든 빵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28	샤인머스켓
임미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30	숯
오세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14	화장품
이주영	보건복지위원회	2025-10-15	다이어트 식품
김남희	보건복지위원회	2025-10-15	자가주사제 형태의 의약품
김예지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1	비상 상비의약품
서미화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1	녹조가 든 병
최보윤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1	복합우루사이고요, 하나는 우루샷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1	노보노디스크제약 위고비
장종태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1	가짜 마약
남인순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2	전자담배
서미화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2	시각장애인용보이스탭
김선민	보건복지위원회	2025-10-30	그림
정점식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3	열차접근 경보장치
김희정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3	건축단열재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1	음주측정기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3	좌표산출GNSS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7	비닐백
박홍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15	스마트 안전고리
정혜경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15	한화오션 노무관리 수첩

김소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15	끼임사고 방지옷
정혜경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15	밥솔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0	중국산 PF보드
김태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9	플라스틱 용기
박해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9	TPO가 함유된 젤네일
박홍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30	오염물질 탐지기

참고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소품과 관련해서 **박덕흠 의원(농림위)**의 배추가 많이 이슈화 되었다. 금값이 된 배추 등 농산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자아냈기 때문이다.

12월 23일까지 등재된 회의록(82개 회의록)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의 28개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위한 소품**이 등장했다.

가장 많이 등장했던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5개 국정감사에서 16가지 소품이 등장했다. 배추, 절임배추, 아몬드, 벌꿀, 상추, 컵라면, 쌀국수, 부추, 마른 오징어, 키위, 팡이버섯, 한우세트 등 국정감사장이 잡화점 수준이 되었다.

가장 많은 품목이 등장한 국정감사장은 보건복지위원회의 10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장으로 이수진, 최보윤, 김남희, 김예지, 박희승, 강선우, 남인순 의원 등 7명의 의원에 의해 코카콜라, 각종 약, 과자, 주사제, 병, 제품, 라면, 화장품 등 13개 품목이 등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제품 하나는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라면서 질의를 하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참고, 2024년도 국정감사 소품 현황»

위원회	소품이 등장한 국감장	등장한 소품 갯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	16
환경노동위원회	3	5
교육위원회	3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	2
국토교통위원회	2	3

국방위원회	2	2
보건복지위원회	2	14
국회운영위원회	1	1
법제사법위원회	1	1
정무위원회	1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1
기획재정위원회	1	1
외교통일위원회	1	3

5. 2025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참고인 사례

가. 일반증인 및 참고인 개요 : 증인 512명과 참고인 280명 출석요구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512명과 280명으로 조사되었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출석요구 및 증인 추가의 건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이다.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증인의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로 모두 126명의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참고인도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95명의 일반증인과 52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원래 108명을 요구 하였으나 15명이 철회되었고 철회된 박상용 검사와 남욱 변호사가 다시 추가되었다.

가장 고발을 많이 한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로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11명을 고발하였다. 강란주 제주지방 부장판사 등 불출석을 사유로 한 고발이 9명, 박성재 전법무장관 등 청문회 및 전체회의 선서거부를 사유로 한 경우가 2명이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고발이 있었는데, 위원장의 경고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기관증인에 대한 국회모욕죄 고발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 발부가 많았는데, 올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4개 위원회에서 1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있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김건희 전 대통령부인 의혹관련 증인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가장 먼저 발부하였다.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강란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다.

《2025년도 국정감사 출석요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수 현황》

(2025년도 상임위 전체회의록 기준)

위원회	증인	참고인	고발	동행명령
법제사법위원회	95	52	11	3
정무위원회	32	10	0	0
기획재정위원회	6	6	0	0
교육위원회	5	5	0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6	56	0	0
외교통일위원회	0	2	0	0
국방위원회	5	1	0	0
행정안전위원회	93	22	1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2	20	0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9	30	0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	12	0	0
보건복지위원회	13	40	0	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7	10	0	0
국토교통위원회	27	10	0	0
국회운영위원회	0	0	0	0
성평등가족위원회	0	4	0	0
계	517	280	12	10

참고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 일반증인이 출석하였으며, 15개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336명이 출석하였고 참고인은 200명이 참석하였다.(2023. 12. 23. 까지 등재된 회의록 기준).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1개 상임위원회에서 157명의 증인과 95명의 참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2023. 12. 8. 까지 게재된 국정감사 회의록 기준)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출석한 증인보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그에 따른 집행이 더 조명을 받았다. 10. 15.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 **뉴진스 하니**가 크게 조명을 받았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까지 하였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증인이 46명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라도 답변을 한 증인은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한마디 하라고 해서 한 증인 3명은 포함된 것이다.

증인 증에서 5번 출석요구를 받아 출석을 한 증인 **김경훈** 애플코리아 대표였다.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은 4번 출석을 하였다. 김영섭 KT 대표이사, 김오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 윤태양 삼성전자 CSO 부사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주성원 쿠팡 전무,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은 3번 출석을 하였다. 강혜경 전 김영선 의원 보좌진은 2번 출석하였고, 외국인으로는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가 2번 출석했으며, 모두 22명이 2번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했다.

나. 언론 등에 조명된 출석 증인 및 참고인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 참고인 중 많이 조명된 증인 및 참고인들을 조사했다. 2025년 12월 10일까지 올라온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출석 증인 명단(188명)과 참고인 명단(144명)을 기준으로 네이버 등을 통해 본 결과 중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거론된 사람 중에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단연 많았다. 11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107번 거명되었다.

참고로, 2025년 10월 1일자 디지털타임스가 종합한 2025년 국감 기업 및 기업인 증인 현황에 따르면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등 총 12개 상임위에서 약 158명의 기업인들이 국감에 출석요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증인》

1) 강이구 코오롱베니트 대표이사

코오롱베니트 강이구 대표이사는 10월 29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에 관련 집중 추궁 받았다.

2) 고정욱 롯데지주(주) 사장

10월 13일 고정욱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사장은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사주 보유 경위와 향후 처분 방안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3) 박기홍 솔브케이(주) 대표

박기홍 솔브케이(주) 대표는 10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무관과는 20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면서도, 청탁이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4) 권범순 팀플러스 이사

권범순 팀 플러스 이사는 10월 28일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와 10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압표상 근절대책, 아이돌그룹 세븐틴 티켓이 650만원에 재판매되고 한국프로야구 KBO 포스트시즌 티켓이 정가보다 5~10배 뛰어 판매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5)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는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인방송 조동성 회장과 권혁철 전 대표의 지분 분쟁 1심 판결을 근거로 백성학 회장이 과거 경인방송 실 소유주였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6) 금한승 기후환경에너지부 차관

금한승 기후환경에너지부 차관이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죽방멸치 그물에 해양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는 서천호 의원의 질문에 알고 있다면서 해양 쓰레기 저감대책에 대한 증언 했다.

7) 김광민 변호사

김광민 변호사가 10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출석해 이화영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 관련 증언을 하려고 하였으나, 증언은 없었다.

8)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는 10월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R2P 시스템이 직원들의 조리 속도에 압박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 R2P 시스템은 글로벌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시스템이라면서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본사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9)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

김기호 영풍 대표는 10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석포제련소 폐쇄로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냐는 질의에 경북TF에서 폐쇄로 결론이 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10)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혜대우 강요, 가격 조작, 수수료 인상 등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1)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10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혜대우 강요, 가격 조작, 수수료 인상 등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10월 14일 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12)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0월 14일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처리 방안과 롯데카드 해킹사태 등 최근 이슈와 관련 집중 질의를 받았다.

13)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10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지적에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책임이 한쪽에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장 관리자와 사용자 책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14)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10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사병처럼 움직였다는 지적에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경호법에 근거한 경호 복무 지침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고 답변하고, 안타까운 역사 속에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왔고, 국력도 소실됐다. 그 중심에서 저 또한 자유롭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15)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경동엔지니어링 김수현 상무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집중 질

의를 받았는데 현재 특검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16) 김영천 조원관광진흥(주) 전무

10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민속촌 정직원이 협력업체들과 공모해 사기 범위를 저질렀다는 질타를 받았는데, 회사는 해당 사건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자금이 오간 사실도 없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17)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회사 사옥에 사무실을 운영한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18)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10월 29일 국토교통위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사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원인과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아픔을 겪은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요한 부분은 회사가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19) 김정훈 SK에코플랜트 부사장

김정훈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이 10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오션플랜트 매각과 관련해 자사는 여러 위원님 및 지자체 지역 주민의 우려를 인식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역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20) 김정훈 현대로템 본부장

김정훈 현대로템 본부장은 10월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대신 참석해 국내에서는 해당 분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존 신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해외 시장에도 공동 진출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1) 김종영 경희대학교 교수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10월 30일 교육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한 열띤 논의가 오갔는데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대 죽이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정부의 유니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2) 김태영 21그램 대표

지난해 불출석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2번 출석했는데, 10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구로부터 관저 공사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나, 김건희 씨 맞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TF팀 김오진 비서관에게 연락받았다고 답변했고 10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출석해 답변했다.

23) 김현우 안양구치소장(전 서울구치소장)

'윤석열 24시간 무한 접견'을 허용한 수용관리계획서로 교체된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이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계획서를 결재했다고 답변했고, 10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도 출석했다.

24) 나형운 예비역 중사

최전방에서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해 양손을 잃은 나형운 예비역 중사가 10월 30일 국방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2006년 고압

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한 뒤 8차례 수술을 거쳤지만, 양손을 잃고 2007년 의병 전역하고, 이후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지만, 당시 서류상의 실수로 일반 사병으로 의병 전역한 것으로 분류돼 상이연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22년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증언했고,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25)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 이전에 한시적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것이라며 시장 변화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시정 조치를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 조항'을 포함했다고 했다.

26) 노관규 전라남도 순천시장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은 10월 14일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의 시정 관여 의혹 등에 관한 공세를 받았고, 10월 29일에도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시의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27) 도세호 SPC 대표

도세호 SPC 대표는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부족한 점이 많았다. 안전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8)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10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 부담이 없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다수는 15% 수수료를

낸다면 30% 수수료는 규모가 큰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생존이 위태로운 한국 앱 개발사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애플은 개발자를 존중해 왔다 등으로 즉답을 피했다.

29) 명태균 씨

명태균 씨는 2025년 10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와 2025년 10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의 경상남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의 의혹에 대해 증언을 했다.

30)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에서 끊이지 않는 오심 논란과 관련해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자, K리그 팬과 국민분들께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31) 문호상 프리드라이프 대표

문호상 웅진 프리드라이프 대표는 10월 28일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조업계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및 계약 행태에 대한 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32) 박건영 변호사

박건영 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했다.

33) 박근찬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박근찬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야구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시설물 관리를 가

이드라인 대로 하지 않았다는 조은희 의원의 지적해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34) 박대준 쿠팡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주식회사 대표이사는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3번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10월 14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부 등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점업체 정산 지연, 구독료 인상, 광고 강요 등 논란에 대해 질타에 지적인 사항들을 주의하겠다고며 광고비 강요 등 행위는 내부 정책상 금지돼 있으며,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35)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2번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변복 논란 즉 연어회 회유논란, 술 반입 의혹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질 신문을 받았다.

36) 박선순 (주)다원시스 대표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는 10월 21일 국토교통위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SR)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37)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10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덕수와 만났다, 안 만났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안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너무 듣고 싶은, 그래서 그런 것에서 논란이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8)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10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고 후 '면허 취소'를 언급한 것과 관련, 직원들이 중대재해 이후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임한 이후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경영하고 있다고 했다.

39)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2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월 14일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사업에 리박스쿨이 선정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수사 중이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40) 신병철 한민고등학교 교장

신병철 한민고등학교 교장은 10월 20일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민고 성 비위 사건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41)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10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압 의혹이 제기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놓고 '상부의 외압'을 주장한 문지석 검사와 대질 신문을 하였다.

42)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은 10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감사와 관련해 박지원 의원과 충돌 했다.

43)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10월 30일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

으로 출석해 의무 후송 항공대의 헬기 운용 관련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48) 이배원 (주)니토옵티칼 대표이사

이배원 (주)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10월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불탄 공장의 물량이 옮겨간 일본 본사의 다른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3년 넘게 투쟁해 온 7명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와 처음으로 대변하고, 본사 닛토덴코와 소통해 장기 투쟁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49)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안가 회동 관련 수사 중과 민주당 의원들의 고발로 인한 것이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10월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했다.

50) 이정환 울산방송 사장

이정환 울산방송 사장은 10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SM그룹의 UBC울산방송 소유 제한 위반 의혹과 방송국 자산 유용 의혹 관련 이정현 의원과 과방위원장에게 30초만 답변 기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했다.

51) 이주철 W컨셉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이사는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점 업체 수수료 과다와 할인율 강제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작년부터 중고가 제품 구매 감소 등 거시적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며 글로벌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여, 수수료 수준이 시장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52)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직위가 없어져 일반증인으로 두차례 출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것과 관련해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다. 또 10월 30일 종합감사에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과 관련해서 화환 요청을 놓고도 공방했다.

5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회중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다가가 교도관 제지 없이 대화를 나눈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54) 장상윤 전 교육부차관

교육부 차관으로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씨와 사적 통화를 나눴던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0월 30일 교육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55)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10월 1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KBS 1000명 해고 의혹 등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다. 법사위의 증인 채택명단에는 '자칭'이라고 쓰여져 있고 회의록에는 직책이 없었다.

56) 조남제 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 사무총장

10월 15일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불출석한 조남제 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 사무총장은 한차례 불출석하였다가 재 출석요구에 10월 30일 보건복지위의 종합감사에

도 불출석해 **23번 거명**되었다. <<보건복지위 임시회의록에는 출석증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나,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함>>

57) 차정윤 네이버웹툰(주) 커뮤니케이션이사

차정윤 네이버웹툰 커뮤니케이션 이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생 협의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웹툰을 25회 연재하면 한 차례 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했다며 CP사(콘텐츠 제작사) 소속 작가라고 해도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 자신의 수익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58) 황성해 구글코리아 부사장

10월 13일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8월 구글 제공 날씨 정보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문제에 대해 질타를 당했다. 이어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와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참고인>>

[참고인 관련 에피소드 : 김덕영 건국전쟁 감독과 김교흥 문체위원장의 국민 논쟁]

- 위원장 김교흥 잠깐만요!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참고인, 위원이 소리 지른다고 같이 따라 소리 질러요?
- 참고인 김덕영(건국전쟁 감독) 아니, 이 공간은 국민을 위한 공간 아닙니까?
- 위원장 김교흥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한 거예요.
- 참고인 김덕영 저는 국민입니다.
- 위원장 김교흥 그건 국민 개인이지.
- 참고인 김덕영 아니, 국민을 대신하는 것과 국민이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교흥 국민을 대신해 헌법기관이 질의한 거예요. 헌법기관이 질의했어요. 그러면 본인하고 의사가 다르면 본인 입장을 내가 설명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설명하면 되지 왜 소리를 지르냐고.

(2025. 10. 23.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59) 강주성 건강돌봄시민행동 대표

강주성 건강돌봄시민행동 대표는 10월 15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시력 장애를 겪는 중증신부전 환자이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신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60)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10월 15일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참고형약국과 관련해 약국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단순히 의약품 대량 판매처로 왜곡시키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참고형 약국들이 개설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며, 의약품은 아플 때 적절히 복용해야지 대강 쇼핑하는 상품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61)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은 10월 29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학고와 영재고 같은 국내 교육제도 개선 외에도 해외 인재 유치, 은퇴 과학자를 지원하는 '시니어 연구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62) 김유진 12. 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김유진 사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두차례 참고인으로 나왔는데, 국토부의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중간 조사 결과 전반을 공개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때까지 사고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3)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0월 14일 국회 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언쟁을 벌였는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의 체포영장 보고규칙에 대해 설명하자, 최 위원장은 엉뚱한 답변하지 말라며 그의 발언을 중단시키자,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고,

최 위원장은 국회법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를 언급하자,제가 무슨 모욕적 행태를 했느냐며 답변했다.

64) 김현수 한글라스 대표

김현수 한글라스 대표는 10월 14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는 노진서 LX하우시스 대표와 하도급법 위반·선급금 등 관련 사안을 두고 공방을 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LG(현 LX하우시스)와 함께하며 13년 이후 단 한번의 단가 인상·정산 등을 받아본 적 없다며 134억원을 (LX하우시스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회사는 부도로 80명의 직원 모두 흩어져 실업급여로 생활을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65) 남경주 뮤지컬 배우

뮤지컬 남경주 배우는 10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극장 공연의 경우 제작비가 100억 원, 중·소 뮤지컬도 30억~50억 원이 들어가는데 민간 주도로 해오다 보니 산업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뮤지컬 산업진흥법이 꼭 통과돼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해주면 뮤지컬계가 문화 브랜드로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6) 박정원(Wm양) 유튜버

유튜버 썬양(박정원)은 10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이버레커 피해에 대해 쉽지 않았다. 일반 시민, 직장인, 학생분들은 대응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다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생업을 하시면서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68) 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10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수사의 진척이 늦은 경위를 설명했다.

69) 안미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존치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동기나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큰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져야 한다고 해 의원들과 충돌했다.

70)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

민간 기부채납 관련 사기 피해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는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 등에 대해 임대인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까지 모두 가져갔다. 하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으며 임차인들이 오히려 범법자가 됐다고 답변했다.

71) 오경석 두나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정무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철회되었고, 10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메디스태프 투자 비판에 대해 심려끼쳐 죄송하며, 미흡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72) 오세원 대검찰청 공업연구사

오세원 공업연구사는 10월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초상권 보호를 위한 가림막 속에서 답변을 하여 관심을 모았다.

73)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공의 근로실태와 정부의 관리 실태에 대해 그동안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지금은 좀 무색하다. 지속 가능한 수련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했다.

74) 은현장 유튜브 운영자

유튜버 은현장은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2024년 1월부터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에게 1년 동안 허위사실로 공격을 당했다며 그로 인해 회사 매출 100억이 무너졌고, 직원들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증언했다.

75)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1월 4일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집 앞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보호를 위해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했다.

76)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는 10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참고인 출석해 북한 인권보고서 관련 답변을 하였다.

77)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중앙회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정식 중앙회장은 10월 1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협회가 직영 중인 거주시설에서의 심각한 학대 및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해 저희 법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 유가족, 학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답변했다.

78) 이철빈 전세사가 강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철빈 전세사가 강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주택 LH 매입의 실효성, 지자체 피해주택 관리 대책, 엄격해진 피해자 인정 기준 등에 대해 증언했다.

79) 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임선웅 뉴스타파 기자는 10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단언컨대 특수활동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정말 단 한 장도 없다고 했다.

80) 임자운 변호사

임자운 변호사는 10월 30일 과방위의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인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교어린이TV 유고은 PD의 난소암 사망과 관련 산재소송 증언을 하였다.

81)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교수는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84조 해석과 관련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제가 헌법 84조 법제처 주석서의 원저자다.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가 썼던 것 때문에 최순실 특검에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82) 정경희 학교급식소 조리실무사

정경희 학교급식소 조리실무사는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출석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쌀이 든 솥을 옮겼는데, 언론에 보도되었다.

83)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재판전담부와 관련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판례나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법부 독립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84) 최광현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리앤비 최광현 대표(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10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규제, 종이빨대 정책 철회로 인한 업계 피해에 대해 증언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 철회로 인해 40명 넘는 직원이 10명 이하로 줄었고, 투자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는 집을 팔아 버티는 업체도 있다. 정책을 믿은 죄밖에 없다고 했다.

85) 최성철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최성철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구글 타임라인의 증명력과 관련한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86)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10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의료의 '소방서' 역할을 맡고 있다. 전문의 가산 수가와 심야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87)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은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진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 또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생활하기 위해 꼭 필

요한 서비스라며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대면 진료와 요양보호 산하 돌봄 인력이 도와준다면 충분히 (비대면 진료) 활용 가능하다고 했다.

88)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는 10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원료의약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 규모의 한계, 연구개발 투자 자원 부족, 국제 규제 대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89)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법권은 국민의 것이며, 법관은 봉사자다라며 대법관 사무실 75평, 1조4천억 청사 신축 논란으로 비판받는 대법원에 대해 성채를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로 개혁하라고 주문했다.

90)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Autonomous A2Z) 대표는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많은 분들이 규제를 원인으로 꼽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투자라며 미국과 중국은 구글·GM·바이두 같은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협업하며 산업을 키우는 반면 한국은 스타트업 위주로 정부 지원사업에 의존하다 보니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91) 홍의식 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

홍의식 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80개 농가가 110ha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주가 주주로 돼서 공동영농을 통해 기계화, 규모화로 이모작으로 확대하면서 농가 소득이 배 이상 올랐고 지주들은 소득 배당을 받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고

령농 문제나 청년농 진입 문제도 공동영농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92) 황호성 정교초등학교 교사

황호성 경기 정교초 교사는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주 배경 학생 교육의 어려움과 관련 러시아, 방글라데시, 몽골,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 배경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학교에 들어온 시기, 한국어 습득 정도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중언어 선생님과 함께 가르치고 있지만, 어려움이 크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면 한국 학생이 학교를 기피할 수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 2025년도 국정감사장 앞 시위(언론보도 중심) : 대한약사회 등 국감 참고인 중심 시위 많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과 관련된 찬반 시위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규탄 집회, 시진핑 중국 주석 규탄 집회, 박성재 법무부장관 영장 기각 찬반집회등 처럼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2025년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앞에는 1인시위, 기자회견, 시위와 집회 등이 계속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중 집회 및 시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집회 참가자들 중에서는 국정감사 중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김유미 제주항고 참사 유가족이나 대한약사회회장 등이 그 사례이다.

참고로 2024년도 국정감사장이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의대 입학정원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의 지방 국정감사에서 교수, 학생, 학부모들이 국정감사장 앞 피켓시위를 하였는데 이는 많이 조명되었다.

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진상규명 촉구 릴레이 시위

무안공항 제주항공 7C2216편 추락 사고로 가족을 잃은 김윤미씨는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김씨는 '우리 179명은 왜 죽어야 했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모두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진 데 대해 항의했다.

나. 순천시민연대, 노관규 순천시장 증인 채택 규탄 시위

순천 시민연대는 10월 27일 오후 조계원 의원의 여수을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순천시민사회연대는 노관규(무소속) 순천시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 여수시 조계원(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찾아 순천시민 명예훼손 중단을 촉구했다.

다. 김수란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조합원의 1인 시위

“행안부 장관은 폭염 전문가 복직으로 재난대응체계 즉각 복구하라”며 김수란 중앙행정기관본부 조합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연구원)이 8월부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행정안전부, 용산 대통령실 등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라. 산청농협 노조의 농협조합장 이해충돌 의혹 수사 촉구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이하 사무금융노조)가 10월 27일 산청군농협 본점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

의 농협법상 경업 금지 조항 위반과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노조는 조합장이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며 농협중앙회는 형식적인 감사로 끝내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 대전인권행동,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공모시 배제 촉구

대전인권행동은 10월 28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 공모에서 기존 수탁기관인 넥스트클럽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종교 편향적 성교육 조장, 극우 성향 '리박스쿨'과 연계 의혹으로 논란된 넥스트클럽협동조합(이하 넥스트클럽)에 대한 대전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 공모에서 기존 수탁기관인 넥스트클럽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 대한약사회, 한약사 문제 촉구 릴레이 집회, 1인시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한약사회 릴레이 시위가 10월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되며, 30년간 방치돼 온 한약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사. 자유대학 등 청년단체, 정근식 교육감 ‘협중시위 반대 캠페인’ 비판

청년 보수단체 '자유대학'과 보건학문&인권연구소·전국학부모단체연합·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민희망교육연대 등 교육계 단체들은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반미·반일 시위는 괜찮고 반중시위는 문제인가?' 편파적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한 '협중(혐오 중국) 시위 반대 캠페인'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비판을

했다.

아. 전국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조합원, 국감 현장 관심 촉구

전국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조합원들은 10월 2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지 국정감사가 열리는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의 공공의료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자. 산청 단계초등학교 통폐합에 반대시위

10월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학부모 황원 씨가 산청 단계초등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단계초교 통폐합 문제는 산청교육지원청이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황 씨는 현재 단계초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통폐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차. 충청권 전교조, 충북대 국감장서 피켓 시위

전교조 대전지부·전교조 세종지부·전교조 충남지부·전교조 충북지부는 2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 마련된 국정 감사장 앞에서 학교급식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카. 녹색연합 등,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하라 릴레이 1인시위

녹색연합·용산시민회의·정치하는엄마들·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은 10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요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참여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제대로 된 오염 정화를 거치지 않고, 미군 반환 부지에 졸속으로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개방 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오염문제, 예산 삭감 등 당론을 주도해왔는데, 권력을 잡은 지금 오염 정원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타. 한글단체, 감사의 정원 조성 철회촉구 기자회견

한글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10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25 전쟁 참전국과 참전군인들을 기억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한글의 성지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인 공간인 광화문광장에 남북 대결 의식을 조장하고 세종대왕을 보잘것없이 깎아내리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소방안전관리자 문제 지적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10월 22일 오후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게 지시를 내릴 권한도 없는 학교 행정실 직원이 교장 대신 소방안전관리자를 맡아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 각 지부도 현수막이나 손팻말을 들고 교원 감축 대책과 악성 민원 대책 등을 요구했고, 교육공무직 노조도 건강권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거. 한상국 상사 아내, 군가산점법·PTSD법 입법 촉구 시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다 전사한 연평해전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 아내

김한나 씨(51)가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였다. '자연성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법 입법 촉구'였다.

너.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 수목원 민간매각 반대 촉구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는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반대 피켓을 들고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더. 세종사랑시민연합,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촉구

지역 민간 단체인 세종사랑시민연합회 회원 50여 명은 10월 20일 오전 시청 앞에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회 회원들은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행정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는 기초사무 수행분 극히 일부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 진주자주통일평화연대와 진주진보연합, 대미 투자 철회 촉구

진주자주통일평화연대와 진주진보연합은 10월 18일 진주중앙시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미국 정부에 한국 노동자 구금 인권침해 사과와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머. 경찰직협, 국정감사 날 경찰청 앞에서 4조 3교대 반대 피켓 시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들은 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10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4조3교대 도입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고 4조 3교대 근무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집회를 열었다.

버. 광주과기원 노조원, 비정규직 대책 촉구 1인시위

10월 17일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국정감사 현장시찰이 실시된 가운데 공공연구노조 광주과학기술원 지부 노조원이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였다.

서. 홈플러스 직원노조, 홈플러스 사태 해결 촉구 1인시위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노조는 MBK의 M&A는 실패했다며 지난 9월10일 선량한 인수자를 찾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 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 문제 촉구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0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4.5일제 추진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 반대' 구호를 외치며 100만 서명운동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저. '알박기로 아파트 못 짓게한다' 화성 남양 저주택 조합 눈물의 시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린 10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400명의 화성남양 지주택 조합원들이 모여 사업 부지의 6.58% 땅을 쥐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가로막고 있는 서희건설을 규탄했다.

처. 용인역삼조합, 공원 훼손 규탄 시위

용인역삼지구 도시개발조합원들은 10월 15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현수막을 들고 용인시의 일방적인 행정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힐스스테이트 용인포레 사태'를 국회에 직접 호소했다.

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 물환경연구소 공무원 연구원, 임금 체불 규탄

김정환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 지회장이 10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지난해 환경부가 법정 의무 사업 예산 편성을 방기하면서 공무원들이 임금 체불과 강제 휴업을 겪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한 의제화와 해결을 촉구했다.

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아래 한정연), 국회 앞 1박 2일 노숙투쟁

정신장애인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며 국회 앞 1박 2일 노숙투쟁을 했다. 14일 오전 8시 5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15일 오후 3시까지 집회, 문화제 등을 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아래 한정연)는 복지부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알려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허.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찬반시위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을 두고 경남도 국정감사가 열린 10월 28일 경남도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연달아 찬반시위가 있었다.

7. 2025년도 국정감사장의 ‘웃음소리’ 분석 : 14개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79회(12.20.까지 게시된 75개 회의록만 분석)

여야가 크게 대치해서 감정이 날카로웠던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회의록을 통해 보면, 웃음 소리가 나온 경우가 있었다.

가장 많은 웃음소리가 나온 곳은 보건복지위원회의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종합 감사에서 9번 웃음소리가 나왔다. 주로 박주민 위원장의 진행발언 중에 터진 웃음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 살펴보면 8일의 국정감사 중에서 2일 국정감사를 제외한 6일 동안의 국정감사에서 총 19번의 웃음 소리가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6일 동안 모두 18번 웃음 소리가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7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번,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각각 5번씩 있었다.

야당 의원과 위원장이 충돌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에는 2일차인 10월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 시에 웃음소리가 나왔다.(국정감사가 아닌 전체회의중에서도 증인채택을 위한 토론종결이 부결되어 웃음소리가 나온 적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한번 나왔다. 2025년 10월 30일 유튜버 은현장씨의 발언 중에 나왔는데, 여야 의원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자 웃음 소리가

나왔다.

위원장의 진행발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경우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발언 중으로 13번 나왔으며,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4번,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3번으로 많았다. 그다음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맹성규 국토교육위원장이 각 2번,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언시 1번이었다.

참고로 제22대 국회 1차년도인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11회 나왔다.(2024. 12. 23. 등재된 82개 회의록만 분석) 당시 웃음소리는 주로 위원장의 진행실수를 비롯해서, 의원들의 질의시간 부족 읍소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국정감사장 방문도 웃음소리의 소재가 되었다.

8.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곤욕을 치른 2025년도 감사위원 :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질의 도중 말이나 행동 때문에 곤욕을 당한 의원들이 있었다.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감사중 딸 결혼식 해명관련 이었다. 대법원장 모욕성 피켓성을 들은 최혁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무소속)과 10. 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발언을 한 복기왕 의원이었다.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질의도중 말이나 행동 때문에 곤욕을 당한 의원들이 있었다.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었다. 기생집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가. 최민희 과방위원장 “양자역학 공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딸의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내에서의 결혼식 행사가 공개되어 곤혹을 겪었는데국감장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그는 "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었다"며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내성 암호를 공부하고, 암호 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말했다.

나. 최혁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 언니”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첫질의 중에 대법원장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들어서 거센 항의를 받았고, 10월 20일에는 춘천지방법원장에게 질의하는 중에 사실이 아닌 '나경원 의원 언니' 발언 때문에도 질타를 받았다.

10월 15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대법원장 모욕관련해서 징계요구가 있었다.

다.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 “지랄”

10월 13일 국방부 국정감사 중 위원장의 내란 용어 사용이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는 도중 여당 위원이 항의를 하자, '지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것은 합참 국정감사에까지 이어졌다.

라. 김위상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민주노총의 간첩활동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의원이 간첩혐의로 신고를 받은 인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김위상 의원이 '민주노총의 간첩활동'이라고 해서 정혜경 의원 등으로부터 소나기 공격을 받았다.

사. 박정훈 의원(과방위원회) :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기자회견’

10월 14일 과방위원회의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이 보낸 카톡메시지를 PPT에 띄어 전화번호 등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와중에 욕설이 나와서 국정감사가 파행이 되는 일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련 기자회견 때문에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10월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징계안을 제출했다.

아. 김우정 의원(과방위원회) : ‘의원 개인정보 공개’

10월 15일 과방위의 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적 문자를 공개해 이후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자. 김장겸 의원(과방위원회) : AI 시연(장관과 이춘석 의원)

10월 13일 과방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장관과 이춘석 의원의 만남을 합성한 AI영상을 띄워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파행까지 초래되었다.

자. 성일종 국방위원장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12.3 계엄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법적판단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서 내지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 것이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으로부터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위원장 사퇴요구를 당하였다.

차.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며 이번 정부의 대책은 중산층 이하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어 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감 도중 신상 발언을 통해 표현 자체가 행여 그것을 듣는 분들에게 혼란을 드렸다고 한다면 혼란을 드린 것 자체가 정치인이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질의도중 말이나 행동 때문에 곤욕을 당한 의원들이 있었다.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었다. 기생집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가. 양문석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문석 의원은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 중 가악연주를 한 것에 대해 "공연 상납을 시킨 것 아니냐"며 "기생집을 만들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국악인들로부터 사퇴촉구를 받았다.

나. 윤종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토위원회의 10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장관의 카니발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려 박상우 장관의 항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본인의 동의 없이 관용차를 당근에 올리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차량번호 및 소유자를 장관으로 올린 것 자체가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 이상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가 “셀프방탄 국감” 논란이 거세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 의원은 10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김종기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장과 지능범죄수사팀 실무자 2명에 대한 증인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10월 7일 행안위 국감에서 ‘피의 사실 유포 및 미체포 피의자 수갑 착용’을 이유로 김 서장과 수사 실무자 2명을 경기남부경찰청 국감(10월 14일)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때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을 낮추는 등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용인동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았고,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고, 경찰 내부의 피의사실 유포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자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모른 채하고 가야 하나. 그렇게 못 한다”며 증인 채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0월 11일 경찰청 국감에서 본인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질의했다가 여당 측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라. 정동영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감 중 사정기관의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을 일렬로 ‘줄세우기’ 시켜 갑질 논란이 일어났다. 10월 7일 과방위 국감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일렬로 세우고 “방통위는 정권의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훈계했다.

마. 최수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과방위의 방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의 자료를 언급하며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 감사 시간의 20%를 차지했다"며 "열정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팩트를 빙자해서 욕을 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정지하겠다"고 했고, 최수진 의원은 사과를 거부해 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정지당했다.

바. 최민희 국회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 중 활동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고, 징계청구되었다.

최민희 위원장은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방법 검찰청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의원의 발언·심의 및 국정감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독단적 운영, 발언 시간의 과다 사용 등으로 위원회 품격과 기능을 저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의 발언 내용마저 문제 삼아 금지하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했다고 징계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사. 문형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정감사와 영광·곡성 재선거 기간에 대기업 임원 등과 두 차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10월 17일 사과를 하였으나, 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시민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아. 장경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024년 10월 11일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발언을 하며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 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나쁜 손버릇을 가진 김건희 여사를 비호 하는 것도 한심하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김영철 차장검사와 영부인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일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저급한 발언으로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의 품격과 명예를 무너뜨린 발언이라고 해서 징계청구되었다.

자. 김영배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024년 10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보궐선거 원인제공, 혈세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을 또 찍어줄겁니까?" 라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관한 글을 올려서, 마치 보궐선거가 불법부당한 사유로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는 허위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故 김재윤 前 구청장이 지난 6월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다 뇌출혈로 별세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보궐선거였다. 업무수행 중 지병으로 별세한 고인에 대하여 애도는 못할 망정 '혈세낭비' 운운하며 고인의 소천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마치 불법부당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왜곡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청구 당했다.

차. 박범계 의원(국방위원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창피할 것 같다. ABC도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 보니 정말 너무하신 것 같

다”라고 말했다.

박 범계 의원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관한 내용이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군사작전하듯 갑자기 이뤄졌는데, 그 책임자가 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카.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대한 폭격을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제안하는 문자가 사진에 찍혀 논란이 되었다. 이 문자로 인해 ‘신종 북풍몰이’라는 야당의 비난을 받았다.

9. 거취공방이나 모욕을 당한 피감기관 내지 기관장 : 조희대 대법원장 등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참고인으로 둔갑해 인사말 뒤에 자리에 앉아 이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회의 끝날 때 인사말 후 계속 서서 있어야 하는 광경이 여과없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또한, 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취공방이나 퇴장 등 수난을 당한 피감기관 내지 피감기관 직원들이 많았다.

새정부 인사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소유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다만 사퇴요구까지는 받지 않았다.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부차관은 사퇴했다.

가.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13일과 10월 15일 사법부 수장으로서 처음 있는 일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공개적인 사퇴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11월 5일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시작무렵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장난합니까' 라고 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고, 그 후에 김병기 국회운영위원장이 퇴장명령을 내려서 국회 경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퇴장하였다.

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0월 16일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퇴할 생각 없으십니까, 이제 그만?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근무태도 및 역사관 등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다.

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플라스틱 용기 3개를 내놓고, 이중 일반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용기를 골라달라고 하였고, 고르지 못하겠다면서 공부를 더 하겠으니 위원님이 알려달라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크게 회자되었다.

마.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은 10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등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마스크를 벗지 않아 퇴장명령을 받았다. 이후 10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국회모욕죄로 고발의결되었다.

바. 이상경 국토부 차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국정감사 중의 발언은 아니었지만 유튜브 인터뷰 때문에 사퇴촉구를 받았고, 10.15 부동산 대책관련 성난민심 영향으로 자진사퇴를 하였다.

사. 김철수 대한적십자사회 회장

2025년도 국정감사 중 여러 의원으로부터 줄기차게 사퇴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 대한적십자사 갈라쇼를 개최한 뒤 직원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지적과 녹취가 공개되었다.

아. 이창석 국립생태원장

10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옹호전력과 원장 부임 이후에, 인사불신, 성희롱 사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내부 통제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자진사퇴가 답이라는 주문을 받았다.

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국민의 인권 회복과 대한민국이 다시 인권 선진국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위원장직 자진사퇴하라는 주문을 여러 의원으로부터 받았다.

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10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사죄의 뜻이든 후배 검사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타를 받았다.

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0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전진숙 의원등으로부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것을 기화로 사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즉답을 회피했다.

타. 강준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

10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의원로부터 도의적으로라도 사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을 받았다.

하.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원장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질의 사주한 의혹(질의청탁)을 받았다. 문정복 의원은 허 원장에 대해 퇴장조치를 요구했다.

거.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0월 30일 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으로부터 장애인기업종합센터가 1인 공화국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기관장 자리가 개인 권력을 키우는 자리가 아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장관이 박마루 이사장님은 빨리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하였는데, '삶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라면서 답변을 하였다.

«참고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것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평가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할 권리가 있음에도 증인 신청 철회 의결로 인해서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을 하여야 했고, 10월 25일 종합감사도 수감하지 못했다.

10월 10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는 김문수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8시간 가까이 파행했다. 그후 장관에 대한 증인철회가 있어서 퇴장을 하게 되었다.

김 문수장관은 감사 전 회의를 돌며 의원들에게 악수를 건넸지만, 야당 위원 일부가 이를 거부하는 수모도 겪었다.

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답변 태도와 관련하여 2곳 상임위원회에서 3번 크게 문제가 되었다.

10월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병신'용어를 사용하여 곤욕을 치루었고, 10월 24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박범계 의원의 질의를 'abc'도 모르는 질의라고 폄훼하여 곤란을 받았다.

10월 11일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이견태 의원과 문답을 이어가던 중 발언권이 없는 다른 의원이 큰 소리로 반박하자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여기가 소리를 지르는 자립니까"라고 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피감 국감장에서 말을 세게 한다고 군의 자부심이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질의 도중에 언성을 높이자, 김 장관은 "소리 지르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귀머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해 눈총을 받았다.

다. 김석우 법무부차관

10월 8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자,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에게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차관이 원데 답변 안 해요"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들었다.**

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10월 25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의결되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희 의원이 "(과거)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마. 정신병자 소리들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0월 11일 교육위원회의 동북아재단 등 교육부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한국 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김영호 위원장에게 박 이사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박 이사장을 겨냥해 "정신병자"라고도 말했다. 박 이사장의 취

임 전 인터뷰는 국감에서 여러 차례 논란으로 지적됐다.

바.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장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태 사무처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만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정애 의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태 사무처장은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사.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

김의환 총영사는 지난 8월 15일 뉴욕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광복회 뉴욕지회 회장이 건국절 제정 운동을 비판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대독하자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고 "오늘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새기며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며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 좌파 세력들을 분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다. 결국 김 총영사는 사퇴했다.

10. 낙하산 인사 논란은 7개 위원회의 13곳 국감장에서 32회 대신 정권교체로 인한 '알박기' 인사논란은 8개 위원회에서 11 곳 국정감사에서 39회 거론

지난해(2024년, 11개 위원회의 22개 국정감사장) 보다 낙하산 인사 논란은 조금 줄었다. 대신 '알박기'인사에 대한 지적은 많아졌다. 12.3 계엄과 탄핵결정 사이에서 이루어진 인사 논란 때문이었다.

2025년도 모니터 보고를 종합해 보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진 곳은 7개 위원회의 13곳 국정감사에서 었다. '낙하산 인사'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온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4군데 국정감사에서 나왔으며,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2곳에서 낙하산 인사 용어가 사용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말도 나왔다.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가 나왔으며, 국방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낙하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훈련용 진짜

낙하산이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각 1곳에서 낙하산 인사 용어가 나왔다.

《2025년도 모니터위원의 보고에 의한 질의중 ‘낙하산’ 거론 의원 등 현황》

감사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사용한 의원
2025.10.13.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정일영 위원
2025.10.30.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정일영 위원
2025.10.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이훈기 위원/노종면 위원/부현일 참고인
2025.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해민 위원
2025.10.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 위원
2025.10.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훈기 위원/노종면 위원/
2025.10.13.	국방위원회	군인공제회	유용원 위원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김승수 위원/이기현 의원
2025.1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조계원 위원
2025.10.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윤준병 위원
2025.10.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지혜 위원
2025.10.27.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황운하 위원
2025.10.2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신영대 위원/염태영 위원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낙하산 인사 관련 이슈를 제기한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훈기 의원(과방위)이었고, 신영대(국토위) 의원과 윤준병(농림위) 의원, 노종면 의원(과방위), 이기현 의원(문체위)도 낙하산 용어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황운하 의원(국토위), 조계원 의원(문체위), 김현 의원(과방위), 김승수 의원(문체위), 염태영 의원(국토위), 박지혜 의원(산업위), 유용원 의원(국방위), 이해민 의원(과방위)도 ‘낙하산’ 용어를 사용했다.

참고로, 2024년도 국정감사 모니터위원들의 보고에 의하면서 제22대 국회 1차

년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관련 질의가 된 국정감사는 11개 위원회의 22개 국정감사장장에서 나왔다.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정무위원회의 2024년 10월 14일 부산금융센터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였고, 윤한홍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정 위원, 김용만 위원, 강민국 위원, 박상혁 위원, 김재섭 위원이 '낙하산 인사' 관련 질의 내지 확인을 하였다.

가장 많이 언급된 상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각각 4곳의 국정감사장에서 '낙하산 인사'가 언급되었으며,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는 3곳의 국정감사장에서 '낙하산 인사' 언급이 있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2곳의 국정감사장에서 '낙하산' 질의가 있었으나, 실제 낙하산의 안전성과 관련된 것이나, 낙하산 훈련을 하는 용사들의 처우개선문제였다.

2024년 11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낙하산 인사' 현황에 대해 정진석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캠퍼스 인사 보도로 반격을 하기도 하였다.

«참고, 2024년도 모니터위원의 보고에 의한 질의중 '낙하산' 거론 의원 등 현황»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낙하산 언급 의원/답변자
2024.10.08.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김영배 의원
2024.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박지혜 의원
2024.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우정사업본부 등	이해민 의원
2024.10.10.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김종양 의원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정일영 의원
2024.10.11.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김용민
2024.10.14.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김현정 의원 이정문 의원 박상혁 의원 강민국 의원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낙하산 언급 의원/ 답변자
			김재섭 의원 김용만 의원 윤한홍 의원장
2024.10.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참고인 고한석
2024.10.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 에너지공단. 등	김정호 의원 권향엽 의원
2024.10.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저작권위 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김재원 의원
2024.1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윤준병 의원 이원택 의원
2024.10.24.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김현정 의원 조승래 의원 이강일 의원
2024.1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 노종면 의원
2024.10.2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새만금개발청	이연희 의원 전용기 의원
2024.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김종민 의원 이종배 의원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 원회.우주항공청	김현 의원
2024.10.25.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 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강일 의원
2024.10.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해양수산부	임미애 의원
2024.10.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박지혜 의원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통계청	정일영 의원
2024.10.29.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정일영 의원 구자근 의원
2024.11.01.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강유정 의원 정진석 비서실장

〈알박기 인사〉

정권교체로 알박기 인사와 관련해서 8개 위원회 11곳 국정감사장에서 39회 ‘알박기’인사가 나왔다.

원래 ‘알박기’는 주택재건축 문제, 원료나 전력의 선매 등에서 논란이 되는 것인

데, 이런 용어 사용을 제외한 것이다.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었던 곳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였다. 그리고 정무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박수현 의원, 임오경 의원, 손솔 의원, 이기현 의원 등이 '알박기 인사'를 이슈화 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문수 의원, 강경숙 의원, 백승아 의원 등이 거론했다. 그리고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용어를 사용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이인영 의원과 이강일 의원이 지적했다.

법사위에서는 유일하게 장경태 의원이 10월 23일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사용했다.

주로 '낙하산' 인사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사용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기재위의 박대출 의원과 교육위의 조정훈 의원이 제도적 관점에서 사용했다.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알박기' 용어 2회이상 사용현황》

의원명	위원회	'알박기'용어 사용횟수
박수현	문화체육관광	7
정일영	기획재정	5
임오경	문화체육관광	5
이강일	정무	3
김문수	교육	2
조정훈	교육	2

Ⅳ. 눈에 띄는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별, 일자별 국정감사활동 편린(片鱗)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미관세협정, 12·3 비상계엄과 탄핵과정에 대한 비판적 조명, 10·15부동산 정책, 캄보디아 사태, 국정자원 화재와 대통령의 행보, 이재명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선거재판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적절성 및 대법원장의 계엄당시 의혹,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건보재정, 국민연금 개혁 등이 이슈였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별 활동요약

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간사 김용민) : 조희대 국감부터 시작해 위원장과 야당의 ‘네탓’ 공방 반복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부터 종함감사까지 11일동안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중에서는 가장 많은 일수를 감사했고,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정감사 내용을 요약정리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내용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커넥션 의혹으로 조희대 국감을 전개했으며, 갈수록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국민의힘) 의원간의 충돌로 파행성 정회와 여야간의 끼워들기로 인해 정상적인 감사진행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감금논란이 있었다.

10월 20일 서울고법 등 재경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12·3 계엄 사태와 맞물린 내란재판부 설치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10월 21일 지역 고법 및 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블

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쟁점이었다. 오후 지방 고등검찰청 및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놓고 대립했고, 소위 초코파이 재판 등 법원이나 검찰에서 처리했거나 처리중인 언론에 노출된 개별사건이 많이 질의되었다.

10월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개의 재판' 재개 여부가 쟁점이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놓고도 공방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감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지시로 술이 담긴 페트병이 검사실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가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주장을 전개해 주장이 갈렸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상부의 외압'을 주장한 문지석 검사와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이 서로 사실관계를 놓고 대립한 가운데 의원들이 번갈아 대질 신문을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화제 중 하나인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은 김현지는 여성이다. 그분한테 '이 대통령과 내연 관계다',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등 낭설을 퍼뜨리는 게 바로 당신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 고발하는 안건도 처리되었다.

10월 24일 법체처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여야의 설전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협조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조원철 현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점 등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완규 증인은 내란을 마침내 저지른 윤석열을 변호했던 '윤석열 변호인'이었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법제처는 내란 정권에 법 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 기관이었다. 그 과거를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선서거부에 이의서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다. 위증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날 발언권 제한 등 크고 작은 소란으로 인해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했다.

10월 24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 더딘 수사 속도와 실적 부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오동운 공수처장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쇄신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무용론'을 내세워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과 관련해서 오동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져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0월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놓고 혈전이 벌어졌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안미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개혁 동기나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큰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져야 한다고 해 여당 의원과 충돌하기도 했다.

감사도중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고성과 항의가 반복됐고, 추미애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들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발언권 제한과 퇴장을 명령한 데 이어 안 검사에게도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10월 30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번 국회 법사위 국감이 파행적으로 진행된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와 반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야당 의원의 질의 전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게

'꽤꽤이'라고 쏘아붙이자 곽 의원이 '서팔게'라고 응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곽 의원을 향해 "말하는 싸가지 저거"라며 비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종료 직전 마무리 발언에서 이를 이유로 국민의힘의 발언권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나.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 간사 강준현, 강민국) : 주요 증인 불참 속 개인 정보 문제 등 조명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주로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민생소비쿠폰 발행과 지방재정의 관련성, 가격폭등과 부동산 대책,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균형발전, 국가보훈정책의 현실과 강화방안 등이 조명되었다.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처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선 출마, 공공기관장 거취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상황에 대해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질의에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났고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330건이라며 연으로 환산하면 100회 이상 폭증했다고 말했다.

10월 14일 공연 압표 방지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해 대책, 배달앱 등의 불공정거래 등이 논란이 되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방해 혐의 제재에 관해 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10월 16일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16일 제1연평해전 유공자 판정과 관련해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닌가?라고 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10월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0월 2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과 동남투자공사 설립의 실효성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10월 27일 금융기관 종합감사에서 금융수장들의 보유 부동산과 관련해서 질타를 받았다.

10월 28일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이나 알고리즘 담합 등을 전담할 디지털 시장 분석팀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29일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거래 현실을 지적하며 송경희 개보위원장을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수한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숨겨진 웹 공간인 다크웹(Dark Web)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제대로 탐지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간사 정태호, 박수영) : 한미관세협상과 부동산 세제개편 등 새정부 정책 점검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일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고,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이 전임 정부 공공기관장을 찍어내려는 목적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지난해 12·3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주

장도 있었다.

10월 16일 국세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의 과세 여부도 화제가 되었다. 김현지 논란도 나왔다.

10월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 '관봉권'이 등장했다.

10월 21일 관세청과,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여당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짜맞추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0월 27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개발도상국 경제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유상원조 기금으로 운용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적정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10월 29일 한국은행 등 종합감사에서는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주자는 제안에 부정적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라.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간사 고민정, 조정훈) : 김건희 이슈 계속 논란, 새정부 교육정책 점검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8일 동안 감사를 진행했고,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기도 하였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10월 14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주명건 세종대 명예 이사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해 발부했다.

고교학점제 문제가 이슈였다.

'4세 고시'라 불리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영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문제도 조명되었고 최교진 장관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근

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현지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의 역할 등도 점검되었다. 리박스쿨 관련 의혹도 제기되었다.

10월 16일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피감기관의 기관장 거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성준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을 향해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감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야당인 국민의힘에만 예상 질의 및 답변을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년 전에 불거졌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10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3년 당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녹음파일을 재생하면서 학폭위 심의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군인 자녀를 위해 국방부가 설립한 경기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민고 신병철 교장은 여러 비리 문제로 질타받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 주변에서 잇따른 '험중시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반중 시위와 반일·반미 시위에 대응하는 교육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논란이 거세지자 10분간 국감을 정회했다.

전남 학생교육수당 놓고 국감서 여야 찬반 논란도 있었고, 공자학원 문제도 제기되었다. 강원대의 교수 비리, 광주시교육청의 인사비리 의혹, 전남도교육청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치료 지원사업, 광주 광산구 일부 초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10월 23일 부산 모 예술고에서 발생한 여고생 3명의 사망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가 진행하는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10월 23일 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불이행과 부채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적절성' 공방도 있었다.

10월 28일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시진핑 자료실' 등 교내 중국 관련 시설을 두고 공방이 있었고,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가 인천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10월 30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신고한 민원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간사 김현, 최형두) :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과 감사위원의 카톡 공개와 욕설논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일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2일간 현장시찰을 하기도 하였다.

10월 13일 과기부 국감에서는 국정자원 화재와 전산망 장애 두고 책임 공방이 있었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AI(인공지능)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가 오가며 정회됐다.

10월 14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증인으로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이버 레커'로부터 협박·공갈 피해를 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도 출석해 증언했다. '찌질한 놈' 문자폭로에 여야 총돌로 오후 내내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일과 5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오후 국감이 시작된 지 44분 만에 정회했고, 욕설 논란도 있었다.

10월 16일 김우영·박정훈 의원의 총돌로 비공개 회의가 있었다.

최민희 위원장의 '선택적 보도'한다며 언론 퇴장 명령도 있어서 국감은 지연되었다. 있다"고, 박충권 의원은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진행하지 마시라"고 반발했다.

10월 20일 YTN 매각, TBS 서울시 지원조례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최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0월 21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일어난 통신 3사 대표들이 나와 질타를 받았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0월 22일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전남 해남군이 선정된 것과 관련, 가칭 '국가 AI 연구소'의 광주 설치 등을 요구했다.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KBS의 보도 편향 논란과 경영실적 부진 책임을 묻는 등 공세를 전개했고,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국감장 퇴장 조치 논란을 집중적으로 거론해 파행했다.

10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김영식 NST 이사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10월 27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 제주한화우주센터를 방문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만나 위성정보 활용·실증 분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0월 29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공방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반쪽' 국감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논란과 MBC 보도본부장 국감장 퇴장 조치 등을 거듭 문제 삼았고,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중도 퇴장했다.

10월 30일 최민희 위원장은 국감 말미에 딸 결혼식 논란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MBC에 대한 비공개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것에 대해선 MBC 비공개 업무보고 때 답변을 안 하겠다는 태도를 보고 '그러려면 나가라'고 한 것은 과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재직 당시 최 위원장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달라고 최 위원장 보좌관이 요구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방통위 직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바.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 간사 김영배, 김건) : 캄보디아사태, 관세협상, 평화적 2국가론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통일부 등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9일간 진행되었다.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차 대사가 유엔대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그를 화상으로 출석시켜 직무 적격성을 따져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으로 모욕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맞섰다.

10월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에 관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하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기 외통위 위원장이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저는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0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 국정감사가 크게 보도되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 관련 상황을 따지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10월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대가를 원할 것이라고 봤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문구를 넣는 것을 두고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이 거의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발언을 정정한다고 답변했다.

사.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 간사 부승찬, 강대식) : 내란 종식 주장, 내란 용어 논란, 핵잠 건조 이슈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10월 13일 자문기구 명칭에 '내란'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2·3 계엄이 '내란'이란 것은 5천200만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천200만명이 피해자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작권 '전환'이 아닌 전작권 '회복' 용어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실이 연내 청와대로 이전에 따른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군부대 이전 문제도 거론되었다.

10월 14일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수 있다고 합참이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도 나왔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개최도 거론되었다.

10월 17일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책임 공방이있었다. 여당은 지난 정부 인사들의 KDDX 사업 연루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K-방산의 이점을 무역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무능하다고 질타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스웨덴, UAE 등 국가 인사들의 방산 협력 관련 방한이 취소되고 수출 실적이 악화했던 점을 거론하며 내란은 방산업

계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옥석을 구분하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0일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를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동원훈련 응소율 하락, 상근예비역 자원의 현역 편입, 현역병 정신건강 관리 등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10월 21일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방부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하나로 3년 만에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 승인을 받았고 북한에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10월 23일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은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식장 독점계약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해군호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적절한 게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시설 사용 및 출입 관련 양해각서(MOU)가 별도로 있는데, 압수수색한 시설은 한국 측 공여 부지에 준공된 우리 재산이라 MOU상 출입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공군본부 국감에서는 지난 3월 KF-16 전투기 2대가 포천에서 시행된 한미연합훈련 중 민가에 MK-83 공대지 폭탄 8발을 투하, 민간인 40명을 포함해 총 66명이 다치게 한 초유의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10월 24일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위기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며 국민께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두고 환영 입장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우며 차질 없는 건조 추진을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핵잠수함 건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세협상과 연계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아.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간사 윤건영, 서범수) : 이진숙 체포논란 , 국정자원화재, 6. 3 지방선거 대비 지자체 국감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경기남부경찰청 등 경찰청을 비롯해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경찰청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가 주목을 받았다.

10월 1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온 한국인 납치 감금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방세연구원 신입 직원이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달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놓고 행안부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자원 전산실 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이설업체 선정 등에 대해 조명되었다.

10월 15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때의 재산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보좌관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신고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공직자 헌법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교단체의 당내 경선 개입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당법상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10월 17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관련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며 포문을 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측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기 양평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 변사사건을 다른 경찰서 관할 수사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했다.

10월 20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인천시에서 계엄 동조정황이 나타났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고,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 결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세가 이어졌고, 시경찰청 국감에서는 세종지역 폭우 당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시민과 관련, 경찰의 부적절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월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재난기본소득,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지사가 공방을 벌였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놓고 경기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당과 공무원 사망의 동기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변사 사건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와, 논란이 이어지는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명태균씨가 나왔지만 오세훈 시장과의 직접적인 공방은 없었다. 특별검사팀 대질신문을 앞두고 국감 질의에 일절 답변하지 않으면서 상호 발언이 오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공방이 반복됐다.

10월 24일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전시의 대응 체계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

업 타당성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공천 개입, 사상 최악의 강릉 가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10월 27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공직자의 언행과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를 놓고 여당 의원들과 김태흠 충남지사 간 공방이 벌어졌고, 전희경 충남연구원장 임명 적절성을 놓고도 공방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등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행정을 놓고 갑론을박했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칠승 의원의 발언은 대구시민들의 인격권을 짓밟은 끔찍한 사회적 테러라며 희대의 지역 비하이자 끔찍한 시대착오적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주장했다

10월 28일 전북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2022년 고시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전주·완주 행정통합 등이 나왔다.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다.

낙동강 물 공급, 산불 피해 지원, 김해 황새 방사 후 폐사 등 일부 현안만 산발적으로 다뤄졌다.

10월 30일 종합감사에서 정부 전산 시스템이 2022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3년간 해킹을 당하고도 침해 탐지를 못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얼굴 노출을 거부한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을 고발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지도부의 '해외 도박 수사무마 의혹'으로 이어진 2022년 춘천경찰서 첩보 유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 간사 임오경, 박정하) : 체육계 비리, 왕의 의자에 앉은 김건희 여사 등 조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9일간 진행했다. 현장시찰 2일로 실제 감사일자는 7일이었고, 총 질의시간은 39시간 5분 25초였으며, 의원 1인당 질의시간은 2시간 26분 35초였다.

국정감사기간 중 김건희 여사 이슈 외에는 조명이 적었는데, 첫날 기관장 인사 공방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되었다.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K-컬처 300조 시대 달성을 위해 문체부가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K-콘텐츠 펀드의 운용실태 점검과 미등록 연예기획사 관리 강화 등 문화산업 전반의 제도적 보완과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체부 산하 기관장의 인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퇴임 전 '알박기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사람들의 기관장 내정설이 나온다면 서 문제를 제기했다.

무소속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무속인 천공 등의 시정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전날까지 보고받은 중국 단체관광객 무단이탈 사례가 있냐는 질의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 무비자 단체관광객 가운데 지난 13일까지 무단이탈 사례를 2건 보고받았다고 했다.

10월 16일 국가유산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군함도와 사도광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주문되었고,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이 크게 조명되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답했다.

박정하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유산청장 인사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허 청장에게 혹시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가라고 질문했다.

10월 22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내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지 세력이 대거 포진해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근정전 용상 착석 의혹에 관해 추궁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

의 국가 유산 사적 이용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상설 전시 유료화 여부와 관련해 유료화 시점과 방식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건국전쟁을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7일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스포츠 영웅'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상임위 위원과 피감기관장으로 마주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능력 부족이라는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를 질타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1차전에 초청한 것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0월 29일 종합 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국비 지원 과정 등을 질의했다. 조계원 의원은 증인 신문이 미진했다고 판단해 다시 증인 신청을 했지만, 노관규 시장은 이날 순천시의회 시정질문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여기구, 간사 윤준병, 김선교) : 조용한 정책국감, 해경 사망사건, 김현지 논란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1개 기관에 대해 9일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9일동안 감사위원들은 46시간 52분 53초동안 질의를 하였으며 1인당 2시간 28분

3초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별로 이슈화된 것이 없이 조용했으며, 신람청 국정감사 등에 김현지 대통령실부속실장 증인채택 논란이 있었고, 산림청장에 대한 관련질의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서해구조물 충돌의혹이 제기되었다.

농·축협 직원의 횡령,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액이 최근 5년여간 1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농·축협에서 28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액은 961억원에 달한다.

10월 14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올해 햅쌀 중 10만t(톤)을 우선 시장 격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농산물 물가가 급등했지만, 생산비가 치솟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송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산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김인호 산림청장과 인연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명 과정 문제를 짚기 위해 김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 공세'라며 반발했다.

10월 15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현실화하면 수산 분야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HMM의 부산 이전에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질의에는 올해 연말 안에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하고 부산 시민과 국민께 공개하는 일정이 있다며 HMM은 (공공기관 이전과) 시차는 있겠지만 지배구조나 매각 문제 등과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차원에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되기 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시장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질의에 의원님이 당선시켜 주신다면이라며 대답 대신 웃음을 보였다.

이른바 사드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괴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

가 공방을 벌였다.

10월 17일 전주시 덕진구 농촌진흥청에서 농진청 일부 기구의 수도권 잔류문제가 나왔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아직 옮기지 않은 식품 관련 기구들은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으며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10월22일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의 대응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질책했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면 (동료 4명의) 감찰 조치를 통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으며, 한국 정부도 비례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0월 24일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수뢰 의혹과 '보은 인사'에 대한 집중질의를 받았다. 강 회장은 답을 피하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드렸다면 여러 일련의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히겠다라고 답했다.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10월 27일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출석해 사랑제일교회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협의 특혜 대출 의혹에 수협중앙회장이 대출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자신의 개입을 부인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어떻게 수협으로부터 담보 없이 100억원을 대출받았느냐, 사전 거래 내역이 있느냐는 질문에 2021년 9월 도이치파이낸셜에서 수협과 30억원의 대출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고 답했다.

10월 2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늘리는 데 대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면서 조 장관에게 사과하라고 하였다.

김인호 산림청장의 임명 과정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

실장 등과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거쳤다고 일축했다.

10월 30일 한미가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봉(조경태 의원)과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은 것(윤준병 의원)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점검에 나선 한국 조사선을 중국 해경이 막아섰다는 의혹에 대해 구조물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해양조사라며 중국 측의 위협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간사 김원이, 박성민) : 원전수출, 한미관세협상 충돌 속 중소기업인 보호 대책 점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 40개 기관에 대해 9일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2일간의 현장시찰을 제외하면 7일동안 감사를 했는데 질의시간은 44시간 59분 15초였고, 1인당 1시간 29분 59초꼴로 질의했다.

가장 큰 이슈는 한미관세협상이었고, 민생쿠폰 문제도 많이 다루어졌다. 새로 승격된 지식재산처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루어졌다.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서 전남은 6년 동안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계도 나왔다..

10월 13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추진 과정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논의하고자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매국 계약이라고 했다.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결해 10월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등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은 철회됐다. 같은 날 국감을 하기로 예정했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고려해 20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감사하기로 했다.

10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의 제2차관 '내정설'이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의 통화 여부도 추궁했지만, 한성숙 장관은 없다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박대준 주식회사 쿠팡 대표, 이주철 더블유컨셉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과도한 수수료 관행 등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10월 16일 성추행·스토킹 의혹을 받는 박원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상임감사의 답변 태도를 놓고 고성이가 오갔다.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3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박 감사는 의원들을 향해 대응하는 시기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범죄와 관련해 해외취업자 보호 등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법인카드 사용 감독 강화, 비위 의혹을 받는 해외 주재 직원에 대한 귀국 조치 등 조직 관리에도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10월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 상생을 내세운 강원랜드의 '하이원 콤피'를 두고 제도의 취지가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랜드가 불법 사설 온라인 도박장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강원랜드 내부 직원이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황이 나와 조치가 시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카지노 내부가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버젓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돌아다녀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

졌다.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영난을 비롯해 중소기업 경기 침체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강승규 의원은 윤건희 정부 운운하셨는데, 이번 국감에선 여러 상임위에서 '이현지'(이재명·김현지) 정부가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했다.

10월 24일 산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대왕고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10월 28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현장시찰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 종합감사에서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유통, 지역사랑상품권과의 역할 분담 정립 및 효율적인 통합 방안 검토,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방안 종합적 검토 등이 제시되었고, 상호관세 피해 수출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대미 수출중소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발명교육 ODA 사업의 전면적인 재점검, 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에게 창업 친화적인 환경 제공, 일반증인 등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당사자간 기술탈취 주장 확인 및 증거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다.

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간사 이수진, 김미애) : 웃음 속 국정감사, 건보, 연금재정, 마약 대책 등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물의약품안전처 등 44개 기관에 대해 8일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8일 동안 50시간 41분 50초 질의를 하였고, 1인당 평균 2시간 6분 45초 질의를 하였다.

10월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혐중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10월 15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투자한 데 대해 미흡한 결정이라고 했다.

10월 17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0월 21일 식약처 등 국정감사에서 비만이나 심혈관질환 치료에 쓰는 일부 약물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10월 22일 여야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의 거취 문제와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방역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국민의힘 후원회장을 지낸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데 대해 이탈자가 있는 만큼 방역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를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가 연기금 운용에 개입한다고 비판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부 비위에 엄정하지 못하거나 직제가 비효율적인 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금주 전 보건복지인재개발원장이 국감 직전인 지난 10일 돌연 사퇴한 점을 쟁점화했다. 배 전 원장은 작년 11월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관은 고위직이 비대한 직제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접근성 문제도 지적받았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예산이나 인력 등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한 데 대해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입양인 인권 침해, 각종 기록물 관리 소홀 등 질타가 이어지자 송구하다, 유감스럽다고 답변했다.

10월 30일 종합감사에서 전·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판매요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간사 김주영, 김형동) : 시험범위 모르고 시험, 4대강, 쿠팡 수사, 산업재해문제 등 조명

위원회 이름도 소관기관도 바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95개 기관에 대해 10일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 등 현지국감도 실시하였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첫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첫 국감부터 파행을 하였고 둘째날도 증인 채택 때문에 파행을 하였다. 쿠팡관련 검사가 참고인으로 증언을 한 것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쿠팡퇴직금 체불사건 외압의혹, 탈탄소정책의 난맥상, 한전·발전5사 재해복구 관리부실, 임금체불 문제,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문제 등이 조명되었다.

10월 14일 여야는 국정감사 일정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후부가 지난 1일 출범한 지 2주 만에 국감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졸속 감사 우려를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은 전임 정부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한때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기후부 출범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후 10월 16일 전체회의에서 기후부로부터 에너지 분야에 대해 별도의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부처 개편과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주 대상이 전임 윤석열 정부라며 전 정부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이 후퇴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가 사실상 탈원전일 뿐이라고 공세를 폈다.

10월 15일 민주노총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설전을 벌이다가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았으며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며 노동부 국정감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위상 의원이 마치 민주노총이 간첩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다.

여야는 주 4.5일 등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처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법) 등 고용노동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취업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cfs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렸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10월 17일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강원 강릉의 가뭄과 관련 예측 실패를 인정한다. 기상청에서 가뭄 대응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개선을 약속했다. 위험기상 현상 및 기후변화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추진 계획도 밝혔다.

'날씨 유튜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예보성 날씨 정보를 올리는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상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20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사 측이 윤석열 정부 추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이용된 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경제 협력 차원에서의 참여라고 반박했다.

10월21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허술한 공단 운영과 사업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 공인 자격시험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지적이 먼저 이어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원이 고용보험기금을 2억8천만원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질책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두고 쓴소리를 들었다.

'캄보디아' 등 해외 취업 관련 질책도 이어졌다. 한국폴리텍대학 캄보디아 분교 설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 장애급여 청구를 위한 진단서 발급 관련 개선 필요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점검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도 이어졌다.

10월 29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30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을 계기로 산업 재해와 노동자 권리·처우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노동자 권리·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 대통령실의 근무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는 국감에서 기업 회생 중인 홈플러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거.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간사 복기왕, 권영진) :10·15 부동산 대책, 한강버스, 가덕도 신공항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 34개 기관에 대해서 8일 감사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개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최대의 논란이 되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토부 차관이 사퇴를 하기도 하였다.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 등에 대한 책임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건설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한 공사 비용 현실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교통분야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경우 현대건설의 계약 포기로 인한 공사 중단 책임 규명 및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로드맵 마련 필요성 등이 조명되었다.

10월 13일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면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우리 국민과 달리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지적에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상호주의에 맞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중국에서 토지와 집을 대하는 사회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과 다른 점을 염두에 뒀야 한다"면서도 "외국인이 우대받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라며 현재 연구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답했다.

추진이 지연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부지 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10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LH의 직접 시행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개발 이익 환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L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에 대한 국토위의 증인 채택이 민주당 주도로 철회된 점도 논란이 됐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전체회의에서 김 대표를 종합감사(29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10월 16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청소 미흡'을 지적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내쫓으려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본질과 무관한 정쟁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도로공사의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를 두고 한목소리로 도로공사를 질타했다.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지역 12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의 설전이 이어졌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요구로 시작부터 시끌벅적했다. 오후 질의에서 김현지 실장과 관련한 야당 의원과 김 지사 간 공방이 이어졌다.

맹성규 위원장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맞게 질의해야 한다. 국감이 산으로 갈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 있다 없다 답을 주면 될 듯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국감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선동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했다.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와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안전상 문제없다고 보고받았다면서 한강버스 12대 중 4대가 배터리 전기 추진체인데 국내에서 최초가 아니라 다른 사례가 있다.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늦 무궁화호 열차 사고 관련, 작업자 불일치 등 문제가 되풀이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0월 23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채택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추후 협의하자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극적인 임대보증 등도 도마 위에 올랐고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와 관련한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10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명 연예인의 출국으로 빚어지는 혼잡·불편에 공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질타가 있었고, 지난 추석 연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의 화장실 변기 막힘이 고의로 저지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10월 29일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사고 조사당국에 조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하루빨리 진실을 밝힐 것을 호소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토교통부 소속 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진상규명 중이라 하지만 유가족에게는 그 어떤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 300일간 한 줄의 진실도, 한 장의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철회후 다시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유족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모든 조사 자료는 이미 다 제출해 일부러 숨긴다든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너.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기, 간사 문진석, 유상범) : 김현지 논란 속 파행과 여당 의원의 야당 대표 배치기

국회운영위원회는 9개 기관에 대해 2일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인권위의 12.3 계엄관련 논란, 국회사무처의 야당 사찰 의혹, 김현지 국감 출석 논란, 서지영 의원의 대통령실 전과 현황 질의가 크게 조명되었다. 3일 동안 13시간 34분 25초 동안 질의를 하였고, 의원 1명당 평균 29분 6초 정도 질의를 하였다.

11월 5일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상임 인권위원 퇴장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여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입장을 캐물으며 안 위원장과 거센 공방을 하였으며, 안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 위법 문제는 법원에서라며 즉답을 피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민주파출소 등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며 사퇴하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고,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김현지 실장은 국감 첫날 단말기를 두 차례 바꿨고,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날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김 실장이 과거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에서 거센 항의가 쏟아지면서

30분정도 국감이 정지 파행됐다

최수진 의원을 대신해 보임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 있는데 김 실장에 대한 국감도 멈춰야 하느냐며 김현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스토킨처럼 김 실장에게 집착하고 있다며 김 실장이 노상원처럼 수첩에 적어서 계엄에 가담했나,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했나. 비선 의혹 운운하는 것은 불순한 물타기라고도 했다.

저녁부터 시작된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사무처의 야당 사찰 의혹이 논란이 되었으며, 세종청사 건립 이전문제 등 현안이 다루어졌다.

11월 6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대립의 정점을 이루었다.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해 의원 간 '배치기'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서지영 의원은 이제명 대통령이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마치 국회를 존중하는 척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면 '지시쇼'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희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와있지 피의자로 와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며 제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 한 명일 뿐인 데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고, 또 이런 말을 하면 나서서 보호한다고 할까 봐 말도 잘 못하겠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와 관련해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른바 '두 국가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남북관계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간사 김한규·조은희) : 성평등 구조적 문제 점검

위원회의 명칭이 바뀐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일간 감사를 진행했으며, 하루는 현장시찰을 하였다.

11월 4일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 사건처럼 인신매매 피해자가 피의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 지원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 니코틴이 담배사업 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가 남성 역차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구조적 성차별 해소가 부처의 근본 과제라고 했고,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 감사내용은 먼저, 성평등가족부의 확대 개편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 등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구조적 성차별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20·30대 성불평등 인식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

또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등 돌봄제도 관리 강화,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한 재발방지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스토킹·교제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밖에 평화의 소녀상 훼손 등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에 적극적 대응 필요,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 마련 등 역할 강화 필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처리 체계 점검 및 개선책 마련 필요, 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불법 인터넷 도박 및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접근 차단 등 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 필요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11월 5일 성평등가족위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 현황을 점검했다.

러. 정보위원회(위원장 신성범, 간사 박선원·이성권) : 비공개

11월 5일 정보위는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감사를 했다.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방첩사 개편 문제 등이 쟁점이었다.

2024년도 국정감사

- 양원제 국정감사의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문제부터 시작해 김건희 여사의 여러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같은 국정감사, 명태균 의혹관련 강혜경 씨의 증언, 감사원 감사의 감사회의록 공개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다. 지난해와 같이 해병대 사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역시 큰 주제였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일반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하였고, 일반증인의 대거 불출석으로 국정감사가 흐려졌고, 정책감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 **민생경제의 위기 속에서 진행된 경제관련 정무위(위원장 윤한홍)**는 지난해의 이념논쟁이 재등장했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절차, 광복회장 문제 등이 조명되었다. 국민권익위의 간부 유서라며 박원순 유서 제시되어 "가짜뉴스 낚였다"는 표현이 화제가 되었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재발방지 및 보호문제, 가계부채 증가 문제,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지휘 감독 책임 등도 많이 나왔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늦게 시작(10.10)해 늦게 끝났는데(10.29) 세수부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과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책을 주문했고, 가계부채 폭등 문제, 물가 문제 등이 조명되었다. **금투세 논란, 집중투표제 도입 논란이 크게 조명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대 세수결손문제와 2025년도 예산관련 정부의 균형재정 방향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반을 나눠서 현장 국정감사도 실시했으나 제대로된 점검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었다.
-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증인불출석으로 충돌해 시작부터 어려움에 직면했고, 국정감사 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도 이루어졌다. 논란이 된 AI교과서, 의대정원 문제 등이 크게 조명되었고, 지난해(2023)와 같이 교권 침해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 일가 '웅동학원'** 문제도 관심사가 되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감사위원을 피로케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방송 관련 국정감사는 심야국감, 자정을 넘기는 국정감사를 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독립된 감사를 받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감사 말고도 2차레나 감사를 받았으며, 방송사의 공정성 문제, 과기부의 R&D 논란 등이 가장 눈에 띄는 쟁점이었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들이 많았다. 김우영 의원이 10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인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말해 국정감사 용어의 품격논란이 빚어졌다.
-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된 대북전단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는데, 대북전단 살포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야당 의원의 대북 전단 위법성 추궁에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비유하는 격앙된 반응을 보여 소란이 일었다. 대일 외교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 방향성 문제가 크게 조명되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한미일 중심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북한군의 러시아 용병파병 대응, 북한의 도발, 미국 대선후의 대응전략 등에 대한 점검과 질의가 이어졌다.
-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는 10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가 국방부 장관의 '병신'발언으로 소란을 빚었고, 10월 24일에는 감사위원(한기호 의원)의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어 소동을

- 빚었다. 이런 중에도 위원장의 노련한 진행과 여야 중진의원들의 노력으로 빈틈없는 안보 태세의 확립을 위한 대응전략, 군 사기진작 방안과 복지문제, 한미일 훈련, 방산사업, 게임 설의 진위, 군 '충암파' 논란, 문재인 정부 접경지역 평화 정책 등을 점검하였다.
-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10월 7일 대통령 관저이전 불충설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하면서 시작해 여야가 국감내내 '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문다혜 씨' 등으로 참여한 대립전을 전개했다. 명태군 의혹, 오송 참사 등 참사의 원인과 대책,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이 많이 조명되었고, 지자체 인구소멸문제, 재난 대책 등이 조명되었다. 지방반을 나눠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전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까지 실시했다. 국정감사중 퇴장명령을 당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에 복한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한 것도 이슈가 되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기생집' 등 감사위원의 발언이 국감 내내 회자되었고, 안세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발언과 관련해 체육계(축구, 베드민트, 사격 등)의 비리와 개혁이 큰 이슈가 되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논란도 문제가 되었다. 지난해(2023)와 같이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관광업계 현안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며,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정부 지원사업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기도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여기구**)는 쌀값 등 농가소득과 해수온도 상승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수산물 대책과 어민소득 증대, 소나무제선충 등 산림병충해 방제 등이 쟁점이었으며, 2023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커다란 충돌이 없어 정책감사를 전개했고, 감사장에 나온 배추 등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으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막말 논란으로 인해 일시 파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원장과 간사들의 노력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으며, 체코 원전 수출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점검, R&D 예산 축소, 전기료 등 에너지 대책, 중소상공인 지원 문제 등이 큰 이슈가 되었고, '티메프 사태' 피해와 배달앱 문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의 부담 감소 및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2023년도)와 같이 산하기관의 모럴해저드도 크게 조명되었다.
 -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감사를 여야간 큰 충돌없이 진행하였고, 공공, 필수, 지역의료 확대 등 의료대란 대책을 비롯해 의대정원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 국민건강보험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개선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도 점검되었다.
 -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논란으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이 충돌해 장관퇴장사태가 빚어졌다. 아이돌그룹 하니의참고인 출석으로 언론의 관심을 모았으며, 너무 많은 피감기관으로 인해 줄속 국정감사를 지적도 받았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낙하산 인사 및 채용비리문제, 기후위기 대책, 쿠팡, 삼성반도체, 한화오션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문제, 환경미화원의 노동 환경 등이 논의되었다.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 여야의 충돌이 있었고, 관저 이전과 증축 등의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규명, 용산 어린이정원 문제, 산업단지 특혜논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관련 수의계약 특혜 의혹, 주택문제, 공기업 방만 경영 문제도 대두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찬대**)는 지난해(2023)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산등록 관련한 처분내용 공개 거부로 인해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국감이 종료되기도 하였는데, 올해

에는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실 인사 동행명령장 발부문제로 크게 충돌하였고, 자정넘어까지 국감이 진행되었다. 인권위의 경우에는 인권위 내부 문제가 크게 조명되었고, 국회사무처에서 비상계엄 대비 대책이 질의되기도 하였다.

-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과 주요 국장 공석문제 등이 많이 거론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정책 계획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졌고,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점검이 증인신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일자별 활동요약: 매일매일 전대미문의 국감-- ‘감금’ 논란으로 시작해 ‘배치기’ 로 끝나

가. 10. 13.(월) :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 조희대 감금 놓고 여야 충돌

8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 정시에 시작했다. 법제사법위(위원장 추미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감 내내 고성 충돌이 이어지며 파행과 함께 난장판을 국감을 하였다.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10월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기로 했다.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얼굴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과 합성한 피켓까지 들어 보였다.

정무위(위원장 윤한홍)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처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선 출마, 공공기관장 거취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이자)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을 비롯해 통신 3사의 해킹 사고와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점검되었다.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가 쟁점이 되었고, 전산망 먹통 와중의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등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과 주식 투자를 모의하는 듯한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틈자 민주당 측이 거세게 항의하며 감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외통위(위원장 김석기)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지연 등이 논의되었고,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 증인채택논란이 빚어졌다.

국방위(위원장 성일종)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내란' 용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앙된 설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욕설(지랄이야)까지 등장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군장병 복지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철규)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를 둘러싸고 충돌했는데, 매국계약과 뚝 발언까지 나와 감사지연과 파행을 겪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입장차도 확인했다.

국토교통위(위원장 맹성규)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호남에서 불 만나나' 발언에 대한 공방이 벌어져 감사가 지연되기도 하였다. 건설사들의 산업재해 문제와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실효성 점검 등이 있었다.

나. 10. 14.(화) : 고성과 욕설 파행, 교육부 국감 첫 동행명령장 발부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유일하게 14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문제, 대북 정책,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질의 중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충돌해 파행했다.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이 화제가 되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관련 질의가 많았다.

정무위(위원장 윤한홍)의 공정거래위 등 국정감사에서는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 각종 플랫폼 기업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가맹점,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련

이슈를 추궁했으며, 롯데카드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롯데카드 및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회장 김병주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기획재정위(위원장 임이자)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하며 공방을 벌였다.

교육위(위원장 김영호)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과 은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장관의 적격성 등이 논란이 되었다.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여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다.

현장 불만이 큰 고교학점제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조명되고,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의혹도 크게 대두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국정자원 화재 대응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놓고 여야가 또 대립했다.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관련 논란도 있었고,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 레카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외교통일위(위원장 김석기)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2국가론이 논란이 되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공존 방안으로 제시한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방위(위원장 성일종)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어제 이어 내란 용어 사용 논란이 있었다. 전시작전권 문제도 제기 되었다.

행정안전위(위원장 신정훈)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은 화재 수습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예능 녹화 등을 고리로 현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등을 근거로 전임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출석하는 만큼 최근 캄보디아에서 빈번히 벌어진 한국인 대상 납치·살해 사건에 대한 국회의 대책 촉구가 있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국가정보원 출신 간부

가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퇴장당했다.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김교흥)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 산하 기관장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퇴임 전 '알박기 인사'를 했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 김 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사람들의 기관장 내정설이 나온다고 맞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김 실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김인호 산림청장과 인연이 있다며 임명 과정 문제를 짚기 위해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증인채택논란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철규)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의 중기부 2차관 유력설에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위원장 박주민)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혐증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프레임 공세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부정 수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출범한 지 2주 만에 국감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졸속 감사 우려를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은 전임 정부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한때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위원장 맹성규)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허점 국감서 도마위에 올랐다.

다.10. 15.(수) : 대법원 점령 논란, 간첩 증인 채택 논란 파행

10.15 부동산대책(서울전역, 경기 12곳 투기과열토허구역 지정)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출석 속 5개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범여권 법사위원의 대법원 습격, 사법부독립 조종(弔鐘)

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대법원에 대한 2차 국정감사가 진행되었고, 반발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 대법정 법대 점령 논란이 빚어졌다.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증인으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등에 참여한 엄희준 검사, 대장동 의혹 관련 남욱 변호사를 추가했다. 그러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는 출석요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도 촉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

행정안전위(위원장 신정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이석 이 문제가 되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 공개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 공방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여기구)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북극항로 개척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해양쓰레기 문제 등이 있었고,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보건복지위(위원장 박주민)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박주민 위원장의 분석에 의하면 100가지 이상 이슈에 대해서 질의가 이뤄졌다. 김가연 현 X코리아 공공정책 총괄 상무 등 8명의 증인과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 등 25명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았으며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며 노동부 국정감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처벌법, 노란봉투법의 후속 조치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과거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는데, 참고인으로 나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해 주목받았다.

라. 10. 16.(목) : 고발로 비화된 김현지 논란 과방위, 법사위는 파행 지속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盧비자금 불인정 보도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10개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외교통위의 아주반은 주 필리핀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국방위는 해병대 시찰을 하였다.

주당은 박정훈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추진과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쇄신 태스크포스(TF)' 구성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사실상의 정치보복 TF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중기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위(위원장 윤한홍)의 국가보훈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을, 국민의힘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정치 이력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부각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권익위를 상대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지휘했던 권익위 간부가 사망했다.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존재 가치인 헌법 정신을 훼손했는데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기획재정위(위원장 임이자)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이 이슈가 되었다.

교육위(위원장 김영호)의 한국고전번역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의 역사관 논란이 쟁점이 되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시설원)이 국민의힘에 질의를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설원 기획조정실에서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을 대상으로 특정 질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의 욕설 문자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을 벌이다 질의는 시작도 못한 채 약 40분 만에 정회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여당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했다.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김교홍)의 국가유산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 등이 각각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유산청장 인사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허 청장에게 "혹시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철규)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성추행·스토킹 의혹을 받는 박원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상임감사의 답변 태도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범죄와 관련해 해외취업자 보호 등을 지원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 감독 강화, 비위 의혹을 받는 해외 주재 직원에 대한 귀국 조치 등 조직 관리에도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위(위원장 맹성규)의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청소 미흡'을 지적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내쫓으려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본질과 무관한 정쟁이라고 맞섰다.

마. 10. 17.(금) : 증인의 선서거부, 재판소원, 이진숙 체포 논란 등 부각, 김현지 출석놓고 여야당 논쟁

'김건희 의혹' 태양광주, 민중기 특검도 역대차익...상폐 직전 매도 보도 속 10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광주AI데이터센터 현장시찰을 하였고,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반은 주미국대사관, 구주반은 주네덜란드대사관겸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를 감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인천 현지 시찰을 하였다.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정당 해산 심판, 재판소원 등이 나왔고,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미국기지 압수색 항의서한이 쟁점이 되었고, 위원장석 둘러선 파행(곽규태 의원 발언권 제한)이 있었다.

국방위(위원장 성일종)의 방위사업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위원장 신정훈)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 대응 미흡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더해,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를 비롯해 관계성 범죄·아동 유인 사건·사제총기 사고 등 최근 사건 대응을 둘러싼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면서 수사·통제 구조 전반에 대한 공방이 오갔으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논란이 있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견제 장치도 쟁점이 되었다. 이수기업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울산북부경찰서 배기환 서장, 안경원·박승학 전 경비교통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어기구)는 수원에서 농촌진흥청 등 국정감사를 하였다.

보건복지위(위원장 박주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수사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 환수 지연 원인 등을 점검하고 공단에 특

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 등도 논의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진퇴도 쟁점이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가운데, 강중구 심평원장이 오래된 사건이라 관참을 줄 알았다"며 가능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기상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예보 정확도, 외국산 기상관측장비 의존 등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예년처럼 슈퍼컴퓨터 등 연구장비 소홀과 낮은 예보 정확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일찍 종료하고 김포공항 현장시찰을 하였다.

바. 10. 20.(월) : 김대웅 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해명이 화제가 된 가운데 1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 공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도 눈길을 끌었다.

정무위(위원장 윤한홍)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갭투자 차단을 위한 금융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 고팍스 인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실행된 800억 원대 부적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사부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위원장 임이자)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관봉권'이 등장했다. 특검의 건진법사 수사에서 검찰의 '띠지 분실'로 논란이 됐던 것인데, 개혁신당 천하

람 의원은 1천원권 1천장이 묶인 관봉권을 제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위(위원장 김영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이 도마 위에 올랐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민고 신병철 교장은 여러 비리 문제로 국감에서 질타받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머리 숙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의 주문화방송 업무보고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YTN, TBS, 연합뉴스TV)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식에 과방위 피감 기관의 화환이 길게 늘어선 사진을 공개했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상 정치인의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하거나, 화환이나 축의금은 사양한다는 문구를 박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YTN 매각, TBS 서울시 지원조례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외교통일위(위원장 김석기)은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방위(위원장 성일종)의 병무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귀화자 병역의무 무부과 등 병역자원 문제가 거론되었다.

행정안전위(위원장 신정훈)의 지방1반(위원장 신정훈) 인천시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인천시청을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계엄 사실도 사전에 몰랐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지방2반(반장 서범수)는 세종시 세종경찰청 등을 국정감사했고,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김교흥)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등을 국정감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어기구)의 산림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철규)는 정선에서 한국석유공사등 국정감사를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사 측이 윤석열 정부 추진 사업에 적극 참

여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이용된 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경제 협력 차원에서의 참여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위(위원장 맹성규)의 지방1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관련한 야당의 자료 요구에 여야 신경전으로 시작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연결 지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나섰다.

지방2반(반장 권영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해서 도입된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관련 지적이 많았고, 국감 직전 발표된 10·15 대책도 쟁점이었다.

사. 10. 21.(화) :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안 토론,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등 여야 대립 법사위 또 파행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부위원장이 서울경찰청 앞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사진이 보도되는 가운데 10개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대전고법/대전고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오창훈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 훼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4심제 도입에 관해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 중 야당을 중심으로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거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 특검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지적하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민 특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수사 당시 고발은 안됐다는 등 억지 쉼드

(보호)를 쳤다며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다. 같은 편끼리 뭐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 판사는 9시경 출석해 지난해 근무시간 중 직원 환송 자리가 길어지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고 언론에 알려진 모 변호사와 나눈 대화 장소는 특정 라이브 카페라 밝히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정무위(위원장 윤한홍)의 금융감독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 우면산 대림아파트 2가구 외에도 상가 2채를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질타당했다.

기획재정위(위원장 임이자)의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관계자와 롯데카드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안 현 주소,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집중 추궁을 받았다.

국방위(위원장 성일종)의 지상작전사령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내란 여부는 지금 재판 중이다. 지금 쓸 용어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국방부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하나로 3년 만에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 승인을 받았고 북한에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저작사는 밝혔다.

행정안전위(위원장 신정훈)의 경기도/ 경기남북목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놓고 경기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당과 공무원 사망의 동기를 밝혀야 한다는 야당의 공방이 오갔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조사 이후 숨진 경기 양평군 단월면장의 변사 사건에 대해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살인사건 관련과 관련해서 질타가 이어졌다.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인의 모친은 담당 경찰관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력히 요청했는데, 정직 1개월 등의 징계에 그쳤다며 경찰은 일상생활마저 무너진 유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

를 줬다고 말했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을 대표해 유족께 고개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며 수사가 지연되고,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너무 아쉽고 과오라고 생각한다. 지적 사항은 검토 후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위원장 박주민)의 식약처 등 국정감사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동적 대응과 원료 의약품 자급률 저하가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이사는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 우롱차가 판매된 것과 관련해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은 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를 했고, 국토교통위(위원장 맹성규)은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를 했다.

아.10. 22.(수) : 외통위(아주반) 캄보디아 현지 국감 마이크 고장

내주 APEC 앞두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가운데, 5개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만희 신천지 포상관련 적십자사 추궁과 김건희 여사 김건희 경회루 근정전 출입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교육위(위원장 김영호)의 지방 1반은 전북대 등 국정감사와 지방2반은 경북대 등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재학생·졸업생 개인정보 유출과 교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강원대의 교수 비리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외교통일위(위원장 김석기)의 아주반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와 관련해 현지 대사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김교흥)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경북궁 근정전에 들어가 어좌에 앉은 사실이 드러났다. 양문석 의원은 '일개 아녀자가 용상에' 등의 발언을 했다. 정용석 사장은 잘 모른다. 저도 수행하고 있었는데 몰랐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어기구)의 해양경찰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의 대응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책했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면 (동료 4명의) 검찰 조치를 통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위원장 박주민)의 대한적십자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공공병원 지역별 격차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자. 10. 23.(목) : 김현지 증인 채택 불발, 명태군 서울시 국감 출석

11개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서울고등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문제도 조명되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있었다. 수원지검 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및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되었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도 논란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김현지는 여성이다. 그분한테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런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라는 발언도 화제가 되었고, 영화 '아수라'도 나왔다.

정무위(위원장 윤한홍)는 부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를 했고, 기획재정위(위원장 임이자)는 지방 국세청 /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를 했다.

교육위(위원장 김영호)는 충북대 / 경상대 등 국정감사가 나왔다. 교육청 국감에서는 북한노래 교육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의 한국방송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연일 파행속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후속 조치,

보도 편향성 등을 두고 대치했다.

국방위(위원장 성일종)는 공군본부/해군본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진행은 순조롭지는 못했다.

행정안전위(위원장 신정훈)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명태균 국감이 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김교흥)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철규)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관세협상 피해 기업 지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 적발 후 사후조치 및 부정유통 근절 노력 미흡, 청년몰 입점업체의 생존율 추적, 공영홈쇼핑 문제 등이 조명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한국에너지재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 분야가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상대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 감사를 했다.

국토교통위(위원장 맹성규)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발표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 힘 김희정 의원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부동산 발언'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고 좌절하게 했는지 그 말의 무게를 개인 이상경이 아니라 국토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서 묻고 싶었다. 이 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라고 했다.

차. 10. 24.(금) :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무죄발언, 공수처 고발사건 은폐 의혹, 국토1차관 야간 사퇴

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산업위 등 13개 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하였다. 정무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현장시찰을 하였고, 기재위는 포항경주공항 등 현장시찰을 하였으며, 교육위원회도 제주 현장시찰을 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원회도 태안 현장시찰을 하였고, 외통위 미주반과 구주반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법제처, 공수처 등 국정감사에서는 현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무죄 발언이 크게 충격을 주었고, 그 전에 전 법제처장의 선서 거부도 논란이 되었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 위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고발하신 분들이 저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는 게 적정 절차예요? 허허. 아니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라며 선서를 거부했다.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 고발 사건 은폐가 도마위에 올랐다.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고발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최근 순직해병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여부도 논란이 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국과연 소속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던 이 원장을 향해 최민희 위원장이 '이렇다 할 경력이 없다'고 언급하자 이 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원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항공우주를 해왔는데...라며 응답했다.

국방위(위원장 성일종)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12. 3 계엄 관련 군의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위원장 신정훈) 지방1반(반장 신정훈) 대전광역시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비롯해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대전 0시 축제 등이 쟁점이 되었고, 지방2반(반장 서범수)의 강원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는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공천 개입, 사상 최악의 강릉 가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김교흥)는 연합뉴스 등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한 한미 관세협상 진행 과정을 숨김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농협

중앙회장의 비리 의혹도 조명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철규)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증인 채택이 철회되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아요.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출발도 안 하고 기다리게 만들고.'라는 말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위원장 박주민)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코스피 5000' 공약과 맞물려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과 재정 안정성, 독립성 문제가 나왔다.

카. 10. 27.(월) : "이 대통령도 화재 때 먹방" 김태흠 답변에 고성

10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는 제주 국가위성센터등 현장시찰을 하였다. 국방위(위원장 성일종)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 현장시찰을 하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선동혐의 압수수색이 보도되었다. 내년에 사라질 대검찰청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 있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는 않고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무위(위원장 윤한홍)의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갭투자·다주택 자녀 증여 등 부동산 문제를 맹공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수요 억제책 위주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 등을 쟁점화했다.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 내 금융상황분석팀이 '정치 컨설팅'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위원장 임이자)의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정감사에서는 공석기관장이 눈에 되었다.

행정안전위(위원장 신정훈)의 지방 1반(반장 신정훈)은 충청남도 /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해외 출장과 답변 태도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30분 만에 정회되는 등 한때 파행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정부의 '5극3특' 구상을 가장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2반(반장 서범수)은 대구광역시/ 시경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희 동상 건립 등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행정이 주요 현안이 됐다. 주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 측의 반발이 나오는 등 고성이가 오갔다.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김교흥)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스포츠 영웅'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상임위 위원과 피감기관장으로 마주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어기구)의 수산업협동조합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사랑제일교회와 도이치모터스[067990]에 대한 수협의 특혜대출 의혹에 "수협중앙회장이 대출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자신의 개입을 부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경사노, 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대유위니아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해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을 질타했다.

국토교통위(위원장 맹성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연휴 기간 누군가 고의로 인천공항 내 화장실을 막은 정황이 나타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밝혔다.

타. 10. 28.(화) : 여당의 부정쟁 주간 선언, 정동영 통일부장관 평화적 2국가론 사과

8개 위원회 국정감사 진행되었다. 국방위(위원장 성일종)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장시찰을 하였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철규)는 제주에서 현장시찰을 하였다.

정무위(위원장 윤한홍)의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조명되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 플랫폼 기업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의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롯데카드 해킹 관련 질의도 있었다.

추경호 의원은 특수한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숨겨진 웹 공간인 다크웹(Dark Web)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제대로 탐지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위원장 김영호)의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학법인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증원,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 논란 등이 조명되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시진핑 자료실 설치와 폐지 문제는 서울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시진핑 자료실은 서울대가 2015년 10월 중앙도서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도서와 영상자료 등 1만여점을 기증받아 만든 공간이다.

외교통일위(위원장 김석기)의 외교부, 통일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외교부의 캄보디아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인지 시점과 전후 대응의 적절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 등을 놓고 공방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캄보디아 사태 관련 위증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 압박을 하였다.

행정안전위(위원장 신정훈)의 지방 1반(반장 신정훈)은 전북특별자치도/도경 국정감사를 했고, 지방2반(반장 서범수)는 경상남도/도경 국정감사를 했다. 경남 국정감사에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박완수 경남지사와의 관계, 창원 제2국가산단 추진과정에서의 관여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고, 3월 발생한 산청군 대형산불과 7월 집중호우 등에 대한 경남도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점검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다. 외교부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여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쌀시장 추가개방은 없다는 정부의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

는 농협의 공동영농사업 참여 및 농지취득 필요성, 광주시의 농지투기 감사 배경 및 정부 차원의 투기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쌀 수요를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 관리와 선제적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위(위원장 박주민)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직원 폭행 및 폭언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퇴하면서 국감 회피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산하기관의 모럴해저드가 많이 다뤄졌다.

하. 10. 29.(수) : 트럼프 미대통령 김해국제공항 도착, 김현지 국감증인 불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해공항도착소식이 오전에 전해 진 가운데 6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위원장 임이자)의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경기둔화와 세수 부족 문제, 확장재정 기조의 지속 가능성과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했다. 관세청 등에 대해서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조명되고, 국감계획서 변경으로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 시작 전 '언론보도 직접개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딸 결혼식 거짓해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가 조명되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얼마나 더 국회의 권위를 실추해야 만족할 것입니까?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갑질과 도용도 불사하는 게 과연 노무현 정신입니까?라며 최민희 위원장을 비판했다.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KT해킹 및 소액결제 사고 은폐 의혹, 국감 위증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김교홍)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종묘 차담회', '경복궁 근정전 용상 착석'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이배용 전 국

가교육위원장이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철규)의 중소기업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운영문제를 놓고 논쟁을 하였다.

한성숙 장관은 두 상품권은 모두 장단점이 있다. 연구용역을 하거나 행안부와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여당 의원(김태선 의원)이 낸 '분리배출 퀴즈'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좀 알려 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했다.

국토교통위(위원장 맹성규)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핵심 쟁점이었다. 전·월세 안정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등 부동산 민심 관련 이슈도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부터 주 2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주택 공급에 대해 살살이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 10. 30.(목) : 중국 시진핑 주석 한국도착, 미중 정상회담 속 법사위 파행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주요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법사위(위원장 추미애)의 대법원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비위 의혹 등이 조명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지적했다. 쿠팡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도 거론되었고, 민중기특검 등 특검 수사가 '강압 수사'임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신동욱 의원, 조배숙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은 국감 NGO 모니터단이 간이총평 보도자료와 관련을 언급하면서 법사위 파행 책임 관련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위(위원장 임이자)의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루었고,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이 다뤄졌다.

교육위(위원장 김영호)의 교육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과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도 다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딸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었다.

국방위(위원장 성일종)의 국방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핵함모 건조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군과 협의해야 하겠지만, (핵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지면)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위원장 신정훈)의 행정안전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자원 화재와 함께 행안부 설치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수산물이력제, 나무어상자에서 플라스틱 어상자로의 낮은 전환율, 미흡한 내수면어업 관리와 해양쓰레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빠져 있는 바지락 문제 등이 나왔다. 2020년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보건복지위(위원장 박주민)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3가지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산재 정책과 정년연장, 주4.5일제 등 고용노동정책 전반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경북 경주 아연 제조공장 4명 사상사고와 런던베이 글뮤지엄 근로자 과로사 의혹도 나왔다.

너. 11. 4.(화) :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시정연설은 반쪽, 성가워 국감은 정상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성평등가족위(위원장 이민선)의 성평등가족부 등 국정감사와 비공개 정보위(위원장 신성범)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남성 역차별에 집중하면서 여성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고,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불법 체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에 대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부처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성평등가족부의 확대 개편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 등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구조적 성차별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20·30대 성불평등 인식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와 스토킹·교제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 11. 5.(수) : 인권없는 인권위, 국회사무처의 야당 사찰 의혹

서훈 전 안보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서욱 전 국방 등 5명(서해 공무원 사건) 결심공판 이 있는 가운데 국회운영위(위원장 김병기)의 국가인권위,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가 있었다.

초반부터 선서문제로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이 퇴장조치 되었다. 인권위원장의 성추행 의혹이 크게 조명되었다.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사무처의 국민의힘 회의 사찰 의혹이 제기되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 경기지사 당시 대북 송금 정황 확인안돼" 보도가 나왔고, "박지원, 국정원장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자료 삭제 지시 안해"라는 보도도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의 브리핑이 취재원이었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운영 현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러. 11. 6.(목) : 2회 파행과 배치기, 김현지(107회 거명) 출석 논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18묘역 찾았지만 시민단체 반발로 약식참배했다는 보도와 관저 이전 의혹 수사 관련 尹부부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2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최대관심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였다. 여야 이견으로 일반 증인 없이 국감이 진행되었다. 전·현 정권 대통령실에 대한 여야 공방이 있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국정감사 중 총 107회 거명되었다. 파행을 거듭해서 여당 의원의 야당 원내대표 배치기 사태까지 벌어졌다. 감사위원 사보임으로 충돌하였다.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관련 의혹을 제기하여 관심과 궁금증을 유발하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희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와있지 피의자로 와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며 제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 한 명일 뿐인데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고, 또 이런 말을 하면 나아서 보호한다고 할까 봐 말도 잘 못하겠다고 했다.

〈참고, 2024년도 국정감사〉

- 10월 7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관저 이전' 과 관련해 야당과 국토교통부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논란이 있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된 통신위원장의 증인출석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고, 결국 출석하여 답변을 하였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위(위원장 성일종)는 '장관의 등신 바발언'으로 소란이 빚어졌다. 행안위(위원장 신정훈)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문제 증인의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 강대강으로 맞붙었다.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위원장 정청래)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 재판지연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외통위(위원장 김석기) 국감에선 국제대회 유치관련 대외비 공개로 여야간 갑론을박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 10월 8일(화) 생중계된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위원장 청정래)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무위(위원장 윤한홍)의 국민권익위 등 국정감사에서는 권익위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가짜유언장 논란이 야당위원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간에 있었다. 교육위(위원장 김영호)의 교육부 등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과 관련해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으로 충돌했고, 의대정원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농림위(위원장 여기구)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이상기온현상에 따른 어가소득 안정 등이 이슈였다. 보건복지위(위원장 박주민)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입학정원 및 작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대란과 관련된 증인신문 등 의료 이슈가

- 다뤄졌다. 환경위(위원장 안호영)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시작전부터 국회의원 컴퓨터에 부착된 피켓문구가 문제가 되어 일시 파행을 빚기도 하였다.
- 10월 10일(목) 행안위 등 9개 상임위 국감에서 명태균·김대남 등 증인 불출석이 논란이 되었다. 행안위(위원장 신정훈)에서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했다. 기획재정부(위원장 송언석)부 국감에서는 약 30 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에 대한 정부 대책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쟁점이 되었다. 정무위(위원장 윤한홍)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 가계부채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국방위(위원장 성일종)의 합동참모본부 등 감사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대책과 안보태세 점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합참이전 문제 등이 다뤄졌다. 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일제시대 국적발언이 논란이 되었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정년 연장 이슈 등이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는 보이스 피싱·스미싱범죄 대책과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 관련 논쟁이 있었다
 - 10월 11일(금)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이 진행되었다.** 법사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이 논란이 되었다. 평양 무인기 관련 장관에 대한 확인 질의도 있었다. 교육위(위원장 김영호)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제기된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을 두고 공방했다. 기획재정부(위원장 송언석)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세수펄크, 지역화폐법 시행 등이 쟁점이 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철규)는 원전수출과 관련된 의혹으로 충돌했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일기예보 국정감사를 하였고, 오후에는 시찰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는 울산과 경주의 새울3호기와 월성원전 현장을 시찰하고, 외교통일위(위원장 김석기)는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는 병역기피 문제 등을 조망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현안이 된 경찰수사에 대해 갑론을박했다.
 - 10월 14일(월) 북한의 국경 부근 완전무장 8개 포병여단 사격대기 태세 전환 보도와 명태균 씨가 21년 6월18일 아크로비스타 306호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시로 매일 조연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미친 거 아니냐"고 발언해 화제가 되었다. 법사위(위원장 정청래)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논란이 되었다. 행안위(위원장 신정훈)의 경기도 국감에서 대북전단관련해서 여야가 충돌했고, 경기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의 특혜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거론되었다.
과방위(위원장 최민희)에서는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보도 편향성 논란 등이 논란이 되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백 YTN 사장과 서기석 KBS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산업위(위원장 이철규) 국감에선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금융 지원 의혹,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두고 갑론을박했다.
 - 10월 15일(화) 북한이 우리 예산 1천800억이 투입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뉴진스 하니가 환노위(위원장 안호영)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라고 말했다. "관저 감사회의록 보자" 자료제출 문제로 법사위(위원장 정청래)도 일시 정지하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국정책방송원(KTV) 등 대상 국감에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항제 관람' 의혹 관련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KTV의 조모 PD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

영호)의 서울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선 이 대표의 피습 당시 전원과 헬기 이송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지영 의원은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선 YTN 출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해당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위원장 신정훈)의 서울시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피감기관이 죄인입니까'라면서 답변할 기회를 주장했고 중단됐다. 문체위의 양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생집" 발언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 10월 16일(수) 국회 운영위가 야당 단독으로 '공천개입 의혹' 3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5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기획재정위(위원장 송언석)의 국세청 등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관련 질의가 나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탈세 의혹, 윤석열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이 있었다. 보건복지위(위원장 박주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점검되었고, 건강보험 부정수급 증가 문제, 신기술을 탑재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 등이 조명되었다. 국토교통위(위원장 맹성규)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HUG의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손실문제가 나왔다.

- 10월 17일(목) 10. 16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당이 동물의 성적을 거둔 가운데 김건희 여사 무혐의결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11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국회 다수당에게 정정보다는 국민의 삶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철규)의 울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감사에서는 '대왕고래'가 논란이 되었다. 정무위(위원장 윤한홍)의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의혹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쟁점이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과학기술원 등 53곳 감사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과 이공계 인재 양성 문제 등이 다뤄졌다.

행정안전위(위원장 신정훈)는 감사중 2023년 지하철도에 하천물이 범람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시찰했다.

법제사법위(위원장 정청래)는 두개반으로 지역 소재 법원 20곳과 검찰청 13곳 등을 감사했는데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이 이슈였다. 교육위(위원장 김영호)는 교육청 7곳과 지방거점국립대 6곳, 지역거점병원 4곳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10월 18일(금) 11개 상임위 국감이 열렸다. '음주운전' 문다혜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김정은이 17일 서울지도 펼쳐놓고 "한국은 적국, 거침없이 물리력 사용"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사위(위원장 정청래)는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감사를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공방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는 대장동 의혹 수사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를 빔댄 '측천무후' 막말 파행도 있었다. 기획재정위(위원장 송언석)의 관세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위(위원장 김영호)는 충청남·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을 감사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는 지하실험연구단과 천연물연구소 등을 시찰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철규)는 월성원자력본부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시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어기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논란이 있었고, 보건복지위(위원장 박주

민)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국방위(위원장 성일종)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전 정훈실장의 불출석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 10월 21일(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빈손'면담 소식이 보도되었다. 9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명태균 의혹, 민원사주 의혹이 계속되었다. 법사위(위원장 정청래)의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인 강혜경 씨가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과방위(위원장 최민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두고 논란이 되었다. 정무위(위원장 윤한홍)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이 논의되었다. 기획재정위(위원장 송언석)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위원장 맹성규)는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해 고속도로 입점업체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10월 22일(화) 12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법사위(위원장 정청래)의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수원지법에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위법수사와 무죄 여론전을 전개했다. 정무위(위원장 윤한홍)의 독립기념관 등 국정감사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계속되었다. 교육위(위원장 김영호)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는 10월 16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했고, 노벨상 수상자로 발표된 한강의 작품이 불량서적으로 폐기된 것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공방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전재수)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2024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처우 문제와 참관단 방만 운영 논란,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등 체육계 현안이 질타되었다. 국토교통위(위원장 맹성규)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감사에서는 낙하산 논란이 벌어졌고, 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10월 23일(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D-학점'이라는 2024년도 국정감사 간이평가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 동영상도 또다시 공개된 가운데 3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보건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종합감사를하였는데,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 및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 등이 쟁점이었다.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참고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산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 한국은행 지역본부 6곳 등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였고, 행정안전부위(위원장 신정훈)는 제주도 현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을 감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문제와 관광 위기대책이 쟁점이 되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국정감사장 이탈 등 태도도 논란이 되었다.

- 10월 24일(목)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이 재구형되었다. 종합 감사장에서 고성숙 피감기관 직원이 혼절해 병원에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방부 장관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ABC도 모르는 질이라고 폄하했다.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고, 무더기 고발의결도 있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3000명이 보도되었다. 북한이 2개 여단에 해당하는 1만 2000명 정도 파병을 위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12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법사위(위원장 정청래)의 오전 교도소 시찰과 오후 감사원 현장검증이 있었다. 국회방송으로 보도된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의 교육부 등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외통위(위원장 김석기)는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마치고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관련, 정부 당국의 정세 분석과 향후 대책,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출석해서 일본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 오물풍선 도발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국방위(위원장 성일종)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용병파병 문제, 군 '충암파' 논란, 문재인 정부 접경지역 평화 정책 등을 놓고 충돌했고, 후반에는 감사위원(한기호)의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어 여야가 크게 충돌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선 막말, 발언권 박탈, 파김기 관 혼절 등이 있었다.

- 10월 25일(금) 7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다. 국회방송은 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고용노동부 등 종합 국정감사를 방송했다. 김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격돌이 있었다. 법사위(위원장 정청래)는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해서 감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했다. 행안위(위원장 신정훈)의 행정안전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대선 전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무위(위원장 윤한홍)의 국가보훈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사건, 공정위의 거대 플랫폼 대상 제재 등에 집중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최민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과학기술계 연구개발비 예산 문제 등이 조명되었다. 법사위의 '쌍디근'(서영교 의원), 중국어로 동서남북의 동시남베이(정청래 위원장) 등이 회자되었다. 행안위(위원장 신정훈)는 국감 불출석한 21명 중 '21그램'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등 4명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과방위(위원장 최민희)는 국감 불출석한 ubc울산방송의 최대 주주인 우오현 SM그룹 회장을 고발 의결했다. 우 회장이 10월 24일 상중(喪中)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10월 7일 불출석 및 동행명령 회피에 대해서만 고발하기로 했다.
- 10월 28일(월) 1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기획재정위(위원장 송언석, 喪中으로 불참)는 대규모 세수 결손 원인을 두고 책임공방이 이어졌고,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 10월 29일(화) 북 고위 장성 등이 전선 이동 정황과 김정은 암살 대비 경호 격상 등 보도가 무성한 가운데 2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정보위(위원장 신성범)는 비공개로 파병관련 뉴스가 나왔으며, 기획재정위(위원장 송언석)는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했다.
- 10월 30일(수) 여가위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잇단 소녀상 테러에 대해 대책이 주문되었고,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조명되었다. 장관공백 상태로 신영숙 장관 직무대행이 수감했다.
- 10월 31일(목)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찬대)와 정보위(신성범), 여성가족위(이인선)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가위는 현장시찰을 하였고, 운영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 6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 인권위의 내부문제가 많이 조명되었고, 국회사무처에서는 계엄대비 주문도 있었다.
- 11월 1일(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마지막 일정이 진행되었다. 운영위(위원장 박찬대)에서는 고성과 샷대질이 오갔고,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위원들이 용산에 가기도 하였다. 주간에는 파행을 하여 자정을 넘겨 11월 2일까지 감사가 진행되었다.

V. 제22대 국회 제2차년도(2025년도)국정감사 이모저모

《2025년도 국정감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위원회	17개 상임위원회	제20대 국회 3차년도(2018년) 국정감사부터
감사위원	297인 (289명)	우원식 국회의장과 공석 지역구(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의원 지역구)을 제외하고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겸임 장관(7명) 등이 있어 실제 활동의원수는 289명으로 줄어듬
피감기관	813개 (역대 1위)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년) 802개 보다도 11개 기관 많아짐
감사일수	139일	현장시찰까지 포함한 일수로 2024년 148일보다 9일 적어짐
감사기간	18일	겸임위는 별도 진행

《2024년도 국정감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위원회	17개 상임위원회	제20대 국회 3차년도(2018년) 국정감사부터
감사위원	299인	국회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감사활동
피감기관	802개 (역대 1위)	제20대 국회 4차년도(2019년) 788개 보다도 3개 많아
감사일수	148일	현장시찰까지 포함한 일수
감사기간	19일	기재위(10.28,29)와 겸임위는 별도 진행

1. 2025년도 국정감사의 실시시기 조정 등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제22대 국회(국회의장 우원식)은 2025. 9. 25.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4번째 안건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제2213163호)²⁾를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경임 상임위원회는 2025. 10.13. 월부터 2025. 10. 30. 목까지 실시하였고, 겸임 상임위원회 중 국회운영위원회 11. 5.과 11.6. 양일간 실시하였고,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0.4.(화) 실시하고, 11.5(수) 현장시찰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2024년도의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024. 8. 28.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이 2번째 안건으로 14시 14분경에서 처리되었다.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2024. 10. 7.(월)부터 10. 25.(금)까지 19일간 실시하였고,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별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8일과 29일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30일 수요일에 실시하였고,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실시하였다.

2023년도 국정감사(제21대 국회 4차년도)는 2023. 9. 1. 제4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를 통해 2023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동안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집회되는 정기회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및 국정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각종 법률안 등 필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하였다.

이어 같은 날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이 4번째 의안으로 의결되었다.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2023. 10. 10.(화)부터 10. 27.(금)까지 18일간 실시하고,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별도 실시하기로 하여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7일(화)과 11월 8일(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일(목) 감사를하기로 하였다.

2022년도 국정감사는 2022. 9. 1. 제4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0회국회(정기

2) **제안이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에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려는 것임

회) 회기결정의 건'를 통해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동안 헌법 제47조제1항 및「국회법」 제4조에 따라 집회되는 정기회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및 국정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각종 법률안 등 필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하였다. 이어 같은 날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이 4번째 의안으로 의결되었다.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2022. 10. 4.(화)부터 10. 24.(월)까지 실시하고,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별도 실시하기로 하여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일과 11월 3일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5일(화) 감사를하기로 하였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10월 29일 뜻하지 않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11월 3일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를 11월 8일 연기 실시하였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 : 최다선인 6선 주호영 국회부 의장 등 297명

제22대 국회 2차년도(2025년도)국정감사 감사위원은 최다선인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행안위)과 비롯해 같은 6선인 조경태 국회의힘 의원(농림위), 조정식(외교통일위), 추미애(법사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원 등 297명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국방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방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산업위),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등 교섭단체 대표단도 활동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와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각각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가 각각 16명씩으로 구성되었으나, 실제 현원에서는 15명으로 구성된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이 가장 적었다.

교섭단체별로 더불어민주당은 166명(2024년 170명, 2023년 168명, 2022년 169명, 2021년도 169명, 2020년도 174명)으로 전체감사위원의 55.89%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107명(2024년도 108명, 2023년 111명, 2022년 115명, 2021년도 103명, 2020년도 103명)으로 36.02%였다.

비교섭단체는 24명(8.09%)로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개혁신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3명) 등이었다.(2024년도 21명, 2023년 18명, 2022년 14명, 2021년도 23명, 2020년도 22명)

참고로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은 최다선인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산업위)과 비롯해 같은 6선인 조경태 국회의힘 의원(농림위), 조정식(외교통일위), 추미애(국방위) 더불어민주당의원 등 299명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외교통일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방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보건복지위)등 교섭단체 대표단도 활동하였다.

국정감사 중 사보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와 같이 감사도중 사보임은 없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직전에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진우(국민의힘) 의원이 보임되어 활동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813개(2024년도 802개 (2023년도 791개, 2022년도 783개))

2025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2025년 9월 25일 정기회 제9차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선정 기관과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91개 기관에 대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이 확정되었다.

국회사무처가 발행한 2025년도 국정감사 수첩에 의하면, 2025. 10. 15. 산업위의 국정감사계획서가 변경되어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은 813개가 되었다.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 분 위원회	위 원 회 선 정 기 관			본 회 의 승인기관	계 (기관수)
	국감조법 제7조제1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국 회 운 영	8	-	-	1	9
법 제 사 법	76	-	3	-	79
정 무	7	-	37	1	45

기 획 재 정	35	-	7	-	42
교 육	21	17	24	6	68
과 학 기 술 정 보 신	12	-	31	43	86
방 송 통 일	36	-	5	1	42
국 방	62	-	5	1	68
행 정 안 전	7	10	7	14	38
문 화 체 육 관 광	20	-	30	10	60
농 립 축 산 식 품 산	5	-	37	9	51
해 양 수					
산 업 통 상 자 원 업	3	-	37	-	40
중 소 벤 처 기					
보 건 복 지	10	-	30	4	44
기 후 에 너 지 동	48	-	47	-	95
환 경 노					
국 토 교 통	3	2	29	-	34
정 보	5	-	-	-	5
성 평 등 가 족	1	-	5	1	7
계 (기관수)	359	29	334	91	총계 813

출처 : 국회사무처(의사국), 2025년도 국정감사 수첩(2025. 10. 15)

《참고,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 분 위원회	위 원 회 선 정 기 관			본 회 의 승인기관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계 (기관 수)
	국감조법 제7조제1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 회 운 영	8	-	-	1	9
법 제 사 법	76	-	3	-	79
정 무	7	-	37	1	45
기 획 재 정	35	-	7	-	42
교 육	23	17	24	6	70
과 학 기 술 정 보 신	12	-	31	43	86
방 송 통 일	28	-	5	1	34
국 방	62	-	5	1	68
행 정 안 전	6	9	7	13	35
문 화 체 육 관 광	22	-	27	12	61
농 립 축 산 식 품 산	5	-	37	9	51
해 양 수					
산 업 통 상 자 원 업	3	-	58	-	61
중 소 벤 처 기					
보 건 복 지	10	-	29	3	42
환 경 노 동	48	-	26	-	74
국 토 교 통	3	2	28	-	33
정 보	5	-	-	-	5
여 성 가 족	1	-	5	1	7
계 (기관수)	354	28	329	91	총계 802

출처 : 국회사무처(의사국), 2024년도 국정감사 수첩(2024. 09. 30)

《참고,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분 위원회	위 원 회 선 정 기 관			본 회 의 승인기관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계 (기관수)
	국감조법 제7조제1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 회 운 영	8	-	-	1	9
법 제 사 법	76	-	3	1	80
정 무	7	-	37	1	45
기 획 재 정	35	-	6	-	41
교 육	22	17	23	6	68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9	-	57	17	83
외 교 통 일	26	-	5	1	32
국 방	61	-	5	1	67
행 정 안 전	6	7	7	11	31
문 화 체 육 관 광	26	-	29	12	67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5	-	30	10	45
사 업 통 상 자 원 중 소 벤 처 기 업	3	-	58	-	61
보 건 복 지	10	-	28	5	43
환 경 노 동	48	-	27	-	75
국 토 교 통	3	2	28	-	33
정 보	5	-	-	-	5
여 성 가 족	1	-	5	-	6
계 (기관수)	351	26	348	66	총계 791

출처 : 국회사무처(의사국), 2023년도 국정감사 수첩(수정본 2023. 10. 12)

《참고,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분 위원회	위 원 회 선 정 기 관			본 회 의 승인기관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계 (기관수)
	국감조법 제7조제1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 회 운 영	8	-	-	1	9
법 제 사 법	74	-	3	1	78
정 무	7	-	37	1	45
기 획 재 정	23	-	6	-	29
교 육	20	17	23	6	66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9	-	65	9	83
외 교 통 일	28	-	5	1	34
국 방	61	-	5	1	67
행 정 안 전	6	10	7	14	37
문 화 체 육 관 광	27	-	32	10	6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5	—	28	7	4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3	—	57	—	60
보건복지	10	—	32	5	47
환경노동	48	—	27	—	75
국토교통	3	2	28	—	33
정보	5	—	—	—	5
여성가족	1	—	5	—	6
계 (기관수)	338	29	360	56	총계 783

출처 : 국회사무처(의사국), 2022년도 국정감사 수첩(2022. 9. 27)

《참고,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분 위원회	위원회 선정 기관			본회의 의결기관	(기관수)
	국감조법 제7조제1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국회운영	8	—	—	1	9
법제사법	74	—	3	1	78
정무	8	—	38	1	47
기획재정	23	—	6	—	29
교육	19	17	23	5	64
과학기술정보 통신	9	—	64	9	82
외교통일	25	—	5	1	31
국방	61	—	5	1	67
행정안전	6	8	7	12	33
문화체육관광	21	—	26	4	5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5	—	23	8	36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3	—	55	—	58
보건복지	10	—	31	—	41
환경노동	48	—	27	—	75
국토교통	3	2	28	—	33
정보	5	—	—	—	5
여성가족	1	—	5	—	6
기관수(계)	329	27	346	43	총계 745

출처 : 국회사무처(의사국), 2021년도 국정감사 수첩(수정본 2021. 10. 15)

<참고,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분 위원회	위원회 선정 기관			본회의 의결기관	계 (기관수)
	국감조법 제7조제1 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국회운영	8	—	—	1	9

구분 위원회	위 원 회 선 정 기 관			분 회 의 관	계 (기관 수)
	국감조법 제7조제1 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감조법 제7조제4호	
법 제 사 법	72	—	3	1	76
정 무	8	—	37	1	46
기 획 재 정	23	—	6	—	29
교 육	19	17	23	5	64
과 학 기 술 정 보 상 송 통 보 신	9	—	64	9	82
외 교 통 일	25	—	5	—	30
국 방	58	—	5	—	63
행 정 안 전	5	10	7	13	35
문 화 체 육 관 광	23	—	27	6	56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5	—	23	9	37
산 업 통 상 자 원 중 소 벤 처 기 업	3	—	41	—	44
보 건 복 지	4	—	17	1	22
환 경 노 동	46	—	24	—	70
국 토 교 통	3	3	25	—	31
정 보	5	—	—	—	5
여 성 가 족	1	—	5	—	6
계 (기관수)	317	30	312	46	총계 705

자료 : 국회사무처 의사국, 2020년도국정감사수첩(2020. 10. 8), 4쪽

4. 5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국감 57회 (2024년도 59회, 2023년도 56회)

국정감사의 병폐 중 하나가 과다하게 하루에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를 제외한 일정 중에서도 무려 57회(2025년도 59회, 2023년도 56회, 2022년도 51회, 2021년 51회, 2020년 55회, 2019년도 69회, 2018년도 58회, 2017년도 44회)나 한번에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의 경우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감사를 하였는데도 6회나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여기구)의 경우에도 6회 5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국감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각각 5회씩 5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 국감을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각 4회였다.

《2025년도 국감 중 동시수감기관이 5개 이상이었던 상임위원회 통계》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법제사법위원회	6	행정안전위원회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	국토교통위원회	2
국방위원회	5	교육위원회(지방2반)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	기획재정위원회	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	국회운영위원회	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4	교육위원회(지방1반)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기획재정위원회(감사1반)	1
교육위원회	3	기획재정위원회(감사2반)	1
보건복지위원회	3	성평등가족위원회	1
정무위원회	2	외교통일위원회(구주반)	1
외교통일위원회	1	계	59

《2025년도 국감 중 동시수감기관이 5개 이상이었던 경우(종합감사 제외)》

대상기관이 많은 순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수감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5-10-2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3	10:02:00	20:04:00	10:02: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0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31	10:07:00	18:54:00	8:47:00
국방위원회	2025-10-13	국방부	29	10:07:00	22:08:00	12:01:00
정무위원회	2025-10-13	국무조정실	27	10:12:00	23:24:00	13:12: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3	한국에너지공단	21	10:07:00	18:18:00	8:11:00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1	대전고등법원	20	10:04:00	21:51:00	11:47: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22	국립중앙박물관	20	10:03:00	18:09:00	8:06: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17	기상청	17	10:04:00	11:51:00	1:47:00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0	서울고등법원	17	10:17:00	20:24:00	10:07:00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	10:09:00	20:06:00	9:57:00
교육위원회	2025-10-16	한국고전번역원	14	10:09:00	20:29:00	10:20:00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14	10:14:00	21:07:00	10:53:00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 수감	감사 시작	감사 종료	감사시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23	한국콘텐츠진흥원	14	10:04:00	18:12:00	8:08:00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1	대전고등검찰청	13	15:34:00	20:58:00	5:24:0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5-10-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	10:05:00	18:44:00	8:39: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1	근로복지공단	12	14:00:00	18:19:00	4:19:00
기획재정위원회 (감사1반)	2025-10-23	부산지방국세청	12	14:34:00	17:58:00	3:24: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2	10:06:00	19:26:00	9:20:00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2025-10-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10:00:00	19:30:00	9:3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	10:02:00	21:46:00	11:44:00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3	서울고등검찰청	11	11:16:00	22:34:00	11:18:0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5-10-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10:07:00	19:22:00	9:15:00
국방위원회	2025-10-24	육군본부	11	10:04:00	13:40:00	3:36:00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2025-10-2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1	10:04:00	18:38:00	8:34:00
국방위원회	2025-10-14	합동참모본부	10	10:01:00	18:01:00	8:00:00
행정안전위원회	2025-10-14	행정안전부	10	10:03:00	24:29:00	14:26:0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5-10-20	한국석유공사	10	11:01:00	23:00:00	11:59:00
기획재정위원회 (감사2반)	2025-10-23	대전지방국세청	10	14:30:00	18:01:00	3:31:00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3	한국부동산원	9	10:02:00	19:05:00	9:03:00
교육위원회	2025-10-14	교육부	8	10:06:00	23:55:00	13:49:0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5-10-14	중소벤처기업부	8	10:07:00	22:43:00	12:36:00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2025-10-16	원자력안전위원회	8	10:13:00	24:52:00	14:39:00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1	한국철도공사	8	10:04:00	19:03:00	8:59:00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2025-10-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10:04:00	18:41:00	8:37:00
교육위원회	2025-10-28	서울대학교	8	10:05:00	19:32:00	9:27:00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8	10:07:00	18:46:00	8:39:00
법제사법위원회	2025-10-13	대법원	7	10:13:00	23:24:00	13:11:00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2025-10-14	농림축산식품부	7	10:09:00	22:24:00	12:15:00
법제사법위원회	2025-10-15	대법원	7	11:46:00	21:01:00	9:15: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16	국가유산청	7	10:03:00	18:33:00	8:30:00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2025-10-17	농촌진흥청	7	10:02:00	15:54:00	5:52:00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동시 수감	감사 시작	감사 종료	감사시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20	산림청	7	10:10:00	18:27:00	8:17: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22	해양경찰청	7	10:08:00	17:57:00	7:49:00
국방위원회	2025-10-23	해군본부	7	15:01:00	17:26:00	2:25: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27	대한체육회	7	10:07:00	21:22:00	11:15:00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11-04	성평등가족부	7	11:10:00	21:35:00	10:25:00
외교통일위원회	2025-10-13	외교통일부	6	10:12:00	23:24:00	13:12:00
외교통일위원회 (구주반)	2025-10-17	주 네덜란드 대사 관겸 주헤이그국제 기구대표부	6	10:00:00	12:51:00	2:5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0-2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10:11:00	20:29:00	10:18:00
교육위원회(지방1반)	2025-10-22	전북대학교	6	10:02:00	12:22:00	2:20:00
교육위원회(지방2반)	2025-10-22	경북대학교	6	10:02:00	12:20:00	2:18:00
기획재정위원회	2025-10-27	한국수출입은행	6	10:15:00	22:25:00	12:10:00
행정안전위원회	2025-10-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10:05:00	20:10:00	10:05:00
정무위원회	2025-10-16	국가보훈부	5	10:10:00	18:36:00	8:26:00
교육위원회(지방2반)	2025-10-23	경상국립대학교	5	10:16:00	12:10:00	1:54:00
국방위원회	2025-10-23	공군본부	5	10:01:00	12:50:00	2:49:00
국회운영위원회	2025-11-05	국회사무처	5	18:37:00	23:24:00	4:47:00

자료 : 국회공보 대상기관 기준

《참고, 2024년도 국감 중 동시수감기관이 5개 이상이었던 상임위원회 통계》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	법제사법위원회(지방2반)	2
국방위원회	5	교육위원회(지방2반)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	기획재정위원회(지방1반)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	기획재정위원회(지방2반)	2
환경노동위원회	5	정무위원회	1
법제사법위원회	4	외교통일위원회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	행정안전위원회	1
교육위원회	3	교육위원회(지방1반)	1
보건복지위원회	3	기획재정위원회	1
국토교통위원회	2	여성가족위원회	1
법제사법위원회(지방1반)	2	국회운영위원회	1

5.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 및 인터넷(유튜브) 생중계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은 10월 13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의 외교부 국정감사 생중계를 시작으로, 11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기)의 대통령 비서실 등 국정감사까지 국정감사 생중계를 실시하였고, 생중계 이후에는 계획에 따라 녹화중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해(2024년도)에 이어 유튜브 생중계를 실시하였다. 이번에는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까지 생중계를 하였다.

국가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기)의 국정감사가 끝난 하루 후인 2025년 11월 7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회 영상회의록은 119개가 올라와 있었다. 다만, 외부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실시간 중계이후 국회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서 사라졌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국정감사의 경우에는 11. 7.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영상회의록이 올라 왔다.

《2025년도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통계》

2025년 11월 7일 기준(검입국감 완료 다음날)

구분	영상회의록수
외부 국정감사	22
국회내 국정감사	97
계	119

《참고, 2024년도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통계》

2024년 11월 2일 기준(검입국감 완료 다음날)

구분	영상회의록수
외부 국정감사	89
국회내 국정감사	30
계	119
자막/수어 포함	2
자막	12
자막/문자회의록	1
자막/문자회의록/수어	1
영상회의록	86
쿼 VOD	4
계	119

《참고, 2023년도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현황》

2023년 11월 9일 기준(검입국감 완료 다음날)

구분	영상회의록수
외부 국정감사	38
국회내 국정감사	88
계	126
수어	9
문자회의록	30
문자회의록과 수어	1
영상회의록	86
계	126

《참고, 2022년도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현황》

2022년 10월 26일 기준

구분	영상회의록수
외부 국정감사	18
국회내 국정감사	88
계	106
자막 포함회의록	18
자막수어 포함회의록	11

참고로 2021년도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은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국정감사, 10월 5일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 등을 비롯해 10월 21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의 교육부 종합감사, 10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등 14회 국정감사(2020년도에는 15회, 2019년도는 총 13회)의 국정감사를 생중계하였다.

2021년도에는 11월 24일 기준으로 139개의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었다.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의 경우에는 1일차 국방부 국정감사가 무산되어있는데, 10월 6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영상회의록까지 올라와 있지 않아 아쉬움을 주었다.

제18대 국회 2010년도 농림수산물위원회에서 외부 국정감사를 녹화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여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부국감과 국회방송 생중계 국감을 영상회의록

에 올려놓아 총 120개(검임위 2개위원회 3개 포함)의 영상회의록(2017. 12. 1.기준)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67개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대부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9년도에는 11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152개의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거의 모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2020년도에는 11월 8일 기준으로 **149개의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현장시찰을 제외한 모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2025년도 국정감사 감사진행 시간은 1231시간 3분

(2024년도 1290시간 44분, 2023년도 1180시간 5분)

2025년도 감사시간(국회공보 기준³⁾)은 1231시간 3분이었다(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 포함). 2024년도 1290시간 44분보다 60시간 정도 줄어든 수치이다.

《제22대 국회 연도별 국정감사 시간 현황》

구분	1차년도(2024)	2차년도(2025년도)
감사시간	1290시간 44분	1231시간 3분

《참고 제21대 국회 연도별 국정감사 시간 현황》

구분	1차년도(2020)	2차년도(2021)	3차년도(2022)	4차년도(2023)
감사시간	1317시간 36분	1210시간 7분	1240시간 38분	1180시간 05분

위원회별로 분석해 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124시간 18분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지방분반을 나눠서 실시한 행정안전위원회가 108시간 14분이었고,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1시간 57분이었다.

다만 실제로 감사한 시간을 분석해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파행, 중식 등 휴식 시간 등을 제외해 약 70시간 정도 실제 감사를 진행했다.

《제22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감사시간 현황》

3) 국회공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음.

명목감사시간이 많은 순

위원회	위원장	명목감사시간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124:18:00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108: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101:57:00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91:29:00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88:21:00
정무위원회	윤한홍	81:3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기구	79:08:00
교육위원회	김영호	76:22: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75:52:00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75:51:00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74:29: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74: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71:12:00
국방위원회	성일종	55:07:00
국회운영위원회	김병기	26:37:00
정보위원회	신성범	13:12:00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선	10:25:00

참고로 2024년도에는 위원회별로 가장 길게 국정감사를 한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115시간 48분(2023년도 104시간 49분)이었다.

그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109시간 53분이었다.

검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가장 감사시간이 적은 위원회는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으로 59시간 40분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재외공관 국정감사까지 모두 합해서 71시간 0분이었다.

《참고,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 감사시간 현황》

명목감사시간이 많은 순

위원회	위원장	명목감사시간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115:48: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109:53:00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108:44:00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93:44:00
정무위원회	윤한홍	93:00:00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88:46: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88:22: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기구	85:27:00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85:03:00
교육위원회	김영호	81:11: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79:15:00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78:52:00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71:09:00
국방위원회	성일종	59:40:00
국회운영위원회	박찬대	28:16:00
정보위원회	신성범	15:52:00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7:42:00

2023년도 감사시간(국회공보 기준⁴⁾)은 1180시간 5분이었다. 2022년도보다 60시간 정도 줄어 들었다. 2022년도는 1240시간 38분이었고, 2021년도 대선전초전 국정감사시 1210시간 7분이었다. 대선전초전 국정감사보다도 감사시간이 줄었다.

«참고, 2023년도 국정감사의 명목상 감사시간»

위원회	위원장	감사의원수	피감기관수	감사일수	감사시간
국회운영위원회	윤재옥	28	9	2	21:43:00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18	80	10	104:49:00
정무위원회	백혜련	24	45	9	100:48:00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26	41	10	84:50:00
교육위원회	김철민	16	68	7	81:56: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20	83	9	93:27:00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22	32	13	56:09:00
국방위원회	한기호	16	67	11	57:01:00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22	31	9	82:52: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16	67	9	57:15: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19	45	8	69:43: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30	61	10	87:29:00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24	43	8	82:08:00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15	75	10	96:20:00
국토교통위원회	이민기	29	33	8	92:14:00
정보위원회	박덕흠	12	5	3	-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17	6	2	11:21:00
계		354(297)	791	145	1180:05

4) 행안위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등 시작시간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국회공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음.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10개 상임위원회의 2022년 10월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전 국정감사 파행이 감사시간이 줄어든 주요 요인 중의 하나였고, 2022년 10월 19일 4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중단도 영향을 미쳤다.

«참고,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시간»

위원회	위원장	감사의원수	피감기관수	감사일수	감사시간
국회운영위원회	주호영	28	9	2	27:49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18	78	10	96:22
정무위원회	백혜련	24	45	11	100:05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26	29	9	88:41
교육위원회	유기홍	16	66	7	75:3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20	83	11	96:02
외교통일위원회	윤재옥	21	34	12	80:52
국방위원회	이헌승	16	67	11	73:16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22	37	10	100: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16	69	9	59:4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19	40	10	86: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30	60	10	76:42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24	47	8	82:27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16	75	10	100:11
국토교통위원회	이만기	30	33	9	88:16
정보위원회	조해진	12	5	4	-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17	6	2	8:22
계		355	783	145	1240:38

2021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전부터 국정감사 중에 여야당이 공히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과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대한 상대적 관심도가 떨어진 점이 있었다.

«참고, 2021년도 위원회별 국감 총 진행시간(중식, 이동, 휴식시간 등 포함)»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국회운영	23:32	문화체육관광	65:44
법제사법	107: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78:31
정무	101:20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91:03
기획재정	92:37	보건복지	76:19
교육	70:54	환경노동	86:5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88:27	국토교통	89:37
외교통일	65:01	여성가족	8:08
국방	62:03		
행정안전	102:45	계	1210:07

«참고, 2020년도 위원회별 총 감사진행시간(중식, 이동, 휴식시간 등 포함)»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국회운영	19:49	문화체육관광	66:37
법제사법	114: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97:21
정무	106:40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96:06
기획재정	102:30	보건복지	77:51
교육	77:58	환경노동	98: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99:16	국토교통	105:03
외교통일	83:14	여성가족	8:44
국방	67:15		
행정안전	96:26	계	1317:36

«참고, 2019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 총 진행시간(휴식기간 등 포함)»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국회운영	24:04	문화체육관광	55:18
법제사법	97:4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84:1
정무	84:3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111:4
기획재정	92:36	보건복지	85:57
교육	59:12	환경노동	10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19:5	국토교통	110:33
외교통일	92:24	여성가족	9:01
국방	57:45		
행정안전	112:42	계	1297:08

7. 지방자치단체 국감 : 6.3 지방선거 겨냥 단체장 흠집내기(?) (8일간 2개월 10개 시도 대상)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2개 위원회에서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9시간 22분 감사를 하였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조명되었으며, 12. 3 기업

과 관련된 지자체장의 행보도 문제가 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청 국정감사와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 고성이가 오가는 파행이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국정감사는 없었고, 2개 위원회(산업위와 과방위)에서 현장시찰을 하였다.

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 명태훈 대질 국감, 한강버스 곤혹, 10.15부동산 비판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에 대한 국정감사는 두 위원회에서 2일간 있었다.

10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지방 2반(반장 권영진)의 국정감사에서는 10.15 정부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 난맥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강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운행의 안전성 문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한강버스 사업 빚보증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또한 2025년도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결정도 도마위에 올랐으며, 공공 민자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 실태도 점검되었다.

10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씨와 대질 국정감사가 조명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김 씨가 대납했다고 하였으며, 오세훈 시장을 일곱차례 만났다고 주장하였다.

나.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 공흥지구 의혹, 김현지 논란, 10.15 부동산정책은 선제적인 조치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에 대한 국정감사는 2개 위원회에서 2일간 있었다.

10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지방 1반(반장 맹성규)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는 데 김동연 지사는 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라고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조사 이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조의 문제도 거론됐는데, 김 지사는 못 갔다고 답변했다.

10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에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군과 민간사업자 간 공모 및 편법 증여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기도의 감사를 요구하였고, 국민의힘은 특검 조사 직후 사망한 양평공무원의 사인 규명과 특검 수사의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번 국감의 주요 관심사항 중의 하나였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도 등장했는데, 김지사는 아는 바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 12·3 계엄날 청사 폐쇄 명령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 대한 국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1반(반장 신정훈)에 의해 1일 있었다.

유정복 시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인천시청을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계엄 사실도 사전에 몰랐다고 부인했다. 논란의 소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와 유 시장 간 고성이 빚어지며 잠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세종보 재가동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에 대한 국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반장 서범수)에 의해 하루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민호 시장의 세종보 재가동 행보를 두고 비판을 제기했는데, 최시장은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때 기본 계획에 의해서 세종보를 설치하겠

다고 발표됐다는 입장이었다.

마.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 202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10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반장 신정훈)에 의해 하루가 진행되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완주-전주 행정 통합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바.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 행정복합타운, 레고랜드 사태, 명태균 의혹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반장 서범수)에 의해 하루간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명태균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김진태 도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명태균 씨의 도지사 공천 개입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행정복합타운 논란, 레고랜드 사태, 양양오색케이블카 문제 등이 조명되었고, 김홍규 강릉시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 명태균 의혹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에 땡산 국정감사는 10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반장 서범수)에 의해 하루간 진행되었다.

박완수 지사와 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다. 박완수 지사는 특검까지 가 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1대 1로 심문하듯 질의하는 게 맞느냐는 입

장이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경남도의 명 씨 처남 채용 청탁 의혹에 관한 질의도 있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공천을 약속받고 충성 맹세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선을 통해 공천받았다고 답변했다.

아.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 : 출장논란,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반장 신정훈)에 의해 1일동안 진행되었다.

GTX-C 천안·아산 연장과 충남 국립의대 설치 문제, 내포 종합병원 설립 문제 등 현안을 비롯해 의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된 내용과 한 언론사의 광고비 문제, 지천댐 관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고성이 오가고 파행사태가 빚어졌는데, 김 도지사 해외출장관련해서 전쟁이 일어났어도 출장은 갈 수 있는 것이라며, 외유성 해외 출장이 아닌 기업유치를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전액 국비로 시범사업을 해야지 지방비 60%를 떠넘기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 12.3 계엄관련 행보, 대전 0시축제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반장 신정훈)에 의해 하루가 진행되었다.

과거 탄핵 반대 집회 참여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 화재 사고 조사 및 대책, 대전 0시 축제 방문객 수 부풀리기 의혹 및 기부금 사용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한화 이글스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기원하기도 했다.

12.3 불법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시장은 법률적인

판단이 나오면 판단할 문제로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차. 대구광역시(시장권한대행 김정기) : 홍준표없는 홍준표 국감

대구광역시(시장권한대행 김정기)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반장 서범수)에 의해 하루간 진행되었다.

홍준표(6·3 대선출마 사퇴) 전 대구시장 시절의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대구취수원 이전 협약 파기 등이 제기되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두고 '꼴통 보수'라고 하는 건 대구시민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 동대구역 광장에서 '세이브코리아' 집회가 열린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으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 촉구도 나왔다.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현황》

(감사일순)

감사반	반장	대상기관	단체장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시간
행정안전(지방1반)	신정훈	인천광역시	유정복	2025-10-20	10:04:00	14:54:00	4:50:00
행정안전(지방2반)	서범수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2025-10-20	10:03:00	12:53:00	2:50:00
국토교통(지방1반)	맹성규	경기도	김동연	2025-10-20	10:03:00	16:15:00	6:12:00
국토교통(지방2반)	권영진	서울특별시	오세훈	2025-10-20	10:09:00	17:16:00	7:07:00
행정안전	신정훈	경기도	김동연	2025-10-21	10:06:00	17:56:00	7:50:00
행정안전	신정훈	서울특별시	오세훈	2025-10-23	10:06:00	19:38:00	9:32:00
행정안전(지방1반)	신정훈	대전광역시	이장우	2025-10-24	10:07:00	13:37:00	3:30:00
행정안전(지방2반)	서범수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2025-10-24	10:04:00	12:49:00	2:45:00
행정안전(지방1반)	신정훈	충청남도	김태흠	2025-10-27	10:06:00	15:38:00	5:32:00
행정안전(지방2반)	서범수	대구광역시	김정기	2025-10-27	10:03:00	13:11:00	3:08:00

감사반	반장	대상기관	단체장	감사일	감사시작	감사종료	시간
행정안전(지방1반)	신정훈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2025-10-28	10:04:00	12:58:00	2:54:00
행정안전(지방2반)	서범수	경상남도	박완수	2025-10-28	10:04:00	13:16:00	3:12:00

참고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6일간 9개시도에 감사가 진행되었다.

10월 15일 서울시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관련 질의로 인해 일시 파행을 빚었다.

10월 14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를 하는 등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군사 긴장이 벌어진 책임을 두고 여야간 책임공방이 치열했고, 이재명 재판,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며, 참고인출석(파주시장 김경일 출석문제) 관련 충돌하였다.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는 2030세계엑스포 유치 실패 및 새만금 잠버리대회 파행으로 인해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오송 참사 유가족 참석)가 이슈가 되었으며, 김영환 도지사가 과거(2023년 3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통 큰 결단'이라고 치켜세우며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쓴 글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통합국정감사를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는 오영훈 도지사가 국정감사시작 시간에 늦게 출석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며,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이 크게 조명기도 하였다.

«참고,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감사반장	감사일자	광역단체	단체장	시작	종료	감사시간	이슈및 특이사항
행정안전	신정훈	2024-10-14	경기도	김동연	10:15	18:39	8:24	경기도의 안보 대응 접경지인 파주시 김경일 시장이 참고인
국토	맹성규	2024-	부산광역시	박형준	10:00	13:11	3:11:00	프랑스 품피두 미술관

위원회	감사반장	감사일자	광역단체	단체장	시작	종료	감사시간	이슈및 특이사항
교 통 (지 방 1반)		10-14	시					부산 분관 건립, 가덕도 신공항 조성공사, 2030 세계엑스포 유치 실패
국 토 교 통 (지 방 2반)	권영진	2024- 10-14	전북특별 자치도	김관영	10:06	12:28	2:22:00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소재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행 정 안 전	신정훈	2024- 10-15	서울특별 시	오세훈	10:13	19:40	9:27:00	한강버스 사업 TBS 폐국위기 상암경기장 잔디 논란 "피감기관장이 죄인입 니까"발언
행 정 안 전 (지 방 1반)	신정훈	2024- 10-17	충청북도	김영환	10:12	13:32	3:20:00	오송 지하철도 참사(오 송 참사 유가족 참석) 과거 '친일파' 발언
행 정 안 전 (지 방 2반)	조은희	2024- 10-17	경상북도	이철우	10:04	12:25	2:21:00	APEC 숙박시설 개선아 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준비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등 대책
행정 안전(지 방1반)	신정훈	2024- 10-21	전라남도	김영록	10:08	13:17	3:09:00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한전공대 지원문제
행정 안전(지 방2반)	조은희	2024- 10-21	울산광역 시	김두겸	10:10	13:10	3:00:00	지역 랜드마크 조성 계 획논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 구축
행정 안전(지 방1반)	신정훈	2024- 10-22	광주광역 시	강기정	10:02	13:02	3:00:00	'정율성 역사공원' 비 판 '5·18 헌법 전문 수록'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 로벌모터스(GGM)
행정 안전(지 방2반)	조은희	2024- 10-22	부산광역 시	박형준	10:00	12:56	2:56:00	2030세계엑스포 유치 실패책임공방 이재명 대표 헬기 이 송·YS기념관 명칭 논란 도 인식차
행정 안전	신정훈	2024- 10-23	제주특별 자치도	오영훈	10:24	15:14	4:50:00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 관광산업 위기 도지사의 지각 소동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2개 위원회 5일간 7개 시·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2023년 10월 16일 서울시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시장 시절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실태, 전임 시장 시절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실태, 서울시 예산의 특정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 등이 조명되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대권 도전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대선도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2023년 10월 17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법인 카드 사용문제가 나오기도 하였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10월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1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논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2023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김교흥)과 시장의 대결이 주목받았으며, "대체매립지 조성"이 쟁점이 되었고, 전 세사기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론 등이 거론되었다.

유력한 대선후보주자의 1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쿼어축제와 집시법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8. 국정감사 중 감사의원 등의 회자된 말 : 김현지 여성입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촌철살인처럼 날카로운 말도 많았고, 회자된 말도 많았다. 박지원 의원의 '김현지, 여성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의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등이 회자되었고, 김성원 의원의 '정부가 고객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다'는 말도 나왔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10.16)의 '곽규택 같은 인간에게는 발언 기회를 주시면 안 된다'는 폭언도 나와 시끌했다.

지난해(2024년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 발언으로 파행 등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월 6일 대통령 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의원의 질의 중 논란이 되자 김병기 위원장의 답변시간 할애 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와 있지 피의자

로 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11월 5일에는 이기헌 의원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개별적으로 선서를 하겠다고 하자 "여기가 당신 놀이터예요? 여기 뭐 하러 왔어요?"라고 질타하기도 하였다.

《2025년도 국정감사장의 한마디 말》

(모니터보고, 회의록 통신사 보도내용 등 종합)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2025.10.13	박홍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2025.10.13	박범계	이 문제를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며
2025.10.13	김동아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공개가 신중한 것이다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문 공개 주장에 반대하며
2025.10.13	박대출	관세 협상 관련 정부 대응을 보면 '탁 치니 억 소리가 나서 죽었다'는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그 말이 생각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부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사실을 축소하려는 등의 모습이 과거 독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하며
2025.10.13	천하람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생에 부부셨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국정 운영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청사 이전 등에 관한 질의를 하며
2025.10.13	김윤덕 국토부장관	6월 초 정부가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진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2025.10.13	이준석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많이 아시고 훈시 내리는 것 좋아하고 바나나 값 낮추는 것까지 직접 챙기시니까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언급하며 참모로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급하면서
2025.10.13	주진우	화면만 보면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은 어디 갔나. 이재명 피고인 나오라. 재판 다시 해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비판하며
2025.10.13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답변 못하는가.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개입 의혹'을 질의하며
2025.10.13	최은석	이재명 정부는 A(아마추어), B(뱅크럽), C(카오스), D(위험), E(에러)로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 재정정책 평가는 F학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를 알파벳에 빗대 평가하며
2025.10.13	박정훈	한식 홍보한다고 그러면서 피자 만들어 먹었죠? 피자에다가 고사리 넣고 시래기 넣으면 그게 한식 돼요? 비빔밥에다가 페퍼로니 넣으면 그게 이태리 음식입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언급하며
2025.10.13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며
2025.10.13	안궐백 국방부장관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것은 5천200만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천200만명이 피해자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내란'이라는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성일종 국방위원장 질의에 반박하며
2025.10.13	인요한	남미에 이런 말이 있다. 30세 이전에는 혁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다. 50세를 넘어서 혁명을 얘기하면 정신과에 가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의 미국에 대한 입장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국을 신뢰하지 못 한다고 주장하며
2025.10.14	이성윤	국민의힘과 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 게 부끄럽다.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달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2025.10.14	박준태	'존엄현지', '애지중지 현지' 아시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화제의 인물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거론하며
2025.10.14	구자근	세간에서 '충정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동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다. 이런 분의 가족이 임명되면 차관이 '개딸'들에게서 자유롭겠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의 중기부 제2차관 내정설을 언급하며
2025.10.14	김현정	MBK 김병주 회장은 이중국적도 아니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언론인들 많이 있는데, 앞으로 김병주라고 쓰지 말고 마이클 병주 김으로 쓰기를 당부한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의 홈플러스 매각을 지적하며
2025.10.14	박성원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전력을 투사해서 힘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을 향해. 캄보디아 사태 관련 우리 국민 보호 방안에 있어 우리 군함의 캄보디아 해역 파견 검토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박주민	보건복지부 관계자 분들은 서류 없이 일하시나 봐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의대 증원' 의사결정에 관한 문서화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하자
2025.10.14	박대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복적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여러 번 얘기한 것을 정책 입안자들이 부정하고, 바꾸겠다는 형태가 돼 버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2025.10.14	김도읍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풀고, 제약이 있으면 제약을 풀고, 중대재해법도 손 보고, 노란봉투법도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신바람 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상대로 9·7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2025.10.14	최민희	2023년 3월 30일 제가 국회에서 방통위원으로 의결됐을 때 저를 임명했다면 방통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의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며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2인 구조의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2025.10.14	박정훈	저는 지금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저 자리에 앉아있는게 민주당 의회 독재의 상징적인 장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를 비판하며
2025.10.14	이진숙 전 방송통신 위원장	대통령한테 한번 밍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라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25.10.14	박정훈	언론하고 법원이 죽으면 나라가, 전체 민주주의가 무너져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처벌법'을 비판하며
2025.10.14	김형동	마치 시험 봐야 하는데 시험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 주고 시험 보는 것과 똑같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졸속감사' 우려를 지적하며
2025.10.14	서지영	대한민국 교육의 투톱이 삼권분립의 원리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부끄럽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장관·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이 대통령의 '임명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2025.10.14	민홍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라는 것은 반비례적인 얘기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건전성 비판에 반박하며
2025.10.14	임오경	전임 유인촌 장관은 뽀뽀스럽게 참 잘하던데, 최휘영 장관도 좀 뽀뽀스러워지셔야 할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지적하며
2025.10.14	노관규 순천시장	천공 그 사람 제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부당만 부당하신 말씀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시정 관여 의혹을 부인하며
2025.10.14	박정훈	국가 재난 상황,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롭게 예능을 찍었고 그게 떴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거짓말까지 한 것 아닙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하며
2025.10.14	전종덕	우리 청년농들은 농식품부를 피노키오로 부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청년농 사업의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2025.10.14	이훈기	방통위가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기존의 방통위는 안된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생각했기 때문에 해체됐다고 생각해요.	
2025.10.14	이주희	대통령이 출연했다고 그 채널인 JTBC를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출연했으니까 '유퀴즈' tvN도 불러야 하나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비판에 반박하며
2025.10.14	노종면	YTN을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 그리고 출발은 김건희에 대한 YTN의 2021년 12월 보도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YTN 기자와 김건희 여사간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2025.10.15	주진우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든가 되는 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불발을 비판하며
2025.10.15	문지석 검사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폭로하며
2025.10.15	서영교	내가 말한 게 두려워요? 송양치기, 가만히 계세요. 송양치기, 셋 더 마우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상영 당시 검사를 두고 국민의힘과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발에
2025.10.15	신동욱	제발 추미애 위원장님 표정부터 자제해 주세요.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공정한 회의 진행을 촉구하며
2025.10.15	박주민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한국농아인협회 횡령 의혹 관련 제보자 신원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노출된 사실을 지적하며
2025.10.15	박수민	권력에 서열은 없다. 헌법아래에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제도이고 관용적으로 운영해야 성립되는 것이지, 무소불위로 하게 되면 제도적 자제는 깨지고 민주주의는 깨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이석을 막은 일을 빗대어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이석에 반대하며
2025.10.15	전재수 해수부장	아무리 그래도 제가 해양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관	산부 부산 이전을 통해서 직원들을 희생시키고 부산시장이 되겠다는 게 말이 되겠나.	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의 시장 출마 계획 질의에 답하며
2025.10.15	고동진	외국어로 쓰여있는 것도 아닌데 공직자윤리법 운운하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보좌관 시절 재산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2025.10.15	채현일	고동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주장을 일관되게 한다면 자당의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부터 보좌관 시절 재산을 공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보좌관 시절 재산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2025.10.15	강득구	매카시즘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민주노총 전직 간부 간첩혐의 사건' 관련 증인 채택 요구가 국감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2025.10.16	조계원	종묘가 무슨 카페입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의혹'을 지적하며
2025.10.16	신장식	관장님 관용차는 자율주행차량인가요	국회 정무위원회의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관장의 공식 일정과 관용차 운행기록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2025.10.16	김은혜	기관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멀쩡한 국가기관까지 들어내는 이 정부가 '도로공사 사장쯤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청소 미흡'을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2025.10.16	김영호	어떻게 보면 친일 사학자이신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직책을 지금 수행하시는데, 정말 밤거리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의 역사관을 지적하며
2025.10.16	김원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잇살이나 드신 분이. 성질 같으면 팍 욕을 한마디 해주고 싶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에게 성추행·스토킹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2025.10.16	박정훈	김우영 의원님이 그 메시지를 공개해서 얻은 것은 국민 찌질이 된 것밖에 없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문자 메시지·전화번호 공개를 비판하며
2025.10.16	김우영	제가 '인간 대 인간으로 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상으로 올라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박정훈 의원님 나도 부끄러워요.	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의 언쟁을 전하며
2025.10.16	추미애	법사위 국감을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위원장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지요.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나경원·신동욱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전날(15일)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의 대법원 현장검증에 있어 비판·항의를 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025.10.16	김영호	제가 사전적인 의미, 사주(使敍), 남을 뒤에서 부추기거나 남을 나쁜 일을 시킴, 이에요. 예상질을 이렇게 질의해 달라고 보낸 거니까, 사주는 되는데, 그 사주에 동의를 하지 않고 사주를 안 받으신 거면,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 아닌 거잖아요	교육위 피감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질의요청서를 보낸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이 '사주'라는 표현을 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욕적'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응하며
2025.10.16	권오을 국가보훈 부장관	청문회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권 장관의 세종에서의 근무가 적은 것을 지적하며 '장관님 동선이나 행태를 보면 마음이 경북도청에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많다. 도지사에게 나가면 정무위 간사인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하니 미리 말씀해 달라'고 하자
2025.10.17	최혁진	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2025.10.17	신동욱	헌법재판소에 거대한 먹구름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달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머릿속에 넣어주시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잇단 탄핵안 발의를 비판하며
2025.10.17	주호영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히틀러도 적법했다. 법에 근거를 가지고 했다. 그렇게 비판하는 유신 때 긴급조치도 그때는 적법했다. 적법하다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	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답변에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2025.10.17	신동욱	지금이야 여당이 존중과 찬사를 보내지만 현재가 이것들을 기각하면 바로 '현재가 뭐라고, 현재 재판관이 신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현재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에 윤석열 전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 결정 등에 감사를 표하자, 현재도 나중에 대법원처럼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
	이미선 기상청장	대체로 많다는 부분이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강릉 부분은 틀렸거든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릉 가뭄은 인재였다. 가장 큰 책임은 강릉시청에 있지만 기상청의 문제도 있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답하며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방산 수출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활동해 주면 좋다. 특임장관 같은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방산 컨트롤타워 활성화 방안' 관련 질의에 답하며
2025.10.17	박정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소희 의원님, 평소에 제가 관심이 많고 격려를 들퍃 드리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엄청 잘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독감을 옮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에게 덕담을 건네며
2025.10.17	권철승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예산 대폭 증액을 지적하며
2025.10.17	한기호	현무-5 미사일 15발 내지 20발 정도면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무식해도 되겠느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무-5 실전배치 계획에 대한 안규백 장관의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2025.10.20	김민전	지금 반일, 반미, 반중 시위 가운데 가장 폭력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죽창을 들자' 이게 가장 폭력적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혐종 반대 캠페인에 대한 의향을 물으며
2025.10.20	한기호	선거권을 주는데 입영은 안 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를 촉구하며
2025.10.20	양문석	이재명 정부라고 혹여 불법명령을 하면 따를 거예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구 한국방송정책원장 직무대행을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따르면 안 되잖아요	향해 김건희 여사의 'KTV 공연 황제 관람' 의혹을 제기하며
2025.10.20	엄태영	연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서울시민들에게 재건축·재개발 의지를 보여주실 겸 폭파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언급하면서.
2025.10.20	신동욱	미래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아오면 추미애 위원장님, 이제는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보수의 할머니' 자리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항의하며
2025.10.20	추미애	뜸들이지도 않은 밥을 먹는 것처럼, 신속 판결이 아니고 급행 판결, 졸속 판결 아닐까요. 밥솥에 밥이 익기 전에 뚜껑을 열어버린 것처럼 설익은 판결인 거지요.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2025.10.20	성일종	BTS처럼 56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낸 사람들은 군 면제를 안 해주면서, 대한민국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겠나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예술요원 등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2025.10.20	윤준병	저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하는 무학대사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하며
2025.10.20	이광희	최민호 시장은 이 세종보를 만들어서 오리배를 띄우려고, 지금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세종보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답변을 지적하며
2025.10.20	김현	소설치고는 되게 좀 값싼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이라고 해서 나중에 '소설을 폄훼했다'고 얘기할까 봐 다시 증언하면 가짜뉴스라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MBC 광고 관련 질의를 비판하며
2025.10.20	박정훈	마치 이 결혼식이 '내가 국회의 여왕이다' 최민희 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결혼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장의 선포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러진 점을 비판하며
2025.10.20	이양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아, 진짜 이런 개엑스엑스(XX)'라고 이야기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2025.10.20	주철현	이재명 대통령께 왜 알 만한 사람을 임명했냐고 따져라. 아니면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발의하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2025.10.21	최민희	젊은 부부의 결혼식은 정치의 소재가 아닌 축복받아야 할 지극히 사적인 일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기 자녀 결혼식이 국감 기간 중 치러진 점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비판하자
2025.10.21	장경태	근무 시간에 술 마셔도 되겠다.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못 준다면 관련 법을 강화해드려야겠다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제주지방법원장이 근무 중 음주로 논란이 된 판사에 대해 '주의 촉구'를 했다고 하자
2025.10.21	김장겸	여성 코스프레 하지 마셔라. 여성이라고 약자로 보는 듯한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 그러지 마시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의원에게만 연성을 높이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2025.10.21	추미애	너무 심하게 떠듭니다. 여기가 장터입니까, 국감장이지. 국민이 다 지켜보십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어진 시간 종료 뒤에도 질의를 이어가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일자
2025.10.21	성일종	위원장으로서 나만큼만 회의 진행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법사위 과방위 안보입니까. 여러분 같은 당이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지상작전사령부 국정감사 중 '내란'이라는 단어 사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자
2025.10.21	서영교	450원짜리, 600원짜리 초코파이하고 카스터드를 가지고 왜 이런 사람이 기소돼야 하고, 하청업체 관계자는 좀 먹으면 안 됩니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 원장에게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질의하며
2025.10.21	이해민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어떤 통신사를 써야 하나 싶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대표에게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시작하며
2025.10.21	강민국	금융정책을 감독하는 수장이니까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우습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유 부동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2025.10.21	박정훈	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라 딸 결혼식을 못 챙겼다' 그리고 '화환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는 걸 챙기지 못한 게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결혼식이 국정감사 기간 중 치러진 점을 재차 비판하며
2025.10.22	조계원	용상이 개인 소파인가. 김건희가 슬리퍼 짹짹 신고 스스로 (용상에) 올라갔느냐. 그 자리에서 왕을 꿈꿨나 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용석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근정전 '용상 착석' 논란을 지적하며
2025.10.22	이수진	위원 질문 중간에 '네, 네' 질문을 끊는 듯한 답변을 하면서, '사퇴하시겠습니까'라는 말에 '네'라고 했다. 사퇴하겠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의 국민의힘 후원회장 경력을 비판하며
2025.10.22	송언석	위원장님, 저 감사하는데 정말 이렇게 답답한 국정감사는 처음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 대리의 답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2025.10.22	유흥준 국립중앙 박물관장	체결 후 방시혁 의장은 개인적으로 후배이기도 해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방시혁 하이트 의장과 찍은 사진과 관련해 지적하자
2025.10.22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정신에 기반한 중립 기관입니다. 정치적·이념적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김 회장이 국민의힘 인사들과 모임을 가진 사진 등을 공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2025.10.22	임호선	쓸데없는 그런 소설 쓰지 말고 훈령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화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을 상대로 구조거점 파출소 설치 이유를 설명하며
2025.10.22	김선교	움직일 때 원래 두 사람이 기본인데 드론업체도 우리 (해경) 직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고(故) 이재석 경사 출동 당시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드론 순찰 업체만 이를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지켜봤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5.10.22	조은희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정도의 기획을 한다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넘을 날이 머지 않았다. 담당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전시 공간인 '사유의 방'을 언급하며
2025.10.22	서명옥	금연 정책은 많이 흔들리는 반면 담배 산업은 규제 없이 뿔뿔 날고 있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정말 굉장히 쓸쓸한 기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연 클리닉 성공률 하락과 전자담배 판매량 폭증을 지적하며
2025.10.22	김준형	총체적 난국이다. 좌절스럽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캄보디아 대사관 마이크가 계속 고장나 국감이 자꾸 중단되자
2025.10.23	박지원	김현지는 여성이다. 그분한테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 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런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법사위원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질타하며
2025.10.23	김교홍	왜 영화 장사 안된 걸 정부 탓으로 돌리냐고. 앞으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안 될 것 같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 '건국전쟁' 상영관 축소·지하철 광고 철거 의혹을 제기한 김덕영 감독을 향해
2025.10.23	김현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아니고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국정감사도 아닙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결혼식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의혹 제기를 지적하며
2025.10.23	정진욱	어느 모로 봐도 유종필 원장님은 감옥에 있는 윤석열과 같은 철학을 가진 걸로 보인다. 이번에 한번 깔끔하게 물러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2025.10.23	명태균 증인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실토했네! 재판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실관계에 대해 물어보더라도 답변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2025.10.23	이해민	KBS 정상화 물결에서 박장범 사장님은 그냥 퇴장하시는 게 나를 것 같다는 생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장범 KBS 사장을 비판하며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을 합니다.	
2025.10.23	박정훈	술보다 더 취하는 게 권력입니다. 낯술에 취하면 부모도 몰라본다고 하는데 권력에 취하면 국민을 몰라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 논란을 비판하며
2025.10.23	강승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부를 운운하셨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여러 상임위에서 벌써부터 '이현지'(이재명·김현지) 정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반박하며
2025.10.23	나경원	영화 '아수라'를 보면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일, 뒤처리를 해준 사람이 한도경이다. 아수라의 박성배·한도경의 관계가 이재명·김현지의 관계로 치환된 것 아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법사위 국감 출석을 주장하며
2025.10.23	김희정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질타하며
2025.10.24	임미애	농협중앙회 자산은 삼성 자산 총액보다 높은 711조다. 기업들은 밤낮 없이 출혈 경쟁하는 상황에 농협중앙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도배되고 어떠한 입장도 내지 못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반성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 조사를 언급하며
2025.10.24	김성원	정부가 고객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다. 출발했다는데 출발 안 하고 기다리게 만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한 정부 메시지가 제각각이라며
2025.10.24	나경원	법제처장님, 사퇴하셔야겠습니다. 그 알량한 그 법 기술을 법 왜곡하는 데 써서 한마디로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조원철 법제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2025.10.24	박은정	저 뒤에 앉아 있는 이완규 증인이야말로 내란을 마침내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했던 윤석열 변호인이었거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력을 비판하자
2025.10.24	이장우 대전시장	제가 87년도 군사정권에 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항했던 민주화 당시 학생회장이었다.	12·3 비상계엄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며
2025.10.27	이원택	사랑제일교회하고 도이치 앞에서만 서면 수협은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사랑제일교회·도이치 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을 추궁하며
2025.10.27	양문석	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몸이 그냥 떨어진다. 자기들끼리 짬짜미해서 봐주기, (가해자가) 아직까지 아이들 가르치게 하고. 그게 지금 빙상연맹이 하는 일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빙상계 '그루밍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며
2025.10.27	조지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체불할 임금을 변제하겠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결정도 회장님이 못 하나. 그러면 체불 임금을 안 갚겠다고 선언하시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대유위니아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해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을 질타하며
2025.10.27	유영하	'사다리 타고 간신히 올라간 사람들은 집 있는 죄가 있고 아직도 못 올라간 사람들은 집 없는 벌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25.10.27	이억원 금융위원장	평생 1가구 1주택, 지금도 한 채다. 앞으로도 계속 한 채 할 거다. 2013년 집을 샀는데 딱 한 채다.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해명하며
2025.10.27	추미애	무슨 중국의 대외외교입니까. 제1도련선, 제2도련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 부리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2025.10.28	인요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언성 올리는 목사님은 설교를 별로 안 듣게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격론 속에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질의하며
2025.10.28	조정훈	왜 우리가 시진핑한테 고대 그리스 신화를 기부받아서 시진핑 도서관을 만드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시진핑 도서관 존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2025.10.28	서영석	화재 대응을 스프링클러에 의지하고 있는데, 납득이 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는가. 입양인들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로 보인다.	의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며
2025.10.28	강명구	정권의 실패가 아니고 장관님의 실패인 것이다. 농정 실패라고 얘기를 왜 듣나, 여당 위원님들한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략작목으로 정한 가루쌀의 소비 부진을 지적하자
2025.10.28	임호선	이 노래 아시나 모르겠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인데, 그곳이 옥천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 옥천군이 제외됐다는 점을 비판하며
2025.10.28	이양수	다른 위원회에서 벌어진 것을 다 정무위로 가져오면 우리는 최민희, 추미애 위원장 얘기 가져와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유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을 향해
2025.10.28	정동영	가능성보다 필요성이 더 간절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회동 가능성을 묻자
2025.10.29	박정훈	저는 최민희 위원장을 과방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민희 위원장을 최민희 위원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2025.10.29	김장겸	얼마나 더 국회의 권위를 실추해야 만족할 것입니까?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갑질과 도용도 불사하는 게 과연 노무현 정신입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판하며
2025.10.29	김현	왜 여당이 야당이 됐는지 오늘 국민들이 실감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며
2025.10.29	한민수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야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1부터 100가지 모든 걸 반대해요. 법도 안 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며
2025.10.29	이준석	이런 다툼이 있으면 승자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패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과방위가 무조건 욕을 같이 먹는 겁니다	감사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국민의 힘 의원들의 참석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며
2025.10.29	박해철	윤석열 정부 한수원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원전 최강국 건설한다, 원전 세일즈 성공했다' 사실상 국민 기망만 하고 필수 시설은 나 몰라라 한 것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2025.10.29	천하람	10·15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기관의 장이신 국세청장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못하는 주택을 지금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혹시 당장 실거주하시는 국민한테 매각할 계획 있으세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2025.10.29	김도읍	무능하다고 하니까 인신공격이라고요? 지금 공급 대책이 엉망이 되니까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도 다시 월세화되고 이 난리가 나서 국민들이 아우성인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 감사에서 김윤덕 장관을 질책하며
2025.10.29	조계원	김건희의 발길만 닿으면 종묘가 카페가 되고, 어좌는 개인 소파로 전락하고, 박물관 수장고는 개인 서재로, 명성황후 침전은 침실로 취급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재임 기간 동안에 창덕궁, 경복궁, 비원 등 고궁을 총 9차례 비공식 방문한 것에 대해
2025.10.29	최은석	1960년생인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 지금 노인이 십니까? 겉으로 보기에선 그냥 되게 젊어 보이시고, 실은 이게 '70대도 청춘'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듯이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빠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2025.10.29	김성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좀 알려 주십시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재활용 '분리배출' 혼선을 지적하며 퀴즈를 내자 즉답하지 못하면서
2025.10.29	배현진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낮 뜨거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이용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정도로 송구하고 죄송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언급하며
2025.10.29	김교흥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은 고궁을 내 집으로 생각한 거예요. 김건희의 사적 놀음에 여러분이 따라간 겁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가 유산 사적 이용 의혹을 지적하며
2025.10.29	김도읍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무능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2025.10.29	김은혜	대통령의 말이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지금 공무원들이 애써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됩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대변인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발언하며
2025.10.29	박대출	2013년 매킨지는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를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 비유한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를 상대로 한국 경제와 관련해 질의하며
2025.10.29	허종식	공정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내 맘대로 깡패 경쟁'이다. 정부가 물렁물렁해서 그렇다. 세계 좀 하세요	국회 산업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며
2025.10.29	이소영	올해는 88% 항소. 태양광은 100% 항소. 뭐 원수졌습니까? 이 회사들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보 조달청장에게 조달청의 행정소송 항소 비율에 대해 질의하며
2025.10.30	이상휘	세간에서는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만 과방위는 '민희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판하며
2025.10.30	한민수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제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2025.10.30	이진숙 전 방송위원장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전 위원장을 증인에서 빼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질의에 답하며
2025.10.30	황정아	이진숙 증인은 '언론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본인은 아예 공권력을 이용해서 언론 '입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판하며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막' 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2025.10.30	김영호	정말 공감 능력이 너무 없어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 전 차관의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에 대한 해명을 듣고
2025.10.30	추미애	그 모든 우연이 겹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다 죽었다. 사법살인이 이뤄졌을 것이다. 그냥 죽이지 않는다. 살인을 정당화 하기 위한 재판판을 거쳐서 사법부가 손발이 되고 통치 도구가 됐을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3 계엄 사태 당일 대법원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2025.10.30	성일종	우리 정부가 먼저 3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주겠다고 제시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일본이 5천500억달러를 낸다고 했으면 우리는 2천600억달러를 제시해야 했지만, 잘못 제시해서 수습이 안 되니까 허둥대고 어려웠던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비판하며
2025.10.30	정청래	저는 '엑셀런트'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평가하며
2025.10.30	조경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봉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비판하며
2025.10.30	윤준병	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우려가 많지만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았다고 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중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둔하며
2025.10.30	박대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결과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금을 주고 껌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질의하며
2025.10.30	진성준	미국의 요구에 맞서 우리 국익을 지키느라고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노력을 치하한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를 우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평가하며

일자	발언자 (의원생략)	한 말	어디에서 왜
		가 일정하게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적인 역학 관계가 좀 서글프기도 하다.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2025.10.30	신동욱	서영교 의원이 나를 꼬나보고 있어요. 꼬나보지 말라고. 아니 꼬나보지 말라는 말이 왜 저질인데, 왜 나쁜 말인데. 자 그럼 째려보지 마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마지막 날까지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란을 누구보다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이 시시때때로 내란(청산)을 방해한다'고 발언하자 이에 반발하며 여야 공방이 이는 과정에서
2025.10.30	추미애	곽규택 의원이 방금 서영교 의원을 향해 '서팔계'라는 멸칭을 썼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발언 제한을 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하시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여야 공방 과정에서 서 의원이 곽 의원을 향해 '꽤 꽤'라고 한 뒤 곽 의원이 서 의원을 향해 '서팔계'라고 외치자 이를 지적하며
2025.10.30	박지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분의 정위치는 국민의힘 당 대표실이 아니라 공수처 검사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 대표 관련 법조 비리를 언급하며
2025.10.30	김우영	제가 이번 국감 때 우리 박정훈 위원한테 쌍욕을 먹었지만 트럼프가 한 짓에 비하면 훨씬 더 가소한 일이고 여기 또 피감기관의 막말 잘하시는 민영삼 사장도 계시지만, 큰 아랑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시작하며, 이번 국감 초반 박 의원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문자 공개' 사건,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 이른바 '막말 유튜버' 출신의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까지 묶어 거론하면서

《참고, 2024년도 국정감사장의 한마디 말》

(회의록 및 언론보도 종합)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2024.10.7	이재명	국회가 가진 권능을 철저하게,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10월 7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겸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정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며
2024.10. 7	천대엽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10월 7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것 같다	질의에 대한 답변
2024.10. 7	배준영	'근처에 있을 테니까 당장 불러와'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갑질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그냥 옆집 아저씨나 이웃이 아니라며 야당의 행정안전부 공무원 출석 요구에 반박
2024.10.7	최형두	급여 받아먹고 싶겠습니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 통보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이 탄핵당했는데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반박
2024.10. 7	박균택	음주운전은 대리비를 아끼려고 한 것이니 경제범죄고, 성범죄는 인격이 부패해서 생긴 것이니 역시 검찰 수사 대상이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위증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2024.10. 7	임오경	김건희 여사가 동네 아줌마예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악공연 관람 의혹'을 거하며론
2024.10. 7	윤종균	장관님 차가 당근마켓에 5천만원에 판다고 올라와 있어요. 올리신 적 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의 중고차 허위 매물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매물로 올렸다고 밝히며
2024.10. 7	조태열	저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덕 의원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 받지 않겠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
2024.10.7	이진숙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무 정지 상태에서 월급을 받는 것을 야당이 비판하자
2024.10.7	정동영	방통위는 정권의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	과방위 방통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돌아갔거나 현재 파견된 상태인 출석증인 17명을 한줄로 세우고서 한 말
2024.10.8.	김용현	군복 입고 할 얘기 못하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8일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장애인 비하 표현을 써서 응수해 논란
2024.10.8.	한지아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계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2024.10.8.	박형수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
2024.10.8.	김병주	대통령님은 국군통수권자인데 박자에 맞춰 '부대 열중쉬어'가 안 됩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 행사에서 3년 연속 '부대 열중쉬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4.10.8.	김한규	하루에 820원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소상공인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2024.10.8.	조정식	장관님 이거 한번 말아 보시겠어요?	배달·택배비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북민단체가 바다에 살포한 '쌀 페트병'이 해안가에 방치 돼 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지적
2024.10.8.	정승윤 (권익위 부 위원장)	제 얼굴 제가 볼 수가 있습니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 강일 의원이 야당 의원 발언 도중 웃음을 보이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2024.10.8.	박성제 (법무부장 관)	저희도 법을 갖고 합니 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 장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라며 법을 부정하는 발언 을 자제하라고 말하자
2024.10.8.	서지영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오르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가천대 석사논문 표 절 의혹이 있었는데 검증이 제대로 실시되 지 않아 유아무야되고 논문 취소도 안 됐다 "며
2024.10.10	한기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 엘 총리가 하마스·헤즈 볼라를 완전히 제압함으 로써 헤즈볼라가 휴전하 자고 하지 않았느냐	국방위 합참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의 남 북 단절 조치 등에 대해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하며
2024.10.10	윤태양 삼성전자 CSO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 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 폭 사고와 관련해
2024.10.10	조지연	여기 국적 감사하는 곳 이 아닙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 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에 대한 입 장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퇴장을 거론하자
2024.10.10	이상휘	오늘 위원님들 질의 수 준이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해 전문적인 정책 질 의가 이어지자
2024.10.10	강득구	장관 탄핵까지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 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에 대한 입 장을 듣고 김 장관의 퇴장을 촉구하며
2024.10.10	임오경	광화문 헌판, 김건희 여 사께 부탁해서 바꾸세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 이 김 여사 관련 민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4.10.10	정일영	줄지 마세요. 줄지마, 뒤 에. 줄 것 같으면 나가 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석한 기획 재정부 공무원들을 가리키며
2024.10.10	이준석	대통령이요, 그냥 제 경 험을 말씀드리면요, 싫 어하는 사람 잘 안 만나 요. 싫어하는 데 잘 안 가고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말하고도 취임 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지적 하며
2024.10.10	천하람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타가 프리패스, 하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김건 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 증식법에 대한 기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패스입니까?	회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적하며
2024.10.10	김명수 (합참의장)	우리 군은 전쟁광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의 우선순위는 전쟁 억제라는 것을 간과할 경우 전쟁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주장에 답변하며
2024.10.10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반응이 좋아서, 나설 걸 그랬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바나나맛 우유' 문화유산 등록 추진에 잘 나서지 않으려 했던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질의하자
2024.10.11	신정훈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씨에 집중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인 오가자 여당 측에 자제를 요구하며
2024.10.11	김영호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전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함께 박수치며 축하하며
2024.10.11	한기호	BTS도 다 군대 가는데 지금 왜 예술·체육계 계통에 있는 사람이 병역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병무청장에게 체육·예술 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지적하며
2024.10.11	이성권	문다혜 씨가 '우리는 운명공동체'라는 말씀했는데, 이걸 보면 '체납공동체'가 아닌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소유 차량에서 다수의 과태료 체납 이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4.10.11	박성민	민주당 지도부가 시켰겠조. 안 시켰으면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나열하자 이를 지적하며
2024.10.11	최기상	재벌들 승계해주는 데 도움을 못 줘서 안달 난 것처럼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24.10.11	서지영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학생들의 부모님이 부유층이 돼 버렸습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결과로 학생 수만 명이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지적하며
2024.10.11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제생각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말한 부분을 인정하며
2024.10.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하고, 지난 금요일 국감에서는 셀프 질의로 경찰을 압박했다"며
2024.10.14	김용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 독특한 생각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고 답하자
2024.10.14	김동연 (경기도지사)	여성 공무원의 그림자 노동 안 하기에 적극 공감했고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김 지사가 컵라면을 끓여온 여성 비서관을 호통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두고 '상처받은 직원한테 할 말씀 없다'고 묻자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2024.10.14	김장겸	여기 나오면요, 출석하는 데 경비도 줍니다. 그 경비 받아서 반찬 사고 고기 사 먹으라고 그러세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2024.10.14	이성윤	'공수래공수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어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성과가 미흡하다며
2024.10.14	이해민	광을 팔아도 본인이 한 걸로 파세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대 국회가 먼저 필요성을 검토해 KBS 국고보조금 증액을 결정한 것을 박민 사장이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2024.10.14	곽규택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을 만드는 게 낫다	법사위 국정감사에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나 예산 대비 업무 산출량, 수사 편향성 등을 고려하면 기관의 존속 여부에 의문을 갖게 된다. 그간 기소된 사건은 4건이다. 1년에 1건 기소하고 예산은 200억원이 든다."면서
2024.10.15	오세훈 서울시장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면서
2024.10.15	서지영	제가 볼 때는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입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 헬기 이송이 특혜였다고 지적하며
2024.10.15	박범계	감방 갈 일도 많은데 잘 못하면 감방 가신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가 국방 연구개발(R&D) 추진체계를 국방부 주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점을 비판하며
2024.10.15	이준석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조조정과 콘텐츠 투자 등 공영방송의 경영 전략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
2024.10.15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입을 닫다니, 어디 그렇게 표현하느냐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이 "입 닫으라"고 제지하자 언성을 높이면서
2024.10.16	구자근	혹시 '파파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파도 파도 괴담이라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관련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2024.10.16	서영석	천공 위에 명태균 씨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지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며
2024.10.16	강민수 국세청장	보수는 없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 홍보대사로 톱스타만 고집하는데 1년에 보수는 얼마나 지급하느냐'고 묻자
2024.10.16	이성윤	영장 자판기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장발부율이 92.5%라고 지적하면서 "전주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다"고 있다며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2024.10.17	강명구	기소는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자 맞서며
2024.10.17	소병훈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보니까 부려 먹을 때는 엄청 부려 먹고, 지나가면 모른 척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 의료 인력 처우가 열악하다고 비판하며
2024.10.17	김한규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 믿습니다' 그 래야 합니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2024.10.17	박상혁	금융감독원을 '금융정치원'으로 만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 대출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4.10.17	김재원	콘텐츠진흥원 부원장이면 콘진원 예산으로 친동생 책 40권을 사주고 사인회를 열어줘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현석 콘진원 부원장이 지난해 2월 기관 예산으로 친동생인 건축가 유현준 씨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고 비판하며
2024.10.17	김선민	의과대학 다니시고 의사를 계속하셨으면 기억력이 좋으셔야 할 텐데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태 보건 의료연구원장의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작년 국감 때 답변과 달라졌다고 지적하며
2024.10.17	이복현 금감원장	제가 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총선 출마 하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생각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2024.10.18	이재명	의원들이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당부한 말
2024.10.18	곽규택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관련된 분들이 자꾸 돌아가 시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2024.10.18	박균택	'자무자판'이란 말 알죠.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는 말이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순장조라고 하며
2024.10.18	박지원	역대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런 중전마마는 없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며
2024.10.18	박덕흠	도대체 충북도는 그냥 핫바지인지 인사를 이렇게 편향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인사에 지역 안배 부족을 비판하며
2024.10.18	강호동 농협회장	꼭 캠프 출신이라기보다 선거 기간 저와 마음을 나눈 분들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농협중앙회 인사를 두고 '낙하산 보은' 의혹을 제기하자 답변하며
2024.10.18	김계환 해병대사	앞으로 내일 전역하더라도 그 자세 변하지 않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령관	마지막까지 복무하겠습니다	압' 의혹과 관련해 양심고백을 할 생각이 있다고 문자
2024.10.18	이창수 서울중앙 지검장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하셨다"면서
2024.10.18	김형수 공군작전 사령관	해당시간대에 특이사항 없었다.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평양 상공으로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무인기'의 항적을 공군에서도 포착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답변하면서
2024.10.21	방영기 명창	1주일 동안 양 의원이 어떤 사과를 하나 들어봤지만 본인 변명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무형유산)를 비롯한 국악인들의 국회에서 규탄대회에서 국악 공연을 '기생집'에 빗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며
2024.10.21	송석준	본업에 충실하시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국감장을 떠나자
2024.10.21	박대출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리스크 대박 세일즈 때문에 그렇게 다녔습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이 체코 원전 수주 리스크를 비판하자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해외에는 원전 세일즈를 하러 다녔다고 반박하며
2024.10.21	박균택	레드팀이 아니고 빨간 드레스를 입은 들러리들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 수사 결과를 앞두고 진행한 '레드팀' 회의를 비판하며
2024.10.21	류희림 방심위원 장	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머슴'이라고 하시는 것은 지나친 표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2024.10.22	곽규택	검사는 불려서 괴롭히고, 판사는 미뤄서 괴롭힌다는 말 들어 보셨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이재명 사건'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2024.10.22	권성동	쿠웨이트가 후세인을 기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비판하며
2024.10.22	김영호	확인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통치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내역이 언론에 전달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2024.10.22	장경태	재주는 곰이 부리고, 조련사가 돈을 벌었는데 곰만 기소한 것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비판하며
2024.10.22	강정애 보훈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공'입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 처리가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 지적에 겸허히 받아들인 다면서 '어쩌다 공무원'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취지로
2024.10.23	양재웅 정신과전 문의	병원을 믿고, 따님이자 동생분을 입원시켰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잘 시켜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병원에서 일어난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2024.10.23	전진숙	저는 의대 정원 증원이 나 국민연금 개혁이 세 종에서 용산으로 넘어오 면서 굴이 탕자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추 진 상황을 비판하며
2024.10.23	배준영	무등록 불법 공유 숙박 업은 암채 영업의 하나 이며 서민 경제를 잠먹 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 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지적하며
2024.10.23	김도윤 타투이스트	여기도 절반이 타투하셨 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그런데 단 한 분도 합법적으로 받으 신 분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인만 문신 행 위를 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2024.10.24	김용현 국방부장 관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파병이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 이 적절하다는 것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 이나 침공에 동원된 북한군에 대해 발언을 하면서
2024.10.24	배현진	IOC에 우리 선수의 한 국 이름을 되찾아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OC 홈 페이지에 손기정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올림픽 메달리스트 11명이 일본 국적에 일 본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을 시정해달라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당부하며
2024.10.24	김태선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안 했다고 지금 국감장 에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것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용 우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씨'로 부 른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2024.10.24	권성동	이게 진짜, 포스코 이사 저도 좀 한번 시켜 주세 요. 이렇게 좋은 이사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홀딩스가 해외 이사회를 명목으로 초호화 출장을 다 녀왔다고 지적하며
2024.10.24	김재섭	이 정도면 일반적인 투 자자들은 당연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 건 워런 버핏이 아니라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속을만할 정도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 장에게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신종 금융사기 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2024.10.24	윤후덕	장관이 점심때 사라진 것에 대해 좀 거시기합 니다. 거시기하지요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외교 부 장관이 점심시간에 폴란드 대통령 정상 회담 배석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점을 지적 하며
2024.10.24	김용현 국방부장 관	ABC도 모르고 질문하시 는 것 보니 정말 너무하 신 것 같습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 전이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 다며 책임을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국유재산 종합계획 관련 업 무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반박하며
2024.10.25	청정래	윤석열 정권은 '오브 더 와이프, 바이 더 와이프, 포 더 와이프 정권'이에 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비호하고 있 다면서
2024.10.25	신장식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 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공익제 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며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2024.10.25	최형두	김건희 여사가 '줄리'인 줄 압니까. 아직도 줄리로 낙인찍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부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제기한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의 부정 채용 의혹을 비판하며
2024.10.25	김장겸	우리 위원장님 민주당의 어머니를 뛰어넘어서 갑질의 여왕으로 등극하시려고 그러는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전날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 '갑질' 발언을 했다가 발언권이 박탈당했다고 지적하며
2024.10.25	박성제 법무부장관	검사들이 조작해서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장관으로서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2024.10.31	주진우	대학생들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모의재판을 한다고 하면 허가할 것이냐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밤' 행사를 허가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2024.11.1	박찬대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치열하게 하십시오.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고성으로 발언을 하자 제지하면서
2024.11.1	박찬대	국정감사가 저에 대한 국정감사입니까?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명태균과 윤석열 통화음성을 틀은 것에 대해서 강명구 의원이 비판하자
2024.11.1	신원식 안보실장	반헌법적, 반민족적인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위원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한 '통일하지 말고 2개 국가 수용하자'고 한 것에 대한 답변

9. 국정감사중(시작전 포함)위원회 전체회의 51회, 부결안건 3건 (2024년도 62회, 2023년도 전체회의 32회, 2022년도 45회, 2021년도 32회)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도중 또는 전후하여 총 51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의 경우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체 회의를 별도로 열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2025년도 가장 많은 위원회 회의를 한 상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로 8회 회의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는 10월 16일 '위원장 신상에 관한 안건'으로 비공개 회의를 하였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등이 안건이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회 회의를 열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2025년 10월 14일 가장 먼저 회의를 열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홍)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에서도 동행명령장 발부가 있었다.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회의 안건은 주로 가결처리되어 왔는데,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부결처리된 것이 3건이나 있었다.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10.13. 10.21. 10.23.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건에서 발생하였다.

《2025년도 국정감사 도중(직전 포함) 상임위 회의 개최 현황》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국회운영	2	과학기술	8	문화체육	7
법제사법	4	외교통일	2	산업통상	3
정무	3	국방	1	보건복지	3
기획재정	2	행정안전	5	기후에너지환경노동	1
교육	2	농림축산	4	국토교통	3
* 국회공보 상임위원회 회의현황 종합				성평등가족	1

참고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도중 위원회 전체회의가 62회 열렸다.

국정감사 도중 가장 많은 회의를 한 것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로 각 7회씩 전체회의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으로 각 6회씩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찬대)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전에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하였으며, 국정감사 중에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단독으로 개최하여 발부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의 경우도 불출

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회의를 여당이 퇴장한 후에 발부하였다.

국정감사 도중 회의가 열리는 경우는 주로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의 변경이나 출석요구 등을 위한 회의였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나 위원회 고발을 위한 회의도 많이 열렸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의 경우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을 가장 먼저 하였다.

《참고, 2024년도 국정감사 도중(직전 포함) 상임위 회의 개최 현황》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국회운영	3	과학기술	7	문화체육	7
법제사법	6	외교통일	2	산업통상	2
정무	4	국방	1	보건복지	5
기획재정	3	행정안전	6	환경노동	3
교육	5	농림축산	3	국토교통	5

27년간 국정감사 총 감사일수와 대상기관수 현황

국회	대통령	연도	의원정수 (감사위원)	상임 위	총 감사 일	대상 기관 (실시)	현장 시찰
제15대 국회 (1996.05.30~2000.05.29.)	김대중	1999	299 (298)	16	183	352	18
제16대 국회 (2000.05.30~2004.05.29.) 대선	김대중	2000	273 (272)	16	188	357 (355)	23
	김대중	2001	273 (269)	16	187	402 (392)	31
	김대중	2002	273 (271)	17	159	365	17
	노무현	2003	273 (271)	17	170	399	24
제17대 국회 (2004.05.30~2008.05.29.) 대선	노무현	2004	299 (298)	17	190	457 (356)	31
	노무현	2005	299 (295)	17	174	461	16
	노무현	2006	299 (296)	17	180	510	40
	노무현	2007	299 (298)	17	160	488	20
제18대 국회 (2008.05.30~2012.05.29.)	이명박	2008	299 (298)	16	168	478	32
	이명박	2009	299 (289)	16	168	478	25
	이명박	2010	299 (271)	16	166	514	26
	이명박	2011	299 (295)	16	157	563 (556)	30
제19대 국회 / 대선 (2012.05.30~2016.05.29.)	이명박	2012	300 (299)	16	163	559	27
	박근혜	2013	300 (297)	16	169	628	24
	박근혜	2014	300	16	163	672	11
	박근혜	2015	300	16	161	708	21
제20대 국회 (2016.05.30~2020.05.29.) 대선	박근혜	2016	300	16	161	691	22
	문재인	2017	300	16	163	701	27
	문재인	2018	300 (297)	17	168	753	24
	문재인	2019	300 (296)	17	159	788	20
제21대 국회 (2020.05.30~2024.05.29.)	문재인	2020	300 (299)	17	137	705	8
	문재인	2021	300 (296)	17	135	745	8
	윤석열	2022	300 (298)	17	145	783	16(15)
	윤석열	2023	300 (297)	17	138 (140)	791	18
제22대 국회 (2024.05.30~2028.05.29.)	윤석열	2024	300 (299)	17	142	802	34
	이재명	2025	298 (297)	17	139	813	22

* 원 자료 출처 : 국회사무처 연도별 국정감사 및 조사 통계자료집 및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수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였음(계획과 시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음, 현장시찰은 국정감사와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음, 예컨대 같은 날 반이 나누어져 시행되는 경우나, 오전 또는 오후에 시찰을 하고 국감 진행, 정보위 포함)
2022년도 감사일수 계획은 146일이었으나, 실시는 145일임, 2024. 2023년도는 국정감사수첩 및 종합일정에 따름

제22대 국회 제2차년도(2025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의원 수 (인)	피감 기관 수 (개)	감사 일수 (일)	국회 사용 일수 (일)	감사시간 (시분초)	영상회 의록수 (개)	시찰 횟수 (회)	의원 출석률 (%)
국회운영	김병기(민)	28	9	2	2	26:37:00	3	0	98.81%
법제사법	추미애(민)	18	79	11	10	124:18:00	12	0	98.02%
정 무	윤한홍(국)	24	45	9	6	81:30:00	6	1	96.35%
기획재정	임이자(국)	26	42	10	6	91:29:00	9	1	92.31%
교 육	김영호(민)	16	68	8	5	76:22:00	9	1	100.00%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최민희(민)	20	86	11	7	101:57:00	8	3	95.00%
외교통일	김석기(국)	21	42	9	3	74:29:00	3	0	100.00%
국 방	성일종(국)	15	68	11	3	55:07:00	6	4	86.11%
행정안전	신정훈(민)	22	38	10	3	110:59:00	19	0	98.84%
문화체육 관광	김교흥(민)	16	60	9	7	71:12:00	7	2	93.75%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여기구(민)	19	51	9	7	79:08:00	9	1	99.42%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이철규(국)	30	40	9	7	74:14:00	7	2	90.48%
보건복지	박주민(민)	24	44	8	7	75:51:00	8	1	90.10%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안호영(민)	16	95	10	8	75:52:00	8	3	98.61%
국토교통	맹성규(민)	30	34	8	5	88:21:00	8	1	99.05%
정 보	신성범(국)	12	5	3	2	13:12:00	0	1	78.33%
성 평 등 가 족	이인선(국)	17	7	2	1	10:25:00	1	1	100.00%
계		354	813	139	89	1231:03:00	123	22	95.33%
참고	1. 감사진행시간은 국회공보상 종료시간에서 감사개시시간을 뺀 시간임 2.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운영위 종료다음날인 2025. 11. 7. 기준임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에는 12. 2.까지 포함) 3. 감사위원 출석률은 국회공보의 출석의원수 기준 통계임.(외통위 재외공관 미포함)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 경우에는 해당 출석률로 평균하였음) (현장시찰 참석여부는 표시가 안됨, 현장시찰 횟수는 국회사무처 일정표 참고)								

제22대 국회 제1차년도(2024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의원 수 (인)	피감 기관 수 (개)	감사 일수 (일)	국회 사용 일수 (일)	감사시간 (시분초)	영상회 의록수 (개)	시찰 횟수 (회)	의원 출석률 (%)
국회운영	박찬대(민)	28	9	2	2	28:16:00	3	0	98.00%
법제사법	정청래(민)	18	79	11	9	115:48:00	13	1	99.44%
정 무	윤한홍(국)	24	45	10	7	93:00:00	9	1	98.44%
기획재정	송언석(국)	26	42	10	5	93:44:00	8	2	99.6%
교 육	김영호(민)	16	70	8	5	81:11:00	5	3	97.75%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최민희(민)	20	86	12	7	109:53:00	10	4	100.0%
외교통일	김석기(국)	21	34	9	3	71:09:00	3	0	98.41%
국 방	성일종(국)	17	68	10	3	59:40:00	4	5	94.86%
행정안전	신정훈(민)	22	35	10	3	108:44:00	14	1	100%
문화체육 관광	전재수(민)	16	61	8	7	79:15:00	7	1	99.11%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여기구(민)	19	51	10	8	85:27:00	10	3	98.95%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이철규(국)	30	61	10	6	88:22:00	8	4	99.17%
보건복지	박주민(민)	24	42	8	8	88:46:00	8	0	98.96%
환경노동	안호영(민)	15	74	10	8	85:03:00	9	3	100%
국토교통	맹성규(민)	30	33	9	4	78:52:00	7	4	100%
정보위원	신성범(국)	12	5	3	2	15:52:00		1	-
여성가족	이인선(국)	17	7	2	1	7:42:00	1	1	100%
계		355	802	142	88	1290:44:00	119	34	98.92%
참고	1. 감사진행시간은 국회공보상 종료시간에서 감사개시시간을 뺀 시간임 2.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운영위 종료다음날인 2024. 11. 2. 기준임 3. 감사위원 출석률은 국회공보의 출석의원수 기준 통계임. (오전 오후로 나뉘서 한 경우 중 1번만 출석해도 출석으로 표시, 단 평가엔 결석) (현장시찰 참석여부는 표시가 안됨)								

제21대 국회 제4차년도(2023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의원 수 (인)	피감 기관 수 (개)	감사 일수 (일)	국회 사용 일수 (일)	감사시간 (시분초)	영상회의 의록수 (개)	시찰 횟수 (회)	의원 출석률 (%)
국회운영	윤재옥(국)	28	9	2	2	21:43:00	3	0	100.0
법제사법	김도읍(국)	18	80	10	6	104:49:00	13	0	100.0
정 무	백혜련(민)	24	45	9	8	100:48:00	9	0	100.0
기획재정	김상훈(국)	26	41	10	4	84:50:00	8	2	93.62
교 육	김철민(민)	16	68	7	5	81:56:00	11	0	93.75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장제원(국)	20	83	9	6	93:27:00	9	1	99.00
외교통일	김태호(국)	21	32	14 (13)	3	56:09:00	3	0	96.83
국 방	한기호(국)	17	67	11	3	57:01:00	6	4	80.88
행정안전	김교흥(민)	22	31	9	2	82:52:00	15	0	94.3
문화체육 관광	이상헌(민)	16	67	10 (9)	7	57:15:00	7	3	100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소병훈(민)	19	45	8	6	69:43:00	8	2	98.68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이재정(민)	30	61	10	8	87:29:00	8	2	100.0
보건복지	신동근(민)	24	43	8	8	82:08:00	8	0	96.88
환경노동	박정(민)	15	75	10	9	96:20:00	9	2	100.0
국토교통	김민기(민)	29	33	8	6	92:14:00	9	0	99.14
정보위원	박덕흠(국)	12	5	3	1	-	-	1	-
여성가족	권인숙(민)	17	6	2	1	11:21:00	1	1	100.0
계		354	791	140 (138)	85	1180:05:00	127	18	97.07
참고	1. 감사진행시간은 국회공보상 종료시간에서 감사개시시간을 뺀 시간임 2.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410회 본회의 종료일인 2023. 12. 8. 기준임 3. 감사위원 출석률은 국회공보의 출석의원수 기준 통계임. (오전 오후로 나뉘서 한 경우 중 1번만 출석해도 출석으로 표시됨) (현장시찰 참석여부는 표시가 안됨)								

제21대 국회 제3차년도(2022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의원 수	피감 기관 수	감사 일수	국회 사용 일수	감사시간	영상회 의록수	현장 시찰	의원 출석률
국회운영	주호영(국)	28	9	2	2	27:49:00	3	0	100%
법제사법	김도읍(국)	18	78	10	9	96:22:00	13	0	100%
정 무	백혜련(민)	24	45	11	9	100:05:00	10	1	96.25%
기획재정	박대출(국)	26	29	9	7	88:41:00	8	0	93.27%
교 육	유기홍(민)	16	66	7	5	75:33:00	6	0	100%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 신	정청래(민)	20	83	11	7	96:02:00	8	0	93.89%
외교통일	윤재옥(국)	21	34	12	3	80:52:00	3	0	98.41%
국 방	이헌승(국)	16	67	11	2	73:16:00	8	5	93.75%
행정안전	이채익(국)	22	37	10	3	100:13:00	18	1	99.24%
문화체육 관 광	홍익표(민)	16	69	9	7	59:44:00	7	2	100%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 산	소병훈(민)	19	40	10	6	86:03:00	10	2	100%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윤관석(민)	30	60	10	7	76:42:00	8	2	99.58%
보건복지	정춘숙(민)	24	47	8	7	82:27:00	8	0	98.96%
환경노동	전해철(민)	16	75	10	7	100:11:00	9	0	93.75%
국토교통	김민기(민)	30	33	9	6	88:16:00	8	1	95.83%
정 보	조해진(국)	12	5	4	1	-	-	1	-
여성가족	권인숙(민)	17	6	2	1	8:22:00	1	1	100%
계		355	783	145	89	1240:38:00	128	16	97.68%
참고	1. 감사진행시간은 국회공보상 종료시간에서 감사개시시간을 뺀 시간임 2.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400회 본회의 종료일인 2022. 12. 9. 기준임 3. 감사위원 출석률은 국회공보의 출석의원수 기준 통계임.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한 경우 중 1번만 출석해도 출석으로 표시됨) (현장시찰 참석여부는 표시가 안됨)								

제21대 국회 제2차년도(2021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 수	피감 기관 수	감사일 수	감사진행 시간	시찰횟 수	국회사 용일수	영상 회의 록수	감사위 원평균 출석률
국 회 운 영	윤호중(민)	28	9	2	23:32:00	0	2	3	100.0%
법 제 사 법	박강온(민)	18	78	10	107:10:00	0	8	13	99.4%
정 무	윤재옥(국)	24	47	10	101:20:00	0	10	10	97.1%
기 획 재 정	윤후덕(민)	25	29	9	92:37:00	0	7	12	90.8%
교 육	조해진(국)	16	64	7	70:54:00	0	7	7	86.6%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이원욱(민)	20	82	9	88:27:00	1	8	10	98.3%
외 교 통 일	이광재(민)	20	31	12	65:01:00	0	5	5	94.8% (재외공 관포함)
국 방	민홍철(민)	17	67	10	62:03:00	3	3	8	79.4%
행 정 안 전	서영교(민)	22	33	10	102:45:00	0	6	19	93.5%
문 화 체 육 관 광	이채익(국)	16	51	8	65:44:00	2	6	7	94.6%
농 림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김태흠(국)	19	36	10	78:31:00	0	10	10	94.2%
산 업 통 상 지 원 중 소 벤 처 업 기	이학영(민)	29	58	8	91:03:00	0	8	8	95.7%
보 건 복 지	김민석(민)	24	41	8	76:19:00	0	8	8	98.4%
환 경 노 동	박대출(국)	16	75	10	86:56:00	1	7	9	93.8%
국 토 교 통	이헌승(국)	29	33	9	89:37:00	1	4	8	96.9%
정 보	김경협(민)	12	5	4	-	1	2	0	-
여 성 가 족	송옥주(민)	17	6	1	8:08:00	0	1	1	100.00%
17개	17인	352 (340)	745	137	1210:07:00	9	102	138	94.59%
참고	1. 감사진행시간은 국회공보상 종료시간에서 감사개시시간을 뺀 시간임 2.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2021. 11. 23. 기준임 3. 감사위원 출석률은 국회공보 기준임.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2020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 수	피감기관 수	감사일 수	감사진행 시간	시찰횟 수	국회사수	영상회의 수	감사위원 출석률
국회운영	김태년(민)	28	9	2	19:49:00	0	2	3	100.00%
법제사법	윤호중(한)	18	76	11	114:29:00	0	11	14	100.00%
정무	윤관석(민)	24	46	10	106:40:00	0	10	10	100.00%
기획재정	윤후덕(민)	26	29	9	102:30:00	1	6	12	99.57%
교육	유기홍(민)	16	64	7	77:58:00	0	5	13	100.00%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원욱(민)	20	82	9	99:16:00	1	8	9	100.00%
외교통일	송영길(민)	21	30	9	83:14:00	1	9(8)	11	96.43%
국방	민홍철(민)	17	63	10	67:15:00	2	3	9	99.26%
행정안전	서영교(민)	22	35	10	96:26:00	0	7	15	100.00%
문화체육관광	도종환(민)	16	56	8	66:37:00	1	7	7	93.75%
농림축산식품	이개호(민)	19	37	10	97:21:00	0	10	10	96.84%
산업통상자원	이학영(민)	30	44	8	96:06:00	0	8	8	96.67%
보건복지	김민석(민)	24	22	8	77:51:00	0	8	8	100.00%
환경노동	송옥주(민)	16	70	10	98:17:00	1	7	9	93.75%
국토교통	전선미(민)	30	31	10	105:03:00	1	5	10	100.00%
정보	전해철(민)	12	5	4	20:52:00	1	2	0	97.22%
여성가족	정춘숙(민)	17	6	2	8:44:00	1	1	1	100.00%
17개	17인	356	705	137	1329:44:00	10	109	149	98.44%
참고	1. 감사진행시간은 국회공보상 종료시간에서 감사개시시간을 뺀 시간임 2.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2020. 11. 15. 기준임								

제20대 국회 제4차년도(2019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수	피감기관수	감사일수	감사진행시간	순감사시간	시찰수	국회사일수	영상회의록수	감사위원출석률
국회운영	이인영(민)	28	9	2	24:04	19:19	0	2	3	100.00%
법제사법	여상규(한)	18	76	11	97:46	75:32	0	3	14	98.81%
정무	민병두(민)	24	45	11	84:3	69:39	1	9	10	95.00%
기획재정	이춘석(민)	26	29	10	92:36	65:50	1	6	12	78.99%
교육	이찬열(바)	16	91	8	59:12	61:55	1	3	13	95.67%
과학기술정보통신	노웅래(민)	20	82	12	119:5	77:39	1	10	10	95.00%
외교통일	윤상현(한)	22	31	15	92:24	32:17	0	4	4	87.34%
국방	안규백(민)	17	64	11	57:45	49:22	5	2	8	96.26%
행정안전	전혜숙(민)	22	32	11	112:42	84:36	1		20	97.19%
문화체육관광	안민석(민)	16	75	10	55:18	37:50	3	7	7	95.54%
농림축산식품	황주홍(평)	18	34	10	84:1	60:09	0	9	10	90.00%
산업통상자원	이종구(한)	28	61	11	111:4	66:43	1	10	10	99.29%
보건복지	김세연(한)	22	45	10	85:57	73:26	1	7	9	93.94%
환경노동	김학용(한)	19	71	12	103	77:10	2	8	10	99.38%
국토교통	박순자(한)	30	32	10	110:33	73:54	0	4	11	98.18%
정보	이혜훈(바)	11	5	3	16:56	16:56	1	0	0	93.18%
여성가족	인재근(민)	17	6	2	9:01	6:20	1	1	1	100.00%
17개	17인	354	788	159	1314:04	948:37	19	85	152	94.93%
참고	1. 외교통일위의 경우 해외공관국감시간 포함하였고, 순감사시간에서는 제외한 것임 2. 행정안전, 국방, 정보위원회의 회의시간은 국회공보시간을 참고하였음 3.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2019. 11. 29. 기준임									

2025년도 국정감사장 위원장 마이크 점유시간 조사 현황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감사시작	감사종료	의원평균 질의/응답 시간(A)	위원장 시간(B)	비율 (B/A)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4	법제처	10:15:00	13:20:00	0:06:55	0:31:43	4.58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2025-10-14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	10:07:00	24:30:00	0:21:17	1:29:36	4.21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1	한국철도공사	10:04:00	19:03:00	0:09:37	0:37:54	3.94
법제사법위원회	2025-10-17	군사법원	15:17:00	20:45:00	0:10:52	0:42:21	3.90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7	대검찰청	10:07:00	22:29:00	0:19:00	1:13:31	3.87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5-10-20	한국석유공사	11:01:00	23:00:00	0:14:15	0:54:53	3.85
법제사법위원회	2025-10-30	법무부	10:03:00	21:55:00	0:18:57	1:11:37	3.78
법제사법위원회	2025-10-17	헌법재판소	10:10:00	12:56:00	0:06:42	0:24:44	3.69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9	국토교통부	10:12:00	23:34:00	0:15:07	0:51:04	3.38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2025-10-23	한국방송공사	10:12:00	22:20:00	0:19:06	1:03:09	3.31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3	서울고등검찰 청	11:16:00	22:34:00	0:19:01	0:59:43	3.14
법제사법위원회	2025-10-13	대법원	10:13:00	23:24:00	0:17:58	0:54:10	3.01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2025-10-30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	10:06:00	23:34:00	0:22:59	1:08:54	3.00
법제사법위원회	2025-10-16	감사원	10:17:00	20:24:00	0:14:36	0:40:39	2.78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2025-10-16	원자력안전위 원회	10:13:00	24:52:00	0:20:11	0:54:22	2.69
국방위원회	2025-10-17	방위사업청	10:03:00	18:31:00	0:17:16	0:46:05	2.67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4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15:04:00	20:46:00	0:09:49	0:25:38	2.61
기후에너지환경노 동위원회	2025-10-15	고용노동부	10:04:00	23:06:00	0:21:55	0:56:54	2.60
법제사법위원회	2025-10-14	법무부	10:08:00	22:02:00	0:19:14	0:49:33	2.58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5-10-13	산업통상자원 부	10:46:00	24:03:00	0:12:22	0:31:50	2.57
교육위원회	2025-10-20	서울특별시교 육청	10:02:00	24:12:00	0:24:24	1:02:23	2.56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2025-10-20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 관련(YTN,TBS)	15:31:00	23:41:00	0:15:16	0:38:28	2.52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감사시작	감사종료	의원평균 질의/응답 시간(A)	위원장 시간(B)	비율 (B/A)
		,연합뉴스 TV)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2025-10-21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10:11: 00	20:29: 00	0:20:57	0:50:01	2.39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5-10-24	산업통상자원 부	10:07: 00	19:11: 00	0:12:59	0:30:48	2.37
행정안전위원회	2025-10-23	서울특별시	10:06: 00	19:38: 00	0:16:34	0:39:14	2.37
국방위원회	2025-10-30	국방부	10:03: 00	19:01: 00	0:20:30	0:48:23	2.36
기획재정위원회	2025-10-27	한국수출입은 행	10:15: 00	22:25: 00	0:14:26	0:33:16	2.31
행정안전위원회	2025-10-30	행정안전부	10:12: 00	23:10: 00	0:19:21	0:43:20	2.24
국방위원회	2025-10-21	육군지상작전 사령부	10:00: 00	12:26: 00	0:06:47	0:15:07	2.23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2025-10-29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10:02: 00	19:21: 00	0:18:43	0:41:11	2.20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3	국토교통부	10:05: 00	24:11: 00	0:17:17	0:37:59	2.20
보건복지위원회	2025-10-30	보건복지부	10:10: 00	23:32: 00	0:20:05	0:43:53	2.19
국방위원회	2025-10-13	국방부	10:07: 00	22:08: 00	0:24:57	0:54:12	2.17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2025-10-13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10:00: 00	19:30: 00	0:16:55	0:36:21	2.15
행정안전위원회	2025-10-14	행정안전부	10:03: 00	24:29: 00	0:22:05	0:46:47	2.12
교육위원회	2025-10-30	교육부	10:07: 00	19:50: 00	0:22:17	0:46:16	2.08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2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10:09: 00	20:06: 00	0:15:40	0:31:10	1.99
보건복지위원회	2025-10-17	국민건강보험 공단	18:08: 00	20:48: 00	0:15:36	0:30:43	1.97
기획재정위원회	2025-10-13	기획재정부	10:13: 00	22:14: 00	0:16:39	0:31:51	1.91
교육위원회	2025-10-14	교육부	10:06: 00	23:55: 00	0:24:56	0:47:10	1.89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0	서울고등법원	10:17: 00	20:24: 00	0:20:46	0:38:54	1.87
보건복지위원회	2025-10-14	보건복지부	10:04: 00	22:58: 00	0:17:39	0:32:52	1.86
국방위원회	2025-10-20	병무청	10:08: 00	16:32: 00	0:12:02	0:21:22	1.77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2025-10-20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10:02: 00	21:46: 00	0:21:24	0:37:53	1.77
국방위원회	2025-10-14	합동참모본부	10:01:	18:01:	0:16:50	0:29:40	1.76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감사시작	감사종료	의원평균 질의/응답 시간(A)	위원장 시간(B)	비율 (B/A)
			00	00			
정무위원회	2025-10-13	국무조정실	10:12:00	23:24:00	0:18:56	0:33:05	1.75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5-10-29	산업통상자원 부	10:05:00	19:29:00	0:12:48	0:21:33	1.68
국회운영위원회	2025-11-05	국가인권위원 회	10:08:00	18:02:00	0:09:03	0:15:13	1.68
정무위원회	2025-10-20	금융위원회	10:08:00	20:10:00	0:15:52	0:26:37	1.68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2025-10-29	문화체육관광 부	10:05:00	21:39:00	0:24:07	0:40:21	1.67
행정안전위원회	2025-10-23	서울경찰청	20:34:00	23:28:00	0:06:50	0:11:24	1.67
기후에너지환경노 동위원회	2025-10-17	기상청	10:04:00	11:51:00	0:05:27	0:09:01	1.65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2025-10-22	국립중앙박물 관	10:03:00	18:09:00	0:16:07	0:26:32	1.65
국회운영위원회	2025-11-06	대통령비서실	10:05:00	24:01:00	0:13:11	0:21:19	1.62
기획재정위원회	2025-10-16	국세청	10:02:00	18:54:00	0:12:32	0:20:14	1.61
정무위원회	2025-10-14	공정거래위원 회	10:12:00	22:54:00	0:17:34	0:28:16	1.61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5-10-16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10:05:00	18:44:00	0:11:25	0:17:57	1.57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5-10-14	중소벤처기업 부	10:07:00	22:43:00	0:14:10	0:22:07	1.56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1	대전고등검찰 청	15:34:00	20:58:00	0:11:45	0:18:04	1.54
행정안전위원회	2025-10-15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10:05:00	20:10:00	0:17:43	0:27:08	1.53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2025-10-15	해양수산부	10:05:00	21:11:00	0:17:53	0:27:16	1.52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2025-10-23	한국콘텐츠진 흥원	10:04:00	18:12:00	0:18:27	0:27:16	1.48
정무위원회	2025-10-28	국가보훈부	10:09:00	20:25:00	0:16:46	0:24:28	1.46
교육위원회	2025-10-28	서울대학교	10:05:00	19:32:00	0:20:41	0:30:06	1.45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2025-10-27	대한체육회	10:07:00	21:22:00	0:23:13	0:33:29	1.44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2025-10-14	농림축산식품 부	10:09:00	22:24:00	0:19:40	0:28:09	1.43
행정안전위원회	2025-10-17	경찰청	10:07:00	20:09:00	0:17:51	0:25:29	1.43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감사시작	감사종료	의원평균 질의/응답 시간(A)	위원장 시간(B)	비율 (B/A)
기획재정위원회	2025-10-29	국가데이터처	10:07:00	19:47:00	0:14:44	0:20:49	1.41
외교통일위원회	2025-10-13	외교통일부	10:12:00	23:24:00	0:20:53	0:29:15	1.4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30	고용노동부	10:10:00	19:25:00	0:20:58	0:29:11	1.3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0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10:07:00	18:54:00	0:19:41	0:27:08	1.3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0:04:00	18:41:00	0:17:16	0:23:09	1.3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17	농촌진흥청	10:02:00	15:54:00	0:11:02	0:14:35	1.32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4	국민연금공단	10:00:00	16:09:00	0:10:42	0:14:07	1.32
행정안전위원회	2025-10-21	경기도	10:06:00	17:56:00	0:15:28	0:20:20	1.32
교육위원회	2025-10-16	한국고전번역원	10:09:00	20:29:00	0:21:21	0:27:53	1.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22	해양경찰청	10:08:00	17:57:00	0:15:03	0:19:34	1.30
보건복지위원회	2025-10-15	보건복지부	10:18:00	21:35:00	0:18:10	0:23:34	1.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2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04:00	18:38:00	0:17:37	0:22:41	1.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30	해양수산부	10:03:00	18:07:00	0:16:24	0:21:04	1.28
기획재정위원회	2025-10-30	기획재정부	10:34:00	23:51:00	0:19:25	0:24:40	1.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28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10:03:00	18:37:00	0:17:46	0:21:55	1.23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7	인천국제공항공사	10:02:00	17:39:00	0:10:42	0:13:09	1.23
정무위원회	2025-10-23	한국자산관리공사	14:01:00	18:31:00	0:16:00	0:18:14	1.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06:00	19:26:00	0:20:47	0:23:27	1.13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3	한국부동산원	10:02:00	19:05:00	0:12:44	0:14:03	1.10
정무위원회	2025-10-27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	10:02:00	22:49:00	0:18:37	0:20:29	1.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10:11:00	19:15:00	0:20:13	0:21:37	1.07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감사시작	감사종료	의원평균 질의/응답 시간(A)	위원장 시간(B)	비율 (B/A)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10:14:00	21:07:00	0:14:41	0:15:32	1.06
기획재정위원회	2025-10-21	국가데이터처	10:00:00	19:56:00	0:14:12	0:14:28	1.02
외교통일위원회	2025-10-28	외교부	10:10:00	22:33:00	0:22:09	0:22:27	1.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부	10:08:00	22:15:00	0:23:43	0:21:42	0.9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20	산림청	10:10:00	18:27:00	0:16:22	0:14:27	0.8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14	문화체육관광부	10:08:00	22:03:00	0:23:53	0:20:57	0.88
기획재정위원회	2025-10-14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0:03:00	20:04:00	0:16:24	0:13:40	0.83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6	한국도로공사	10:08:00	19:43:00	0:13:11	0:10:56	0.83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11-04	성평등가족부	11:10:00	21:35:00	0:17:03	0:14:04	0.82
국회운영위원회	2025-11-05	국회사무처	18:37:00	23:24:00	0:07:27	0:06:04	0.8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16	국가유산청	10:03:00	18:33:00	0:19:24	0:15:42	0.8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3	한국에너지공단	10:07:00	18:18:00	0:19:02	0:14:53	0.78
보건복지위원회	2025-10-2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07:00	18:46:00	0:14:12	0:10:57	0.77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4	한국토지주택공사	10:09:00	22:29:00	0:16:04	0:11:04	0.69
외교통일위원회	2025-10-14	통일부	10:05:00	23:51:00	0:22:36	0:15:16	0.68
행정안전위원회	2025-10-21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19:20:00	21:59:00	0:06:18	0:03:59	0.6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7:00	19:22:00	0:12:06	0:02:30	0.21